

제14회 문예창작 공모전집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여는 글	viii
------------	------

<시 부문>

[사회복지학전공 20202357 정다소] 기어코 여름 (최우수상)	2
[경영학과 20212913 김동훈] 비산 (우수상)	4
[국어국문학전공 20181036 박길수] 배송 실패 (우수상)	5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2 김다은] 윤슬 (우수상)	7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빗소리가 우릴 집어삼킬 거라던 미치광이가* (우수상) 8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첫사랑* (장려상)	9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5 한민서] 장갑 파는 아줌마 (장려상)	10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8 정수민] 어느 날 (장려상)	11
[언론방송융합미디어학과 20182538 안대운] 나무 책장의 안부 (장려상)	12
[법학과 20232711 김용후] ‘나’를 기다리며 (신입생 특별상)	13
[경영학과 20212913 김동훈] 나는 여전히 너의 표정에 눈을 맞추며	14
[경영학과 20212913 김동훈] 유심하게	15
[국어국문학전공 20181036 박길수] 전하지 못한 이야기	16
[국어국문학전공 20181036 박길수] 습작노트	17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8 이혁재] 등불	19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8 이혁재] 바다에는	20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8 이혁재] 행맨	21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역	22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나의 낡은 기억 속 그대들	23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가려지지 않는 슬픔	24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우리의 시간*	25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모순적인 사랑*	26
[국어국문학전공 20191069 이상훈] 파란 봄	27
[국어국문학전공 20191069 이상훈] 흥터	28
[국어국문학전공 20191069 이상훈] 별 무덤	29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파아란 하늘보다 부엌은 저 노을	30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져가	31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기러기 펭귄 범고래	32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생의 아름다움	33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굴러가는 지구	34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마침내 봄	35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비 내린 편지*	36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말려진 편지*	37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편지*	38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2 김다은] 이 밤을 닳아	39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2 김다은] 이제야 비로소	41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5 한민서] 8720원,	42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5 한민서] 달 조각	43
[국어국문학전공 20211064 이송은] 솜	44
[국어국문학전공 20211064 이송은] 낙서-<추억상자>	45
[국어국문학전공 20211064 이송은] 시스투스	46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8 정수민] 눈물	47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8 정수민] 하얀도화지	48
[국어국문학전공 20221022 김지서] 탈리포트 야자나무*	49
[국어국문학전공 20221022 김지서] 무례 속 순백*	51
[국어국문학전공 20221022 김지서] 성년()날*	53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92561 이고은] 메마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55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92561 이고은] 새벽	56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92561 이고은] 구명조끼 없이 인생을 표류하는 법	57
[디지털인문예술전공 20226637 정민주] 그 세상	58
[디지털인문예술전공 20226637 정민주] 백일몽	59
[디지털인문예술전공 20226637 정민주] 계절수명	60
[미디어스쿨전공 20232508 김민서]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61
[미디어스쿨전공 20232508 김민서] 겨울에 느끼는 감정	62
[미디어스쿨전공 20232508 김민서] 그때 그 거리	63
[법학과 20232711 김용후] 내려온 손님	64
[법학과 20232711 김용후] 뜨거운 흔적	65
[사회복지학전공 20202357 정다소] 상실의 편지	66
[사회복지학전공 20202357 정다소] 미라클 심포니	67
[사회학과 20202211 김윤지] 1, 主	68
[사회학과 20202211 김윤지] 012	69
[사회학과 20202211 김윤지] 해피? 투게더?	70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들사랑	71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우주불명	72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푸른 목음	73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네모에게*	74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한 번 죽은 목숨이 질주한다*	75
[생명과학과 20163504 김상민] 책	76
[생명과학과 20163504 김상민] 감정	77
[생명과학과 20163504 김상민] 스무 살 그리고 성인	78
[식품영양학과 20193828 이윤교] 바다가 되고 싶어	79
[식품영양학과 20193828 이윤교] 나의 첫사랑	80
[식품영양학과 20193828 이윤교] 구겨진 귀퉁이	81
[언론방송융합미디어학과 20182538 안대운] 손이 마구잡이로 흔들렸다	82
[언론방송융합미디어학과 20182538 안대운] 우리 욕실엔 물이 떨어져	83

[언어병리학과 20223909 김수정] 반쪽짜리	84
[언어병리학과 20223909 김수정] 가득 차있는 장독대와 장작을 발견한다면	85
[언어병리학과 20223909 김수정] 마지막 여름	87
[의예과 20223909 지윤경] 무색	88
[의예과 20223909 지윤경] 초승달	89
[의예과 20223909 지윤경] 감나무	90
[의학과 20196141 유재영] 지하철에서 거울을 봅니다	91
[의학과 20196141 유재영] 호흡기를 단 삶	92
[의학과 20196141 유재영] 나무를 부러워하며	93
[일본학과 20221634 주하영] 순응	94
[일본학과 20221634 주하영] 송장	95
[일본학과 20221634 주하영] 중희당에서	96
[정보법과학전공 20206410 김시원] 난주에게	97
[정보법과학전공 20206410 김시원] 단둘의 환영	98
[정보법과학전공 20206410 김시원] 습기 있는 사람은 흉터 속에 산다	99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흘날리는 낙엽: 고이 접은 손 편지	100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아장웃음	101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102

<소설 부문>

[법학과 20182767 한재은] 부동의 원동자 (최우수상)	104
[심리학과 20202141 조석환] 서정사(抒情思) (우수상)	114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감정선(感情線) (우수상)	123
[AI의료융합전공 20206523 정수연] 색채 (장려상)	134
[국어국문학전공 20221080 이해은] 미스 리(Miss lee) (장려상)	142
[국어국문학전공 20192561 이고은] 내 최애 대신 아이돌 대타 됩니다	146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8 김준혁] 작은 선인장 베키	155
[국어국문학전공 20211100 최은실] 누군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	166
[국어국문학전공 소설 창작 동아리 소설창작반] 릴레이 소설	191
[사회복지학전공 20212316 김수림]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죽기로 했다	200
[융합소프트웨어학과 M23522 강민혁] 거울	265
[융합신소재학전공 20206639 정충민] 우주라는 꽃밭의 아이	269

<비평 부문>

[국어국문학전공 20221062 우지수] 조개껍데기로 살아갈 용기 (최우수상)	275
[국어국문학전공 20191093 정원화] 용기에는 책임과 풍자가 뒤따른다 (우수상) ...	284
[인문학부 20231036 박선희]	
American Dream, American Nightmare ‘Flower Killing Moon’ (우수상)	292
[인문학부 20231108 홍예원]	
영화 <조커>에 대한 논란과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장려상)	296

<시나리오 부문>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92561 이고은] 초단편영화 <그물> (장려상)	301
공모전 심사평	306

여는 글

올해 열네 번째 한림대학교 문예창작공모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예창작공모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하였고, 2019년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마다 많은 작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에도 시 93편, 소설 12편, 비평 4편, 시나리오 1편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예창작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작품을 출품해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열광하는 이유는 몇 마디만 입력하였는데도 많은 말을 쏟아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공지능이 이를 대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인간이 한 말들을 데이터로 삼아 기계학습을 하여 어떤 말 다음에 나올 말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깊이 있는 사고도, 창의적인 발상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기계와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깊은 사유를 통해 문제를 추상화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고합니다. 또한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다양한 언어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를 나란히 놓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창의적인 글을 쓰는 행위가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문예창작공모전에서는 그동안 순수 창작 작품만을 모집했습니다만, 올해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시도 모집하고 습작노트도 함께 받았습니다. 출품된 몇 편의 시를 살펴보니 역시 시의 본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계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잘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소에 어떤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어떠한 언어표현으로 조탁해낼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 완성한 결과물을 제출해 준 학생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미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능력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져가는 요즘, 문예창작공모전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3 가을
국어국문학과전공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신서인

시 부문

[최우수상]

기어코 여름

사회복지학전공
20202357 정다소

2월의 이름은 동사

순수한 물이 녹는점에서 우리는
등을 맞대고도 추위에 떨었다
겨울의 또 다른 이름은 동사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푸른색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너는 믿지 못할 테지만
모든 사랑은 동사한 경험이 있다
해열제 오렌지 향이 나던 여름만을 주고 싶은 너에게
그 무엇도 사랑을 앗아갈 수는 없어
너를 떠나간 인연마저도 그때의 너에게 보낸 천사의 고요한 구원 같은 거겠지, 한 편의 위로
를 건네고는
나는 버블껌을 씹다가도 앞니가 빠지고
후르츠 캔디를 입안에서 굴리다가도 혀가 베였다

사랑은 번식욕이 불러 일으킨 착각이라는
낭만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가미 없이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
세상이 멸망해 간대도 사랑 시는 철 새 없이 쓰여진다는 사실을 너는 여전히 믿지 못할 테지
만

동사해 가는 2월에도 너와 내가 있는 이 별판에는 멈추지 않는 플루트 소리와 순록의 수레
그거 알아? 플루트는 악기 중에 가장 완전한 사인 곡선에 가까운 음파를 낸대
순록은 80km/h까지의 속도로 달릴 수 있대
서로의 애정과 가장 비슷한 지식을 뽐내며
우리는 우리만의 사랑의 언어를 내뿜으며

누가 우리 속에 이 많은 구원을 심어 놓았을까?
우리는 동사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아
아무리 따뜻한 사람을 만나도 이승의 사람이지

죽은 사람의 살아 있는 온기와 살아 있는 사람의 죽은 온기 중 어떤 것이 따뜻한지 알고 싶어

핑퐁을 치듯

절정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라는 듯 우리는

영원히 동사하지 않는 2월의 여름에서

[우수상]

비산

경영학과
20212913 김동훈

젊은 목수는
밤새워 깎은 마음인데
나무 거스름이가 시려서
절단기를 내렸다

조팝나무에 소맷귀 걸린
한 울에 풀어지는 마음
메아리는 뒷산을 돌아
곶등에 머금는다
그럼에도 너를 위로해야지

깃든 마음이 비산하는 저녁
초연하지 못했다면
거스름이도
한 울에 풀어진 마음도
메아리도
모두 밤새워 깎은 마음이겠지

[우수상]

배송 실패

국어국문학전공
20181036 박길수

수많은 고뇌를 미끼삼아
낚시를 시작

다양한 고기를 찾아
낭만을 찾아
굽이굽이

어장 속
언어의 몸부림

세상 밖을 나가려는
단어와 단어의 교통체증

마침내 낚은
행복 바람 다이빙

오늘의 횡감은 다이빙으로

단어를 손질하며
살아있음을 느껴

‘전국 산지 직송 가능’

횡감이 상하기 전
빨리 회를 떠야한다

인생은 다이빙

우리 모두는
태어나자마자 다이빙을 한다

다만 80년이란 세월 동안
천천히 수면 아래로 떨어질 뿐

게임 잠 담배 섹스 음식 등
평생 참고 살다가

결국 모두 바닥에 닿는다

.
. .
. .
. .
. .

아,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도중
회가 상해버렸다

[우수상]

윤슬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2 김다운

일렁이는 고독이 널 덮치려거든
반짝이는 물결로 널 안아줄게

우리가 어설피 색깔로 섞이더라도
별도 들지 않는 저 깊은 바다로 숨겨 놓고

구태여 널 꼭 찾아갈 거야

작은 물고기가 유영하는 저 물결에
너의 눈에 비친 저 달빛을 투영하면

무엇보다 빛나는 윤슬로 찬란하게 반짝일 거야

녹녹하고 텅텅한 마음이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빛을 볼 거야

[우수상]

빛소리가 우릴 집어삼킬 거라던 미치광이가*1)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어제 죽었다
맞아 죽은 거다,悲哀

온몸이 불어 터진 주검이
거리 곳곳에
장례식은 물바다
아니, 장례식 밖에서도

오래 마르지 않을 거다
여긴 물의 행성이니까
영원히 슬퍼할 테니까

1) * 표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시. 이하 동일.

[장려상]

첫사랑*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그저 꿈으로만 너를 마주한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좀더 용기가 내어 망설이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결말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지만
결국 꿈에 깨고 나면 들리는
너가 나에게 했던 말
‘꿈같애’

다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잠이 들며
나도 다시 혼자 중얼거린다
‘꿈같애’

[장려상]

장갑 파는 아줌마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5 한민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요즘 날씨 장갑 필수잖아 골라 골라
흰색, 회색, 검정색

열차 내에서 물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장갑 벗을 필요없어
스마트 터치되는 장갑이 5000원
2개는 9000원, 아따 싸다 싸

열차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은 이번 역에서 하차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갑을 현란하게 흔들며
냅다 들이밀는 아줌마

아이고, 언니 이거 한 번 껴봐 따듯하다니깐

울리는 안내방송에도
호객행위는 끝이 없다

아이씨,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장갑이 수 많은 사람을 비껴나간다.

언니, 너무 잘 어울린다!

내 무릎에 장갑이 떨어졌다.
아줌마가 다가온다.

아. 그냥 내릴걸

[장려상]

어느 날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8 정수민

밥을 먹는다. 쌀과 멸치로만 구성된 밥상은 단출하기 짝이 없다. 겨우 반절만 찬 공기에 나무 손가락을 둔탁하게 부딪혀 쌀알을 담는다. 생긴 건 제각각인 것이 서로 엉겨붙어 흰 덩어리를 만든다. 멸치의 바삭함과 끈적이는 밥알을 입으로 동시에 넣어 오묘한 식감을 만든다.

시계를 바라본다. 시계의 시침은 숫자 7을 가리킨다. 문득 낡은 노트를 펼쳐본다. 바랜 종이를 잡은 손가락 위 선명하게 쓰인 숫자 8, 텅빈 한 시간이 많은 듯 적은 듯 자연스레 흘러간다.

옷을 입는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묻은 스웨터. 색이 바랜 스웨터 위 보풀이 거무칙칙한 장판 아래로 툭 떨어진다. 코 끝을 스쳐지나가는 바람따라 장애물을 가로질러 흩어간다. 지나간 세월을 증명하듯 느슨해진 옷이 커져버린 몸뚱아리에도 잘 들어간다.

길을 걷는다. 저벅저벅 느린 걸음으로. 길 위 무성하게 깔린 조약돌이 오른발에 밀려나 저 멀리 날아가 부서진다. 덜덜거리며 달려오는 덤프차가 깊게 파인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간다. 바지 끝자락에 맴돌던 검은 얼룩이 흰 양말을 검게 물들인다.

벤치에 앉는다. 찬 공기로 매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인다. 금세 스며든 바지소매를 아무렇지 않은 듯 접어올린다. 눈을 감고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을 바라본다. 떨리는 속눈썹에 매달린 이슬이 흔들린다. 컵볼을 타고 흐르는 숨결이 내게 미소를 전한다. 입꼬리를 슬며시 올려본다.

[장려상]

나무 책장의 안부

언론방송융합미디어학과
20182538 안대운

어느 날 나무 책장이 말을 건넸다

“우린 한 겹 한 겹 결대로 살아요.
일정 간격으로 자라다 가도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위축되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 그을리기도 하면서
혼자가 아닌 게 좋아요
모든 같이 하니까요
다닥다닥 옆에 붙은 온기로 말이에요.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요?”

[신입생 특별상]

‘나’를 기다리며

법학과
20232711 김용후

도망쳐 달려왔습니다.
뒤 보지 못하고
쫓기고 쫓겨 달음박질했습니다.

세차게 내달렸지만
숨이 턱 끝까지 차서
곧 멈춰 섭니다.

선 채로 가만히 보니
내가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고개를 돌려보고, 멀리 내다보고, 속을 들여다보아도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이젠 없습니다.

스쳐 가는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은
낯선 책에 기록되듯
내 품을 떠납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지난 기억을 대신하여
옆에 핀 풀꽃을 놓아봅니다.

흐르는 바람처럼 나는 갔지만
다른 봄의 미풍이 되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길었던 겨울의 끝에
익숙지 않은 봄이 오듯

빈자리에 내가 아닌 ‘나’가
자리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리를 닦으렵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표정에 눈을 맞추며

경영학과
20212913 김동훈

얼음이 춤을 추는 잔엔
흘린 피만 담겨있고
모두 녹아내린 후에는
묻어진 어제의 파동만

어떤 만남을 위해서는
두 페이지 정도가 필요한데
착각으로 소각되는 분초와
폼사로도 품어지지 않는 것들에
오탈자를 증인으로 세워두고
신랄한 펜촉으로 선고한다

과녁에 눈을 가득 맞춰도
나침반은 바깥쪽만 가리킨다
너는 기민하기도 하지

눈을 반쯤 감으면
몇 걸음 안에 네가 있고
뒷걸음질엔 내가 있다

봄엔 사랑거리는 날말로
여름엔 씨르륵 거리는 날말로
가을엔 사부작 거리는 날말로
겨울엔 뽀드득거리는 날말로

사랑은 창틈에 흘러들어온 은행잎처럼
가장 깨끗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다가
어울리는 구절 속 책갈피로 꽃힌다

유심하게

경영학과
20212913 김동훈

꽃다발과 풀덤불과 함께
품에 가득 너를 안고 싶어
네 살냄새와 녹음이 한 아름

태양이 우릴 삼켜줄 거야
모두 녹아버릴지라도

바닥을 뒹굴자
흙먼지를 털어주고
도깨비풀 하나씩 떼주는 거야
한 꼬집씩 야금야금
사랑을 속삭이자

떨어지는 낙엽은
담은꼴에 붙여주자
우리도 그러자
담은꼴을 위로하자
다른 꼴을 사랑하자

전하지 못한 이야기

국어국문학전공
20181036 박길수

너무 미안해하지도
울지도 마

커다란 형체에
드리운 그림자는

어둠이 아닌
그늘이었어

다리에 쥐가 나도
모른 척 해주어 고마워

가끔은 내가
짐이 될까 두려워

억지로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하기도 했어

고된 하루 끝
또 다른 세계로의 산책

너에게도 달콤했길

너보다 빠르게
주름이 졌지만

너 앞에선
한없는 아이일 뿐

우리 다음에는 꼭
이야기해보자

습작노트

국어국문학전공
20181036 박길수

153 0.7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물건
300원으로 그릴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

어른
출구 없는 터널
브레이크 없는 고속도로
접혀있는 사이드미러

한국
차에서 태어난 아기는
울새도 없이 운전석에 앉았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네비를 따라 앞으로만 간다

나
낮설게 하다가
내가 낮설어졌다

우문현답
일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청춘
끝난 줄만 알았던
우리의 청춘은
터널을 나온 뒤 시작이었다

버스기사의 인사
카리스마 있게
‘안녕’

기록

한계를 넘어
한 개 더

등불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8 이혁재

너울너울 흔들리는 낡은 등불
푸르스름하게 덮인 녹은 관록이
아니고 꽃내음을 따라 움직이는
내가 만들어낸 엇갈린 길

먹으로 뒤덮인 그림 속에서
가장 빼어난 것은
실수로 그어진 사선
그 사선을 따라...

백야에서 내 것은 없으나
가장 더러운 것이
눈을 멀지 않게 하였다
등불이 다시 켜진다

살랑살랑 껌뻑이는 낡은 꽃
새빨갭게 자신을 드러내며
결말을 알면서도 산화하는 그
길을 거꾸로 걸었다

바다에는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8 이혁재

바다에는
하늘과 맞닿은 물감을 풀어
천연하게 세운 탑이 있다
낮게 솟아오른 탑으로 모두가
의연하게 오르기를 원한다

나는 질문을 던졌다
어찌하여 이 탑을 오르십니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아니, 애초에 나의 존재를 모르는 듯했다
저들은 자처하여 심해로 가고 있다
초점 잃은 눈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인가
끝에 서 있을 곳은 어떤 낙원인가
많은 이들은 그곳을 보지 못하고 되돌아온다

나는 관찰자로서 매순간 탄식을 삼킨다
푸른 봄들이여 바다는 그대들의 하늘이 아니다
황무지에 꽃을 피워라 이것이 그대들의 탑이다

행맨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8 이혁재

그는 언제나 이곳에 있다
그는 열 두 번째 해를 보냈다
그는 벽을 보고 있다
그는 담쟁이가 흰 것을 보았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손을 만졌다
그는 창문 너머 단풍을 즐겼다
그는 시들어버린 화분을 치웠다
그는 또 다시 기도한다
그는 또 다시 쓰러진다
그는 걷는 법조차 잊었다
그는 언제나 이곳에 있다

역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출발과 도착은
희망과 실패, 만남과 이별, 웃음과 눈물
수많은 사연과 감정, 시간이 교차한다

당신과 나 또 다른 나와 당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야기는
한 장의 기억이 된다

이 곳에 어떠한 나를 두고
이 곳에 어떠한 당신을 두고
기약 없는 약속을 한 채

흘날리는 가을바람과 함께
열차를 타고 떠나간다
아름다운 순간이다

나의 남은 기억 속 그대들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들은
엄마와 함께 명동을 가려고 탔던 버스 안의 기억
맞벌이 부모님을 밤늦게까지 유치원에서 기다리던 기억
내가 아파 과속을 하다 단속에 걸린 아빠에 대한 기억
주사를 맞기 싫어 발버둥 치는 날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에 대한 기억
언덕에 굴러 도랑에 처박힌 날 달려와 꺼내준 아빠에 대한 기억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옆에서 날 간호하던 엄마에 대한 기억

.
. .
. .
. .
. .

나의 남은 기억 속 매 순간 그곳에는 그대들이 있었다,

가려지지 않는 슬픔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20년 11월 10일과 21년 6월11일
팔과 발에 새겨진 흉터는
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21개의 쇠붙이, 15개의 쇠붙이
무너진 왼쪽과 마음을 겨우 지탱하고
내 마음과 생각은 절망과 우울이라는
늪 속으로 빠질 뿐이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빠질 뿐
결국 난 절망과 우울 속에 묻힌다
흉터는 내 상처를 잊혀지지 않게한다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한다
그저 하얀 천장만이 날 맞이한다

우리의 시간*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오밤중에 나눴던 이야기들
이른 미래를 걸고 점쳤던 그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한편으로 마주치고 싶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은 옛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별 시답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로
웃음을 지었던 청춘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아름답고 강렬했지만 너무나 짧았던 우리
이 순간도 지나면 하나의 그리움으로 기억 되겠죠
난 잘 지내고 있어요

모순적인 사랑*

국어국문학전공
20191006 고진현

난 신발을 꺾어 신지 않고 제대로 신는다
난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한다
난 레몬사탕보다 초콜릿을 좋아한다
난 커피보다 음료를 좋아한다
난 전화보다 문자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넌
신발을 꺾어 모든 신고 겨울과 레몬사탕, 전화, 커피를 좋아한다

이제
난 신발을 꺾어 신는다
난 여름보다 겨울을 좋아한다
난 초콜릿보다 레몬사탕을 좋아한다
난 음료보다 커피를 좋아한다
난 문자보다 전화를 좋아한다

꽤 변덕스런 사랑이다

파란 봄

국어국문학전공
20191069 이상훈

얼굴에 노을 묻히고
작게 영원을 속삭이던 때

서로를 대신하겠다며
어리숙한 약속들이 포개어졌지

말과 말 사이 잠깐의 침묵도
음악으로 여기던 날들

나 그렇게 푸르렀던
지금은 사라진 계절

흉터

국어국문학전공
20191069 이상훈

기억마다 그대 생각나
외면하려 뒤집어 놓았다

기억 뺏면 오른쪽 아래엔
그대 이름 적혀있었다
나의 글씨체로

별 무덤

국어국문학전공
20191069 이상훈

호수가 뭐냐고 내게 물었다
아픔을 깊이 담는 곳이라고
나는 말했다

별에 손을 뻗던 너를 위해
우린 호수를 걸었고
너는 물결 사이 흐른 별들을 어루만졌다

더 이상 낙오된 별들이 보이지 않자
너는 젖은 눈으로 나를 봤고
난 호수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았다

결국 너를 품은 호수에게
나는 매일마다 물었다

호수야 너는 왜
모든 아픔을 담으려 했었냐고
그리고 어째서
조각난 우리를 담을 자리가 남아 있었냐고

파아란 하늘보다 부웁은 저 노을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아, 애달프다
얼마나 길어야 물비늘을 볼 수 있을까

안전한 거리를 떠올려보려 선과 닿으려 악을 써도
그 깊은 마음 한 켠을 끝내 잃는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위의 물 속의 발길질이
세상 밖으로 전부 날날이 파헤쳐지는 순간

얼마나 쓰잘데기 없고
사거리 길거리에 내던져진 속옷같은 순간

애달아 아프다 보면 잠깐 앉은 벤치 사이로 보이는
빛섬망 한 조각을 진통제 삼아 꿀꺽
차오르는 분노를 목구멍까지
억지로 삼키어 내어 기대의 날선 악치를 짓누른다
물녹는 솜사탕 같으면 좋으련만
억센 나무뿔이 다으슬릴 정도로 아파야지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요동치는 것을 값새로 매긴다면
불쩍거릴 수도 없이 설틈도 없이
스스로 배쪽거리다
꺼져버리는 나날이 올거니까

이성이 감정을 먹는 건
때때로 더욱 산란하여 더욱 높고 파랗게
감정이 이성을 먹는 건
모순적이게도 비교적 긴 불그적적한 빛이
찬란한게 물비늘치는 노을을 보여준다
빛을 잃었던 달이 빛을 차곡차곡 모아
희미하게 밝아질때까지
아, 애달퍼라

젠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울퉁불퉁한 지면 위로 블록을 쌓아 올린다
탑이 무너지면 게임에서 지는 것이라고 하니 견고히 올린다
그 옆 사람이 평평한 평야 아래를 보며 블록이 내려지는 건
불공평이라는 내 블록이 뿔힌다
한결같은 중량 목재가 심전(心田)부터 올라오는 열기로 온몸 전체에 휘몰아쳐
진다

물 먹은 걸레처럼 심장이 요동치지 않는 건
권태감이라는 블록과 질시의 블록이 기탄없이 뿔힌다
결국, 옆으로 치대다 고꾸라
진다

그런데 그 옆의 사람은 소나무를 베어 한들한들 사포질한다
툽밥이 수북이 쌓여 어지럽혀지더라도 발로 뺨 하고 차
버린다
완성된 그의 블록들의 기저들은 애매하게 버티지 않는다
젠체하거나 통탄없이 블록이 콕 박혀서 뿔 블록을 짓
이긴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지면 한번 만져보고
시멘트조차 없는 네 울썩불썩한 모래 지면을 쓱 쓸어본다
한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권태감과 질시 그리고 불공평 모두 뺨하고 차
버린다
중량 목재를 관조하며 필요한 부분만 채워 깔축없어 콕 짓
이긴다

기러기 펭귄 범고래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7 김준민

행복을 위해 숨 하나가 꺼졌다
그는 펭귄이 될 거라고 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지나가는 어린 개를 보며 활짝 웃는다
스쳐 가는 갓난아기가 행복해 보인다

혹시 너일까 싶어 친절한 시선을 보내본다

부질없어도 간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얼핏 보이던 수많은 낚시줄과 동아줄이
끝끝내 뭐하나 잡을 게 없어 놓쳤나 보다

말이 없는 너의 식탁에 약간의 원망과
유광이 나는 기억을 정성스럽게 차려본다

바람을 빗금 지어 치아 사이로
사랑의 말을 내뱉던 숨소리가 떠오른다

면면히 산채를 잘 참아내었는데
실핏줄 툭 터지듯 보고싶다

현이 말총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서슬 퍼런 현악기의 음계만 울려 퍼진다

연말에 새와 고래를 보러 바다에 가야겠다
희망을 가득 품은 남극도 가야겠다

인생의 아름다움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인생의 아름다움

싱그럽던 봄의 꽃으로
화사하던 마당의 별으로
노란 잎을 물들이다

뜨거운 여름의 태양으로
내리는 빗물의 촉촉함으로
붉은 잎을 물들이다

그렇게 여러 색을 입혀
알록달록 물들여진
계절과 세월을

하얗고 희던 그 시작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굴러가는 지구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지구 한 가운데로 모이는 세상
너는 왜 저 너머의 빛으로 향하는가

동그란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자
끊임없이 위로 달려가는 사람들

헛바퀴를 굴리는 삶을 택하는가
커다란 공 위에서 중심 잡기를 택하는가

삶에서 치열함은 선택인가 강요인가
쉬어가는 너는 오만함인가 이상적인가

마침내 봄

국어국문학전공
20201039 박민경

마침내 시린 계절이 끝나고
따스한 햇살이 손끝을 스친다

꽃들이 단장을 시작할 때
종이에 마지막 문장을 새긴다

아름다운 계절에 마무리하는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 되기를 바라면서

마침내 한 생을 끝낼 준비를 마치고
수많은 실패의 끝에서 용기를 내어본다

비 내린 편지*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똑똑, 흰 커튼 너머 창을 두드리는 소리
빗방울에 젖은 한 낙엽이 바람에 떠돌다가
투명한 눈동자에 살며시 달라붙는다

붙어진 손으로 편지를 붙잡으려
몸을 구부리지만
그리움을 담아 쓴 편지가 빗물 속으로
사라진다

써 내려간 글씨를 멍하니 지워
거친 풀칠에 마음이 열리고 달힌다
초조한 시간만 야금 갇아먹는 밤이
움직이지 않기를.

별이 무채색을 머금은 채
다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숨겨진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비에 흘러간 낙엽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말려진 편지*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흐릿한 어둠이 편지를 감싸 안아
마음에 간직한 초성들이
태양 주위로 하나둘씩 모여
나 자신도 모르게 충돌한다

실은 알고 있었을지도
빛이 나는 눈동자에 멀어
하나의 줄을 꼭 붙잡았다
놓치지 않으려 눈을 감은 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작은 나그네 우체통,
마을 골목 한 켠에 서 있다
그 옆에 있는 공중전화처럼.

그 속에 담긴 마음은 시간을 당겨
편지 속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늦어지는 건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을 뿐
그의 손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편지*

국어국문학전공
20201105 최영서

새빨간 우체통은 자신을
쉽게 보여주지 않아
입을 닫은 채로
묵묵히 서 있다

그의 마음을 열기 어렵다
작은 창으로 그 세상을 열 수만 있다면
편지 봉투에도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면
나 홀로 손톱만한 글씨를 써내려갈텐데.

한순간의 반짝임
별빛이 쏟아지는 날에도
눈을 마주하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보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쓰는 속도는
반비례하지
전하고 싶은 마디가 줄줄이 이어지니
큼지막한 글씨는 작고 길게 만들어
그에게 보낸다
하나의 줄로 이어지기를.

이 밤을 닮아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2, 김다운

땅 끝까지 비참한 기분이었어
너와 내가 편의점 맥주를 마신 그날 밤 맞아

너는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너의 미소 한 번에 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건

착각이란 걸 알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관심 없는 척 했지
그치만 눈치 빠른 너에겐 분명 티 났을거야

너는 모른 척 하고만 있었겠지
너에게 고마워해야 할까 너를 미워해야 할까

잔잔한 사랑을 꿈꿨던 난데
너만 보면 거세게 일렁여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왜 자꾸 모래가 날 가로막는지 몰라

용기 내 마음을 고백한 그날 밤
급한 일 있다며 황급히 일어 선 널 보내고
빛 한 점 없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말야

너의 짙은 향수 냄새가 내 옷에 배어서일까
너와의 추억이 내 향수를 불러일으킨 걸까
자꾸만 가슴이 아려와

나의 향수 냄새는 우디한데
너의 향수 냄새는 한 없이 달콤하기만 해
그래서 어울리지 못했던 걸까

내 마음은 이 밤을 닮아

컴컴한 어둠 속 저 별만큼의 희망을

너는 내게 이 밤을 닮아

컴컴한 어둠 속 저 달만큼 밝게 빛나

이제야 비로소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2, 김다운

엄마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평생 나만을 위한 삶이라
투덜대던 바보딸
이제는 어떤 다른 말보다
엄마소리 크게 한 번 부르고 싶어요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엄마의 삶

딸아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평생 자식만을 위한 삶이라
남 부러울 거 없이 행복했던 엄마란다
이제는 어떤 다른 말보다
네 이름 크게 한 번 부르고 싶단다
이제야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소중한 딸 마음 간직하며

8720원,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5 한민서

푸석한 원두가루가 몸에 붙어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
시원한 바람조차 씹쓸한 향기를 스치듯 도망가고
몽글하게 떠오른 달빛 사이 몇 안 되는 별 가루
여린 그림자 비추며 슬며시 반짝인다.

힘 빠진 걸음으로 풀내음 몸에 새기면
찌든 원두가루가 토해내듯 잡아먹는다.
손톱 사이에 숨은 때들을 밀어보지만
귀귀한 찌꺼기들이 들러 붙어
재떨이 속 담뱃재마냥.

시린 김 후 불어보지만
전봇대 아래 타오르듯 날아가는 연기
입 안을 행구고 싶은 짧은 맛에
발걸음을 재촉한다.

다 헤진 신발짝을 던지듯 벗고 들어서면
켜켜이 쌓인 적막이 나를 잡아먹을 듯
뒤를 돌아보지만
이미 잡혀버렸다.

열게 붙은 색조를 뒤로 한 채
멀리 듯 들어오는 꿈을 붙잡는건,

또 다시 나는 찌꺼기 속에 빠져버린다.

달 조각

국어국문학전공
20207005 한민서

밤하늘 공허한 듯 처량한 달 조각
여린 빛을 내던 별들이 떠나고
어둠만이 남은 이곳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
조각난 달의 마음을 모르는 듯
술을 동여매고 춤만 춘다.

버려진 그림자가 달을 따라
말라비틀어질 듯
선명하게 빛을 내도
그 바랜 자국은 흐릿하다

달 조각 하나만 밤하늘에
조각난 달이 밤하늘에

숨

국어국문학전공
20211064 이송은

시멘트 위 하얀 숨
바람에 치여 뿌연 먼지 먹고
이리저리 훑날리며 가는 길

멀리서 다가오는 철제
짐승과 하는 숨바꼭질

검은 구슬에
누구를 비춰야 할까요
저를 버린 당신?
저를 보는 당신?

짙은 명울을 남기고
얼룩진 구슬
그 너머 고인 웅덩이

사랑을 찾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줄..

낙서 -<추억상자>

국어국문학전공
20211064 이송은

열어지는 책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무지개가 있다

오래 묵혀놔다가 가끔 꺼내먹는 간식

기억의 날씨는 맑음이었고

놓지 못한 또 다른 끈으로 너를 묶고

행복의 종이 뭉치를 찢어지지 않게 펴보면
지워지지 않는 주름들이 잔뜩

흔한 사진 한 장 없이 그저 기억 속으로만

----- .

시스투스

국어국문학전공
20211064 이송은

사랑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바쳐 이 한 몸 불사르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하얀 나비가 되어
달지 못한 영역에서
세상을 높이 보고 싶네요

다음 생에는
당신과 함께 태어나
용암의 불구덩이에서
영원을 약속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불꽃이 서서히 집어삼키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평생 그대 하나만 사랑할 것을
다음 생에도 맹세합니다

눈물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8 정수민

얇은 가지에
위태롭게 매달리고,

투옥
하고 떨어져 언덕을 미끄럼 삼아
어둑하게 지나간다.

너의 가느다란
솜털의 방향을 따라
물기어린 수선화를 머금고 지나간다.

촉촉함을 머금고 세상을 투명하게 비춘다.

가파른 낭떠러지에 도달했을 때야
나는 고요한 어둠 속으로 떨어져 살며시 스며든다.

툭
툭툭
투--옥
하고

하얀도화지

국어국문학전공
20211088 정수민

하얀 도화지에 물결을 그린다.
색이 붓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인다.
색상의 공간 사이에 새롭게 나타나는
따스함, 혹은 서늘함.

누군가 무심코 건드린 물통이
도화지 한 가운데에 쓰러진다.
점점 휘몰아치듯 차오르는,
오묘함으로 희미하게 번진다.

하얀도화지가 검게 물든다.

탈리포트 야자나무*

국어국문학전공
20221022 김지서

구멍을 가지고 싶은
절망切望이 있다

봄이면 곳곳 죽음이 만개한다 나보다 훨씬 어린 얼굴들의 (···) 아가들아 어찌다 그리 죽음을 눈
앞에 두었니! 두었니! 두었어!

다급한 물음 가지 끝에서 나의 시작을 지켜보면서 새파랗게 새파랗게 꿈꾸었던 끝이 배신당함
을 봄과 함께 보는 것이지

너희들은 봄이 오는줄 어찌 그리 잘 아느냐고 묻는데

봄이란 무엇이니 네, 봄엔 생명들이 피어나고 분홍빛이 새싹들이 파릇아릿한 아가들이 돌아가
고 웃고 신이나고 콜록거리는데요

분홍빛으로 만개하고 꿀을 품고 삶을 끝내고

단추를 남기고 (···)

그런다지요 봄은 그렇답니다 모르셨나요 모를 리가 없죠? 한 노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고목
이 되어놓고 그러실 리가 없죠 믿습니다, 그 이후로 호탕한 웃음 소리

그럼 되묻는다 나는
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상은 나를 기다렸고 내 세상엔 색을 잃지 못하는 절망絶望이 있단다 파
라고싶지않아도늘푸르고 여린살갗을잃고고목이되어 너희가죽었다피어나도 너희가피었다죽어나
가도

단추가 되고 싶다 나는, 난 봄과 익숙하지 않아 너희에겐 봄이 죽음이라서 시작이고 나에겐
봄이 온다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엔딩이고 커튼콜은 없고 혹시 모르지 내 깊은 뿌리가 보배를
베푸실지는

그리고 그때, 이 작은 꽃도
끝내 감사한 눈길로 살며시 서러워할 텐데

그거 아니
절망絶望과 절망切望은 같은 말이지 몰라

되고 싶습니다

네 개의 구멍을 가진

등그런
결론이

무례 속 순백*

국어국문학전공
20221022 김지서

구름 한 점 없는 외로운 창공
파도치며 멀어지는 무한한 무례
넒따란 품이 높다란 염원을 끌어안고 있었다
어찌나 소란스러운 파도인지

경계에 고인 거품들
저마다 느릿이 호흡한다
부풀었다
터
졌다
어찌나 소란스러운 호흡인지

저마다 뛰어오르는 사람들
저마다 하얗게 몸을 불리고 붉게 몸을 불리고 녹빛으로 몸을 불리고 상아색으로 몸을 불리고
저마다 멀어져가는
어찌나 소란스러운 인기척인지

그 속에 그가 다가온다

그렇게,

망설임 없이 내 앞에
크
은
몸을 앞힌다

야 야 뭔데, 너는 언제
야 야 뭔데, 넌 뭘
그의 얼굴을 보고자 그를 불러보지만
새하얀 등은 영 점잖을 잃을 줄 몰랐다

내게만 보인 새하얀 등은
순백을 가졌을 듯한 얼굴은
숨을 고르고 망설이다가

겨우
맞을지도 맞지않을지도 모르는 아슬함
나를 어긋나

툭,
떨궤졌다
순수한 시선이 비뚤어지고
그의 우직한 목소리는 다시
꿀꺽
삼켜져서

그가 가진 적막마저도

이었다

고개 들어 올려 본 하늘
딱 구름 한 점이

성년() 날*

국어국문학전공
20221022 김지서

난 잘 때엔 꼭 왼쪽으로 돌아누워 잠들었다
난 웃음을 지을 때 꼭 눈을 심히 감었다

왼방을 알아도 오른방을 모르고
이 온도계는 이마에 꽂는가? 이 손으론 귀를 짚는가?

열이 오르는 것은 얼마만 한 온도이고
내 손이 얼마나 귀를 덮어야 열을 재기 적당하고
이마의 어느 구멍에 온도계를 꽂아 마음을 재어야 하는지

그거 알지, 죄송하기보다 감사해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
이것은 귀에 꽂는 것이고
열꽃 핀 네 이마는 내 손이 짚어주리란
누군가는 당연히 보이는 연쇄들에 무지함을 죄송해하지 말라는 걸 말이야

당신은 나와
칠천삼백 번째의 포옹을 거뒀다

너는 어떻게 나를 그리 대해?
그럼 너가 답하기로는 웃음과 함께하며
너가 너를 그리 대하게 해
너를 사랑하게 나를 대해 너는

너는 자꾸 나를 무지하게 했고
나는 너로 하여금 순정에 반한다는 말을 평생 품게 되었고
그리하여금 나는 아직도 쓸 줄 모르는 온도계를 쥔 채, 입에 머금어보거나 한다

불긋한 세월이 혀를 발화시켰다

굳센 사랑을 맞이하고서야
너의 연륜은 모든 것이 시도임을

네 오른방의 온도는 얼마만 할까
뜨거워 타 죽지는 않을까

나의 것은 가운데보다 한참 왼쪽으로 기울어져 왼켄의 방만이 둘이라
난 차마 너의 옳은 것을 그른 마음으로 읽겠더니 했는데

끌어안고서야

그래.

알았다.

우리란 하나의 커다란
왼쪽으로 뉘인 몸
너도 왼쪽으로 돌아누워 자는 사람이구나
네가 오른 방이 되어줄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구나

그래, 배웠다.

발화해야 함을.

발화를 배우기 위해

그의 귀를 문질렀다. 나는 이렇게 열을 재어보았다고
노오란 물이 고인 커다란 귀를 자꾸만
너의 모든
농- 이 되겠다 시도한다, 눈짓 대신 발화로
칠천삼백 그리고 하루의
그것이 나의 오른 걸음이겠거니 배우면서

메마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92561 이고은

휴지가 아니면 종이였다. 뜨는 바람에 이리저리 힘없이 날리는. 말아진 손아귀에 너무나도 쉽게 구겨지는. 조금이라도 자신을 감싸는 체온이면 철석같이 손으로 달라붙는다. 나약한 몸뚱어리는 젖음과 동시에 천천히 무너져 내린다. 종국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지러진다. 살짝만 찌르고 눌러도 끔찍하게 토해지는 물들.

메마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억지로 말라버린 것들은 바싹바싹 메말라 간다 불품없게 쭈그러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삶.

동경하는 모노톤의 갱지는 잉크에 번지지 않는다. 상처받아 번질 일 없는 메마름에 대한 열망. 찰나의 동경을 흉내 내었다. 그러나 거칠거칠해 아무리 써 봐도 갈 자리를 이탈하는 펜촉과 힘껏 눌러 써 내리면 금세 벗겨지는 살갓. 나약한 것들의 삶은 으레 그렇다.

새벽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92561 이고은

나는 벌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곧잘 하고는 한다. 항상 옷들을 뚫어지라 쳐다보고—그러한 행위는 관찰 내지는 검사이다—이불 끄트머리를 잡고 손으로 쓸어내고 몸을 웅크리고 탁한 공기로 호흡한다. 퀘퀘함은 계절의 순리를 무시하고 4평짜리 좁은 공간을 불모지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숨 쉬며 죽게 한다. 눈을 감으면 꼭 벌레들과 공생할 것만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든다. 짓궂게도 혐오스러운 대상은 눈앞에 어른거리며 그것은 꼭 벌레가 아닐지라도 벌레와 다르지 않다. 나의 이야기는 결론이 없고 이것은 단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괴상한 회고일 뿐이다.

구명조끼 없이 인생을 표류하는 법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92561 이고은

내가 가장 용감하고 치기 어리며 자유로운 물고기 같았던 2014년
무엇이든 많이 읽고 끄적이길 좋아했던 나는 문예반 동아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라는 시를 지어 동아리 내 시 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다
나는 그 시를 전시 작품으로 만들 때 꽤 심혈을 기울였었다
바닷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호흡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그리며
그렇게 나는 활자 사이를 헤엄치곤 했다

그러나 나는 지느러미를 잃고 바닷속에 잠기어 버린다

4년 뒤 나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그에게 완전히 좌절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다
더는 헤엄칠 의지와 힘을 상실한 물고기에게 남은 건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이다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 준다
이것이야말로 '때를 놓친 사랑은 재난'이라는 완전한 수몰 지구²⁾가 아닌가
그러나 나는 이 재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한다
증오를 깎고 애정만을 남기기로 한다
만물을 품는 바다처럼
한없이 자애로운 바다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파도도 결국에는 바다이리라
어딘가 부서져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느러미 없이 꼬리로만 헤엄쳐도 좋을 것이다

2) 전윤희, 수몰 지구

그 세상

디지털인문예술학전공
20226637 정민주

당신을 더는 만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의 이별은 더 이상 만남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세상에 있을 당신을 멋대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지
그 세상의 그 존재가 당신이 맞을 지
이 세상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얀 천이 당신의 마지막을 가리었을 때
이 세상에 당신이란 사람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이란 사람을 지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신의 걸음을 기억하려 합니다
이 내 기억이 당신의 유일한 흔적이라면
당신의 흔적을 내가 안고 가려 합니다.

짧은 생의 짧은 기억을 안은 채
감히 그 온기를 줄곧 기억하려 합니다.

백일몽

디지털인문예술학전공
20226637 정민주

하늘에 새겨진 구름에 살포시 손을 겹쳐 드리운다
푸른 것이 유영하는 이 곳 꿈일까 환상일까

청람이 흐드러져 아름다운 광경에
마음이 울아가 손을 뻗으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간절히 채우고 싶음에
달지 않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만 싶어 진다.

알고 있다 꿈의 틈새를
두 눈 앞 펼쳐진 허황된 기대를

알고 있다 꿈의 틈새를
또 다시 매이고 멈춰선 두 발을

알고 있었다 꿈의 틈새는
이 모든 것들은

만지면 사라질, 깨우치면 사라질
다시 안고 품으면 사라질
그런 환상이라는 걸.

계절수명

디지털인문예술학전공
20226637 정민주

흘러가는 시간 속에 피어나며 지고
이어지며 사라지길 반복한다

변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있었을 뿐
어느 순간 변화하는 것들을
지켜보았을 뿐

마치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계절의 수명을 재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미디어스쿨
20232508 김민서

내가 놓친 것들

바쁜 세상 끝에서 헤매다 보니
놓쳐버린 순간들이 있네

아침에 들려오던,
새들의 노랫소리

새벽 별들이 어둠을 밝히던,
작은 별들이 스쳐가던 밤 하늘

사랑하는 이의 미소,
나를 행복하게 만들던 그 미소

무엇보다 가장 챙기지 못했던 나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고,
놓친 순간을 후회하며 울고 웃지만,

또 다른 날이 밝아오면서,
우리는 그 누락된 순간을 기억한다.

바쁜 세상에서 정신없이 헤매다,
놓친 순간을 그린다.

소중한 것은 언제나 주변에,
바쁘게 지나치지 말자고.

잠깐 쉬어 가도 좋아

겨울에 느끼는 감정

미디어스쿨
20232508 김민서

겨울이 찾아오면,
땅이 얼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마음 마저 시려 온다
겨울이 찾아오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꽃은 모두 지고 흰 눈이 땅을 덮어
외로움을 키운다

밤은 길고 어둠은 깊어져 가는데,
별 하나 없이 적막이 감싸고서
사랑하는 이에게 생각이 가는데,
멀리 떨어져서 헤어진 그리움 뿐

나는 차가워진 바람을 느끼며 깨달았다.
겨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외로움을 견디며 희망을 기다려라

또다시 따듯한 봄은 찾아올 테니.

그때 그 거리

미디어스쿨
20232508 김민서

이 거리엔 묻어두었던 지난 날이 있어
너와 내가 맞춰 걸었던 그 순간

너와 함께 걸었던 이 길, 이 골목,
그 미소, 그 대화가 아직 여기 존재해

시간은 흘러가지만, 이 거리는 멈춰 서서
너와 함께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아.

나는 이별 후로도 늘 이 장소를 찾아,
우리의 추억을 회상하며 걸어

이 장소에서 널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바람과 미련이 넘쳐 흐르지만,

마음 속에만 새기기로 하고
이제 그만 추억의 거리에 널 묻어둘게.

내려온 손님

법학과
20232711 김용후

내리는 비

수직으로 곧게 낙하한다.
무수한 수증기 모여
빗방울 되어 떨어진다.

지긋이 잠기어 온다.
물이 된 빗줄기는
메마른 땅을 적시고
연못의 수면이 되고
강의 줄기가 된다.

추적이며 내리는 비는
아지랑이 열을 내리고
흙먼지 거두어 간다.

그리고는
마음 한구석에 떨어져
빈 마음속을 흐르듯 채운다.

똑 똑 똑
처마와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내 마음에 노크하고서

홀연히 흘러
고요히 대지 속으로 스미어든다.

내 마음도
내리는 비에
그간의 때를 벗고
차분히 땅을 향해 스미어본다.

뜨거운 흔적

법학과
20232711 김용후

피약별에 그을린 아버지의 팔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다.

동트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시각에
아버지의 발은 길을 재촉한다.

책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아버지의 발은 시냇바늘처럼 나아간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강하다고 여겼던 아버지의 어깨는
허전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세월의 새벽을 한결같이 연 것은
아버지의 발이다.

집 떠나는 날,
더 이상 작지 않은 내 손에
아버지는 구깃한 지폐를 꼭 쥐여주신다.

그 손을 보면 팬스레
내 눈이 뜨거워지는 것만 같다.

홀로 발길을 옮기는 나에겐,
그 손의 온기와 흐르는 눈물만이 남는다.

눈물은 어찌 눈치도 없이
철 지난 장마처럼
뒤늦게 오는 것일까.

상실의 편지

사회복지학전공
20202357 정다소

나의 어린 낭만은 타오르기만 열을 다해 타올라
바스려질 재만 남기었다
새벽의 창에는 물복숭아 같은 슬픔만 맺힌다

나는 자면서 다 젖고
바다 위에서 깨어나면
힘없이 늘어진 마음에 구름을 붓고
설친 낮잠에는 한 줌 숨결을 뿌리던 너는 없고

다음 겨울이 다신 안 올 것같이 사랑하자던
여름의 기억이 여기까지 달아
겨울의 첫날이면 매번 열병을 앓는데

주소도 기재하지 못하는 우편에
선홍빛 낭만을 송부한다

2017.07.14.
추락하고 있는 여름이
청춘이 사하여 죽어간 순정에게

미라클 심포니

사회복지학전공
20202357 정다소

낭만주의 기백;

손목이며 목덜미며 입 모아 새긴 나날들 처참하리만치 차가운 정열을 안고 살아가는 수백 번
의 어지러운 겨울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고 말해준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당신과 나
의 타인은 누구인지 또 힘을 잃은 혀는 어느 방향을 향해 묵념하는지

죽은 사랑꾼 아니 사냥꾼의 시체는 얼마에 낙찰될까요
딱 그만큼의 시세로 모두를 환불해 주세요

비관주의 독백;

동일한 궤도를 수여받아도 끝없이 낙하할 미친 자들의 별 나락 찍을 준비 끝났다면 괄호 열고
외치기를 하나 둘 셋 미라클! 유성은 꼬리를 흘리며 추락하는데 인간은 여전히 남길 게 없어
축축하게 젖은 미련만 쏟는다

끔찍하게 꼬여 죽은 지령이를 프레첼로 볼 수 있는 눈
다시 태어나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길

청렴주의 결백;

네 이름을 부르면 그 석 자는 공중에서 터진다 바닥에서 구르는 비련의 향기들을 그루밍하자
아침을 토해내듯 웃어 보이고 사연이 절절한 푸른 앵두를 굴리는 삶 너 그거 아니 애칭을 부
르는 행위에서는 파도 향이 난다는 사실

비로소 내 혀가 제 기능을 잃는다면
네 두 번째 이름을 알고 싶다

1, 主

사회학과
20202211 김윤지

바다를 그리워하는 까닭은
그곳이 나의 먼 고향이기 때문

나홀로 매마른 땅에 버려지듯 태어나
너무도 외롭다

언젠가 사라져버린 아가미를 갖고싶어
내 목덜미를 뜯어내며
나의 고향으로 몸을 던졌다

반겨줄 부모는 이미 없고
오래전 모습도 모두 갈려나갔다

그래도 이곳은 나의 고향

다시는 물으로 가지않을테다
나의 옛 눈물이 만든 세상에서 죽어버릴테다

여기가 나의 고향이라고
저번생에 반복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는 영원 중에 진실된 것은 오직 너의 것뿐이다 나는 너에게만 진실된 영원을 속삭인다 너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못한다? 안한다? 못한다? 안한다? 나는 네가 그러는 것을 모르는 척한다 나는 계속 너에게 진실된 영원을 속삭인다 하늘에 계신 것들의 이름으로 너에게 영원을 고백한다 그러나 너는 종교가 없다 내 영원은 너에게 무의미하다 나는 계속 영원을 내뿜는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 어느 시간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느 세계에서라도 나는 너를 그러나 너의 세계에 영원은 없다 너는 나를 자꾸 잊는다 깜빡 깜빡 거리는 네 셔터의 찰나에 아슬아슬하게 나는 노출되지 않는다 네가 영원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까닭이다 내가 영원을 말하면 너는 깜빡깜빡 아주 빠르게 깜빡깜빡 아주 찰나의 시간만 가져간다 너는 영원을 모른다 너는 영원을 믿지 않는다 너는 영원을 알고싶어하지 않는다 너는 영원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네가 사실 영원을 모르지 않다는 것을 안다 네가 영원을 믿고싶어하는 것도 안다 네가 영원을 알고싶어한다는 것을 안다 네가 영원을 바라는 것도 안다 나는 네가 어떤 영원을 바라는 지도 안다 너는 내가 영원히 영원을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치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말한다 나는 너를

해피? 투게더?

사회학과
20202211 김윤지

널 버린다면 세상의 끝에 버려야겠다
등대 꼭대기에 올라 너를 던져버려야겠다

그곳이 아니라면 버려지지 않기 때문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너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

해피, 투게더,
우리는 둘, 중 하나
만 했다
늘

네가 차가운 해류에 몸을 맡기고
돌고 돌아 더운 여름 나라에 도착해도

우리는 해피, 투게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 운명이므로

너는 행복해야한다

들사랑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토끼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새하얗다
사랑을 해도 토끼인 것처럼

불빛은 암흑을 더해도 굳건하다
거뭇한 것이 불씨인 것처럼

비록

아무리 커질수록 때타는 사랑아

어린양의 거품을 보면서 담배를 생각하고 구름을 생각하고
알 수 없었던 오류를 생각하겠다
복수에 대해서도
예수도 아니면서 원수를 사랑한 날

사랑이 튀느냐 둘이 될 것처럼

우주불명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나는 안경을 두르고
금테 없는 눈으로 님의 얼굴을

이상하겠지요 본다는 것은
나의 심장이 죄가 된다면 님이여
선악과는 태초에 어두웠다는 것을 믿고

님을 보러 점멸하는 별들 속에서

깜빡

행방은 까맣한 님이여

나란한 우주를 데려와 평행을 설명할지
말장난으로 평생을 살아내 볼지

생각한다는 것은 아마
숨을 쉬지 않아도 좋은 것이겠지요

나는 안경을 두르고
없는 것처럼 님의 얼굴을

금빛 얼굴에
얼굴에 서면
벌레가 눈 못 감듯

푸른 목음

사회학과
20202229 유인화

벤치는 그림자의 통로
그림자는 벤치의 목음

언제나 존재하고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

닭이 운다

기다리는가 누구를

젖지 않는 두 다리
네 다리로 만들며
새파랗게
질린 무한한 곡선을 넘어

강이야말로
다리만의 광장이었다는 것을

닭이 그제서야 운다

네모에게*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겹겹이 쌓이다 못해 흐트러진 단정함
밥 대신 들이마시던 빛바랜 종이 냄새는 어디로 가고
흰 것과 검은 것 그다음 흰 것과 검은 것

활자로 된 웅성거림을 잘도 기워놓은 당신
획과 획을 얹고 당신과 내가 얹혀 겨우 완성한 등지
사각형에서 도망쳐서 다시 사각형
목시록에서 도망쳐서 다시 인용문
세상에게서 도망쳐서 다시...

...어떤 체념은 결심이다

짓눌리자, 당신에게 암전히
짓눌리자, 당신에게 암전히
짓눌리자, 당신에게 암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한 번 죽은 목숨이 질주한다*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목숨 하나가 경적 소리를 내며 이승을 헤맨다
우리 종점은 단 한 곳뿐인데
명료한 길을 빙 돌아 결국 당신 앞이다

앞길은 온통 파란(波瀾) 그래도 내 얼굴은 곧잘 붉어지니까 괜찮다고
농담 어설픈농담

그리고 보니 여기좀타는냄새가 나는것같지않아?
창문을열어젖 히 고유리창에비치는세상이 너무아름답지않냐고묻는말에

나는
여기에

너를태우고올려다보는건지내려다보는건지모를시선들을태우고이질감을태우고동질감을태우고
환영을태우고멸시를태우고산것을태우고죽은것을태우고스승을태우고제자를태우고봄을여름을가
을을겨울을태우고기대를태우고실망을태우고정상을태우고비정상을태우고바다를태우고강을태우
고산을태우고호수를태우고초원을태우고도시를태우고시골을태우고거기에서사는모든사람들을태우
고우주를태우고만나본적없는외계인을태우고상식을태우고배움을태우고관념을태우고형식을태우
고좋은것을태우고싫은것을태우고착한것을태우고나쁜것을태우고다시는 불로 멀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태우고...

책

생명과학과
20163504 김상민

두 눈으로 본 세상은 아름다웠다.
평화로웠고 지금 느끼는 것이 전부며
앞으로도 영원하리라 생각했다.

세상들을 열고 접하고 닫으며
두 눈으로 본 세상은 내 생각과 달랐고
극히 일부분을 보고 전부라 생각한 것을 깨닫고
좌절하고 원망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세상을 열고 접하고 닫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고
받아들여야만 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잠시 정리하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고
그 안에서 따듯함과 온기와
용기와 희망을 발견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엔 감사함으로 내 마음이 물들었다.

감정

생명과학과
20163504 김상민

묻어두면 괜찮을 줄 알았다.

나만 모른 척 넘어가면
모를 줄 알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말하며 현재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묻어둔 것은
묻는다고 되지 않았고
답을 쌓고 모른 척해도
되지 않았다.

기억은 잊었어도
내 몸에는 남아있었고
마치 물에 스며든
잉크처럼 퍼져있었다.

스무 살 그리고 성인

생명과학과
20163504 김상민

봄꽃에 분홍빛이 선명하다.
왜 여태 아름다운 색을 보지 못하고
지냈을까.

매일 입는 형형색색의 옷들
머리에 멋도 부리고
안경도 새로 하나 맞췄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로 나를 만든다.

낯설면서도 설레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도
사회에서는 가리킨다.

바다가 되고 싶어

식품영양학과
20193828 이윤교

바다가 그제 바다라서 바다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너는 이해하지 못했어
너는 바다가 무섭다고 했잖아
어두운 바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널 삼켜버릴 것 같다고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점도 바다를 사랑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
바다가 날 삼키면 나는 바다가 될 수 있어서

숲이 나를 삼켜봤자 나는 숲속의 사람인데
바다가 나를 삼키면 나는 바다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
숲속에 있는 나는 그냥 숨어 사는 사람 같은데
바다가 된 나는 맑고 투명하고 모든 걸 보여주지만,
심해에는 아무도 모르는 게 숨겨져 있는,
그마저도 모든 게 신비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 같아

계속 보고 있게 만드는 힘을 닮고 싶었어
바다를 바라보다 보면 빠질 것 같다니
삼켜질 것 같다니
얼마나 매력적이야
날 바라볼 때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어
그만큼 내가 신비하고 매력적인 존재였으면 좋겠어

나의 첫사랑

식품영양학과
20193828 이윤교

내 주변의 많은 연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아픈 미성숙한 어린 마음을 나누더라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연락하더라
성격이 안 맞아 싸우다가도 금세 사과도 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하더라
얼굴만 봐도 웃고 목소리만 들어도 즐겁다더라
이 모든 걸 사랑이라고 부르더라

야 있잖아
우리는 사랑을 했던 것 같아
난 이 모든 걸 너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린 헤어진 거지
그래서 난 미련을 떨었고
넌 그 미련을 떨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나 이제 너를
다시 새길 수 있어
넌 나의 첫사랑이었다

구겨진 귀퉁이

식품영양학과
20193828 이윤교

살짝 구겨진 책의 귀퉁이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다 문득,
그 구겨진 귀퉁이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뭘까

책을 아끼게 되어서 책 스스로에겐 단점일
구겨진 귀퉁이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소중한 마음이겠단

나 너의 구겨진 귀퉁이까지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
불평하거나 교환하거나 반품하지 않을 거야
그게 너의 매력이야

손이 마구잡이로 흔들렸다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82538 안대운

나는 손 없이 못 사는데
손은 나 없이도 잘 살겠지?
아차! 싶은 마음이 스쳐간다

왜 사람들은 잊어버릴까?
작고 소중한 무언가였는데
사실 제일 필요한 무언가였는데

무언가. 무언가.
그 무언가가 뭐더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다

큰일 났다.
기억이 안 난다.

그 순간 내 오른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다
음, 내가 수전증이 있었던가?

우리 욕실엔 물이 떨어져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82538 안대운

거뭇거뭇 낡은 천장
원래 누수가 있었나?
머리 위로 기분 나쁘게
똑.
똑.
녹슨 물이 떨어진다

아 맞다, 분명 생각했지
며칠 전에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수리 아저씨를 불러야지 생각했는데

내 정신 좀 봐라
금세 많이도 고였구나

오늘은 적어두어야지
우리 욕실엔 물이 떨어진다.

반쪽짜리

언어병리학전공
20223909 김수정

포장을 새로 뜯은 치약이
깔끔한 걸 테를 뿜내며
나와 내 동생 칫솔 사이 자리해있다.

가위로 잘라 반이 된 옛 치약이
세면대 옆 떨어질랑 말랑 위태로이 걸쳐있는
엄마 칫솔 옆에 자리해 있다.

칫솔로 훑어 쓰면 한참 남았다며
가득 남은 미련에 버리지 못하는 저 쭈그러진 치약이
꽤 요즘의 엄마와 닮았다.

하물며 인심은 넉넉한 공간에서 난다는데
우리엄마 공간은 가위로 자른 반쪽짜리인데도
자식새끼들에겐 어쩔 이리 넘쳐나는지.

세면대 옆 떨어질랑 말랑
위태로운 저 반쪽자리 치약 하나가
나의 불효같다.

가득 차있는 장독대와 장작을 발견한다면

언어병리학전공
20223909 김수정

종알대는 어린아이 하나 없이
각자의 치열한 삶에 지친 어른들의 식사자리엔
젓가락과 밥그릇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가득 차있다.

날카로운 소음 속 적막을 뚫고
스티커에 이어 요즘은 우표 모으기에 열중인 서른 둘 모지리 사촌 오빠가 물었다.
본인의 인생이, 인생이 일주일 남았다면 무얼 하고 싶으십니까?

기다란 손톱으로 핸드폰 두들기며
사정없이 메시지를 바빠 보내던 노란 머리의 막내 고모가 답했다.
내 돈, 엄마 돈 할 거 없이 갖고 있는 거 평평 다 치장하는 데에 쓰고 죽어야지.

이어서 안경을 한껏 치켜 올려
광대와 안경이 맞닿은 큰아빠가 밥풀과 침방울을 튀기며 답했다.
나는 내가 맡은 이 프로젝트를 다 완성을 해서 이 회사에 뭐라도 남기리다.

만년과장 아빠도, 옷가게 하는 둘 째 큰엄마도, 수험생 동생도
모두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어했다.

그러다
조용히 자식들 밥 그릇에 반찬 하나씩 더 얹어주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병원에서 한 달 남았다는 얘기 듣고 와서는
영감의 저 낡은 도끼 한 자루가 쉬는 날이 없었지.
그 덕에 이번 겨울은 영감 없이도 참 따수웠어.

갈 때까지 일만 하다 가는 모습에 참 독한 사람이라 욕했는데
이젠 그 인간을 닮고싶네
할머니는 손톱 사이 끼여있는 메주콩을 떼어내며 말씀하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이는 게 더 중요했다.

아직도 넘칠 듯이 가득 차있는 장작 옆
하나 둘 가득 채워져 가는 장독대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서있다.

마지막 여름

언어병리학전공
20223909 김수정

오랜만에 잡아본 아빠의 손은
어릴 적 나의 기억과는 사뭇 달랐다.

나이가 들면 손에 있는 살도 빠지는 건가
깜깜한 밤 저 하늘 달빛에 의지해 이리저리 아빠의 손을 돌려가며 살펴봤다.

분명 어릴 때 잡았던 아빠의 손은
곰 발바닥처럼 두터운 슈퍼맨의 손이었는데

이제는 굳은 살이 배긴 몇 개의 마디 빼고는
얇은 살가죽만을 남겨두고 모두 날아간 것 같다.

얹아져 가는 손에 아빠의 핸드폰은 점점 무거워져만 가는 것인지
상사의 전화에 아빠는 손이 두 개나 필요한가 보다.

두 손을 겹쳐서야 겨우 들 수 있는
그 상사의 전화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 걸까.

흰한 달빛이 아빠 얼굴의 반을 물들였다.
아빠의 굴곡진 얼굴선은 깊은 우물을 만들었고, 달빛은 그 우물 안에 담겼다.
그 달빛에 비친 아빠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작았다.

무색

의예과
20226171 지윤경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예, 아니오의 간단한 질문에
하루를 되씹으며 고민하는 우리.
내가 과연 행복한 일을 했는가
내가 과연 행복한만 하는가

행복은 마침표가 아니다
원인과 결과로 파생되는 결과물이 아니다
그냥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이다.

하루를 1초, 아니. 더 촘촘하게 자르면
그 얇은 순간에는
아무 걱정이 없다
아무 감정이 없다
이런 무색의 시간들이 모여서
하루, 한달, 일년이 되면
감정의 색깔이 칠해진다.

사는게 이렇다
아무것도 아닌게 모여서 큰 것이 되기도
큰 걸 잘라보니 아무것도 아닌게 되기도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그 시간들을 얇게 잘라보자.
자르고 자르면
무색의 나를 만나게 될테니까

초승달

의예과
20226171 지윤경

타닥타닥
타자 소리에 맞춰 바빠 흐른 시간
어제와 같은 네모난 가죽가방을 손에 든 그.
오늘 아침에 본 풍경의 태양을 거꾸로 돌리는
그의 머리 위에 초승달이 떴다.

‘손톱만한 달이 떴구나’

하늘을 힐끗 보고는
다시 어두워진 집을 향해 걸어간다.

“미희야 내일보자~”
맑은 웃음들과 뛰놀다보니 벌써 아쉬운 시간
오늘은 빨간색 원피스에 노란 가방.
얼굴만한 이파리에 숨은 햇빛을
손끝으로 툭툭 털고 있는
아이의 머리 위에 초승달이 떴다.

“와~ 달님도 웃고 있네”

내일보자며 손흔드는 선생님의 얼굴을
미소짓는 초승달에 그려본다.

감나무

의예과
20226171 지윤경

뻘뻘 마른 가지들 사이
힘겹게 매달린 핏빛의 감 하나
시간이 훌쩍 지났다고,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차가운 손짓으로 이리저리 튕겨보는 바람은
알뜰기만 하다

따뜻하게 감싸주던 옆집 이파리도
탐스런 빛깔의 앞집 노오란 감도
이정도면 충분하다며
너도나도 떠나버린 기다란 갈색 집

하고 싶은 말 꺾꺾 눌러담아
그 매서운 흐름을 버터내며
살이 다 뭉개지고 피가 나도록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

배고픈 까치는 옆에서 바라볼 뿐
뜨거운 표정에 못이겨
매마른 날갯짓으로 흥! 하고 날아간다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 매달린 붉은 열정 하나

지하철에서 거울을 봅니다

의학과
20196141 유재영

꿈결 속에서 문득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거울을 봅니다

그 속의 고달픔을 읽어 내리며
무수히 생성된 서로의 지난 날 속에
위안을 얻고는 합니다

손잡이에 매달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성냥갑 속 막대들

그들 하나하나에 달린
수많은 거울을 봅니다

수없이 반사되는,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서글프지만 따뜻한 빛

오늘도 하루를 버텨낼 힘을 북돋웁니다.

호흡기를 단 삶

의학과
20196141 유재영

눈 앞에 어른거리는 하얀 연기,
삭막한 내 영혼의 보루

하이얀 벽을 바라보며
코를 맴도는 숨냄새들
가만히 느껴보다
다시 명상에 잠깁니다

입 주변을 가득히 감싸는 공기,
어스름푸레한 내 의식의 보루

언젠가 다시 눈 떠지면
다가와 있을
녹아 버린 시간을 위해,
스스로 숨 쉴 순간을 위해,

다시
눈이 감겨 갑니다

나무를 부러워하며

의학과
20196141 유재영

나무가 참
부럽습니다.

또 하루 그저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다
우연히 멈추어
잠깐
나무를 바라봅니다

한 세월 후회 없이 피워 낸 아름다움
떠나 보내고

얼룩과 나체를 천천히 곱씹어
또 한 아름드리 자라는 여유

틈틈이 세월을 새겨 넣어
또 한 치 단단해지며
천 년을 바라보는 너그러움마저

오늘도,
내일도,
나무가 참
부럽습니다.

순응

일본학과
20221634 주하영

달궂진 모래 위에서 파닥이기 다망했다
아가미 덮개가 열고 닫히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여명은 흐릿했다
파도치는 소리가 맥박 소리인지 헛갈릴 즈음엔
따가운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받아들인다
운슬 넘어 보이는 세계에서 파닥이길 다망했다

송장

일본학과
20221634 주하영

젖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자못 차가운 곳에서 견디느라
마른 몸으로 송장이 된다

중희당에서

일본학과
20221634 주하영

여름 없는 사계(四季)를 아는가
너의 날숨에 만개하는 세상이었다

우리의 영겁을 영원했거늘
내 품이 너를 부수었다

너 없어 멸한 세상의 사후는
빛 하나 찾을 수 없단 걸 몰랐던가

나는 노오란 국화를 가질 터이니
그대 가는 길 붉은 동백꽃 뿌리리다

꺼어진 가지에도 매화가 피어오르지 않는가
불게 물든 옷깃 따라 여름 피어나라

난주에게

정보법과학전공
20206410 김시원

오랜만입니다

뽀글뽀글 뺨는 숨에
일그러진 얼굴들
여전히 그리나요

나는 '잘' 지냅니다
늑골을 타고 흐르며
아스러지는 비릿한 감촉이
점 사이에 담긴다면요

동경의 잔상을 꺼안고
영과 원의 모양으로
혈색 흉터를 새깁니다

새카만 물낫 위 울음
우리가 아니라면 아무도 모를테니
끓지 않고 오래 오래

추신, 흩어진 조각은 제 자리를 찾았나요
어린 조각은 제자리를 찾았나요
썩어버린 가족 아래로 흐르는 아름답고 따뜻한 액체에 기대
앞으로도 우리만의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단들의 환영

정보법과학전공
20206410 김시원

동경과 애정의 평행선 아래서
나는 자주 진실된 거짓을 집어삼켰다

끌어안은 목덜미는 차갑기만 한데
왜 열병은 낫지를 않지

혀끝으로 긁는 성호는 천사의 표식을 훔아내리고
빛의 원형이 마디마다 얹혔다

뭉개진 그림자의 어깨는 더이상 빌릴 수 없고
멍든 뼈와 숨가쁜 심장의 거리는 좁혀지고 있어

깜박이는 십자가에
나란히 손을 모아 오래도록 고해했다

영생할 수 없음을 알았다.

습기 있는 사람은 휴터 속에 산다

정보법과학전공
20206410 김시원

어린 천사의 날개털을 뽑아다 살살 문지르면
좋아했던 것들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지

헤어진 애인의 살냄새
흠뻑 젖어 바스라진 노트
잃어버린 손목의 환상통

질서 없이 생겨나는 상처들은
모두가 술래인 척 하고 있어

폐 한가득 습기를 머금고
가까워질수록 짹짹한 피가 고이는
시간이 멈추는 방

새의 이름을 부르는 그제서야

장마 휴터만 남는다

훅날리는 낙엽: 고이 접은 손 편지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푸르게 식어버린 하늘을 등지고
바스락바스락 등 굽은 산은
아직 할 말이 많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수많은 세월 끌어안고
와달라고 말도 못 하고 바스락바스락

따뜻하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 없어도
피어나고 푸르고 시를 쓰고,
기다리던 겨울 웅크린 산

그 속에는 아직 못다 핀 이야기가 많을 텐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손만 바라보아

겨울, 산은 토닥토닥 자기를 덮는다

낙엽이 가벼워서 휘날리는가
그것은 한 조각 세월이라

아장웃음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가을 햇살에 부벼지던
아장아장 똑단발

민들레 꽃차처럼 아지라히 우러나는
노오란 웃음

흩씨처럼 훌훌 날아가는
눈짓의 안부

지난 갈 바람이 전해주는
가을 향기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철학전공
20181118 홍주영

쌀쌀맞은 등을 보니 가을이군요

편지 한 편 부쳤습니다

발자국 없는 설원(雪原) 같은 연서를 부쳤습니다

우표는 존재함으로 그에게 닿았습니다

존재하면 결국 우표가 될 수 있을까요

엄지손톱보다 작은 종이는

시간의 퇴적에 단단해졌습니다

나의 단단함은 작은 미소가 다 가져갔나 봅니다

답장은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무 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의 계절에도 어디서나 버릴 것은 있나 봅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파도는 끝끝내 비가 되어 내립니다

너무 마지막 같은 말은 지웠습니다

소설 부문

[최우수상]

부동의 원동자

법학과

20182767 한재은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보였다. 해류 속에 휘말린 인간의 산물들이 허영고 거뭇하게 옥빛 바다 위에 떠 있었다. 낡은 그물이라든가 부표, 산호의 백화 따위였다. 체형에 비해 여유 있는 검은색 블루종과 청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사륜구동 스포츠용 차량에서 내려 일출을 바라보았다. 흠 잡을 데 없이 단정한 인상의 남자는 껏전을 두드리는 파도의 소음이 기겁지 않았다.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옷에 걸치고, 고요한 해안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울타리에 몸을 기댔다. 여름을 넘어서서 부쩍 차가워진 바닷바람이 반쯤 돌아간 고개를 침범 해가며 새까만 머리카락을 마구 헤집었다. 남자는 생각했다. 좌천된 곳의 경치가 이렇게 좋아 서야 되나.

통합사회미디어 언론사 <한국>의 사회부 사건팀은 여느 메이저 언론사가 그리하듯 설 틈이 없었다. '24시간 5분 대기조'라는 이름을 달고 예측불허하게 처리해야 하는 외부적인 일이 차고 넘치는 것은 물론 사내정치와 같은 자잘한 내부 사정은 소속 기자들의 피로감을 더하기 일쑤였다. 특히 잦은 인력 교체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비교적 익숙한 정치인이나 연예인, 사업가를 상대하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를 주야장천 감당해야 했으므로 사람이 남아나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거기다 정치계 연줄을 통해 사건팀에 들어온 김창석은 열정적인 신입 기자들을 쫓아내는 데 탁월한 재능-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추행, 독단적인 투고-을 보였다. 원미정은 잔뼈 굵은 기자들도 마다하는 사건팀의 팀장 자리를 단숨에 꿰찬 유능한 여자였다. 자극적인 사건 위주의 보도 방식과 더불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내정치에 염증을 느낀 그녀는 팀장으로 발령받자마자 제도권 언론 특유의 적폐이자 사내정치의 온상인 '낙하산' 김창석을 처리하고자 했다.

김창석의 후배 기자 신우건 역시 그녀와 같은 생각이었다. 사건팀에 있으면서 연줄 없고 흠도 없는 선배 기자들의 말로를 오랫동안 봐온 탓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콕 집어 사무실로 불러낸 팀장의 지시에 흔쾌히 응했다. 김창석의 뒤를 봐주는 정치인이 그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라는 지시였다. 자세한 사정이야 김창석과 그의 기사 두 사람만이 알겠지만, 신우건은 걸릴 것 하나 없겠냐는 배짱으로 김창석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 압박을 줬다. 아니나다를까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과 얼씨구나 굶어 부스럼을 만든 김창석은 며칠 초조해 하는가 싶더니 괜한 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연관도 없는 신우건의 업무 방식에 강력히 항의하는 식이었다. 팀장은 지금까지 상황이 따라줬고 정치적 개입의 여지도 차단해 뒀으니 남은 건 자멸을 기다리는 것뿐이라며 김창석을 달래듯 신우건을 임시 좌천시켰다.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없는 팀장의 결정은 이해하나 속이 쓰린 건 별개의 문제였다. 그렇게 신우건은 선거철을 앞두고 재조명된 '연고 없는 시체' 사건에서 잠시 손을 뗐다. 강에서 남성의 시체 한 구가 발견된 사건인데, 신원을 조회해 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 가족마저 존재하지 않아서 사인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은 신우건에게 문제를 제기한 김창석이 맡게 됐

다.

그 대신 신우건은 지지부진한 ‘대암산 모녀 살인 사건’을 맡았다. 범인이 대암산 등산로에 시체를 담은 검은 비닐봉지를 버렸고 감식 결과 두 명의 피해자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현재 용의자로 지목된 남자는 네 번의 결혼을 거듭한 피해자의 남편인데,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그의 숨겨진 아들이 사주를 받고 범행 도구를 가지고 도망쳤다는 추측이 난무할 뿐이었다. 실제로 두 번째 부인은 남자의 호적에는 없는 아들과 함께 행방이 묘연했다. 최근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우편에 부친 발신자 불명의 제보가 언론사에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신우건은 용의자의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해안 마을로 향했다. 그들의 행적을 쫓는 일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까지는 아니어도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 수준은 됐다. 그러므로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든 암묵적으로 허락된 휴가든 말만 좌천이었다.

‘전화했어요? 기내라서 못 받았어요.’

전파를 타고 오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깨를 으쓱여 귀에 댄 핸드폰의 위치를 올바르게 고정하고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상대는 날 대신해 ‘연고 없는 시체’ 사건을 비공식적으로 맡아줄 탐정사무소의 정직원이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하필 김창석이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게 마뜩잖아 부탁했다. 마침 어제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으니 시의적절했다.

“이룩했나 싶어요.”

대꾸하며 흘긋 손목시계를 봤다. 어제 저녁 여섯 시쯤 전화를 걸었으니까 벌써 열두 시간도 전이었다.

“사택으로 곧장 간댔죠?”

‘네. 이제 출발합니다. 최우광 탐정님에게는 미리 말해 뒀으니까 따로 연락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피곤하지는 않고?”

상대가 의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절부절못하세요? 걱정 마세요, 신 기자님. 저한테 일 맡기는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전적을 굳이 짚어주는 태도가 알긋다. 내가 상대를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꼬는 게 틀림없었다. 운전대를 돌리며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을 했다.

“이번에는 진짜 부탁할 사람이 없었어.”

상대가 소리 내어 웃었다.

‘쓸데없는 짓 안 할게요. 혜운 PD 심기 건드리지 않기, 일은 시킨 것만 하기. 걱정하는 게 이거 맞죠?’

그녀가 언급한 권혜운은 ‘연고 없는 시체’ 사건을 범죄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신고자 하는 PD였다. 필드 매뉴얼에 민감하고 절차와 규범을 중시하는 성격이라서 그녀와는 상극이었다.

“하나 더. 사건이랑 관련 없는 정보 캐고 다니지 마. 이 일 아니면 그 사람들이랑 볼일 없잖아.”

‘그거야 두고 볼 일이지.’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약점을 스스럼없이 써먹는 질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나와 헤어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농담이 불쾌했다.

“천태금 씨.”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 좋아해요?’

“헛소리할 거면 끝습니다.”

‘귀양 조심히 다녀와요. 당신 팀장님이 좋은 결정을 한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목소리 좀 들었다고 되찾은 적막이 어색했다.

탐정사무소 <광명>은 경찰이 그러하듯 언론사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었다. 책임자는 최우광 탐정인데 타 언론사를 포함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발 빠른 남자였다. 예민하고 가리는 게 많으며 사사로운 정이 없는 괴짜라서 키가 조금 작다는 것만 빼면 아서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을 떠올리게 했다. 천태금에게 들은 바로는 촌구석 무당 집안의 기둥이 될 뻔했는데 고등학생 때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그 팔자를 면했단다. 성인이 되는 해 세례성사를 받아서 지금은 가톨릭 신자라고 했다. 아무튼 특이한 이력이었다. 천태금과는 탐정사무소를 드나들면서 알게 됐다. 그녀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미인에 6 피트 언저리를 선회하는 장신이었다. 최대 장점은 뛰어난 화술과 증거품 수집 그리고 변장으로, 외국어에도 능통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란 아마도 분야를 막론한 자극일 테다. 몇 년 전에 나는 천태금과 교제하면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초반부 상담의 이유는 교제 내내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천태금의 만행 때문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그 양상이 달라져서 후반부 상담은 내 과거라든가 성향 따위를 파헤치는 쪽으로 나아갔다. 쉽게 끝낼 일을 영망으로 만들거나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게 하는 그녀의 태도가 본래 성향이라기보다는 날 교제 관계에 잡아두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일에서 비정상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에 비해 보여지는 인생이 크게 엇나가지 않았으니 내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겪었을 거라고도. 하지만 기자로 지내는 일은 내게 무엇보다도 많은 쾌감을 선사했다. 명목은 정의와 대중을 위한 것이었으나 자기만족이었다. 천태금은 나를 꿰뚫어 봤다. 그러나 그런 짓을 벌여야지만 나와 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가울 리 없었다. 해가 완전히 뜨자 어둡게만 보였던 바다가 밝아졌다. 새벽의 공기가 짹짹했다. 운전하는 내내 틈이 날 때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불안을 자초하는 스스로를 달랬다. 비록 과거에 내 뒤통수를 쳤었지만 업계에서는 뛰어난 평가를 받는 천태금의 일처리는 확실한 만큼 대체로 잡음도 없었다. 그러니 일을 맡긴 이상 믿어야 했다.

지도를 더듬어가며 찾은 곳은 근방에 작은 항구와 해변이 위치한 마을이었다. 비포장도로 때문에 차량이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마을 어디에서나 보이는 푸른 바다에 정신이 팔려 그런 걸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자 뒤늦게 속이 울렁였다. 차체에 기대 물을 마시고 있으니 항구 앞쪽에 어촌 체험장이 보였다. 우정호 배낚시, 1인 30,000 원. 회를 썰어 주겠다는 문구는 검은 마커로 지워져 있었고 그 옆에 낚시대를 제공한다는 새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박된 배 근처로 다가가자 생선 비린내가 났다. 취재 때문에 자주 왔던 바다지만 지금만큼 오감으로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근처를 얼쩡거리니 조타실에서 사람이 나왔다. 비쩍 마른 남자아이였다. 아이가 씩씩하게 물었다.

“탈 거예요?”

고개를 흔들었다.

“아...”

“혹시 여기 적힌 주소지가 어딘지 아니?”

실망한 기색의 아이에게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아이는 종이를 받아들더니 파랗고 노란 지붕

을 가진 집들 사이 골목을 가리켰다.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한참이요.”

“그렇구나.”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연스럽게 질문에 대한 답을 넘기고 고맙다고 대꾸한 뒤 몸을 돌렸다. 아니, 돌리려고 했다. 아이가 나온 조타실에서 턱에 수염이 희끗희끗하고 등이 굽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뱃사람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우정아! 우정이라고 불린 아이가 남자를 향해 뛰어갔다. 남자는 아이의 어깨를 쥐고 날 바라보는가 싶더니 깊은 눈을 껌뻑이다가 다시 조타실로 들어갔다. 나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경계하는 것도 아니고, 적대적인 것도 아니었다. 어디서 봤었나. 괜히 목덜미를 매만지면서 아이가 가리킨 골목 사이로 발걸음을 돌렸다. 어차피 한동안은 이곳에서 생활해야 하니 언제 한 번 말이나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것 같은 돌계단이 있었다. 절반부터는 나무로 된 계단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관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군데군데 불쑥 튀어나온 풀이 얼굴을 찼다. 지낼 집에 도착했을 때는 등산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어느새 땀이 흐른 턱을 손등으로 닦아내야 했다. 바닷바람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녹이 슨 파란 철문을 열자 창고를 개조한 고택이 보였다. 고택은 습하고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나무 사이로 뻗치는 햇빛이나 때 지나 시든 능소화가 없으면 생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처마에 달린 종이 환영하듯 소리를 냈다. 어깨에 짊어진 가방을 마루에 내려놨다. 철문 사이로 마을이 내려다보였다.

“오셨습니까.”

낮선 목소리에 뒤를 돌았다. 허술하게 셔츠를 걸친 내 또래의 남자가 수건 양끝을 잡아 젖은 머리를 털며 방에서 나왔다. 그을린 피부와 짧게 깎은 머리를 가진 이목구비가 뚜렷한 남자였다. 남자는 물기가 묻은 손을 셔츠에 뽐뽐 닦고 앞으로 내밀었다.

“이혁입니다. 신우건 기자님 맞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 구종욱 기자 동기입니다.”

“선배님이셨네요.”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그냥 이혁이라고 부르세요.”

“팀장님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머물 곳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대암산 사건 때문에 오셨다면서요. 머물 곳이라고 하기는 마땅찮지만 편히 계세요. 이래봐도 이만한 경치의 집이 두 채는 없으니깐요. 그럼 밤에 뵙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철문을 나섰다. 혼자 남은 나는 남자의 말을 곱씹었다. 구종욱 기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팀장은 이곳에 오면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게 이런 의미였을 줄은 몰랐다. 내가 언론사에 막 들어왔을 때 나에게는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구종욱은 그 선배의 친우이자 대척점이었다.

‘야.’

‘예, 선배님.’

‘개 있잖아, 네 사수.’

‘양계원 선배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개.’

과거의 순간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구종욱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나를 쳐다봤다. 뒷담이라도 시작할 기세였다. 옥상에서의 뒷담. 클리셰가 따로 없었다. 괜한 데 끼어들기 싫어서 눈을 피했다. 마침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비교적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래, 지금 이 집에서 해안 마을이 내려다보이듯이. 그 느린 어투의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개 옆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나치게 성실한 점 때문이 아닐까요. 그 말은 삼켰었다.

‘자기 신념 지키겠다고 혼자 고고하게 서 있어서 그래. 그 새끼가 말하는 빌어먹을 정의 때문에 갈려나간 놈들, 괜한 일에 휘말려서 이 팀에서 빠진 거라고.’

정의라면 정의지 ‘빌어먹을 정의’는 대관절 뭐란 말인가.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그렇게 보여도 실상은 안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따라다니다 네 길 찾아라.’

‘예, 뭐...’

‘매번 이렇게 애길 해도 들어먹는 새끼가 없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히 구종욱이 양계원을 견제한다고만 생각했다. 구종욱이 양계원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 안 되면 어쩔 건데. 다른 방법이라도 있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선배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래.’

‘양계원 선배님,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기사 내주십시오. 사람이 죽는다고요!’

기억 속 양계원이 입을 다물고 나를 외면했다. 어떤 조치도 취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였다. 눈앞이 아찔했다. 구종욱의 말이 맞았다. 양계원의 정의는 타자의 희생을 강요했다. ‘빌어먹을 정의’, 말 그대로 정말 빌어먹는 정의였을 줄이야. 룸 미러에 달린 사진 속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구종욱의 딸이었다.

‘난 이미 경고했어. 위험한 곳에 기어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양계원의 초조한 목소리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더 말할 것도 없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였다. 이토록 비열한 자가 또 있을까! 구종욱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은 인질 때문이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란 건 없다고, 방법이 있으니 시도해 보자고 했다. 웃기는 소리였다. 믿었던 새끼와 선배가 말도 안 되는 배신을 했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에도 무전기 속의 구종욱은 말이 없었다. 정적이 이어졌다. 남은 시간은 12분, 기사가 나와야 구종욱을 풀어줄 것이다. 그게 협상의 조건이었으니까.

‘다른 기자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놔둬라. 그쪽도 지킬 게 있는 거겠지.’

‘그럼 이대로 죽을 거예요?’

속에서부터 분노가 들끓었지만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구종욱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다. 화를 삭이며 방법을 찾고 있는데 폐건물 입구에서 조폭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재빨리 몸을 낮추고 바깥을 살폈다.

‘그 새끼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곧 들어갈게요.’

구종욱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나도 정의란 게 뭔지 안다.’

‘뭐라고요?’

‘누가 나한테 정의롭다고 하는 게 무서웠어. 확신이 드는 순간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 조수석에 있는 거 보고 올려. 그 새끼들 분명 너까지 묻으려고 할 거다.’

그때 차창 너머로 커다란 폭발음이 났다. 시야가 하얗게 번쩍이더니 멀쩡했던 건물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파편이 차체 양옆으로 튀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방금까지 구종욱과 교신했던 무전기는 끊어져 있었다. 이게 뭐지? 약속했던 시간까지 아직 5 분이나 남았는데. 큰 소리를 버티지 못한 귀에서 이명이 울리자 손으로 귀를 문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그때의 기억이 참을 수 없이 밀려들었다. 손바닥으로 식은땀을 훔치며 허리를 펴고자 노력했다. 숨을 몰아쉬면서 눈을 감은 채 구역질을 했다. 이명과 바닷소리가 섞이더니 차단됐던 시야가 다시 번쩍었다. 이건 실재가 아니었다.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다. 알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눈을 뜬 것은 정오가 넘어서였다. 마루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 채로 잠이 든 모양이었다. 비척비척 일어나 방으로 들어섰다. 겹옷을 벗고 땀에 젖었다 말라버린 셔츠를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일회용 인공눈물을 따서 뻑뻑한 안구에 넣고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차량 없이 집을 나섰다.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다. 우선은 오면서 봤던 횡집에 들렀다. 횡집 내부는 허름한 외관과 다르게 말끔했다. 새로 칠해진 하얀 벽이 빙글빙글 돌았다. 끼니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몸에 힘이 없었다. 아무 자리에 털썩 앉았다. 어딜 앉아도 바로 옆에 큰 창문이 있어서 바다를 볼 수 있었다. 본 지 반나절밖에 안 됐지만 슬슬 지겨웠다. 손으로 미간을 잡고 주물렀다. 새벽 운전이 무리가 된 듯했다. 오전을 통으로 날린 게 아깝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면 이렇게 못 돌아다녔겠지. 좋게 생각하자. 합리화하며 손을 내렸다. 마침 횡집 주인이 반들거리는 앞치마를 맨 채로 트레이를 밀며 다가왔다. 물과 기본 반찬, 메뉴판을 받았다. 횡집 주인은 오십 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었다. 지쳐 보이는 기색을 제외하면 일평생 이곳에서 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잘 관리된 얼굴이었다.

“저, 뭐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중년 여성 한 명과 이십 대 남성 한 명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지 않았나요?”

무뚝뚝하게 듣고만 있던 그녀는 내 말에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했다.

“서울에서 왔어요?”

“아, 저는.”

“내 아들을 찾으러 왔나 보지. 저녁이 되면 등대로 가 보세요.”

횡집 주인은 마치 내가 올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 태연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등을 돌려 주방으로 사라지는 작은 등을 보자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도착하자마자 마주쳤던 남자아이와 재회했다. 아이의 손에는 나무로 된 사람 조각품이 들려있었다. 자세히 보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본뜬 것이었다. 산 것이라고 치기에는 투박했고, 직접 만든 것이라고 치기에는 정교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내게 달려와 자신의 조각품을 자랑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멋지지!”

“그러네. 솜씨 좋은데.”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아이는 쑥스럽다는 듯 조각품을 숨기더니 눈을 굴렸다.

“그럼?”

“해빈이 형이 째어요.”

“그래? 해빈이 형은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근데 저녁에는 항상 등대에 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 우정아.”

아이가 폴짝폴짝 뛰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표정을 지우고 굵혔던 무릎을 폈다. 안해빈은 행방이 묘연한 용의자의 두 번째 부인의 아들 이름이었다. 고개를 돌려 횃집의 전경을 눈에 담았다. 적어도 나흘은 부지런히 돌 계획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있을지 없을지 확실 하지도 않았던 두 모자를 찾았다. 두 번째 부인이 내게 서울에서 왔냐고 물었던 것은 이전에 도 외부인이 찾아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내게 아들의 위치를 말해줬다는 건 그 외부인이 아무 소득 없이 암전히 돌아갔다는 뜻이고, 자신의 전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 용의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속단하지 말자.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동일인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바다가 보이는 산기슭을 거슬러 올라간 끝에 넓은 창고에 다다랐다. 파란 페인트칠이 형편없이 벗겨진 철문 너머 이 집은 풀숲에 가려져 있어서 은밀한 죽음이 머무를 최적의 장소였다. 들고 있던 시체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몸이 인형처럼 꺾여 흙바닥에 널브러졌다. 죽은 몸을 지고 산을 오른 탓에 온몸이 피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눈앞에서 성가시게 물결치는 검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허리를 폈다. 건조한 시선을 옮겨 아래를 봤다. 푸르죽죽한 파도가 거대한 회백색 낙숫물을 달고 까마득히 솟구쳤다가 단숨에 내려앉았다.

‘죽었어요.’

‘뭐?’

‘죽었다고요.’

불어터진 한 구의 시체는 건설사의 유일한 내 편이 양지바른 곳에 묻어 주기로 했다. 직급을 괜히 단 게 아닐 테니 문제는 없을 것이다. 비밀을 지켜 달라며 빗도 달았다. 그래 봤자 웃기지 않은 조폭의 의리 부탁일 게 뻔했지만, 그 남자가 상도덕이 무엇인지 안다면 누군가에게 들킬 걱정은 없었다.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 아래를 구기듯 잡아 담배 한 개비를 올리고 입에 물었다. 지포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되는 일이 없어 실패했다. 하는 수 없이 오래된 창고 안을 뒤져 공구함에서 더러워진 성냥을 찾았다. 담뱃불이 붙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성냥을 흔들며 남은 불을 껐다. 창고의 전면을 활짝 연 채 시체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네가 죽었냐?’

산에 올라오기 직전 최우광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구김살 없이 소리 내어 웃었다. 벌어진 입가로 담배 연기가 흠뻑졌다. 새하얗게 질려가는 얼굴이 어찌나 웃기던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날 믿지 못하는 걸 보면 신우건이 최우광에게 했던 경고가 제대로 먹힌 모양이었다.

‘저 아니에요.’

최우광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내가 사람까지 죽이는 밑바닥이 아니어서 다행이니?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차분한 얼굴로 충동을 대신했다.

‘익사했어요.’

몇 주 전, 나는 건설사로 위장한 깡패 집단에서 마약 유통의 증거를 모으기 위한 잠복 임무를 마치고 휴가를 떠났다가 탐정사무소로 들어온 급한 의뢰를 받고 복귀했다. 수뢰후부정처사죄—공무원이 수뢰 및 부정행위를 한 죄—로 붙잡히기 직전의 국회의원이 거액의 돈을 주고 위협인을 제거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그런 그가 나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다. 의원은 나를 만나자마자 우는 소리를 했다. 뇌물을 받아놓고 입을 닦았다가 칼을 맞았다며 안 그래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마당에 자신을 죽이지 못해 이를 가는 깡패들까지 감당해야 하는 게 부당하다고 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일갈하고 싶었지만 일단 사무소로 돌아와 최우광에게 의견을 물었다. 최우광은 인상을 쓰고 버럭버럭 화를 냈다.

‘우리가 무슨 범법행위 집단인 줄 알아!’

‘직접 처리할 수는 없지만, 정보를 흘려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업장 카운터로 잠복했던 건설사 있죠. 조사해 보니까 위협인이 그 건설사의 반대 세력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약점을 건설사에 흘려 보는 게 어떤가요. 마침 건설사에서 쌓은 친분이 남아돌거든요.’

‘말이 건설사지 그놈들도 똑같은 깡패잖아.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정보를 그냥 넘길 리 없겠지. 알아서 지지고 볶고 닭대가리처럼 싸울 게 뻔하군.’

‘게다가 명확한 표적이예요.’

‘한동안은 의원이라는 놈에게 쏟을 정신이 없을 거라는 얘기지. 하지만 그놈이 죽기라도 하면? 그건 용납할 수 없어. 목숨은 목숨이다.’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설득에는 며칠이 걸렸다. 처음에는 이야기도 꺼내지 말라던 최우광은 내 계획을 반복적으로 듣더니 끝내 대꾸하지 않았다. 무언의 허락이었다. 자신은 책임지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허락. 나는 곧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의원을 위협한 깡패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사실 약점이라기보다는 빌미에 가까웠다. 깡패라는 족속들은 의리라면 죽고 못 살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 조직의 구역이나 사람을 건드리면 갚아주는 게 보통이었다. 그래서 깡패가 건설사를 건드렸다는 증거를 찾아 건설사 직원에게 내용을 넘겼다. 건설사가 깡패에게 보복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점은 신우건이 속한 <한국>의 기자 김창석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연줄인 의원에게 떠벌렸다는 것이다. 의원이 내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전화를 걸었을 때 간과하지 말았어야 했다. 깡패가 병원에 있던 의원을 습격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처가 빨랐다. 사전에 고용한 경호원에 의해 구출된 의원은 담요를 두르고 벌벌 떨다가 실토했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면서 내 정체를 깡패에게 불었다고. 게다가 그 말이 진짜라는 각서까지 썼다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깡패는 살기 위해 나와 건설사의 조직원을 배신자로 싸잡을 것이다. 더 이상 그곳 소속이 아닌 나는 그렇다고 쳐도, 그 조직원은 꿈쩍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배신자의 죽음은 건설사에서 잠복하면서 수도 없이 봐왔다. 익사(溺死)였다.

해안 마을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할 시체를 땅에라도 묻어 달라며 넘긴 이후, 내가 죽게 만든 그 시체는 어째선지 양지바른 무덤이 아닌 멀리 떨어진 강에서 발견됐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고 했는데, 최우광은 신우건이 이 사건을 맡았다고 했다.

‘연고 없는 시체 사건이란다.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주….’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요. 아직도 자기 선배가 죽은 일로 플래시백을 겪잖아요. 깡패라면 치를 떨 거예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알아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건 너지. 고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이 죽었어. 연관됐다는 거 들어서 이번에는말로 연 끊기 싫으면 이 사건은 쳐다보지도 마.’

‘연을 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예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건 싫어요. 오죽하면 원미정 씨가 신우건이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하겠어요. 받고 있던 심리 상담이 PTSD 치료로 전환됐는데도 트라우마에 직면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상담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다 자길 억압할 핑계를 준 나 때문에….’

‘그만. 더는 못 들어주겠어. 정신 차리고 찬물로 세수하고 와. 네 잘못이 아니야. 알잖아. 이렇게 하자. 원미정이랑 신우건, 요즘 김창석인지 뭔지를 사건팀에서 내보내려고 한다더라. 김창석 뒤를 봐주는 그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김창석을 버리게 만들 거래. 신우건이 맡은 사건, 사람이 죽은 사건이야. 거기 연루된 김창석은 김창석 나름대로 불안해서 자기가 신우건 사건 맡으려고 할 거고, 김창석이 그 사건을 파고 다니면 의원 입장에서는 김창석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할 거다. 원미정한테 부탁해서 신우건 사건 김창석한테 넘기라고 해. 그러면 네 절절한 사랑은 깡패랑 안 엮여서 좋고, 너 나름대로 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고, 원미정은 김창석 쫓아낼 수 있어서 좋고. 그치?’

그래, 더해서 신우건을 환기시키는 데도 좋을 것 같았다. 김창석의 사건을 이용한다면. 최우광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대암산 사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거 봐라. 살아났네. 그건 왜. 완전 끝물이야. 이틀 전에 안해빈 찾았대. 범행 도구는 조각칼이고. DNA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한테 사주를 받은 건 아니라더라. 그 조각칼이 원래 안해빈한테 소중한 물건이라더군. 용의자가 안해빈의 친부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안해빈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한다고 가정하면, 친족 특례법 덕분에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다.”

“그거 아직 터뜨리지 말아요. 그 사람이 직접 찾게 해 주죠. 정이 많으니 안해빈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워할 거고, 그 심성에 경찰한테 안해빈을 못 찾았다고 하진 않을 거고, 극적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하면 기뻐하겠네요.”

“너 지금…. 아니, 똑똑한 놈이 그걸 속겠나?”

“속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잘만 하면 그 사람 상태도 분명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 줘요.”

신우건은 등대에 기댄 남자를 쉽게 찾아냈다. 가까운 방파제 위로 파도가 쳤다. 검은 바다에 끌려들어간 바닷물의 소용돌이가 돌의 잔해를 삼키고, 수면에 부딪힌 고기잡이배의 불빛이 어떤 영광처럼 반짝였다. 남자는 등대를 벗 삼아 작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고 있었는데, 인기척에도 신우건을 돌아보지 않았다. 신우건도 구태여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성인이 된 지 오 년도 채 되지 않은 게 한눈에 보이는 어린 남자의 옆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남자는 조각에 열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미세하게 떨리는 손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신우건은 남자가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침묵을 유지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본뜬 조각이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다. 신우건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신우건이 완전히 자리를 뜨기 전에 조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기요. 왜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신우건이 대답했다.

“신이 나를 돕는 줄 알았는데, 널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그는 등대만을 위한 길을 따라 안해빈으로부터 멀어졌다. 신우건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대에 어른거리던 남은 사람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대신에 물결치는 바다의 표면에 작은 기포가 올라오다가 그마저도 멎었다.

안해빈은 조각예술계의 기대주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들기 전까진 그랬다. 경찰이 찾은 증거물은 전문가용 삼각도였는데, 안해빈이 조각에 빠졌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한 도구 제작자가 시그니처 문양까지 새겨 만든 고급 조각칼이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범행을 돕기 위해 증거물을 훔쳤다는 변호사의 주장과는 다르게 안해빈은 자신의 물건이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 그의 인생을 시사하라면 남는 게 범행 도구로 전락한 조각칼뿐이라서, 단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친 것이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찾기 이전에 안해빈이 피의자의 아들이라는 것부터 밝혀내야 했다. 피의자가 안해빈을 향한 명목상 지원의 출처를 알 수 없도록 그 경로를 배배 꼬았으며 혹여 조각가 안해빈이 아닌 아들 안해빈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날까 철저히 숨겼기 때문이다. 세 번째 부인은 피의자가 안해빈을 아들로 인정하는 녹음본을 제출했다. 세 번째 부인과 피의자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 첫 번째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을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던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안해빈과 함께 도망쳤던 피의자의 두 번째 부인이 안해빈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안해빈의 친모는 대암산에 버려진 네 번째 부인이었다. 그 모녀는 아버지를 제외한 안해빈의 유일한 핏줄이었는데 죽어버렸다. 이로써 안해빈은 하나뿐인 보호자에게 23년간 방치된 셈이었다.

[우수상]

서정사(抒情思)

심리학과
20202141 조석환

이 이야기는 픽-손으로 실재하는 사건, 사고, 인지, 인물, 언어와의 어떠한 상사의 일치함은 필시 자연의 이치요. 허나 실상은 더욱이 혹사요.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고 한다면, 내가 죽었을 때 올라오는 엔딩-크레디트에 신세를 진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많을지, 다른 사람들의 엔딩-크레디트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횟수가 많을지 나는 궁금하오. 이 둘 중 어느 영화가 나에게 더 큰 쾌락을 선사할지도 궁금하오. 더 이상 밀려 떨어질 곳조차 잃어버린 낙오자요. 정말이지 실로 유쾌하지 않을 수가 없소. 이런 때에 대기만성이라는 핑계로 낙오를 합리화하는 자위가 유쾌하오. 그렇기에 나는 글을 쓸 줄 모르오. 그저 글과 감성을 훔치는 것 밖에 모를 뿐이오. 그렇기에 나는 와해 된 언어를 끼우고, 기워서 망상을 글로 조각할 뿐이오. 그렇기에 나는 중앙선을 따라 달리는 당신들의 감성을 찬양하오리다.

나의 스승은 이리 고하였소. 굳-바이. 그것은 어떤 이모손(뇌에서 느끼는 호르몬 같은 생리학적인 현상인지, 가슴속 심장 아래 공방에서 제조되는 감각인지, 아니면 순전히 말뿐만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방관자 당신들의 몫이오.).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과 환경에 의해 채워지는 그 이모손을 나는 괴로워하고 있소. 나는 아프고 아파야 나의 이모손이 나오고, 내가 우울(당신들과는 결이 다른 우울이오. 당신들의 우울은 감기 같은 것이라면, 나의 우울은 마치 신병과도 같소.)하여 내 자신을 혐오하고, 내 정신을 자해할 때에 비로소 이모손을 진열대에 마냥 늘어놓을 수가 있소. 그리고 그럴듯한 글자를 훔쳐 모아 어여쁘게 포장을 하오. 굳-바이.

각자의 사상이 맞닿아 생긴 분쟁지대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들은 보시오. 나를 보시오. 그리고 위안을 얻어 가시오. 될 수 있거든 무리라는 것을 나에게 버리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짊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이오. 구원자라 일컬어지는 자가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그대들의 무리를 내가 짊어지겠소. 이 세상의 그릇이 비약적인 나의 세계를 다 담지 못하니 내가 그리하는 것이 맞는 도리가 아닌가 싶소.

눈을 떴다. 정확히는 눈이 뜨였다. 죽지 못했던 아침이 방조죄를 피하려는 듯 나를 깨웠다. 만유인력에 이끌려 사과가 떨어지듯이 나의 허파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호흡을 한다. 그저 그뿐이다. 어떠한 목표나 사명감 그런 것 없이 꽃이 스스로 피고 지는 이유를 모른

채 피고 지는 것처럼 숨을 쉬고 또 숨을 쉬어지고 있다. 이리저리 말에 치이며 움직이는 것이 그나마 있는 나의 활동이다. 오히려 마-네킨 이나 괴뢰가 나보다 가치 있게 활동을 한다. 시간에 떠밀려 허무와 공허도 남지 않은 육신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실패가 이어졌다. 이런 실패들의 하루가 선으로 연장되어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수년간하고 또 실험도 수없이 했지만 그 연구는 늘 실패였다. 이러한 실패에 너무나 물려 영원히 잠과 꿈속으로 망명하고 싶다. 국경도 비자도 없을진대 왜 그리 가기 힘든 것인지 영문을 도통 모르겠다. 한탄을 자아내고 있는 동안 매-너리즘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일상이 통곡의 벽보다 못 한 비루한 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최소한의 양치와 세수를 하고 늘 걸려있던 옷으로 환태를 하고 나왔다. 내 방을 무단 점거한 햇빛과 달리 바깥의 하늘은 너무나 눈부셔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 밖으로 나가기를 꺼렸다. 문턱에 서서 나갈까 돌아갈까 이길까 지고말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살고말까 죽고말까와 같은 흑백양면의 단순 사고 고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갈등보다는 저 햇빛이 밝혀주는 맑은 하늘이 싫었고 기억 저편에서 앵-커가를 내려 그 시간에 정박한 공기의 냄새가 싫었다. 정확히는 점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잃게 하는 시간의 감각에 지쳤고 지쳐버린 얼굴을 거리의 쇼-오 윈-도에 진열해 스와-읏를 하는 나날들에 지쳐버렸다. 하다 못 해 날이 안개로 자욱했으면 한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서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물방울들을 들숨에 들이켜 마셔 나의 비강과 기도 그리고 폐포의 끝자락까지 적셔 내 뇌 속을 세척해주었으면 한다. 가슴기를 틀어 온 세상을 잠기게 한 것이 아닌 오늘 같은 날은 그저 온전히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온도와 습도 꿈꿨음과 라-벤더 향이 섞인 내 방의 쿼퀴함 속에서 간혀 캄캄한 어둠의 요람에 안기고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지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려 꼭 들어 찬 내 머리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작은 환단을 삼켜 육신에 밀어 넣고 내 망상체의 어떤 한 기능을 강화해 다른 기능들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그리고 깨어나면 날이 15센티 정도의 쇠붙이에 팔을 내어주고 해발고도 약 45센티 정도의 높이에 매달려 경치를 감상하고 중력 가속도 9.8에게 자유낙하운동을 사과에게서 배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자기귀결을 결심하고 또 결심해 육신이 아닌 정신과 내면 그리고 저주받은 감정에게 자해의 쾌락을 탐미하고 싶을 뿐이다. 아침이 나에게 그랬듯이, 일상도 나의 쾌락을 방관하지 못하는지 밖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완강히 거부를 하고 싶었지만 딱 그 마음만 들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신세를 한탄조차 못하는 겁쟁이가 된지 이미 오래다.

나의 리비-도우와 타나토쓰가 외출 타기를 하며 상사상애를 한지 강산이 두어 번 바뀌고 달이 지구가 태양을 감싸 안는 것을 몇 번째 관음 하는 것을 셋별이 또 몇 번째 관음을 했을 적. 나는 이 사이에서 일찍이 나태도 느껴서 나태해진 권태를 느낀지라 그저 무엇이 되었던 내가 나를 잃어버려 끝을 내든 허락받지 못 한 죽음을 탐하여 끝을 내든 아니면 나의 뇌 내 기능이 정지되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든 어떻게든 삶을 오래 쉬고 싶지만 그와 동시에 또 어떻게든 삶을 이어 가보려는 이중적이고 서로 상충하는 무언가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보이지 않는 어떤 힘인지 원리인지 이치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다른 톱니바퀴처럼 그저 액정 화면 속에 있는 유희의 즐길 수 있는 역할처럼 자주성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어진 섭리를 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무의식 속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저 그런 마음만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에 또 꼬리를 물어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내 자유의지 인지 아니면 짜여진 무언가의 일부인지를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귀찮고 피곤해서 이 산파를 그만두기로 했다(산파가 되었던 나의 생명유지를 포기하든 말든 굴레에 의해 조종을 당하든 무엇 하나 끝나야만 하는 것은 확실하다.). 거리에 나왔기에 나는 마-아스크를 쓰고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썼다. 사람들의 시선에 표상되어 멧힌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저 햇빛이 원망스럽고 싫어서다. 가야 할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가기 싫다는 불평불만을 속으로 토하는 매일 치르는 통과의를 끝낸 후에 발걸음을 옮겼다. 수백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실로 있는지도 모르는 지식을 사고 팔고 내 시간과 몸으로 돈을 사는 시계태엽과 같은 하루의 직전이다. 이례에 두어 번 정도는 지식을 사지도 내 시간과 몸으로 돈을 사지 않는 날이 있다. 이런 날에는 방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방탕함을 음미할 때도 있고, 나의 몽중으로 떠나 도피와 몽롱함을 탐닉하기도 한다. 이 것만의 유일한 삶의 낙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날들 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의 도원향으로 떠나기 전에는 항상 눈앞에 자꾸만 뭔가 지나간다. 조금만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하다. 아아 이것이 흔히들 부르는 주마등 필름인가 보다. 요람에게 세를 얻었을 때 보았던 하늘의 모오빌이라던가 나의 성장을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지켜봐 주었던 유희거리들 언젠가 즐거웠었던 감각을 담아준 학교 운동장의 흙 내음과 공기라던가 그런 나의 지나가버린 파편들이 담겨있는 그런 필름인가 보다. 내 두개골 속 영사실에 있는 해마체 영사기에 주마등 필름을 끼워 넣어 눈꺼풀로 암막과 스크리-인을 만들어 천천히 영사기를 돌렸다. 철이 없었기에 활력이 넘쳤었고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웃는 날이 많았으며 책임감이 적었기에 아름다웠다. 찰나에 불과한 한 때였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끝을 모르는 영겁의 행복 즐거움 같이 표현하기 어려운 좋은 감정이다. 나에게도 언젠가 목표라는 것이 있었다. 그 목표를 위한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보람찬 고생들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삶이라는 것을 모았다. 그 것들을 한데 모아 엮어 배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러한 행위에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위해 상처를 입고 입히고 했지만 행복한 흥이 들었다. 텅 비어버린 지금의 나에게는 사치 그 이상의 허영심으로 더 이상은 가지지 못하는 심상에 그친다. 한 때가 한 때인지라 그 한 때를 그리워하며 반추로 곱씹을 수밖에 없다. 반추로 곱씹을 수밖에 없는지라 나는 문득 심술이 났다. 너무나도 심술이나 만인에게 걸어 차여버린 월요일 속에서 좌향 좌에서 오른쪽을 보고 싶었고 여우들에게 사냥당하는 사냥개의 모습이 보고 싶었다. 또 단 하루의 어제를 위해 수 많은 내일들과 바꾸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나에게 맞물려있는 톱니바퀴들에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다고 고하고 싶었다. 이 심술을 폐와 폐 사이와 횡격막 사이의 공간에 한껏 모아 한숨으로 내쉬었다. 이 한숨이 아달린과 같은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한숨은 바다에 빗방울 하나가 떨어져 떨어지듯이 하늘 위로 퍼져나갔다. 나의 한숨을 풀어헤친 텅빈 저 하늘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나는 불평을 할 수 가없었다. 불평을 할 여력은 나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 내던져진 일개 소시민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비겁한 자위를 한다. 이러는 사이에 하루가 물었다. 정말이지 나태하기 짝이 없는 하루였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인 관 짝에 돌아와 나에게 가장 생산적인 일과인 반추에 대한 반추를 할 준비를 했다. 이 일과를 하는데 무엇인가 틀어놓고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늘은 탁상 위에서 시간의 티끌에게 봉쇄 당한 텔레비존을 깨웠다. 그러고서 그 어떤 의미나 내용을 전달받지 아니하고 반추에 내 스스로를 걸어 잠그었다. 그렇게 마지막 일과를 하는 도중 텔레비존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아무 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낭만을 가득 채워주던 오래된 에-쓰에프 영화의 소리였다. 그 영화는 여러 행성과 은하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다. 우주를 날아다니는 군선과 같은 첨단 기술이 있는데도 광선 입자로 이루어진 냉병기를 버리지 않고 싸우는 그런 영화였다. 정의와 악의라는 시시콜콜하고 뻔하디 뻔한 그런 이유로 주인공과 그들의 무리 악당과 그들의 무리가 서로 싸우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은 악당이 주인공의 모친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죽음으로 끝난다. 이 클래식-결한 영화는 어렸던 나에게 우주의 배경 각 행성들 마다 다른 모습들 내 짧은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은하와 행성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군선들이 과학자와 천문학자라는 꿈을 탁란 했다. 그렇게 탁란 된 꿈은 부화하는 듯했으나 현실의 등지에게 거부되어 곤계란으로 변했다. 문드러진 꿈은 삶아 끓아진 쪼뎂기로 남아 문신 같은 아물지 않는 흉터가 되어 사라졌다. 이 흉터를 씹어 볼 때마다 에-쓰에프 영화에서 주인공의 모친이 주인공에게 패배했을 때의 심정을 그 무엇도 되지 못한 어른이 되어서야 조금은 알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준비조차 되지 않았는데 시간은 어느새 나에게 어른의 관을 씌웠기에 그 무게에 짓눌려 무엇도 되지 못한 어른이 되었다. 누군가가 이런 나를 표상해보라고 일컫는다면 크레이-웬 한 가지 색(검은색이던, 흰색이던 색 따위는 그리 중요치 않다.)으로 칠하기는 하겠다만 내 전부를 칠하지는 못 할 것이다. 칠하지 못한 여백조차도 내가 맞지만 나의 자유의지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칠해진 부분도 또한 내 자유의지로 어찌하지 못한다. 분명 전부 나이지만 내가 아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 자아는 파도에 떠밀려 팽이갈매기 떼에게 쪼여 먹히거나 마지막 남은 오얏나무와 대추나무로 지어진 간이역의 대합실의 난로 앞에서 그 어디로도 가지 못 하는 사치를 누리지도 못 한다. 그렇기에 수정되지 못하는 마음의 버어-그를 인두로 삼아 그 무엇도 가지지도 못한 길 잃은 사회의 방랑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어냈다. 이 세계에 사소한 저항도 되지 못 하는 나의 수식을 내가 실행하고 세계에 의미 없는 결과값을 도출한다. 나에게 목줄을 채우는 이 세상의 수식을 내가 실행당해 나에게 낙인뿐인 결과값을 도출한다. 수식을 실행하고 결과값을 내고 또 수식을 실행하고 처형하는 반복의 먹이사슬이 늘어진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나와 이 차원의 꼬리잡기는 권태롭지만 약간은 즐겁기에 그만두기를 쉽사리 할 수가 없었다. 내 뇌 속의 뇌가 과부화에 걸려 쉬이 피로해져서 인지 텔레비존의 음성이 점차 쇠해지면서 나의 마지막 일과를 어떻게 끝냈는지도 모르는 채 도원향으로 도달해

있었다.

몸이 찌뿌둥해 일어났다(정확히는 온 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일어났다). 지금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숫자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이 미안해서 지금의 때를 확인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뭔가를 할 정도로 적당한 때였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은 작일과 달리 수동적인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작야의 반추 덕분인지 머리가 어질어질해 평소와 같은 인지기능을 할 수 있는 콘다-손이 수동적인 생산적 활동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조금 좋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전두골과 두정골에 내 주먹만 한 구멍을 뚫어 두개골 속을 환기시키거나 두개골 뚜껑을 열어 내 뇌를 반죽마냥 주무르거나 냉동고에 넣어둔 얼린 쇠 주걱으로 저어서 상쾌한 반죽을 하고 싶었다. 이곳에서는 당연히 할 수 없으니 언젠가 도원향에서 하기로 미뤘다. 할 수 있는 것은 산보 말고는 결정지와 선택권이 없기에 산보를 하기로 했다. 호수가 복부를 강타하여 파열된 듯한 공원으로 나왔다. 태양이 조율적에 나와서인지 무릇 경치가 낮을 가리는 것 같았다. 낮을 가리는 경치에 문득 반향이 하고 싶어서 공원에 비대칭적인 위치에 돌기처럼 난 분수대를 향했다. 제법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갓 순이 돌아난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내외들이 있었고 바람에 흩날려 줄기와 잎만 남은 내외들도 있었고 이제 막 저마다의 인생을 물들이기 시작한 연인들도 꽤 있었다. 각각의 한쪽에는 이들의 가벼운 여흥과 추억을 위해 공연을 하는 예술인들도 있었다.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 사이 공연을 준비하는 한 예술인의 앞에 멈춰서 그이의 공연을 기다렸다. 얼핏 듣기로는 그이가 마술 공연을 한다고 했다. 이 풍문이 바람 따라 떠돌아다녔는지 사람들이 모여 극장 못 지 않는 무대가 잉태되어 태어났다. 이때를 기다린 건지 그저 때가 된 건지 모르지만 그이는 공연을 시작했다. 시작이 시작인지라 몸풀기 같이 가볍고 소소한 마술로 아직 낭만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소한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선물해 주었다. 찌들어진 나도 이미 떠나가 버린 아이였을 적의 마음을 흉내 내며 즐기고 있었다. 그렇게 한 참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으로 유희를 불어넣어 줄 무렵 그이는 마지막이라며 탈출 마술을 선보인다고 선언했다. 관객들 중에서 건장한 청년 두 명(당연한 사실이지만 모두가 이 공연에서 처음 보는 물고기와 나무였다.)에게 상체를 결박하는 구속복을 입혀 달라고 하여 인형 옷 갈아입는 놀이처럼 입었고 대략 열 척 정도 길이의 쇠사슬에 자신에게 감아 달라 하여 묶였다(사실은 이때부터 퐁퐁 묶인 듯한 눈속임이 들어간 것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물쇠는 손가락을 엮듯이 마지막에 잠겼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완전 봉쇄였다. 적당히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과 함께 첫 탈출을 시도했으나 역시나 계획한 의도와 연출대로 실패를 한 척하고 관객의 호응과 동정을 사기 위해 묶인 채로 공연을 마무리하는 척을 했다. 그러자 관중에게서 한 번 더라는 메아리가 그이의 계약대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이는 큰 감명과 응원을 받은 듯한 기세로 진짜 탈출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자신은 이 근처의 중등학교를 마쳤고 자기네 동창들은 배움의 장으로 나가 사회인이 되고 또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로 지금 현재 그이의 모습과 대비되게 살짝의 연출을 했다. 그러나 그이는 남들이 그럴 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다른 곳에서도

공연을 하고 또 지금 여기서 공연을 한다는 끌리-쉐에를 보였다. 지금의 보여주고 있는 유희는 무료가 아니다. 그저 동냥을 얻기 위한 서사와 익살을 녹여내 호소를 이어갔다. 자신은 비록 제대로 된 무대가 아닌 공원의 변두리에서 공연을 하지만 이런 거리에서 하는 공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이 거리에서 살아가고 바람 따라 떠도는 사람이라는 마지막 동냥을 구한 후 극적인 연출로 탈출해 공연을 마쳤다. 공연이 끝난 후 모두가 분업을 맡은 듯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이에게 동냥을 하는 사람을 동냥을 주고 떠났다. 그 동냥에는 그이가 불쌍하고 생계가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자신의 아이에게 즐거운 추억과 유희를 선사해 준 응당한 값과 그이가 호소한 꿈에 감응했기에 자신의 몫까지 이루었으면 하는 욕심의 조각을 양도하는 값으로 치렀을 것이다.

나 또한 그이에게 동냥을 주고 싶었지만 등을 돌려 떠났다. 내가 동냥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이의 꿈과 재능을 모독하고 싶지 않았고, 그를 비롯한 다른 예술인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알량한 금전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미 잃어버린(어쩌면 나는 빼앗겨서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이가 걸어가는 길을 잘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과 격려가 그것뿐이었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에 그것을 폄하하지 않기 위한 내 나름의 성의 표시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며 동냥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나무랄 수 있겠지만은 나는 그런 손가락질 따위에 할애할 신경은 없다. 그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리라. 호수의 일렁이는 물결의 표면이 월광에 흘러 명창이 되어있었다. 나는 나보다 앞서 떠나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병풍 삼아 나 또한 자리를 뒀다. 이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저 잠을 깨우기 위한 코호-피 한 잔인 걸까? 아니면 한낱 술주정뱅이의 천일야화인 걸까? 저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또 예술가 양반인 그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만일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쉽사리 대답을 못 하거니와 명확한 답안을 찾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이치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조조한 것에 지날지도 모른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대하지만 담지 못하는 그릇이 우리가 지각하지 못 하는 무언가의 선의나 악의로 설립한 걸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같은 고리타분하고 귀찮고 권태로운 고찰을 해야 하고 또 하이데거나 샤르트르 카뮈는 희대의 광대가 되어 찬합의 맨 아래 칸에서 나에게 주저를 부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갈잡은 주저에 저주에 걸려 고찰에 대한 반추를 하고 또 반추에 대한 고찰을 하며 지도의 암실에 갇혀 진실로 귀찮음과 권태에 빠져 니힐리즘의 교주의 옆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반추와 고찰이 유일한 호오르몬 자극제이지만 이런 식으로 오염된 자극제로 내 호오르몬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비웃음을 당하면 비웃음 당한 채로 살아가면 그만이고 부족하다고 비난을 받으면 비난받은 채로 내 의지 따위 상관없는 듯 돌아가는 원심력에 나를 맡겨 반영구적으로 가속시키면 그만이다. 성충권의 마천루에서부터 나선으로 빙빙 돌아 떨어져 대류권을 부유해 대륙권에 흐르는 야기가 전신주의 하품을 신호등의 숨소리를 정류장 표지판의 선잠을 사뿐히 즈려뺐은 탓에 나의 뇌수가 가히 물리학적인

저항을 버티지 못해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무릎 연골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대퇴이두근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복사근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기립근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견갑근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두판상근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후두근과 전두근이 점점 무거워졌다. 점점 무거워질수록 날개가 펼쳐져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엄중히 다가왔다. 하지만 내 다리는 중력을 이겨 낼 만큼의 양력을 낼 수가 없었기에 날기 위해서는 녹슨 고가도로(육교가 가장 완벽한 낙하운동을 할 수 있지만 어느새인가 육교는 도주해 버려 남은 곳이 없었다.)의 범 무늬 연석 위에서 낙하운동을 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짧은 한탄을 하자면 어울리는 시대에 태어나지 못해 미쓰코시 경성점의 금붕어를 보지 못 하고 옥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한이다. 이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소시민답게 무기력해진 채로 터덜터덜 밀물에 밀려 등지로 돌아왔다. 그리 기력을 소진할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피로가 역하게 올라왔다. 지금까지도 당장 쓰러질 듯한 기시감이 나를 포옹해 쫓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는 화학구조 결정체들이 묘혈에 핀 동백꽃의 아찔한 향기마저도 졸도시킬 만큼의 낙을 나에게 감히 허락을 하는 듯한 환상통을 주는 기분이었다. 암흑물질 덕분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 억울한 광자가 가정용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산실에 끌어당겨져 누웠다. 혼미하고 자몽하여 선의 경계 구분이 어려워졌다. 현관 앞에 청송을 흉내 내는 생강나무의 가지에 곧 사라질 내 날숨 하나를 망상의 실로 엮어 주술적 의미가 담긴 결계를 치듯이 금줄을 쳤다.

나의 감각과 지각을 있는 내 평행선을 살아가는 바리공주에게 담보로 내주어 도원향과 내방의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무엇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혼란스러웠다. 머리가 핑핑 돌듯이 어질어질 했다. 이만큼 유쾌함을 느껴 본 적은 없었다. 외줄 위를 처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뛰어다녔을 때의 성취감을 맛 본 어린광대가 이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축포를 쏘아 올릴 필요가 있다. 가볍게 생각으로 중얼거렸는데 길을 잃은 미아의 손을 잡아 그 아해의 보호자를 찾는 것 마냥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손에 화화가 쥐어져 있었고 축포를 찾는 내 모습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일천구백구십 칠 개의 축포 중 육백 이십 칠 개만이 축포를 올릴 화약이 장전되어 있었고 그 중에 이십 육 개의 축포만이 각혈과 토혈을 기입 없이 내뿜어 비로소 화약은 하늘의 별을 마주 볼 수 있었다. 마을 반대편에서 별똥별이라 착각하는 순수한 소녀가 기적을 기도 할 무렵에 화약은 언제나 항상 빛내는 우주의 야광별을 부러워했고 또 야광별은 흙에서 올라 사람들의 안자를 흠치는 화약을 시샘하는 것을 끝나기를 기다렸고 언쟁 하나 없이 조용히 끝났다. 별을 보고 온 화약은 다시 흙으로 돌아와 순간의 온기를 나에게 나누어 주었다. 재가 되어버린 화약이 쌓이고 쌓여 그동안의 내가 가진 모든 죄를 덮어 소실하려는 계략에 맞추어 진정 내가 존재해야 하는 곳을 향해 참회를 행하면 되는건가 싶었지만 기부 받은 온기는 나 발끝에서부터 기어 올라와 내 정수리까지 정복한 것에 만족을 못 했는지 수만 번 오르락내리락 했다. 따뜻함이 더움으로 변질 되었고 더움이 뜨거움으로 변질 되었다. 내 손에 파리를 틀었던 화화가 시뻘건 속내를 드러내 본 모습인 화마가 되어 온전히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실내에서 화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았지만 현관 앞에서 화마가 모든 것을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우아한 모습을 품평하며 관람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는 녀과 혼을 뺏겨 시간의 존재를 망각한 채로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어디서인가 익숙한 새벽 세시의 라장조 멜-로디가 들려왔다. 멜-로디가 점점 선명히 들리면서 화마에게 녀를 뺏긴 사람들이 많아졌고 군중 사이로 요란한 불빛을 내며 진압꾼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고도비만이 된 불을 본 진압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며 당신네끼리 무어라 말을 했다. 지금 이 광경이 나는 펍 즐거웠다. 마치 겨우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이 풍경이 파-르스 같았다. 조명과 음악과 여흥거리가 완벽하게 삼박자를 이루었다. 실소의 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려 할 때 즈음 뒤에서 양쪽 팔을 껴악 붙잡혔다. 잡힌 팔의 통증이 내가 화마의 식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화마를 잡으려는 진압꾼들에게 필사적으로 외쳤다. 제발 저 불을 자유롭게 풀어 주라고 말이다. 저 불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다. 그러니 부디 나를 죽이지 말라고 울부짖었다. 나의 절규는 사각형 안의 사각형 안의 사각형 속 건축무한육면각체에 갇혀 전해지지 못했고 그렇게 산화되어 사라졌다. 나의 모든 것이 방전되어 검은 연기에 올라탔다. 나는 맥없이 맨땅 위에 무릎을 처박아 내렸다. 난생 처음으로 찾은 내 삶의 의미였다. 그 불꽃이 누군가에게는 재앙과 같은 화재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앞으로 나아가게 앞길을 밝혀 주는 화톳불이었다. 머릿속에 화마가 남긴 새까만 매연이 들어찼다. 내 체온과 똑같은 선혈이 내 관자놀이에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측면안와해골에 직경 2할 1푼 8리 정도 되는 구멍이 생긴 기분도 들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통증은 안 느껴졌지만 싸늘하게 식은 주검의 체온과 같은 온도가 손 끝에서 전해졌다. 총성은 파-르스 같은 풍경의 소리에 묻혀 들렸는지 안들렸는지 모른다. 또한 내 뼈에 구멍을 낸 송곳이나 총이나 총알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구멍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찬 검은 매연이 한데에 한 점으로 응축되어 빠져 나가고 있다. 나의 모든 힘이 한 점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쾌락은 확실히 아니다. 내가 처음으로 찾은 나의 단칸방 서사시가 기록도 되지 못 한 채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또 다시 나는 허무병 중증 말기 환자에서 벗어나질 못 했다.

나의 허무병은 내가 가진 초능력 같은 감정의 능력에서 발병했다. 내가 예민한 것인지 감정 공감의 대역폭이 단파 라디오의 주파수 못지 않게 큰 탓인지 모르지만 나는 감정의 공명이 쉽게 되는 능력이 있다. 누군가의 작은 실소에도 크나 큰 희극을 본 것 마냥 크게 웃기도 했고, 타인의 작은 슬픔에 나에게 일어난 것 마냥 몇 날 며칠이고 눈물을 멈추지 않은 적도 있었다. 감정을 묘사할 뿐인 글자에도 내가 직접 겪은 것처럼 느꼈다. 살아있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축복처럼 느껴졌었다. 감정의 공명 덕분에 이야기에 몰입해 최대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겪지 못 한 일들을 내가 직접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허나 그 축복은 마루 밑에 숨겨진 주인 잃은 고무신 한쪽과 같이 속죄와 천벌 같은 저주가 숨어있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유용했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때에는 유용했다. 혼자 돌아설 때에는 감정의 가시나무가 자라 나에게

넙쿨을 뺏어 나갔다. 아픔에 시달려 울고 웃은 미래가 되지 못 한 밤들이 파편으로 조각난 나날들이었다. 그리고 나의 일상에 침투해 곳곳이 스며들었고 각질이 쌓인 나의 감정은 끓아 졌지만 딱지가 생기지는 않았다. 아파하는 것에 이제는 지쳤기에 역지로 무감각해지고 감정을 외면하기로 했다. 그렇게 점점 나는 감정이 비어져 허무가 채워졌다. 그렇게 나의 허무병은 시작되었다. 허무병의 치료법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고치고 싶은 의지나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저 이 또한 나이기에 내가 안고 가야 하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숙명보다는 쌍둥이같이 나에게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피로하다. 조금 더 내 허무병에 대한 고찰을 하고 싶지만 이제는 기운이 없다. 암막이 내려진다. 내 아버지 고향 마당에 있는 밤나무가 보고 싶어졌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 고향에 있는 온천에 내 욕신을 넣어두고 싶어졌다. 빠져나간 검은 매연이 요람이 되어 나를 잠식하는 움직임에 나의 정신을 온전히 맡겼다.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교과서 속 문호가 나를 매섭게 노려본다. 어렵 뜻이 동백 내음이 만개한다. 이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못한 죽음이라는 것이라면 아쉬움 하나 없이 파문힐 것이다. 달콤하다. 그 무엇과도 감히 견줄 수 없는(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선악과일 것이다.) 달콤함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어 지금 이 순간이 멈췄으면 한다. 그렇게 나는 심연의 늪에 스스로 빠져들어갔다.

눈을 떴다. 정확히는 눈이 뜨였다. 죽지 못했던 아침이 방조죄를 피하려는 듯 나를 깨웠다. 만유인력에 이끌려 사과가 떨어지듯이 나의 허파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호흡을 한다. 그저 그뿐이다.

[우수상]

감정선(感情線)

국어국문학전공
20181008 김경희

[1장. 병든 소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눈에선 초록색, 아니 그보다 더 영롱한 에메랄드빛의 선이 나와 목사와 목사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 모형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다.

‘에메랄드 빛민음, 선망, 기대 등이 섞여있는 감정들’

나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없다. 공감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다. 내가 독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없다. 그 감정을 그저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이해할 뿐. 사실 이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학습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해야하나.

나는 알렉시티미아(Alexithymia).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뇌의 편도체 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내 첫 기억은 엄마의 손을 잡고 간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었고 엄마는 혹여나 내가 들을까 내 귀를 막고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의사의 설명이 마치고 엄마의 눈을 마주본 순간 엄마의 눈으로부터 나는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의 선이 나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집으려 하는 순간 무엇인가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다.

‘두려움, 미안함, 애정’

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사람들의 감정이 선의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통은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인다. 만약 그 감정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 선을 만지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 선을 따라 시선을 집중하면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엄마는 나에게 수많은 감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감정은 본래 서로 나누며 ‘교감’이라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지만 나는 해당되지 않았다. 엄마는 처음에는 본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

“도원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엄마 눈에서 나오는 색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 노란색하고 중간에 파란색 점 같은 것도 보여요”

감정은 속일 수 없다. 누군가를 ‘완전히’ 사랑한적 있는가? 그 사람에게 100% 사랑의 감정만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다.

사람들이 색을 통해 느껴지는 이미지들이 감정의 색이 되어 선으로 나타난다. 밝은 계열은 사랑과 평화, 존중과 배려 이타주의적인 마음, 정의 등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감정들. 어두운 계열은 짜증, 우울, 좌절,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처럼 말이다.

엄마의 감정에서 나는 파란색을 보았다. 나를 향한 사랑의 감정 속에 무엇인가 부정적인 파란색이 섞여있다.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키우며 희생되었던 자기만의 시간, 커리어 삶이 그 원인일까 아니면 나를 보면 엄마를 버리고 떠난 아빠가 생각나서 그런걸까. 엄마가 말해주지 않는 한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엄마는

“엄마는 우리 도원이를 100%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했다. 정말 100%로 보인다면 더 좋았을텐데. 내게 보인 0.1% 파란색은 보이지 않았으면 했다.

[2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는 세계, 참으로 알록달록 할 것 같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짙은 회색. 공허함과 먼지 쌓인 책장을 연상케 하는 색이다.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선 회색의 빛이 주를 이룬다. 그들의 감정을 내가 모두 알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색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 14살 소년이 겪은 사회의 첫인상이었다.

감정선(내가 보이는 것들을 감정 선으로 부르기로 정의했다)은 누군가에게 연결 될 때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화를 하거나 교감을 할땐 선으로 나타나지만 아무와도 교감하고 있지 않거나 혼자만의 감정에 빠져있을 땐 그 눈에 머물러있는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 고요한 회색의 눈빛. 그저 아무생각이 없거나, 혹은 누구와도 교감하지 못할 때 회색빛의 눈이 나타난다.

‘도시의 불빛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빼앗아 간 것만 같다.’

사연은 감정을 보다 세밀하게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사연을 지니고 살아간다. 사연을 많이 겪은 사람의 눈은 검은색에 가까운 빛을 낸다. 색의 삼원색처럼. 감정들이 섞이면 섞일수록 검은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감정선은 삼원색의 법칙을 따르는 듯하다)

언젠가 한번 노숙자와 대화를 할 일이 생겼다. 대학교 전공수업 과제로 현재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고충과 그들이 생겨난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다. 지하철역을 누비며 많은 노숙자들의 눈빛을 보았다. 삶의 의지를 잃은 회색빛의 눈. 술에 취해 현실을 도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끝없이 되뇌이는 이의 짙은 황갈색의 눈빛. 한쪽에는 차가운 푸른색의 눈, 한쪽에는 누구라도 잡아먹을 듯한 맹수의 눈같이 붉게 타오르는 눈을 한 주변을 살피며 극도로 경계하는 눈도 있었다. 서로 반대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듯한 강렬한 눈빛이었다. 그 중에 내가 처음 본 ‘암흑에 가까운 검은색’의 눈을 한 이가 있었다.

검은색이라니. 흥미로웠다. 무슨 사연을 저렇게 깊게 가지고 있었는가. 빨리 들어갈 것만 같은 검은색의 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말을 걸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노숙자는 경계하는 표정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낡은 기타만을 끌어안고 노래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내 슬픔과 고통...”

노숙자는 신에 대해서 노래하는 듯했다. 찬송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알고 있다.

“혹시 다른 노래도 불러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와 대화를 하고 싶었다. 과제 때문은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그의 기타 가방 안에 만원을 넣었다.

“내 노래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노래 가사가 좋아서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교회는 안다닙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더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도 교회도 안다니고 신을 믿진 않지만 그저 신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그의 눈에 집중했다. 암흑에 가까운 검은 눈. 노래를 부를수록 그의 눈에 가시넝쿨 같이 얹힌 검은 빛이 흔들리며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했다. 그에게 나오는 검은 빛의 선은 기타의 선율을 따라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

‘채도도 명도도 낮아서 검은색처럼 보였지만 피같이 검은 검붉은색, 남색에 가까운 보라색, 자줏빛 점들... 그리고...’

유일하게 밝은 초록색의 작은 불빛. 노숙자의 감정 선의 끝은 반딧불이 처럼 그 꼬리는 희미한 초록색으로 빛났고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신기한 광경이다. 이자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걸까. 그의 감정 선을 보지 않아도 귀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죽음이 생각될 정도로 깊은 애환, 사별의 아픔이 담긴 짙은 붉은색과 배신과 실패의 고통으로 얻은 남색 베이스의 짙은 청록색. 그리고 괴로움을 끝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에메랄드 빛 초록색’

신은 어떤 존재인가.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그의 피조물 중 하나가 이렇게 고통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피조물의 절규를 신은 듣고 있는가

많은 감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된다. 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에 신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고통을 몰랐다.

[3장. 눈을 뜨고]

내가 어쩌다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었다.(어머니는 내가 수학과로 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복지사도 엄연히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된다. 어쩌면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도움과 관계를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도움이 될테니 말이다. 정해진 규범 이상으로, 이하로 일을 하게 되어서도 안 된다. 딱 정해진 만큼만.

근데 저 친구는 그게 잘 안되나 보다.

“제가 도와 드릴게요 할머니~”

“아니 시간도 끝났는데 어서가~ 아르바이트 있다며”

“여기서 별로 안 멀어서 금방 가요~ 아직 여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갈게요 제가 있고싶어서 그런거예요”

양아린. 노인복지관으로 같이 실습을 나오게 된 같은 과 학생이다.

‘할머니의 눈에 비춰진 초록색과 노란색의 조화. 그리고 약간의 보라색.’

보라색은 참으로 신비한 색이다. 보라색 선을 볼때면 항상 흥미로워 진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중간지점. 채도가 낮아지면 검은색에 가까워지고 채도가 높아지면 분홍색에 가까워지는 오묘한 색. 본래 뚜렷한 색이 보이지 않던 할머니의 눈에선 조화로운 색들이 채워져 나가고 있었다. 감정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 일까. 그리고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

‘검은색 눈동자. 그뿐.’

소녀의 눈에는 아무런 색의 빛도, 선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사람의 눈이다. 평범한 사람의 눈을 본적이 있던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런 빛도 선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눈을 가졌다. 대체 이건 무엇일까. 소녀의 평범함은 나에게서는 특별함으로 다가왔다.

“저기...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알고 있는데도 물었다. 대화를 좀 더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아린이요. 양 아린.”

“아 네. 같이 실습 나왔는데 이름도 모르고 지낸 것 같아서요. 저는 강도원입니다.”

“알고 있어요 도원님. 실습명단 나왔을 때 확인했는데, 그리고 학번 보니까 저보다 선배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2년정도 빠르긴 합니다.”

“아 저 아르바이트 시간에 늦어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주에 뵈게요!”

여전히 아무 선도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겠지.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싶지 않아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나와 다르게.

감정 선이 보이는 것의 장점중 하나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설령 선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있다고 한들, 내게 보이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초조함과 불안함의 감정만 내비칠 뿐이다. 거짓말의 유무. 그것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길이며 이는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말을 끝이곧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 진정 무슨 의미로 말한 것일까 늘 고민하며 정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오랜만에 그런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순간이었다. 짧은 대화 속 나는 아무런 감정도 분석하지 않아도 되었다. 말의 속뜻을 생각해보는 고민의 순간이 없었다.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이 편안한 순간. 눈을 감을 때 외에는 느낄 수 없던 시간을 눈을 뜨고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나는 새로운 것을 보았다.

[4장. 죄의 형벌]

편안하고 싶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지각 할 수 있는 것)은 불쾌한 것과 그저 그런 것. 나를 만족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정도 인 듯 싶었다.

“감정이 없으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건가? 밤길을 혼자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은거예요?”

“편도체를 제거한 쥐와 같죠. 더 이상 천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언젠가 심리학수업을 들었던 때가 있었다. 뇌의 편도체를 제거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불쾌함, 두려움 등을 느끼지 못하고 공격적이게 변하게 된다고 한다. 쥐의 편도체를 제거하면 고양이를 두려워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쥐가 먼저 고양이를 공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두려운 것이 없는가?

생각보다 쉽게 답할 문제는 아니다. 나는 ‘불쾌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하기 싫은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을 때 많은 것이 불편해졌다. 더 이상 나의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졌다. 죽음은 불편하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아닌 듯 하다.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면 동공이 확장되고, 근육이 수축되어 긴장상태를 유지하여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 할 때 내 몸은 이런 상태를 유지하진 않는다.

“그럼 귀신도 안 무섭겠네요?”

“무섭진 않아요. 근데 귀신을 만나는 건 만족스러운 일도 아니예요”

나는 귀신을 보았다. 가위를 놀릴 때면 나는 귀신을 본다. 가위를 놀리는 것이 나에겐 그저 ‘불쾌한’ 일이다.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고 근육은 긴장되어 불편해진다. 그때마다 검은 형체가 나에게 다가온다. 나를 두렵게 만들려는 것일까? 그러고 싶었다. 꿈에서나마 신체적 작용이 아닌 두려움의 감정을 느껴보고 싶었다.

‘고통이 뭔지 안다면 행복이 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도 없다는 뜻이다.(육체적 고통은 느낀다. 나도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몸이 아프다) 그리고 감정적인 행복도 느끼지 못한다.

“귀신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래요. 신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거죠.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신과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데? 반대로 신과 가까워지면 귀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나는 어떤 존재와 가까운걸까’

내가 종교를 믿으면 신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인가? 조건부 거래 같은 것일까. 신에게는 무슨 이득이 길래 그러는 것일까? 노숙자는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귀신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냥 신이라는 존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행복을 몰랐다.

[5장. 세상 죄를 짊어가는]

신은 인간을 찾아온다. 눈에 띄지 않고, 왔다 간 것조차 모를 정도로 의식할 수 없게 아무도 모르게 다녀간다. 어떤 형태로든 신은 일생 중에 한번씩 찾아와 그 삶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

아린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아린과는 실습을 다니며 꽤 가까워 졌다고 생각한다.(그냥 만나는 시간이 늘었다) 아린과 함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나눠준 전단지를 받았고 그것을 아린은 나에게 건네주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한다. 법을 어긴적이 없는데 죄인이라니. 그 이유를 물으니 오래전에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대물림 되었고, 신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 죄없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아린씨는 구원받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죄가 있기 때문인가요?”

“만약에 제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죄를 많이 지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아니면 이미 지옥에 살고 있거나. 행복하지 않은 삶을 이어 간다는게 지옥이지 않을까요?”

마치 그 노숙자처럼 말이다.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그것을 끝없이 느끼며 살아가는 삶.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마치 죄수가 자신의 형벌을 끝나는 날을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것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지옥과도 같다. 지옥은 형벌을 받는 곳이다. 그렇다면 나 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해방될 날조차 모르고 가장 가혹한 무기징역의 형벌을.

“나도 가지고 싶어요. 구원 받았다는 느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래요. 자신은 죄가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거죠. 원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직접 내려 온 거죠.”

내가 지은 죄가 뭔지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나는 자유롭지 못함을 알고 있다. 수많은 감정 선들은 나를 움아매고 있는 구속일 뿐이었다.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했다. 그들의 병은 그들의 죄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 본인이 지은 죄 일수도, 아니면 그전부터 내려오는 죄일 수도 있는 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가져가셨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에 죄의 구속을 받는 사람들의 구속을 대신 가져갈 수 있었다.

성경책에서 본 글 귀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자유로워 지고 싶었다.

[6장. 속죄의 어린양]

언젠가부터 주말에 아린이 다니는 교회에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아린은 나를 교회로 데려갔다. 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긴 어려웠다. 그래도 전보단 잘 알 수 있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라는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 몹시 두려워했다. 십자가를 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달라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고 빌고 있다. 본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부정하고 싶은 마음. 감정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타내고 있다.

예수는 죄가 없었기에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형을 당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숭고한 목적을 이뤘다.

아린은 내게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었다. 구원에 대해서. 혹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삶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평일에는 현장실습. 주말에는 교회. 아린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내가 생각을 멈춰도 되는 유일한 시간. 아린과 대화하고 있으면 아린의 감정이 무엇일까 궁금해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아린은 내 감정이 어떠한지 묻지 않았다.

“저 할아버지는 아린씨가 오는 걸 싫어하네요. 올 때마다 화만내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순 없죠. 설령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뭐 신경 안써요”

“누가 나를 싫어하고, 불쾌해 하는게 싫지 않은 건가요?”

“싫으니까. 신경 안써요. 저 할아버지는 저를 싫어해도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언젠간 알겠죠 저 분도. 자신이 도움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아린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는 않다. 그저 본인의 감정에만 집중할 뿐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알고 싶지는 않아도 알게 된다.

아린은 고통 받지 않는 법을 알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모르고 살면 그만이었다. 아린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

나는 고통을 몰랐고, 행복도 몰랐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연연했다. 정답만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삶. 남을 배려해야 함을 ‘학습’했기에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삶. 알아 버렸기에 구속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감정을 알기에 감정으로부터 구속 받는 삶과 감정을 모르기에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아린씨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그냥 좀 피곤하고 힘드네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하는 마음.”

누군가의 기분을 묻는 일은 처음이었다. 물을 필요 없었다. 궁금해 하지 않아도 알게 되었다. 우울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아린의 표정은 말한 그대로의 감정이 담겨있는 듯 하다.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는 일도 처음이었다. 관찰할 필요가 없었다.

“힘들면 그만 두면 되지 않나요?”

“남을 돕는다는 것, 희생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이긴 해도. 그 힘든 것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뤘을 때의 성취감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해 나는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거니까”

가치있는 사람은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걸까? 많은 사람들을 행복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을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듯하다. 감정 선이 연결되어 전달되는 것처럼. 아린이라면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콰앙-

말을 이어가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아린의 행복이 내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빌고 있었다. 신이 이 바람을 들었던 것일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아린의 행복을 내게 주었고 내 형 별을 아린이 가져가게 두었다.

‘빛이 보인다.’

잠시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가 서서히 시야가 돌아오는 듯 하다. 찰나의 순간 아린이 나를 감쌌고 그 온기가 내게 전달되고 있다. 아린의 피가 나를 적시고 있다. 그렇게 나는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

뭐라 말을 하는 듯하며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몰려들고 있다. 제대로 들리진 않지만 그 주인공은 이제 운명을 다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조차 의식이 흐려지고 다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편안함을 느꼈다.

[7장. 구원]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의문을 품고 있던 문제의 답을 찾았다. 장례식을 찾아간 나의 기분이 이상했다. 성취감이 들었지만 불쾌했다. 내가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던 문제의 답을 찾았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고통을 안다는 건 행복을 느낄 수 도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이었다.

검은 옷의 사람들. 그들 눈의 눈물이 보인다. 아린을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 눈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 땅으로 떨어진다. 투명한 색의 물방울. 그들의 눈에 슬픔이 보인다.

아린은 본인의 사고를 직감 했었을까? 알고 있었음에도, 그저 받아들인 것일까?

혼란스러웠다.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단순한 신경작용으로 인한 몸의 떨림이라기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춥지 않았다. 가위에 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약간 덥다고 느껴진다. 시야는 잠시 흐려졌다. 완전히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나의 볼에 온기를 느꼈다. 볼을 따라 미끄러지며 그 온기를 점점 잃어갔고 내 손에 떨어졌을 땐 차가운 물방울이 되어있었다.

‘슬픔과 기쁨’

내겐 아무 색도 보이지 않았다.

.

.

.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의 구속을 가져갈 수 있다.

신은 인간을 찾아온다. 눈에 띄지 않고, 왔다 간 것조차 모를 정도로 의식할 수 없게 아무도 모르게 다녀간다. 어떤 형태로든 신은 일생 중에 한번 씩 찾아와 그 삶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한다.

십자가가 보인다. 저 십자가는 아린이 짊어지고 갔다. 나의 형벌을 끝내주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멘”

[장려상]

색채

AI의료융합전공
20206523 정수연

“세상은 아름답단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신께서 내게 널 보내주셨겠니?”

우리 엄마는 남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어젯밤 칼부림이 일어났어도, 수많은 사람이 예전보다 살기 팍팍해졌다며 울부짖어도 엄마는 언제나 세상의 다채로움을,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도 마찬가지였다. 슬픈 눈빛을 머금은 채 손끝을 파르르 떨어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똑같았다. 세상은 아름답단다. 엄마를 원망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다. 어린 나와 달리 엄마는 세상의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겠지. 내 눈에 세상이 혼잡하고 어지럽게 비치는 건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분명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남들과 다른 차원을 바라보는 엄마가 존경스러웠으며,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세상이 아름답다면, 그건 엄마처럼 세상을 다채롭게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세상이 아름다워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은 거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채로움을 전파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의 곁에 있으면 내 안에도 색채가 반짝거릴 것 같았다. 언젠가 내 눈에도 다채로운 색채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일 거라 믿었다.

“아가야……. 울지 마렴.”

엄마와 나는 다르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엄마는 오른쪽 옆구리에 칼을 맞아 쓰러진 상태에서 열린 미소를 지으셨다. 덜덜 떠는 손을 뻗어 내 뺨을 쓸었다. 세상이 아름답다면 왜 엄마 같은 사람을 데려가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곁에서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는 것뿐.

“신께서 내 소원을……. 드디어 들어주셨구나.”

엄마는 마지막 숨에도 세상이 아름답다는 말을 담았다. 엄마가 숨을 내뿔었을 때, 나는 엄마의 영혼을 빨아들일 것처럼 숨을 깊이 들이켰다.

세상은 조금도 아름답지 않았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토악질이 나왔다. 문명의 발전과 아름다움은 반비례 관계에 놓인 걸까. 우리나라엔 ‘정’이란 것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기심을 추구하며 남을 짓밟고, 정치인들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입술 위에 올렸다. 특히 칼부림이 일어났고, 빈틈이 보이면 서로 혈투기 바빴다. 어른이 되면 엄마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내 세상은 여전히 무채색이었다.

“윤현준, 창석 교수님이 너 찾던데? 잘못해서 대학원 안 끌려가게 조심해라.”

“또 과탐한 거 아냐? 사람이 왜 그렇게 완벽하냐, 인간미 없게.”

대학교 동기들이 킬킬거리며 어깨를 쳤다. 장난스레 내뿔는 문장에 나를 향한 시기가 은은하

게 깔려있었다.

“인간미 없긴. 나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그들의 손을 자연스럽게 털어냈다. 동기의 눈동자 위에 일렁이는 적대심을 못 알아챈 척 순진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의 어둠만을 포착하면서 뻔뻔하게. 타인에게 거짓된 면만 보여주는 내 모습이 역겨웠다. 그러나 이것이 엄마가 원하던 모습이 분명하기에 충실히 연기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다정하며, 세상의 밝은 부분만 보는 사람처럼. 그래, 마치 우리 엄마처럼.

동기들을 등지며 미소를 지웠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기계적으로 날 찾았던 교수님이 있을 법한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 캠퍼스를 누비는 대학생의 수다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팀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욕하는 건 물론이고, 수업을 빠지고 싶거나 자퇴하고 싶다는 투정도 적지 않았다. 들을 가치가 없는 소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중 그냥 넘길 수 없는 대화에 걸음을 멈췄다.

“어휴, 그렇게 순진해서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세상이 각박하긴? 얼마나 아름다운데.”

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내뱉는 여성이 있을 줄 몰랐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각막 위로 해사하게 미소짓는 여대생의 모습이 새겨졌다. 무료했던 나의 세계가 개벽하는 순간이었다.

여대생의 이름은 이은하였다. 수험생 기간이 길었는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입학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22살이라는 나이에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이었다. 그녀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사람답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좋아했고, 언제나 해사한 미소를 지었다. 특출나게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귀여웠다. 나처럼 그녀의 세상에 매료된 사람이 상당한지 이은하의 주변은 언제나 복잡거렸다.

4학년 2학기, 타과생. 내가 이은하에게 접근할 만한 명분이 없었다. 먼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사실은 다가갈 수가 없었다. 이은하에게선 나의 엄마가 엿보였다.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다정하고, 누구보다 강인한 여성이었다. 겉만 대충 보면, 부드럽고 위태로워서 이용하기 쉬운 대상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누구보다 굳건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본성을, 깊이 숨겨놓은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아니, 못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서 흘러나오는 다채로움은 나의 엄마에게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으니까.

이은하는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되었다. 수업을 들을 때도, 캠퍼스를 누빌 때도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녀가 떠올랐다. 대학원에 입학할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그녀와 접점이 생길지도 몰라. 아니면, 재입학도 괜찮겠다. 이은하에게 직접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주변을 맴돌 방법이 머릿속을 채웠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나보고 평소와 다르다면서 걱정했다. 누군가는 내가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내가 공부만 하다가 뒤늦게 일탈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사랑. 수많은 헛소리 중에 그 단어만이 내 심장에 꽂혔다. 그래, 나는 이은하를 사랑한다. 하지만, 연애 따위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잠깐 사랑을 속삭이다가 몸을 섞고, 끝내는 헤어져서 완전한 타인이 되는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운명적인 종류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영혼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를 칭송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엄마의 마지막 숨을, 영혼을 들이켰던 것처럼. 나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이은하를 보고, 듣고, 느끼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함께 떠들고 싶었다.

“저기, 손수건 떨어뜨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하가 먼저 내게 다가왔다. 멍청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왔다. 맑은 눈으로 날 바라보는 모습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손수건을 받으려 손을 뻗었다. 스친 손끝이 찌릿찌릿했다. 각자의 몸에 흐르던 전류가 섞였다. 그녀도 나와 같은 것을 느꼈는지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차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손수건 찾아주신 보답이에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게 소중한 물건이라서요.”

“그럼 다음에 사주세요. 곧 수업이라서요.”

은하는 열은 미소와 함께 연락처를 넘겨주고 떠났다. 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대학원에 갈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그녀가 만들어준 점점에 심장이 뛰었다. 앞으로 그녀와 연락해도 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은하가 주워준 손수건을 소중하게 보관했다. 아무런 가치가 없던 물건이었으나 지금부터는 나의 몇 안 되는 보물 중 하나였으니까.

이은하와 점점 가까워졌다. 손수건으로 맺어진 인연은 당연하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커피 한 잔은 식사, 그리고 영화로 발전했다.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캠퍼스를 떠도는 고양이에게 밥이나 간식, 혹은 물을 줄 때도 적지 않았다.

그녀는 대학 동기와 어울리던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은하의 삶에 내가 조금씩 녹아드는 것 같아 즐겁고, 설렘. 그녀에게 내가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도 사랑을 입에 담지 않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각자의 몸에 흐르던 전류가 엮였던 순간, 이은하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 것 같았다.

“선배는 평소에 뭐하고 지내세요?”

“세계 평화를 기원하죠.”

은하가 내게 관심을 보였다. 취미는 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는지. 그녀는 나라는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길 원했다. 그런 은하를 기만한 건 나의 최악이자 양심이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눈동자에 나의 어둠을 들이밀고 싶지 않았다. 은하가 원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거짓을 고했다. 엄마의 영혼을, 함께 보냈던 시간을 토해냈다. 내 대답에 그녀가 짙은 미소를 보였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들뜬 기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과 닮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뺨을 붉혔다. 은하는 내 거짓을 온전히 믿는 것 같았다. 아니, 사실 거짓이라도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저 내가 그녀의 사상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다는 게 너무나 기뻐 보였다. 언젠가 내 말을 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눈동자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그것은 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다. 은하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다채로운 세상을 너무나 원했으니까.

은하의 자취방에 초대받았다. 무슨 핑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입을 맞췄다는 사실 하나만이 선명했다. 숨결과 체온을 나누며 서로를 강하게 욕망했

다. 성적인 충동? 그건 아니었다. 시선이 겹친 순간, 알 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라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을 밀착했다. 운명이, 영혼이 상대방과 엮이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다.

“현준오빠.”

은하가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선배’라는 호칭을 고집하던 그녀가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선언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은하가 내뱉는 이름을 삼켰다. 그녀가 불러주는 이름이 좋았다. 나라는 사람이 다채로워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래, 착각이었다. 그녀와 몸을 섞고, 그녀의 다채로운 삶을 탐하며 깨달았다. 나는 결코 은하를 가질 수 없었다. 나는 그녀와 결이 다른 사람이었다. 결핍되어 있었다. 영혼이 텅 비어서, 본질적으로 어둠에 속한 것이어서 다채로운 그녀에게 이끌려도 닿을 수 없었다. 내가 은하와 하나가 된다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녀가 내게 자신을 내어주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연인이라는 관계로 엮이지 않았다.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시간을 공유할 뿐이었다. 때때로 몸을 섞고, 길거리를 떠도는 동물들의 밥을 챙겨주기도 했다. 은하에게 나는 하염없이 떠도는 길고양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내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닐까. 가득 찼던 영혼이, 충만함이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찾을 수 없도록 가뒀던 본성이 자물쇠를 부수고 빠져나오려 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녀를 통해서 다채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조금씩 금이 갔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거 같아.”

은하가 웃으며 이야기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면 경이롭지 않냐고,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냐고. 속이 쓰렸다. 그녀와 아무리 함께 있어도 그녀가 보는 세상은 볼 수 없었다. 나의 세상은 조금도 아름답지 않았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도와준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압도적이었다. 그토록 찬미하는 지구의 자연환경은 빠르게 엉망이 되어 갔다. 그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은 자신이 살아갈 때까지는 괜찮다며, 미래 세대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으며 장천을 파괴했다.

나는 은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하고 싶었다. 세상의 다채로움을 알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엄마가 살던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종교라도 가져야 하나. 은하도, 엄마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었다. 엄마의 입술에선 늘 ‘신’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었다. 죽기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나도 신을 찾으면, 신을 믿으면 그들과 같은 세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어떤 신을 찾아야 할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알 수 없었다. 나는 엄마가, 또 은하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신은 누구일까. 어떤 신일까.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괴로웠다.

불나방은 어떤 심정으로 불에 뛰어들었을까. 영혼이 말라감을 느꼈다. 이은하와 어울리면서 나는 점점 피폐해졌다. 그녀는 내게 불이었으며, 빛이었다. 나는 불나방이었고, 그림자였다. 빛의 옆에서 나의 어둠은 점점 짙어졌다. 은하와 같은 세상을 볼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된 순간, 영혼이 무너지면서 질투라는 감정이 쏟아졌다. 동시에 은하를 갈망했다. 그녀를 갖고 싶었다. 그녀가 내어주는 색채를 조금씩 나눠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갖고 싶었다. 나는 내

가 미쳐가고 있음을 알았다. 아니, 처음부터 나라는 사람은 미쳐있었다. 엄마가 내게 세상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순간부터 갈증에 시달렸다. 언젠가는 해소될 갈증이라 믿었으나 엄마가, 은하가 내게 건네준 물은 소금물이었다. 잠깐 맛본 다채로운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더욱 목이 말랐다. 은하는 그러한 나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봤다.

“오빠는 나를 사랑해, 그렇지?”

“그래.”

“……너무 사랑해서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문장을 믿을 수 없었다. 너무나 맑고, 밝고, 다정한 사람이라서 그럴까. 은하를 속일 수 없었다. 은하는 내가 그녀를 질투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러면 내가 내뱉었던 모든 거짓말도 그녀는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가 내게 말을 걸기 전부터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나의 추악한 면을 모두 알면서 곁을 내어줬던 게 분명했다.

나도 모르게 은하의 위에 올라탔다. 그녀의 목으로 양손을 가져갔다. 은하의 말은 내게 자신을 죽여도 된다는 허락이나 다름없었다. 어쩌면 내게 자신을 죽여주길 바란다는 소망을 입술 위에 올렸을지도 몰랐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왜 나의 손으로 죽길 원하지? 은하는 내게 잔혹한 짓을 했다. 손바닥 아래에서 따스한 체온이, 일정한 박자로 뛰는 맥박이 느껴졌다.

“엄마가 내 앞에서 죽었어.”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내뱉었다. 손에 힘을 준 것도, 안 준 것도 애매한 상태로 담담하게 말했다. 은하가 두 눈을 깜빡였다.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나와 부드럽게 올려다볼 뿐이었다.

“엄마는 너처럼 세상이 아름답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던, 누구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이었어.”

표정을 일그러뜨렸을까. 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리움이 질게 묻어나오는 눈빛일까. 나를 두고 간 엄마에 대한 원망이 새어 나왔을까. 나는 모르는 세상을 본 엄마에 대한 질투가 나타났을까.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다. 뜨겁게 숨을 내뿜었다. 은하의 목을 움켜쥔 손에 힘을 줬다. 커헉. 숨이 막히는지 그녀가 단말마를 내뱉었다. 이대로면 은하는 내 손에 죽을 게 분명했다. 아니, 내가 그러도록 만들 터였다.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은하도 알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 발버둥도 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은하의 뺨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울고 있나. 나는 웃고 있나. 나는,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싶었다. 그녀의 영혼이 몸을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목시도 견딜 수 없었다. 동시에 그녀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면, 그녀와 같은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다. 그렇기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은하가 끝을 맞이할 때까지 쳐다봤다.

그녀는 살해당하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지었던 것과 비슷한 미소였다. 엄마가 뭐라고 했더라. 아, 신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했지. 그럼 은하도 같은 생각인 걸까. 그녀의 소원은 나의 손에 죽는 거였나. 어쩌서지. 죽음을 바라는 사람이 보는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건 미친 게 아닐까. 나도, 은하도 결국 완전히, 극단적으로 미쳐서 이 세상의 균형을 맞춘 걸까.

뒤늦게 손바닥 위로 느껴지던 맥박이 멈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하의 목을 움켜쥐었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녀의 심장에 귀를 기울였다. 적막한 고요함이 쿵쿵 뛰던 소리를 대신했다. 아, 내가 그녀를 죽였구나. 내가 은하를 죽였어. 소름 끼치도록 황홀했다. 그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더라도 그녀의 마지막은 내가 정할 수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결국 나의 세상은 무채색이었다. 달라진 게 없었다. 찰나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다채로운 세상을 봤지만, 그뿐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지. 그렇다면, 은하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두 여성이 나를 맞이해줄 터였다.

아니, 나는 영영 두 사람을 만날 수 없겠지. 어떤 신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둘은 천국에 갔을 터였다. 천국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맑은 영혼을 가져서 신이 나를 통해 그들을 돌려보낸 게 분명했다. 그럼, 나는 죽어도 지옥에 가겠구나. 그런데 내겐 이 세상이 지옥이나 다름없는데. 차라리 둘의 몫만큼 살아가는 게 옳았다. 그것이 사람을 죽인 죄인에 대한 처벌이자 신이 찾던 존재를 돌려 보내준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이었다.

뒷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살인자가 되었다는 자각이 없었다. 내가 미쳤다는, 결핍이 있다는 생각은 했다. 그럼 나의 결핍을 채워줄 건 누군가. 나는 채울 수 없었다. 은하도, 엄마도 살아있는 동안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했다. 내가 망가져 있음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둘을 사랑했다. 둘도 나를 사랑했다. 엄마의 영혼을 삼켰던 때가 떠올랐다. 그건 내가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결심이자 영원히 그녀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럼 은하의 영혼도 먹어야 하는데. 이미 그녀는 육체만 남겨두고 지구를 떠났다.

나는 은하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겼다. 따뜻한 물로 적신 수건으로 은하의 몸을 닦았다. 이건 그녀가 나를 위해서 남겨둔 선물이자 흔적이었다. 영혼을 대신해 내게 허락한 것이었다. 은하의 손등에 입을 맞쳤다. 손가락을 핥았다. 그리고 이를 세웠다. 그녀가 남겨준 것을 사정 없이 목구멍으로 넘겼다. 엄마의 영혼, 그리고 은하의 육체가 내게 깃든다면, 둘이 보던 다채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착각일까, 희망일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은하의 육체를 꼭꼭 씹어서 넘겼다. 손가락에서부터 시작된 이 행위는 그녀를 완전하게 삼킬 때까지 계속됐다.

손수건을 건네주기 전부터 현준선배를 알았다. 그가 내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주위를 맴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아무리 은밀하게 움직이려고 해도 내 눈에는 선배가 보였다.

“은하야, 저 사람 요즘 자주 보이지 않아?”

“그걸 이제 알았어?”

대학 동기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도 모르게 웃었다. 이제야 눈치채다니. 참 어리석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현준선배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는 내가 쳐다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선배는 알고 있을까. 심연을 들여다볼 때는 심연도 그를 들여다본다는 걸. 우리가 서로의 심연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저기, 손수건 떨어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줘야 했다. 나도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음을. 현준선배는 결코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먼저 다가갔다. 당황일까, 혹은 황홀함일까. 양가적인 감정이 뒤섞인 눈동자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끝이 닿자 전류가 흘렀다. 역시 세상은 참 친절했다. 그가 나의 운명임을 직감하고 있는데도 혹시 놓칠까 봐 다정하게 알려주다니.

현준선배와 가까워졌다. 운명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음을 느꼈기에 밀고 당기는, 피곤한 기 싸움은 없었다. 애초에 연인 같은 관계도 아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가 아니면 안 되는 사이였다. 그의 눈동자를 보면 모를 수가 없었다. 나와는 정반대인 사람. 아니, 사실은 나와 가장 닮은 사람. 세상이 아름다워서 견딜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나와 달리 삭막한 세상을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선배는 평소에 뭐하고 지내세요?”

“세계 평화를 기원하죠.”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내뱉었다. 본인이 나와 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무해하니까 거리를 두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 같은 문장이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기분 좋았다. 그의 영혼이 나를 갈구하는 게 느껴져 전율이 흘렀다. 선배는 알까. 빛은 그림자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빛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걸. 갈증이 느껴졌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웃음으로 울컥울컥 올라오는 마음을 숨겼다.

“현준오빠.”

자취방에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혼자서 있을 때는 이미 몇 번이나 읊고, 혀로 굴렸던 이름이었다. 선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와 입을 맞추고, 몸을 겹쳤을 때와는 또다른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아, 어떡하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이대로 숨이 멎길 바랐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난 현준선배, 아니, 오빠의 곁에 있어야 했다. 그는 나를 통해 다채로운 세상을 보기 원했으니까.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을 억지로라도 밝게 보는 방법을 배우길 원했으니까. 나는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계속 이야기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낙관적인 미래를 그렸다.

친구 관계를 모두 끊어냈다. 현준오빠 몰래 대학교도 나왔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달라졌음을 알았다. 이제야 깨달은 거겠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그는 볼 수 없었다. 그가 보는 세상도 나는 볼 수 없었다. 우리는 같은 세상에 서 있으면서도 다른 세상을 바라봤다. 나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 위선적인 세상일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유토피아를 보는 걸까. 현실은 어떻더라. 알 수 있는 게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보는 세상이 진실되진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현준오빠가 바라보는 세상도 마찬가지일지 몰랐다. 서로가 바라보는 거짓된 세계. 우리는 그것을 열망했다.

“오빠는 나를 사랑해, 그렇지?”

나는 오빠를 사랑해, 알고 있지?

입 밖으로 내뱉은 문장에 숨겨진 뜻을 그는 읽었을까. 읽지 못했어도 상관없었다. 이것은 내가 내뱉을 수 있는 최후의 고백. 겁쟁이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억지로 어둠을 피하고, 빛만을 바라보는 겁쟁이의 소원.

“……너무 사랑해서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오빠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어. 이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

으니까. 이 세계에서 나를 해방해줘. 나의 간절함에 그가 응답했다. 목 위로 느껴지는 차가운 맥박. 긴장하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의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시선을 맞췄다. 목을 누르는 압박감이 싫지 않았다. 나의 목숨을 온전히 넘겨줄 수 있었다. 아, 그래도 내가 써왔던 일기장을 찾아주면 좋겠는데. 그가 나를 구원해주고, 곧바로 방을 떠나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일기장을 찾을 거란 희망은 없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 자신이 있을까. 알 수 없었다.

“엄마가 내 앞에서 죽었어.”

현준오빠가 내뱉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웃었다. 아니, 울었다. 아니, 제발 본인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희미한 영혼이 보였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 저 사람이 현준오빠의 엄마구나. 그녀는 서글프고 다정하게 그의 곁을 머물렀다. 현준오빠가 그녀의 영혼을 삼켰음을 느꼈다. 나도 저렇게 머무르게 되는 걸까. 이 땅에, 아니, 그의 곁에 얽매이게 되는 걸까.

숨이 멎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순간, 나는 갈등했다. 당연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이자 영혼의 반쪽이었고, 결핍 덩어리였다. 이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한쪽 면만 진득하게 바라보는 걸 테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만 남았고, 나는 무책임하게 세상을 등졌다. 내겐 여전히 용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가 내 일기장을 찾을까 궁금했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이자 진실이고, 판도라의 상자였다. 현준오빠는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맹목적으로 움직였다. 경찰서에 자수하지도, 내 집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입을 가져다 댔다. 미쳤다. 미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기어코 그는 나를 온전히 가졌다. 결국, 그에게 속박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채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겠지. 그것이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었다.

[장려상]

미스 리(Miss lee)

국어국문학전공
20221080 이혜은

이세진은 남편 한영호와 딸 한수현이 집을 비운 사이,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세 시간 전, 아침을 먹지 않으면 몸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밥을 먹인 후 한수현을 학교 보내는 데 성공했지만, 싱크대와 식탁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이세진은 그것을 치우는 데 꽤 오랜 시간을 들였고, 시계를 보니 한수현이 곧 학교 수업을 마치고 태권도장에 간다며 연락할 시간이었다. 이세진은 짧게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한수현의 전화가 아니었다.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지만, 눈에 익은 숫자들이라 문자의 발신인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이현욱. 이세진의 아빠였다. 10년 전 걸려온 전화가 이현욱에게서 온 마지막 연락이었다. 이세진은 이현욱과의 전화를 마치고, 그 후로 이현욱의 안부를 묻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10년만에 온 메시지의 내용은 부엌 전구를 갈아 끼우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었다. 이세진은 이현욱이 다쳤다는 문자를 보고 울지 않았다. 단순히 울음만 터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이세진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이세진은 어떤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정신을 차리듯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어느새 한수현이 태권도장에 가고 있을 시간이었다. 이세진은 한수현의 방으로 들어가 종이 한 장과 펜을 가지고 식탁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세진은 쓰다 말고 잠시 고민했다. 형식상 안부를 묻는 일이 이현욱과 자신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세진은 우리 사이에 무슨 안부를 물어, 하면서 쥐고 있던 펜으로 적었던 문장을 까맣게 칠했다. 그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세진은 자꾸만 튀어나올 것 같은 무언가를 누르듯 숨을 크게 들이켜고, 다시 적기 시작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아빠가 보내주었던 태권도장에는 ‘대한 태권도 협회’ 글자를 크게 수놓은 깃발이 있었어요. 그 깃발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두 팔을 벌려 대형을 맞추고, 도장 왼쪽에 있던 태극기 쪽으로 몸을 틀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아빠가 그것을 기억할 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그 문장을 사범님의 도움 없이, 친구들의 께속말 없이 소리칠 수 있던 날 아빠에게 가서 종일 이야기했던 것이 떠올라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 문장을 오랜만에 떠올리니, 무언가 기억날 듯하면서도 막상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해요. 아빠는 혹시 기억할까요? 끊지 않고 한번에 말하고 싶어서 공기를 힘껏 들이마시고, 그걸 아끼듯 숨을 조심스럽게 내뿜던 어린 날의 저를. 저의 긴 문장 끝에 아빠가 어떤 말을

해 줬었는지, 혹시 그것도 기억할까요?

제가 도복을 벗던 날. 그러니까 학원을 가기 위해 갈아 입은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또 입겠지, 하면서 엄마가 그 도복을 깨끗하게 빨았던 날. 때 하나 묻지 않은 하얀 도복이 말끔하게 접혀 서랍 속으로 들어가던 날. 저는 도복을 다시 꺼내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충 우리 집 사정 같은 건 알고 있었거든요.

사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몸집보다 컸던 가방이 덩치에 딱 맞게 되었고, 그 가방 크기가 제 등보다 조금 작아졌을 때까지도 저는 사범님과 관장님 눈치를 봤어요. 태권도장을 초등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가방이 순식간에 작아진 것을 보면 저는 아빠를 닮았나 봐요. 아빠를 닮아 키가 금방 자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관장님, 사범님이랑 친해서 자주 휴게실 문턱을 넘어다니며 들락거리곤 했어요. 그날은 관장님이 얼른 나가서 피구 게임을 준비하라길래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장님 손에 떠밀려 나갔고요. 생각해 보면 관장님이 제 앞에서 업무 관련해서 전화를 받으실 때가 꽤 있었는데, 그럴 때는 잠깐 웃어보이며 입가에 검지 손가락 하나를 대고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2분 좀 안 되는 시간을 기다리면, 관장님이 애들 몰래 저에게 바나나 우유를 주곤 했는데. 그걸 먹다 친구들한테 걸려서 관장님이 한동안 애 좀 먹었죠. 관장님은 저를 되게 아끼셨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쵸, 아빠? 그런데 왜 그날은 저를 내보내셨던 걸까요.

관장님이 전화 중인 사무실 안에서는 제 이름이 언뜻 들렸어요. 문에 귀를 대고 전화를 엿들으려는 순간, 사범님이 전 시간에 쓰던 겨루기 헤드를 치우며 저를 자꾸만 불렀어요. 관장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발음되는 제 이름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처럼. 저는 아직도 사범님이 제가 그 통화 내용을 못 듣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빠. 아빠가 저에게 태권도 이야기를 처음 꺼낸 날, 아빠가 그랬잖아요. 운동하면서 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멋진 어른이 된다고.

다시 이세진의 휴대전화가 짧게, 이번에는 두 번 진동했다. 이세진은 연락 하나는 한수현의 것이리라 확신했다.

엄마. 나 지금 태권도 왔어요.

태권도장에 도착했다는 한수현의 연락이었다. 이세진은 오타가 난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열린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세진은 다치지 말고 재미있게 운동하고 오라는 문자를 보내고 난 후, 남은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다. 어떤 텍스트도 없이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다. 이세진의 어렸을 적 사진. 이현욱이 보낸 것이었다. 이세진은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 보다가, 어느새인지 식탁 모서리 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펜을 발견하고 팔을 뻗어 낚아챘다.

생각해 보면 아빠를 닮아서 키가 금방 컸던 저는 먹기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편지를 쓰다가 사진 하나를 보고 있는데, 빠진 앞니의 빈자리를 드러내면서 환히 웃고 있는 제 사진이에요. 응, 아빠가 보내준 사진이요. 아마 사진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것 같아요.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불과 턱에 살이 올라 있었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아마도 아빠는 친구들이 저를 놀리면서 한 대 때리기라도 할 때에는 태권도의 맛을 보여주라는 의미로 저에게 하얀 도복을 선물해 준

것이겠죠. 그런데, 아빠. 아빠는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를 외치지 않아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걸까요?

제 사진이지만, 보고 있으니 엄마가 왜 제가 먹고 싶다는 것은 다 사 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좋아하는 걸 먹고서는 이 사진보다 훨씬 밝게 웃었을 거니까. 엄마는 제가 손가락으로 문방구를 가리키면 다른 손을 마주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밀며 나올 때는 먹고 싶다고 했던 것들이 검정 비닐 봉투에 담겨 제 손목에 걸려 있었어요.

하루는, 평소처럼 문방구에 들렀다가 태권도장에 가는 길에 회색 차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엄마는 위험하게 우리 앞에 정차하는 차주에게 화를 내려다, 익숙한 번호판과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빠는 창문을 내려 고개를 내밀고, 저를 ‘미스 리’ 하고 불렀죠. 아빠는 왜 저를 미스 리라고 불렀어요? 얼마 안 돼서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미스’에 대해 배웠어요. 결혼 안 한 여자를 뜻하는 ‘Miss’ 와 아빠와 제 성씨인 ‘Lee’.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Miss lee’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아빠에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예쁜 여성에게 부르는 애칭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고, 한동안 저는 미스 리가 저의 또 다른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 이름이 아무데나 쓰이는 건 줄 알았으면 미스 리라는 이름을 듣고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도, 저의 두 번째 이름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들 학교 수업 시간에 쓸 영어 이름을 고민할 때, 제 이름을 미스 리로 정하지 않았던 걸 아직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스 리’ 소리에 뒤돌아보던 날, 저는 아빠가 있었던 건너편 건물 입구에 서 있었어요. 아빠는 키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반 친구들보다 꽤 커서, 아빠와 키가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보려면 고개를 꺾어야 할 정도였으니까 엄청 컸던 거겠죠. 아빠는 깃발 같기도 했어요. 제가 올라다 봐야했던 태극기, 대한 태권도 협회 같은 깃발이요. 저는 아빠를 발견하고,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이정표 같다고도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아빠가 제 쪽을 바라보고 손을 흔드는 줄 알았어요. 그 긴 팔까지 써 가며 미스 리라는 이름을 외치고 있었으니까. 그 이름은 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빠에게 손을 흔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빠의 시선이 조금 어긋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빠가 나를 데리러 왔다가 이 건물 학원에 다니는 5학년 언니랑 나를 착각했구나. 저는 아빠에게 얼른 뛰어가 진짜 미스 리는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단횡단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며 건너편에 있는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에게 달려가 안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건지, 이유를 모를 초조함 때문인 건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앞에... 앞에..... 몇 번씩 외워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아직도 구두를 신지 않아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제 뒤에서 빨간 불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던 여자가 생각나서요. 저는 가끔 일정하게 반복되는 구두 굽 소리가 나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그 구두를 신은 사람이 저를 지나쳐 아빠에게 안길까 봐요. 무단횡단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발을 구르던 제 모습은 보지 못했겠죠? 기억이 안 난다면 아마 아빠는 다른 미스 리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을 거예요.

아빠는 거의 하루종일, 주말 없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왜 계속 태권도장에 갈 수 없었어요? 매일 일하는 아빠는 그 정도의 돈이 없었던 걸까요?

내 딸 수현이도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그때의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남편을 닮았는지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수현이는 펄럭이는 것을 보면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뜻도 잘 모르는 문장을 외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

아빠, 편지를 쓰다 보니 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문장을 외우고 있으니까, 아빠가 얘기 끝에 했던 말이요. 드디어 떠올랐어요. 말 배우는 중이냐고, 시끄럽다고 했었죠. 10년 전, 결혼식을 한 다음 날 왜 청첩장을 주지 않냐는 아빠의 전화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고민하는 사이에 거의 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아빠, 부디 잘 지내세요. 저는 더이상 미스 리가 아니에요. 미스 리는 없어요.

수현 엄마, 세진 올림.

펜을 내려놓은 이세진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흐르게 내버려 두었다. 이 편지로, 마음 속에 묻치고 묻쳐 단단해진 어떤 감정들을 조금은 말랑하게 만들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세진은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 말끔하게 접었던 자신의 도복을 떠올리며, 쓴 편지를 세 번 접어 봉투에 넣었다.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님 조금은 달랐을까. 이세진은 편지를 당장 부치는 것 대신 서랍에 넣어두는 것을 택했다. 종이에 자신의 마음을 적는 것 자체가 이세진에게는 용기이자, 미련을 버리는 일이었다.

아직 열리지 않은 현관문 건너에서부터 누군가 우렁차게 긴 문장을 읊는다. 불규칙한 속도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 틀렸는지, 다시 처음부터 누르다 마침내 문이 열린다. 한수현이 엄마, 하고 뛰어와 이세진에게 안긴다. 이세진은 한수현의 하얀 도복에 얼굴을 묻고, 말없이 꼭 껴안는다. 엄마 숨 막혀, 하면서 버둥거리던 한수현은 이세진에게 이야기한다. 엄마 나 드디어 다 외울 수 있게 됐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세진은 한수현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상기되는 것 같은 느낌에 그것을 감추듯 한수현을 더 꼭 끌어안는다. 낮 동안 계속해서 적었던 문장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으니, 여태 삼키고 있었던 분노와 그를 비롯한 감정들이 흘러 넘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이세진은 자신의 품에 안겨 있는 한수현을 쓰다듬으며,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멋있다, 우리 딸. 아빠 오면 또 보여 줄 수 있지? 우리 자랑하자. 분명 아빠도 엄청 좋아할 거야. 이세진은 동시에 이현욱이 자신의 유년기 시절 사진을 보낸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 딸 가진 부모의 마음. 내가 지금 나쁜 딸이다, 뭐 이런 것인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한 이현욱. 그를 향한 동정심 따위는 ‘한세진’에게 없다.

적은 편지가 이현욱에게 닿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떤 결말이든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한세진은.....

내 최애 대신 아이돌 대타 뵙니다

국어국문학전공
20192561 이고은

“아, 개배고파. 애네 언제 나와.”

“나 초코바 있는데. 줘요?”

“아니, 괜찮아…… 이거 가짜 배고픔임. 이영화 보면 개같이 부활 가능.”

“언니도 진짜 찐사³⁾야. 이따 밥 뭐 먹을래요?”

음, 맛있는 거? 핸드폰을 켜 트위터에 접속하던 유영이 대충 대답을 중얼거렸다. 응?

"아 씨, 이영화 알게⁴⁾ 또 생겼어."

"헐. 이번엔 뭐래요?"

"개빡치네. 애가 동태눈깔⁵⁾ 된 건 맞는데, 뜬금없이 연애한다고 지랄이잖아. 증거 없고 강 억
까⁶⁾인데."

"진짜 없는 거 확실해요?"

"아 확실해!"

하, 애가 원래 동태눈은 아니었다고. 그것만 아니면 완벽한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유영
이 투덜거린다.

"어, 왔다!"

6시 57분. 누군가의 작은 외침과 함께 한 걸그룹의 출근을 시작으로, 여의도 KBS홀 입구 앞
에서 셔터 소리가 사정없이 울려 퍼진다. 그때, 눈에 보이는 익숙한 벤이……

“까아아악! 지혁아!”

“현준아아아아아앙—”

“오준영!!!!!!!!!!”

“YOUNGHWAAAA OPPA!!!”

남자 여러 명이 차에서 내려 길을 건자 곳곳에서 앓는 소리를 비롯해 출석이라도 부르는 듯
이름 호명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셔터 소리는 당연하다. 유영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눈

3) 찐사랑

4) 트위터에서 아이돌을 저장하는 계정

5) 초심을 잃고 눈이 흐리멍텅해져 대충 일하는 아이돌을 비꼬는 용어

6) 억지로 까다

을 박고서 손가락을 놀린다. 와미쳤다! 이영화 흑발 개 째어 오늘 모자 안 쓰고 왔음 어떡해 실화냐고 이빠 죽겠네…… 마음의 소리를 뒤로 둔 채로.

“하, 오늘 이영화 뮤츠⁷⁾ 찢었다.”

“오늘 괜찮더라. 지혁이는 얼굴 잘 안 보임…… 언니 프리뷰 올렸어요?”

다이얼을 돌리며 사진을 보고 있던 유영이 화장실에 다녀온 정연을 발견하자 어깨에 메고 있던 장비 가방을 건넨다. 으으응, 아직. 흘끗 앞의 계단을 보고 유영이 먼저 발걸음을 떼다.

“언니, 앞 좀 보고 걸어요.”

“어, 나 완전 잘 보고 있지.”

“그러다 넘어진다?”

“에이, 넘어지긴 뭘 넘……”

어어어어어억! 자신만만하던 문장과는 다르게 불품없이 꺾인 유영의 발목이었다. 순식간에 앞으로 고꾸라진다. 안돼X발내장비!!!! 유영이 재빨리 카메라를 품에 안았다. 당연하게도, 짚을 손 하나 없어 구르는 몸.

“언니!!!!”

언니!!……

언니……

언……

ㅇ……

여의도 한복판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

"도련님, 영유 도련님! 큰일났습니다요!"

7) 뮤직뱅크 출근

소란스럽게 창호문이 열리며 무명옷을 입은 하인이 냅다 소리를 지르고는 숨을 헉헉댄다. 상 앞에 앉아 글공부를 하던, 한복을 입은 남자가 인상을 찌푸린다. 입을 떼는 남자.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인 게야."

"그게, 화영 아씨, 화영 아씨가……!"

시장통에서 사람들을 마구 제치는 남자. 아이구, 아이구. 간혹가다 이리저리 어깨를 부딪힌 사람들이 앓는 소리를 낸다. 신경도 쓰지 않고 빠져나오는 남자. 입술을 꼭 짓이키며 계속 달린다.

'자, 장에 나갔다 들었습니다요. 최 대감 어르신이 붙잡혀갔는데, 그게 주인 어르신 입김이니 뭐니, 닉, 대감 닉이, 아주 쑥대밭이 됐다고……'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두분의 우애는 내가 제일…… 남자가 어느 집 대문을 향해 계속해서 달린다.

"화영아, 화영이 게 있느냐!"

아사리판이 된 마당이 남자의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제발 아니길 빌었던, 속으로 수천 번 되뇌이고 되뇌었던…… 정인(情人)의 망가진 모습마저도. 이리저리 형클어진 채로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든다. 매섭게 쏘아보는 눈빛이 아프다. 아니, 지금 그*보다 아픈 이는 없을 것이리라.

"예까지 오신 걸 보면 정녕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시나 봅니다."

"그게, 그게 아니다. 화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게야."

"도령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요."

여자의 눈이 반짝인다. 그렁그렁해 눈물이 고인 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끝이 날카로운 단도가 여자의 가슴으로 향한다.

"아니된다, 화영아. 아니야!"

"부디 한평생 사무치십시오."

"화영아-!!!!!"

사방으로 시퍼런 아픔이 흩뿌려진다.

"헉!"

유영이 눈을 번쩍 뜬다. 옆으로 눈물이 주룩 흐른다. 뭘 꿈이, 아, 씨…… 머리야. 맞다, 나 계단에서 굴렀지. 지끈거리는 두통을 가지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지혁이, 보인다?

"어, 어. 영화 형 일어났어요!"

"야, 괜찮냐?"

이게, 이게 무슨. 병원이 아니고, 정연이 차가 아니고, 뽕뽕 대기실로 실려왔다고? 말이 돼? 유영이 몸을 벌떡 일으키다 휘청한다. 그러자 지혁이 급하게 어깨를 잡아준다.

"형 괜찮아요?"

"어유, 어유. 이러지, 이러지 마요."

황급히 지혁을 떼낸다. 보는 눈이 몇 개인데, 괜히 잡소리 나올라. 지혁이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본인을 쳐다보는 게 느껴진다. 어, 그런데……

애가 왜 나보다 작지?

유영이 이상함에 고개를 돌린다. 맞은편 거울과 눈이 마주친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에엑?!?!?"

이, 이영화…… 이런 미친.

"어머! 영화 씨!"

"형!"

아까와는 다른 충격으로 쓰러지는 유영. 아니, 영화?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뻐나?' '이 옷은 말이야,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대사를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나도 한때 미쳐 있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명대사. 현빈과 하지원의 영혼이 바뀌
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았더랬지.

그런데, 이건 드라마잖아.

나는 드라마 주인공 따위가 아닌데.
나 최유영은 지금, 이영화가 되었다.

"아, 저 진짜 이영화 아니라고요!"
"이 형 또 장난 빌드업 거네."
"……머리를 좀 크게 다친 거 아니야?"

멤버들이 각자 저마다 한두 마디씩 었는다. 하, 돌겠네. 깨어나서 상황 파악을 한 이후로 자초
지종을 세 번은 말했는데, 아무도 귀담아듣지를 않는다. 코디들은 지 할 일 하거나 담당 멤버
한테 쑥덕대기 바쁘고.

"형 일어났으면 빨리 대표님한테 전화드려 봐요. 사녹⁸⁾ 바로 직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
빼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팬들 완전 난리났을 건데."
"아, 핸드폰……"

경원의 말에 급하게 뒤적거리다 핸드폰을 꺼냈는데, 완전히 개박살났다. 영화 애는 대체 어떻
게 넘어진 거야.

"저, 핸드폰. 핸드폰 좀 빌려줄래요?"
"애 아까부터 말투 왜 이래. 이거 써."

무대 의상이 불편한지 상의를 벗던 현준이 본인 핸드폰을 건넨다. 비번, 비번…… 겨우 받아
서 폰 현준의 핸드폰. 「한석만 대표님」을 찾아 급히 전화를 건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석
만…… 이랑 전화?를? 한다고?

8) 사전녹화

-여보세요. 어, 그래. 현준이냐.

혁X발진짜한석만이잖아. 이걸 말해, 말아? 말해, 말아? 아니 말해도 돼? 말은 해야지 응 그런 데……

-여보세요?

"저기, 한석만 대표님. 저, 저 미친 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저는 최유영이라고, 그냥 텐어블 팬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아까 계단에서 굴렀다가 눈을 뜨니까 영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야 이영화! 너 미쳤어?"

현준이 버럭 화를 내며 유영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는다.

"전화 바꿨습니다. 아, 대표님. 예. 윤현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 씨. 이 새끼 뭐야? 왜 사람 말하는데 뻘어? 싸가지없는 건 알았는데 훨씬 가관이네. 하, 이거 핸드폰도 이영화 핸드폰 같은데, 빨리 내 폰으로 연락이 닿아야 된다고. 제발, 제발…… 전원 버튼을 마구 누르던 유영. 그때, 깨진 화면 사이로 로고가 보인다. 악 커졌다! 유영이 대충 얼굴을 들이밀어 페이스타임을 해제하고 자신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건다. 받아라, 받아라……

"하…… 여보세요."

받았다. 본인의 목소리가 분명한, 그러나 너무나 낯선. 유영이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입을 뗀다.

"영화야, 나 알지. 나 유영 누나. 너 지금 어디야? 언제 깬거?"

"전화 아까부터 넣었는데 폰은 왜 이제 켜 거야. 나 사녹 들어가기 전에 계단에서 구른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눈 떠 보니까 병원이고. 누나 친구? 지혁이 좋아하시는 분 있고. 보니까 내가 누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야, 너네 엘리베이터 타잖아. 전참시에서 봤어. 계단에서 구를 일이 뭐가 있어?"

"뮤뱅 계단짤 찍다가 발 헛디뎠서요. 그나저나…… 트위터 봤어요? 개X됐던데."

"아니, 미친. 야, 너 아이돌이야. 예쁜 말 안 할래?"

"꼬라지 좀 보세요. 우리 몸 바뀌었잖아요. 됐고 일단 회사에서 만나요. 대표님이랑 전화는 했어요?"

*

"허, 이게……"

비방용 일화까지 모두 자세하게 적어 쓴, 나의 모습을 한 영화. 반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영화의 모습을 한 나. 그제서야 한석만 대표는 좀 믿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하긴, 당사자들도 아직까지 어안이 벙벙한데. 제3자는 어떻겠어. 유영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까 회사로 영화인 척하고 애 들어오게 하는데만 해도 진땀 잔뜩 뺐더니, 기가 죽죽 빨리네.

"그래. 이쪽이, 진짜 영화라는 거고. 어,"

한 대표가 유영이 끄적이던 종이를 들어 읽는다.

"최유영 양?"

"아, 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 실제로 본 적 또 있어요?"

영화가 대뜸 대화에 끼어든다. 하여튼 궁금한 거 못 참지, 이영화. 유영이 영화의 예전 모습이 떠올라 웃어버릴 뻔한다.

"응, 예전에 오디션 봤었는데. 최종 때 봤어."

"오디션? …… 설마 엠에스에서 연습생하던?"

"어, 아시네요 대표님. 엠에스 출신이셔서 그런가."

"허허어……"

멋쩍어하며 대답을 내뱉자 황당하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기던 한 대표가 이내 말문을 뚫다.

"유영 양, 텐어블 애들 팬이라며."

"네, 맞아요."

"춤춰 볼 수 있나?"

"예?"

그러니까, 대표의 제안은 이런 거다. 활동 중지를 당연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지만, 첫 방송의 부재 때문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난 아직 확인 못했지만-난리가 난 상황. 영화의 여론이 안 좋고, 별별 루머가 다 나오는 상황에서. 대충 수습 공지는 했지만 활종을 때려버리면 상황이 개판이 날 거고, 그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습생 꽤 했던데 일단 한 번 속는 셈 치고 보거나 하자. 기본기는 될 것 아니냐. etc.

이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나…… 내가 그거 접고 빠순이 루트탄 지가 몇 년인데. 실로 당황스러운 제안이었다. 내 최애 앞에서 내 최애가 추는 춤을? 아, 개쪽팔려.

그렇지만…… 솔직히 나쁜 제안은 아니다. 일단 여론 문제가 제일 컸고, 키자니아처럼 아이돌 생활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여돌 아니고 남돌의 삶. 당장에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활중하면 숙소에만 있어야 하는 걸수도…… 아무리 그래도 남정네들이랑 방을, 아니 그런데, 것보다 나로 바뀐 재는 어떡하지?

"그래서, 안 할 건가?"

MBTI 두 번째 자리가 N 답게 망상의 길로 빠져들 찰나, 한 대표의 말이 들려왔다. 아, 네. 해 보겠습니다.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까짓거 그냥 기대 말고 해 보지 뭐. 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습실로 가시죠, 대표님.

그리고 도착한 연습실. 무슨 정신으로 온지도 모르겠고, 내내 온갖 타이틀곡 생각만 했다. 영상 맨날 보고 재 동선 맨날 카메라로 쫓으면서 본 게 몇 개데. 그렇게 유영이 연습실 거울 앞에 자리를 잡고 섰다. 그 앞에 의자를 가져와 앉은 한 대표와, 옆에 서 있는 영화.

"시작해 지금 Never Ending Story - "

*

"헉, 헉."

유영이 춤과 노래를 끝내고는 숨을 고르며 다시 바로 섰다. 한 대표가 허, 하고 헛웃음을 벨다 이내 크게 웃어버린다. 현역 이영화보다 더 능력 좋은 이영화의 등장이라니. 기가 찰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 대표가 웃음을 갈무리하고서 입을 떼는다.

"최유영 양."

"네."

"당분간 몸이 돌아올 때까지는, 자네가 이영화를 맡아 줘야겠어."

예?! 유영과 영화 둘 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둘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다르다.

"일단 두 명 다 합의, 계약서 좀 써야겠군 그래. 지금 바로 준비하자."

이런 미친. 유영은 자꾸만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내리려 애썼다. 이왜진? 이게 왜 진짜 되냐고.

내 최애의 몸으로, 아이돌 대타를 하게 되었다.

1화 Fin.

작은 선인장 베키

국어국문학전공
20201028, 김준혁

<1장: 베키(Becky)의 자기소개>

"어제는 물을 줬던가?"

부스스한 옷자락을 이끌고 먼지가 한 가닥 한 가닥 붙은 머리카락을 털며 한 남자가 일어나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 그의 이름은 말완(Marwan)

‘메르키 뮈뮈르’ 줄여서 ‘뮈르’라고 불리는 이 바닷가 옆 항구 도시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화가이다.

그의 집은 반지하와 2층으로 이루어졌고 굽이진 골목길을 지나면 보이는 도서관 옆 건물이다. 안으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가면 수분을 머금은 이젤의 위. 그의 일과가 적힌 노트가 있었다. 내용을 살짝 훑쳐보자면

[첫 번째 해가 뜨는 아침에는 일어나 근처 잡화점 주인 오스틴(Austin)에게 가서 빵과 버터, 사과 그리고 작품용 과일을 몇 가지 산 후 돌아와 아침 식사 준비 후 베키에게 물 주기
두 번째 해가 뜨는 점심에는 가게 오픈 및 반지하 화실에서 그림 작업하기
세 번째 해가 뜨는 저녁에는 손녀 필로에(Philoe)를 불러 함께 저녁 식사 후 오늘 수익 정산
밤에는 필로에를 재우고 베키의 상태 확인 뒤 모든 문을 잠그고 취침]

이를 통해 지금은 첫 번째 해가 뜬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가 3번의 해와 한 번의 밤으로 이루어진 이곳 뮈르에는 단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

절대로 밤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아이리스’를 만나게 된다.

‘뽀이이이! 칙~’

주전자의 물 끓는 소리가 들린다.

말완이 아침을 시작하기 위한 차를 끓이고 있다.

그는 향긋한 차를 금방이라도 갈라질 거 같은 이 나간 컵에 따르며 신문을 펼쳐 읽었다.

‘바닷가 공장 설치 반대를 위한 시위, 새로 당선된 시장이 펼치는 전략,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 시설 증설,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 등등’

그는 천천히 신문을 읽어가며 ‘어린이’라는 부분을 가위로 스크랩하였다.

‘뽀걱... 뽀걱...’

2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다.

“하아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눈을 비비며 그의 손녀인 필로에가 내려왔다.

곱슬머리인 그녀의 머리는 아침이 되자 더욱 엉키어 마치 바람이 짝 찬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허허 일어났구나. 아가 이리 와 아침 먹으렴.”

“음~맛있는 냄새. 잘 먹겠습니다!”

필로에는 사과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우걱우걱 먹기 시작하였다.

“허허... 그리도 맛있니?”

뿌듯한 듯 쳐다보던 말완은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2층으로 올라갔다.

아침이라 창가 정면으로 내리쬐는 햇별은 잠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지만 잠시 눈을 감았다 뜨자 그의 앞에는 한 작은 선인장이 담긴 화분이 있었다.

“베키 오늘 아침은 어땠니? 햇빛이 가득 너를 반기니 기분이 좋지? 하지만 너무 썩면 말라버릴 수도 있으니 물을 주도록 하마.”

아직 열리지 않은 꽃봉오리가 달린 작은 선인장이었지만 가시만큼은 다른 어떤 선인장보다도 뾰족했다.

가끔 어떤 고양이가 다가와 베키를 건드리다 가시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말하였다.

“너만의 훌륭한 방어 수단을 갖추었구나. 혼자서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텐데 말이다. 허허!”

그는 베키에게 물을 주고 1층으로 내려가 가게의 문을 열 준비를 하였다.

{첫 번째 해의 뒷면}

“하아암...”

귀를 흔들며 입을 크게 벌리고 몸을 최대한 늘리며 기지개를 켜는 존재

나는 이 길가의 고양이이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날렵한 몸으로 창가나 여러 높은 곳을 정복하려는 존재

그런 나에게 인간에게 길들여진 다른 놈들은 이해할 수 없다.

애초에 달이 뜬 시간에 움직일 수 없는 인간이 그 시간대에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보다 뛰어날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최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친구가 생겼다.

물감 냄새가 짙게 내린 집 창가에 있는 아주 뾰족한 선인장이다. 인간들은 그 존재에게 ‘베키’라는 이름을 내렸다. 쉽게 건드릴 수 없도록 가시를 가졌고 가장 따뜻한 햇별이 내리는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나와 닮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나는 항상 가까이 다가가 최대한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천천히 주변을 돌면서 거리를 좁힌다.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였을 때 거기에 누워 같이 햇빛을 만끽한다. 이게 나의 최근 생긴 취미이다.

“그럼 한번 가볼까나?”

어느 정도 준비된 몸을 이끌고 나는 베키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어느새

첫 번째 해가 지고 있다.

<2장: 베키와 비가 오는 날>

그림들에 올려져 있던 천을 치우고 문을 열며 방울 소리를 확인한다.

‘딸랑’

“음 오늘도 괜찮구먼.”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가게 앞 문패를 ‘open’으로 바꾼 다음 자신이 아침에 산 과일을 꺼내 화실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도서관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럼. 아 그래 오늘은 이걸 주마.”

말완은 다가가 필로에의 작은 손을 열어 그 안의 구겨진 돈 몇 푼을 쥐여주었다.

“이걸로 내가 마음에 든 책을 한 권 사렴.”

“네 좋아요. 신나다~!”

필로에는 자신이 아끼는 가방을 메고 힘차게 문을 열며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하며 도서관으로 갔다.

말완은 그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화실의 문을 열자

작은 창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나왔다.

커다란 이젤과 작은 의자, 커다란 팔레트에 작게 놓인 물감들 그는 선반 위에 가져온 과일을 올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물체의 형태를 따라 한 붓 한 붓 천천히 옮기며 세세한 터치를 통해 생동감을 올렸다.

그렇게 작품을 완성한 그는 방 옆을 가득 채운 또 다른 이젤들의 옆에 작품을 놓고 다시 계단으로 올라와 아침에 사용한 접시를 설거지하였다. 물감이 묻어 또 다른 작품이 되어버린 손을 씻으며 접시를 잡은 순간 누군가 가게에 왔다.

‘딸랑’

그가 손을 털고 문으로 다가가자 익숙한 얼굴이 등장하였다.

“오~자네 지금 좀 바쁜 모양이었나? 이거 미안하네.”

잡화점 주인이자 절친이었던 오스틴이었다.

“괜찮네. 그런데 무슨 일로 왔나? 그림이라도 보려고?”

“나는 아닐세. 오늘은 내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네”

그러자 그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진짜 손님이 등장하였다.

정갈한 옷을 입은 아이가 나와 격식 있는 자기소개를 하였다.

“안녕하세요! 저 저는 오스틴 외할부지의 손자인 리암(Liam)이라고 합니다!”

뭔가 찌칙한 아이라고 말완은 생각하였다.

“멋진 아이네요. 그래서 꼬마 신사분 무슨 그림을 보러 오셨나요?”

말완은 소년처럼 정중한 행동을 취하며 그를 대하였다.

“혹시 필로에가... 좋아하는 그림 있나요?”

소년은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말완은 짓궂게 “필로에는 여기 있는 그림 다 좋아하는데?”라고 말하며 그의 반응을 오스틴과 함께 즐겼다.

“그럼 다 살게요!”라고 소년이 말하자

오스틴은 “허허. 하나만 고르렴”이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키고 둘은 전시된 그림을 구경하였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림, 수수한 꽃을 그린 그림, 과일 그림, 풍경 그림 등 여러 그림이 준비된 이 화실에서 그들은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인들의 그림을 보며 돌아다니는 오스틴과는 다르게 리암은 한 그림 앞에서 멈추어 바라보고 있었다.

밤의 바다가 그려진 풍경화였다.

소년은 지금까지 밤바다의 풍경을 본 적이 없다.

잔잔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 아름다운 달빛이 비치는 그 광경을 보며

“이걸로 주세요”

소년은 그 한마디를 하고 그림을 챙겨 오스틴과 함께 돌아갔다.

말완은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가던 도중 창가를 보았다.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 소녀가 사다리를 옮겨 그 위에서 책 한 권을 꺼낸다.

“이걸로 주세요!”

필로에가 서점에서 책 한 권을 골라 계산대에 올린다.

구매한 책을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서자 어느새 비가 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달려가야겠다.”라고 말하며 가방을 품속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다.

‘딸랑딸랑’

“다녀왔습니다. 후... 많이 젖지는 않았대.”

“비 많이 오진 않던? 조심해야지 감기 걸린단다.”

말완은 수건을 그녀의 머리에 올려 정성스럽게 물기를 닦아준다.

“겉옷은 여기 두고 가방을 놓고 오렴.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겠구나.”

“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고 말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빗방울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두 번째 해의 뒷면>

한 방울 두 방울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약간의 오한이 느껴지는 걸 보니 해가 완전히 사라진 모양이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일어났고 나의 옆에는 베키가 있다.

‘투둑... 투둑’

천장에 부딪힌 빗방울들이 화분에 떨어지며 베키를 적시고 있다.

꽃봉오리는 아침보다도 더욱 열려 곧 개화를 앞두고 있었다.

베키의 주변을 돌며 너무 많은 비를 맞지 않도록 짧은 손으로 막아주었다.

“너는 누구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경계 태세로 돌입한 나는 그 소리의 근원지를 보았다.

필로에가 쳐다보고 있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고 나는 그녀의 손을 물었다.

“아얏!”

그녀가 물러나자 나는 창틀 아래로 도망쳤지만, 비가 많이 오는 지금 이동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해가 거의 사라진 비가 오는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3장: 베키와 물안개>

비는 점점 많이 내리더니 물안개를 불러일으켜 이 마을을 하나의 미로처럼 만든다.

아름다운 바다는 빗소리에 묻혀 파도 소리마저 들리지 않은 고요한 바다가 되어있었다.

“필로에~ 어서 내려와서 저녁 먹으렴”

말완은 금방 내려오지 않는 그녀가 걱정되어 올라와 보았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꽃봉오리가 열린 베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베키의 꽃이 폈어요!”

그 말을 들은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꽃이 폈다니?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왜요? 이렇게 예쁜 꽃봉오리가 있는데 왜 필 리가 없죠?”

그는 다가와 말하였다.

“베키는 진짜 선인장이 아니란다.”

“네?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래. 모형이지. 식물을 잘 기르지 못하던 나를 위해 그녀가 만들어준 거란다.”

“그녀요?”

말완은 심호흡하고 말하였다.

“너의 할머니란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그녀는 조형물을 만들어 팔았었지. 그래서 원래 이 아틀리에에는 그녀가 만든 작품 또한 전시되어 있었단다. 물론 지금은 베키 말고는 없지만...”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죠? 돌아가셨나요?”

그의 눈가가 축축해진다.

“그녀는 밤에 이 마을에서 실종되었단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그녀가 바닷가로 나갔다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밤에 나갈 수 없게 된 건가요?”

“아니.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실종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다. 하지만 새로운 실종자가 생기면 전에 실종되었던 사람은 발견된다고 하더구나.”

필로에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뗐다.

“그럼 할머니도 발견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의 할머니 이후로는 밤에 돌아다니는 행위가 거의 금지되었지. 그래서 그 후로 8년간 아무 일도 없었단다.

그 말을 끝으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다.

접시의 달그락 소리, 빵을 자르는 소리, 잼을 바르는 소리, 우유를 따르는 소리

이외에는 사람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집 안에도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그들의 소리는 잠겨있었다.

‘드르륵’

“안녕히 주무세요.”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필로에였다.

“그래... 내일 보도록 하자꾸나.”

말완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는 것을 앞에도 필로에를 보내주었고

그녀는 2층으로 올라와 베키를 한번 쳐다본 후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일찍 잠을 청하려 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후우.....”

그는 접시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가게의 카운터로 가 정산하기 시작하였다.

“오늘은 그림이 하나 팔렸으니 어디 보자...”

그는 그 안에 쌓여있는 지폐를 보며 한 장 한 장 넘기며 세고 있었다.

하지만 흐려진 시야는 그것을 방해하였고 쌓인 피로는 그를 압박하였다.

아직 밤은 아니었지만, 그는 결국 카운터에 엎드려 잠들어버렸다.

그 시간 필로에는 침대에 누워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계속 잡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와 말한 할머니를 그녀는 떠올려봤다.

아주 어릴 적 기억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 이외에 느껴졌던 따뜻한 손길

그것이 바로 할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이 이야기를 했던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는 그에게 다가간 그녀는 잠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러다 발견한 할아버지의 눈물에 그녀는 아까 나눈 대화를 생각하였다.

“새로운 실종자가 생기면 전에 실종되었던 사람은 발견된다.”

그녀는 그 말을 뒤로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거센 비는 그녀의 발걸음을 잡고 물안개는 그녀의 시야를 차단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딸랑딸랑’

“음...? 내가 언제 잠들었더라?”

말완은 불편한 자세로 누워 생긴 허리의 통증으로 금세 일어났지만 둘러본 주위 어디에도 들어온 손님은 없어 이상함을 느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의 발걸음이 어째서인지 평소보다 더욱 절뚝거렸다.

불안한 기분이 든다. 그 기분에 호응이라도 한 것인지 도착하였을 때 필로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안돼. 안돼... 필로에마저 사라지면...”

그는 무엇인가 계속 중얼거렸다.

“찾아야 해”

다리에 힘이 돌아온 그는 일어나 겹옷을 입고 다급히 1층으로 내려와 필로에의 우산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바로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내가 지켜주마. 필로에... 부디 무사하거라.”

‘딸랑딸랑’

거센 비는 아까보다 약해졌다. 하지만 물안개가 그를 막았다. 그런 그를 점차 켜지는 조명이 약간이나마 도와주고 있다.

아틀리에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였다.

<세 번째 해의 뒷면>

바닥으로 내려오니 비가 약간씩 고이고 있다.

배수구가 길 끝에 있었지만 역류하기 시작하였다. 안에 들어있던 나뭇조각, 담배꽂초, 다양한 쓰레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그때 위에서 어두운 남색의 액체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만개한 벚키의 꽃에 닿은 빗방울들이 물감이 된 것처럼 바뀌어 떨어졌다.

그 물감은 비를 물들여 바닥을 남색으로 물들였고 나는 그 위에 떠 있는 쓰레기들을 보며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떠올렸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별들은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옆에 있는 이 쓰레기와 같이 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스으으윽’

물안개가 점점 나의 주위를 둘러싼다. 남색의 물감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의 비 또한 진정된 배수구를 통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추워지고 있었다.

비와는 다르게 안개는 뺏속까지 직접 들어와 추위를 전달하는 것 같았다. 들이마시면 나의 몸은 점차 안개가 되어갔다.

‘딸랑딸랑’

문소리와 함께 말완이 달려가고 있다.

나는 그 소리에 다시 몸에 묻은 물기를 털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몸을 돌리는 순간

‘뽕그랑!’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졌다.

베키의 화분이다.

‘툑 툑 툑’

베키는 저 멀리 나뭇굴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베키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얼마 못 가 죽을 것이라고.

친구를 위하여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베키를 입에 물고 그 집의 주인 말완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입천장, 볼, 혀를 찢리자 비린 피의 맛이 났지만 놓을 수는 없었다. 살려야 한다.

나는 그녀를 물고 그의 뒤를 쫓았다.

안개로 인하여 그를 쫓아가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그림에도 달려간다.

조명은 이제 완전히 밝아지고 어느새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4장: 베키와 바닷가>

‘침병’

아직 마르지 않은 웅덩이를 밟으며 달려가는 있는 말완

그의 입은 하얀 입김이 나오며 체온을 빼앗기고 있고 미끄러운 돌바닥은 그를 넘어뜨렸다.

무릎이 까지고 절뚝이던 다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였다.

그는 점차 가팔라지는 숨을 참으며 이제는 거의 기어가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좁은 골목길은 내리는 달빛으로 인해 아름답게 빛났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말완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많은 집의 창가는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커튼 뒤의 그림자로만 사람들은 반응할 뿐이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 사람 이런 밤에 무슨 일이지?”

“엄마 할아버지가 밖에 나와 있는데요?”

“애 저런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란다.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알겠니?”

“아이고 죽으려고 걱정했구먼... 저 사람.”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그는 발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계속해서 나아갔다.

점차 찬 공기가 그를 감싸고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에서 비린내가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거의 도착했구먼... 필로에 거기 있니? 대답하렴!”

그는 마지막 코너를 돌며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비릿한 향이 가득하지만 은은한 달빛과 잔잔한 파도가 오는 뮤르의 밤 바다에...

거기에서 반기고 있던 것은 바닷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사람 형태의 무언가와 그 안에 안겨있던 필로에였다.

“아이리스”

그는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다.

저 생명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필로에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앞섰다.

한 발 한 발 다가갈수록 그 존재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쪽으로 물러났다.

“내... 내 손녀를 돌려줘 이 괴물 녀석아!”

그는 있는 힘껏 그 존재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멀뚱히 달빛을 받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내 아내를... 데려간 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건들다니!”

그의 목은 핏대가 서고 목소리는 마치 망가진 현악기에서 날 만한 소리인 것처럼 날카롭게 바뀌었다. 침을 삼키자 비린 피 맛이 바닷가의 생선 냄새와 같이 들어왔다.

다친 다리를 이끌며 달려들었지만 힘이 빠진 다리는 두 걸음 움직이자 주저앉아버렸다.

아이리스는 그런 모습에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는 반응 없는 그 존재 앞에 점점 위축되어 청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제발 돌려주세요... 저에게 남은 하나뿐인 가족입니다. 그녀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아이리스는 그녀를 내려놓으며 말완을 쳐다보았다.

차가운 밤이었지만 따뜻한 시선이였다.

말완은 그 시선에서 그 존재가 제안한 의도를 알아차렸다.

“제가... 오라는 거군요.”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리스는 필로에의 얼굴에 바닷물을 떨어뜨리며 그녀를 깨웠다.

“앗 차가! 여긴... 어디지?”

일어난 그녀의 앞에는 웃고 있지만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아가... 일어났니? 우리 말썽꾸러기 필로에 이런 늦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했잖니.”

그의 목소리는 얇은 파도 소리에 묻힐 정도로 작은 소리였다.

췌소리를 줄이고 최대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그의 행동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단다... 이런 밤에 여기는 무슨 일로 나온 거니? 필로에 솔직하게 말해주렴.”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시 만났으면 해서 그랬어요.”

점점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거렸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말완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다. 너의 그런 의도를 알았으니 괜찮다. 하지만 아가...”

필로에의 눈물이 말완의 무릎에 떨어진다.

“너의 할머니 베기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의 손녀 필로에가 가장 소중하다. 그것만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네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말완은 그녀를 안은 상태로 머리를 쓰다듬는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기세로 서로를 강하게 안는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의 시간은 더 이상 남지 않았다.

아이리스가 그들의 뒤에서 거대한 손으로 그를 데려가기 위해 손을 뻗는다.

“할아버지...”

그때 한 물체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다.

그 검은 물체는 선인장을 물고 아이리스에게 달려들었다.

“핑!”

날카로운 가시에 닿은 그 존재는 마치 풍선처럼 한순간에 터지며 많은 바닷물을 비처럼 쏟아내었다.

소리에 놀란 말완과 필로에는 시선을 옮겼고 어느새 아이리스는 자취를 감추었다.

물안개도 함께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집에 있어야 했던 베키가 있었다.

“아니 베키가 왜 여기에?”

“할아버지 저 고양이 아까 저를 물었던 아이예요.”

‘예끼! 이놈이 내 손녀를!’이라고 말하며 그가 호령하자 고양이는 다시 마을 쪽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아이리스가 있던 바다를 뒤로하고 필로에의 부축을 받으며 그들은 몸을 일으켰다. 떨어져 있던 베키를 챙기면서 말하였다.

“온몸이 쭈서서 병원에 좀 가야겠는데... 지금 병원이 열지 모르겠구나.”

“이제 곧 아침이니까 같이 문 앞에서 기다려요.”

“허허. 그러자꾸나.”

바다 위로 오르는 일출은 차가웠던 밤의 냉기를 녹이고 그들의 등도 따뜻하게 밀어주었다.

<5장: 말완과 필로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말완은 병원에 가 필로에의 진찰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나갔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노쇠한 몸은 점차 힘을 잃어갔고 그는 1년 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베키와 함께하게 되었다.

필로에는 아직 어린 소녀였기에 할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집은 오스틴에게 맡겨 유지하였고 말완이 예전부터 준비해 온 어린이 복지 제도의 혜택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부를 위하여 떠나야 했던 필로에를 따라 리암도 오스틴을 졸라 그녀와 같은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그렇게 조용했던 메르키 뮈뮈르 마을은 어느새 15년이 지나 더욱 활발한 도시로 발전되어 있었다.

바닷가 공장 건설은 새로운 젊은 시장의 당선으로 인하여 기각되고 자연경관을 살린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남아 많은 종전 이후 많은 방문객이 초대하는 방문하는 이곳

“어서 여기로 와봐~ 여긴 오랜만이지? 이제 너도 왔으니 여기의 열쇠를 돌려주도록 하마. 잘 간직하고 소중히 하렴.”

백발의 노인이 열쇠로 문을 열며 손짓한다.

‘딸랑딸랑’

가방을 메고 긴 곱슬머리를 한 여성이 열쇠를 받고 한 남성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

“흐음~ 여기는 오랜만에 와도 예전 그 냄새 그대로야. 하지만 먼지가 많이 쌓였어요. 우선 창문 열고 먼지부터 털까요?”

“그래요! 저기 나는 지하부터 정리할게요!”

남성은 아래로 내려가 화실에 있던 이젤들을 밖으로 꺼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전에 그렸던 작품들인가 봐요.”

여성은 그중 먼지가 쌓인 그림에 덮여있던 천을 치우며 말하였다.

“리암? 이 그림은 방에다 걸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그려진 그림인데 너무 좋아요!”

여성은 2층으로 올라가 침실의 문을 열고 그 그림을 걸어놓았다.

“이 그림의 제목은 ‘필로에와 말완 그리고 베키, 특별한 가족사진’이라고 지어야겠다.”

그림에는 한 남성에게 안겨있는 작은 소녀와 그 소녀가 안고 있는 화분에 담겨있는 작은 선인장이 그려져 있었다.

“여보 다 정리했어요!.”

“금방 갈게요~”

그녀는 가방 안에 있던 책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에는 말끔하게 정리된 화실과 식물원과도 같이 아름답게 꾸며진 화원이 있었다.

“이제 여기가 당신이랑 내가 살아가며 운영할 화실이자 화원이예요. 생각해둔 이름 있어요?”

“‘작은 선인장 베키’ 어때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선인장은 물을 주지 않고 적은 물로도 잘 살아남는다고 하고 예쁜 꽃도 피우면서 생명력이 질기다고 해요. 또 너무 크지도 않으니까 키우기에도 적합하고. 저는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당신이 좋다면 저도 좋아요.”

그렇게 이 한 쌍의 남녀는 다시 한번 이 가게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 열기를 받아 메르키 뮈뮈르에는 어느덧 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

국어국문학전공
20211100 최은실

덜컹거리는 차 안. 창을 내리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앞으로 길게 뻗은 도로는 한여름의 열기를 한가득 품어 불어오는 바람에 뜨거운 몸을 달랬다.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에 차 안의 시원한 공기는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덜컹 창문 좀 닫아. 대체 창문을 왜 연 거야?”
“엘렌 이해해 줘. 벌써 5시간이나 운전했단 말이야.”
“그러면 네 쪽 창문을 열면 되잖아”
“으~ 그건 싫어. 지금 저 모래바람을 보고선 한 말이지?”

엘렌은 창문을 닫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두, 세 번 만지니 손에서 흠뻑이 느껴졌다. 손을 몇 번 주먹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다 덜컹의 머리카락을 해집어 놓았다. 덜컹도 한 손을 뻗어 엘렌의 머리도 똑같이 흐트려 놓았다. 짜증 내는 엘렌을 힐끔 보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전보다 더 거세게 불어 덜컹에게까지 모래바람이 불었다. 서로에게 장난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 어느새 ‘에일든’이 적힌 표지판이 나타났다. 조금 더 들어가자 몇 시간이고 보았던 건조하고 메마른 붉은 땅과 달리 푸른 나무들과 밭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엘렌은 창문을 열어 깨끗하고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았다. 두 달 전 엘렌과 덜컹의 아빠인 벤자민이 심장지로 사망하고 한 달 뒤 엄마, 아맨다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둘에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휘몰아치듯이 일어나면서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일주일 전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벤자민의 이름이 적힌 집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현재 ‘에일든’으로 오게 된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각자 살자고 이야기했었다. 다만 이제 막 성인이 된 덜컹을 위해 엘렌은 아직은 자신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했고 결국 그를 설득했다. 자신들이 살았던 모든 기억의 배경이 된 동네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에일든’으로 이사 온 것이다. 또다시 풍경이 빠르게 변해 다양한 모습의 집들이 보였다.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취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차는 계속해서 마을 중심부로 들어갔다.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 시골이었기에 집까지 금방 도착했다.

“엘렌 다 왔어. 그만 멍 때리고 집 문 좀 열어줘”
“기다려봐. 금방 열어 줄게”

엘렌은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어 고정했다. 덜컹이 짐을 옮기는 사이 엘렌은 마당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아무렇게나 자란 정원을 바라보았다. 벌써부터 할 일이 많아 보였다. 피곤의 한숨을 쉬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미리 가져다 놓은 가구들과 짐들이 보였

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불을 켜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방치되어온 집이었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전기가 잘 들어왔다. 딜런은 짐을 실은 트럭을 기다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고 엘렌은 그동안 집 안을 구경하기로 했다. 의족을 사용하는 엘렌이 1층을 사용하고 딜런이 2층을 사용하기로 미리 말해 놓았기에 엘렌은 곧 장 자신의 방이 될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방금 전 보았던 정원이 왼쪽에 보이고 벽 전체가 유리로 된 곳으로는 나무들과 넓은 초원이 보였다. ‘에일든’은 대부분 밭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이 없고 마을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탁 트인 전경을 볼 수 있었다.

하나 둘 가구가 들어오고 정리하다 보니 벌써 해가 졌다. 둘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기에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보기로 했다.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트는 예상외로 컸다. 마을이 작아서 마트 또한 작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굉장히 컸다. 오늘 저녁으로 대충 먹을 시리얼과 우유를 사기 위해 온 것인데 구경하다 보니 벌써 카트를 가득 채웠다. 엘렌과 딜런은 넘칠 것 같은 카트를 보고 아주 즐겁다는 듯이 서로를 보며 웃었다.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다가가자 60대로 보이는 직원이 엘렌과 딜런을 발견하고 밝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처음 보는데 오늘 이사 왔나 봐요”

“네. 로버츠 씨 댁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 로버츠 씨와는 무슨 사이예요?”

“저희 아버지예요. 저는 딜런이고 여기는 제 누나 엘렌이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엘렌이에요. 혹시 성함이…?”

“엘렌이요? 아니. 딜런인가… 하하, 반가워서 내 정신 좀 봐. 이름 말하는걸 깜빡했네. 나시아라고 해요. 여기는 남편이랑 운영하는 아주 큰 마트죠”

“이 큰 곳을 두 분이서 운영하신 다고요?”

“네. ‘에일든’에 유일한 마트인 만큼 아주 크죠. 그래서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 자랑이에요. 그러니 자주 놀러 와야 해요.”

나시아 씨는 굉장히 수다스러웠다. 그럼에도 짧은 대화에서 그녀가 매우 밝고 사람을 좋아하는 유쾌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엘렌과 딜런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나시아 씨와 친하게 지내면 마을에서 사는 게 매우 즐거울 것 같아.”

“그러게, 마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시아 씨라서 정말 다행이야. 벌써부터 내일이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건 알고 있지? 딜런”

“알아. 오아!! 벌써부터 하기 싫어.”

딜런은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해치우고 정리되지 않은 침대 위에 담요를 대충 깔고 잠을 청했다. 내일이 되면 오늘 보다 더 바쁜 하루가 될 테니 말이다.

드- 드드득- 드득----득

아침부터 집 전체가 울리는 소리에 엘렌은 침대 위에서 몇 번 뒤척이며 괴로워하다 고요해지는 분위기에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엘렌은 화들짝 놀라 다급히 의족을 끼고 뛰어나왔다.

“딜런! 대체 뭘 하길래 아침부터 집 부시는 소리가 나는 거야!!”

“드디어 일어났네. 엘렌 지금은 아침이 아니고 11시야. 너무 늦게 일어난 거 아니야?”

“어제 그렇게 일했는데 늦잠 잘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2층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예쁘더라고. 그래서 누나도 올라오기 편하게 계단을 다시 설치하려고”

“계단이면 잘 올라가거든. 의족 생활이 몇 년인데”

“알아. 계단이 낡기도 했고 난간이 흔들리더라. 오늘 안에 완성할 거니까 저녁에 같이 올라가서 노을을 보고 낭만을 즐기는 거야”

딜런은 빠르게 나무 계단을 부시며 천천히 내려오다 계단 안쪽 빈 공간에 쌓인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여기에 왜 상자가 있지?’ 딜런은 하고 있던 작업을 멈추고 계단에서 내려왔다. 왜 상자를 여기에 두었을까. 만약 계단을 창고처럼 사용했다면 문이 있거나 손잡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모두 막혀 있었다. 마치 상자를 숨기기 위해 빈 공간에 상자를 넣어놓고 덮어 놓은 것 같았다.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딜런은 빠르게 계단을 부시다가 어느 한 계단 발판의 부분에서 다른 못들과 달리 깨끗한 못 들을 발견했다.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누군가 계단을 뜯었던 것이다.

‘누가 그랬을까, 만약 아빠라면? 그런데 굳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 계단을 뜯을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면 집이 비어 있는 사이 누군가 무엇을 숨기려고 계단을 뜯은 거라면?’ 딜런은 오만가지 상상을 하며 위험한 범죄 조직이 자신들의 빈 집을 밀거래 장소로 사용했을 거라는 결과까지 도달했다.

“엘렌 다시 여기로 와봐”

“왜? 시체라도 나왔어?”

“그럴 수도 있어”

“뭐? 그 말 진짜야?”

엘렌은 아까 전과 똑같이 서둘러 뛰어나왔다. 계단이 있었던 자리에는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 상자를 보고 시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걸까. 엘렌은 상자를 들어 보았다. 꽤나 묵직했다.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딜런을 툭- 툭- 쳤다.

“딜런, 저 상자 열어 봐”

“내가? 절대 안 해. 절대 안 열어 볼 거야”

“그럼 내가 하나?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가 열어야지”

“싫어. 내가 이거 찾자고 계단을 뜯었겠냐고”

엘렌은 겁먹은 딜런을 보고 한숨을 쉬고는 상자를 열었다. 딜런은 무섭지만 궁금했는지 뒤에 바짝 붙어서 어깨너머로 보았다. 상자 안에는 수많은 편지와 비디오테이프 한 개, 그리고 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계단에 손잡이나 문 같은 거 없었어. 완전히 막혀 있는 계단이었어.”

엘렌은 앨범을 열어 보았다. 그리고 이 상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아빠잖아”

“어? 아빠라고?”

“응. 그것도 젊었을 때야. 한 이십 대처럼 보이는데”

“줘봐. 와, 내 모습이랑 똑같아! 엘렌 봐봐”

“진짜 아빠 맞네. 이게 왜 여기 있었을까?”

사진첩을 살펴보는 엘렌을 뒤로하고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그라져버린 딜런은 몸을 돌려 계단으로 향했다. 지금 조금이라도 쉬게 되면 오늘은 2층이 아니라 1층에서 자야 한다. 딜런이 목재를 가지러 밖으로 나간 사이 엘렌은 편지들을 꺼냈다. 가장 오래된 날씨가 적힌 편지를 열었다.

안녕, 아맨다

어제 길을 걷다 꽃을 사고 있는 너를 봤어. 꽃 보다 네가 훨씬 예쁘다는 것을 너는 알까? 만약 나라면 꽃이 아니라 거울을 구매해 방을 장식했을 거야.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날씨가 좋은 좋지 않은 너를 보면 그날은 완벽한 하루가 돼. 그런데 오늘은 늘 가던 카페에 오지 않았더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페 근처에서도 보이지 않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 혹시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 내일은 너를 봤으면 좋겠어

19xx.xx.xx

너를 기다리는 벤자민 로버츠가

편지는 아빠가 엄마에게 전해준 편지였다. 그것도 연애편지를. 상자에 담긴 물건들을 모두 빼보니 상자 바닥에는 테이프로 고정된 종이가 있었다. 엘렌은 종이를 열어 읽었다.

“이 상자를 발견한다면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 읽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태워서 없애 주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 수 없었어요. 만약 벤자민 로버츠가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나를 죽일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엘렌. 그러니까 엄마는 자신과 결혼한 벤자민 로버츠. 즉, 자신의 아빠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상자 바닥에 이 종이를 붙여 놓고 계단 아래에 넣어 놓은 걸까. 자신이 봐 왔던 부모님은 다른 가족들 보다 더 화목했고 다정했고 사랑이 넘쳤었다. 그것도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맨다가 로버츠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다. 엘렌은 자신이 모르는 부모님의 과거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분명한 것은 엄마는 과거를 숨기고 있고 그 과거는 아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엘렌은 딜런에게 방금 읽었던 편지와 종이를 건네 주었다.

“아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게 보이는 편지랑 그런 과거를 숨기려는 엄마라니. 대체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둘 사이는 굉장히 좋았잖아. 가끔은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편지가 몇 개 있었지?”

“대충 30개가 넘어 보였어”

“아마 편지를 다 읽어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짐 정리를 끝내고 청소를 끝내야 하니까 일을 다 끝내고 같이 읽자”

“알겠어. 그럼 짐들은 상자에 다시 넣어 놓는다.”

엘렌은 상자를 들어 부엌으로 옮겨 놓았다. 부모님의 과거도 궁금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오늘 편안하게 자려면 한시라도 바빠 움직여서 이삿짐을 정리해야 한다. 한참 짐을 정

리하고 청소를 마치니 밤 10시가 되었다. 먼저 난간을 제외하고 계단을 완성한 딜런은 파스타를 만들어 엘렌을 기다렸다. 두 사람은 파스타를 먹으며 상자 안에 남은 편지들을 읽었다.

안녕, 아맨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날씨니까 분명 좋아했을 거라고 믿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바로 꽃집으로 갔어. 전에 내가 샀던 꽃을 사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제시보다 내가 먼저 도착한 거야.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나 봐. 대략 1시간을 기다리니까 제시가 와서 문을 열어 줬어. 너를 위해 꽃다발을 만들었는데 어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너랑 잘 어울리는 꽃들을 선택했거든. 오늘은 직접 너에게 편지랑 같이 전해주려고 집 앞에서 기다렸어. 그런데 대체 그 남자는 누구야? 너는 항상 나에게 웃어줬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었으면서 대체 왜 그 남자랑 함께 있는 거야? 물론 아맨다 너는 잘못이 없어. 너를 꼬시고 나와 너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남자가 잘못된 거야. 다만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너를 위해 준비한 꽃다발을 망가뜨려 버렸어. 그래서 다시 꽃집으로 돌아가 똑같은 꽃다발을 만들었어. 너를 생각하며 만든 거니까 소중히 보관해 줘.

19xx.xx.xx

너만 생각하는 벤자민 로버츠가

안녕, 아맨다

그 남자가 너의 곁에 사라진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 갑자기 실종되었다니. 마치 누군가 납치한 것 같지 않아?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말이야. 그런데 그때 받은 꽃다발은 어땠어? 분명 좋아했을 거야. 그래서 울었던 거지? 이번에는 너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어.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전에 요리 잘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했잖아. 어때? 내가 더 너랑 잘 어울리는 남자인 걸 알겠지.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나를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 줘. 어제 날 보고 인사를 안한 건 못 봐서 그런 거라고 믿어. 알아.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19xx.xx.xx

항상 너의 곁에 있는 벤자민 로버츠가

“엘렌, 아무리 봐도 아빠가 엄마를 스토킹한 것 같지?”

“응. 그냥 스토킹도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데. 대체 엄마는 이걸 왜 보관하고 있던 걸까”

“우리가 본 두 사람에게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내용이야”

“그동안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기분이야. 소름 끼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나 먼저 일어날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게 좋겠다. 잘 자 딜런”

“너무 늦게까지 생각하지 마. 이걸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딜런이 떠나고 엘렌은 남은 편지들을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빠가 아니었다. 엄마는 아빠에게 오랫동안 시달렸고 그는 점차 엄마의 주위를 맴돌며 천천

히 세뇌시켰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엄마의 주변 환경조차 바꿔 그들이 아빠의 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엄마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엄마의 부모조차... 그녀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엘렌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고 복잡했다. 어느 순간 잠깐 잠에 들었던 것 같다. 꿈에서 엄마는 자신에게 “너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해. 그러면 인생이 엄청 행복해질 거야. 엄마를 봐.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아?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해 보여”라며 말했다. 전에는 몇 번이고 엄마가 어린 자신에게 말했던 기억이다. 엘렌은 복잡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운 지 1시간이 되지도 않은 채 일어났다. 지금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다. 그 편지들은 대체 무엇이며 자신들이 봐온 모습들은 무엇인지. 엘렌은 머뭇거리는 손으로 핸드폰 전원을 켜다 켜기를 반복했다. 지금이 새벽이라 전화를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엄마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다. 아빠가 죽고 엄마는 갑자기 정신이상 행동을 했다. 좋아하던 것들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길에서 미쳐 발견하지 못한 남자만 봐도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

‘엄마가 이해될 것 같아. 엄마는... 미친 게 아니었어. 아빠 때문이었어. 그래서 아빠가 준 선물들을 아깝다고 건드리지도 않고 놔두었다가 몰래 다 버리고... 소중하게 다루지도 않았어. 맞아... 그냥 아무 곳에나 두었어.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엄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거지?’ 엘렌은 침대에서 벗어나 빠르게 주방으로 향해 펼쳐지 않은 편지들을 꺼내 읽었다.

안녕, 아맨다

전에 내가 준 선물들을 모두 너희 집 앞에 있는 쓰레기봉투에서 발견했어.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은 건지 말해 줄래? 전부 너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건데 너는 나를 만나 주지도 않고. 난 늘 기다리기만 했잖아. 이제는 지쳤어. 다음부터는 전화로 미리 알려 줄게. 이번에는 나를 기다려 주길 바라

내가 준 편지들도 버린 건 아니지?

만약 버렸다면 너를 아주 많이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 아맨다

19xx.xx.xx

기대해줘. 벤자민 로버츠가

놀랐지 아맨다

얼마 전부터 너희 아버지랑 같은 회사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 너희 부모님도 나를 좋아하시는 게 보이지? 아! 저번에 네 생일에 친구들과 여행 갔었잖아. 그 여행 티켓도 내가 구해서 너희 아버지께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한 거였어. 하하하.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 너와 함께한 저녁은 매우 즐거웠어. 다음에도 너희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들이 기대된다. 그리고 편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줘서 고마워. 소중히 생각하며 보관하고 있었구나. 네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너는 항상 부끄러워서 나를 보면 도망갔었잖아. 내일은 네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집 앞에서 기다릴게. 네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19xx.xx.xx

연인이 될 너의 사랑 벤자민 로버츠

다른 편지들을 모두 읽어 봤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아빠의 일방적인 사랑, 아니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다. 이건 폭력이다. 보이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렇기에 다른 누군가가 알 수 없고 치료하기도 어려운 흔적으로 남는다. 그런데 엄마는 왜 도망치지 않은 거지? 주변에서는 아빠를 옹호하는 사람들 뿐이고 엄마의 편이 없잖아. 그리고... 왜 아빠가 사라지고 나서 그게 드러난 걸까. 엘렌은 상자를 열어 비디오테이프를 꺼냈다.

‘이걸 볼 수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에 있으려나’

엘렌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잠시 바라보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5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천천히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너무나도 고요했고 새들조차 날지 않는 하늘은 어둠에 잠식되어 세상을 진실의 거대한 바닷속으로 점차 고립시켰다. 엘렌의 눈 속에는 담아내기 힘든 한 사람의 공포를 겨우 삼켜 내고 있었다.

“엘렌, 뭐라도 발견했어?”

“전혀. 다 똑같아. 아빠는 끔찍한 인간이야. 내가 그런 인간을 사랑했다니. 죽을 것처럼 그리워했다니...”

“엘렌. 그.. 비디오. 혹시 비디오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비디오 플레이어가 없어”

“짐을 정리할 때도 없었는데. 이웃들에게 빌려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 검사점사 인사도 하면 되겠다”

“간단하게 쿠키라도 구워서 나눠 드리는 게 좋겠어.”

딜런과 엘렌은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쿠키를 구워 출발했다. 먼저 어제 들렸던 마트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사 오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왔어요”

“어머~. 무슨 인사 씩이나. 그래도 다시 보니 반갑네. 잠시만요. 호호. 노아- 노아!!”

“응? 무슨 일이야. 마을에서 못 보던 분들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런이고 옆에는 제 누나 엘렌이에요.”

“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어제 이사를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의미의 선물이에요.”

“그-으 20년 넘게 비어있던 그 집인가 보네. 우리 동네에 잘 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좋으니 잘 지내 봐요. 하하하”

“노아, 딜런 씨 손이 무겁잖아요. 얼른 받아줘요”

“아이구. 미안해요. 여기서 열어봐도 괜찮겠죠?”

“그럼요. 저희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물론 대부분 제가 만들긴 했지만요.”

“딜런.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 재료 가져다 주고 어! 내가... 내가!! 아무튼 더 열심히 했어”

“아- 그렇군요. 노아, 나도 먹게 줘 봐요. 어머! 어머머! 너무 맛있다. 이거 우리 마트에서 팔면 꽤 많이 돈을 벌 것 같은데?”

맛있게 쿠키를 먹는 나시아 씨와 노아 씨에게 딜런은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마 창고에 있지 않을까? 노아 찾아봐요.”

“그거 오웬 씨한테 줬는데. 아마 부탁하면 빌려줄 거야.”

“바로 앞 집이네. 잘 됐다. 쿠키도 전해주면서 부탁해 봐요. 오웬 씨가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지 착한 사람이니까 겁먹지 말아요.”

엘렌과 딜런은 곧장 오웬 씨를 찾아갔다. 자신들이 만든 쿠키는 아주 맛있으니까 잘만 부탁하면 빌려주실 것이다. 어느새 도착한 오웬 씨네 집은 이끼가 자란 나무로 된 집이었다. 아마 마을에서 가장 풍경과 가장 어울리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문을 두드렸다. 문은 곧바로 열렸다. 다만 여름의 녹진함이 느껴지는 집 안의 공기만 느껴질 만큼 열렸다. 좁은 틈이 열리고 한참 아무 말이 없어서 엘렌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앞 집으로 이사 온 엘렌과 딜런이에요.”

“이사 온 기념으로 쿠키를 드리고 있어요.”

“아- “

짧은 탄식만이 좁은 틈으로 존재를 알렸다. 부담스러우신 건가? 번뜩 아까 전의 나시아 씨의 말이 떠오른 딜런은 엘렌에게 조용히 말을 했다. 엘렌은 문에서 조금 떨어진 채로 말을 건넸다.

“오웬 씨 맞으시죠. 나시아 씨와 노아 씨애가 오웬 씨에 대해 말해 주셔서 가장 먼저 인사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어요.”

잠시 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조금씩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무언의 허락인 것 같다. 엘렌은 문을 더 열고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딜런이 발소리를 죽이며 따라갔다. 오전이라 밝아야 할 집안은 어두웠다. 엘렌과 딜런은 발로 더듬으며 들어가다가 오웬 씨가 가져온 가스등을 발견하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오웬 씨는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선 소파에 앉았다. 그를 따라 엘렌과 딜런이 조용히 앉았다. 다시 시작된 적막, 시계 소리조차 없어 정말로 시간이 멈춰있는 공간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다.

“제가 만든 쿠키예요. 아. 아니 저희가 만든 쿠키예요. 하하.. 하...”

딜런이 쿠키가 담긴 상자를 오웬 씨에게로 내밀자 그가 손을 뻗었다. 손 위로 길게 그어진 상처가 불에 일렁이며 마치 상처가 벌어지는 듯 했다. 오웬 씨는 쿠키 상자를 당겨 자신의 앞에 놓았다. 보이지 않는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낀 딜런이 엘렌의 옷 자락을 잡아당기며 뭐라도 말을 꺼내라고 재촉했다.

“저희가 비디오 플레이어가 필요해서요. 노아 씨에게 여쭙보니 오웬 씨가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엘렌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웬 씨는 등을 들고 자리에서 벗어났다. 오웬 씨와 함께 사라지는 빛이 몰고오는 공포감은 엘렌과 딜런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오웬 씨를 따라 들어간 곳은 아마도 그의 방인 것 같다. 방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레코드판들이 등의 빛을 받아 방안을 얼룩덜룩 비추었다.

“엘렌. 저 앨범 좀 봐. 저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저기도 봐봐. 저건 이제 구하지도 못하는 앨범이야.”

딜런은 레코드판을 굉장히 좋아한다. 정확히는 구하기 힘든 레코드판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딜런은 겁에 질려 엘렌의 뒤에 꼭 붙어 있으면서도 눈동자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었다. 오웬 씨는 침대 밑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꺼내 엘렌에게 건넸다. 엘렌이 자신들이 가진 비디오에 맞는 플레이어인지 확인하는 순간 어디선가 나이가 많은 건지 아니면 목소리가 쉰 건지 알 수 없는 여성의 비명과 같은 울부짖음이 들렸다. 그리고 오웬 씨는 빠르게 소리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어둠에 익숙한 건지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웬 씨 정말 빠르다”

“그러게. 순식간에 사라졌어. 이거 우리가 찾던 건데 오웬 씨에게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아”

딜런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들고 있는 엘렌을 대신해 등을 들고 사라진 오웬 씨를 찾아 나갔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방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찾아… 해… 어디… 있지… 아무도 봐서는 안… 그건 없어..야 해”

“없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니? 그래. 그렇구나. 절대 그가 알아서는 안돼. 그러면 안 돼. 그가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을거야.”

“오웬 씨. 이거 조심히 쓰고 돌- ”

오웬 씨의 고개가 빠르게 돌아 엘렌과 딜런을 보았다. 순식간에 오웬 씨는 문을 큰 소리가 나게 닫고서는 당장 나가라며 소리쳤다. 둘은 감사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다. 얼핏 본 오웬 씨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행동이나 목소리, 그리고 손은 얼굴에 비해 젊어 보였다. 아니 어렸다. 마치 가면이라도 쓴 것처럼. 그의 얼굴과 모든 것들이 어울리지 않았다. 어찌 되었든 원하는 목표를 이룬 둘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엘렌은 방금 전의 일로 인해 급격히 피곤해져 방으로 들어갔다. 딜런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심장의 요동침을 얼음 물로 달래고 앞집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웬 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깜짝놀란 딜런은 컵을 놓쳤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은 산산조각이나 컵의 형체를 잃어버렸다.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전해지는 통증은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딜런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향해 몸을 숙였다.

“똑- 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일까. 오웬 씨일까. 이제는 세상이 하얗게 보일 만큼 숨을 쉬는 것을 잊은 딜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향해 말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딜런의 머릿속을 장악했다.

“누구세요! 누구신지 말을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에이든 이에요.”

어린아이다. 분명 어린아이다. 딜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아이는 자신의 부모님이 옆집으로 이사 온 자신들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고 전하러 온 것이었다. 딜런은 마

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표정을 짓는 아이를 보며 귀엽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6시까지 가겠다는 대답을 하고 문을 닫았다. 갑자기 오후 일정이 생겨버린 딜런은 깨진 유리컵을 치우고 엘렌을 깨우러 갔다.

5시 50분. 약속시간보다 먼저 도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일찍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온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딜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엘렌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 인사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아내 올리비아예요.”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잭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에이든이 거실에서 기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안녕 형아. 이거 봐 내 기차야. 정말 멋있지! 엄마가 사줬다!!”

“에이든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귀여운걸요. 안녕 에이든 나는 딜런의 누나 엘렌이야.”

“안녕, 누나. 그런데 난 귀엽지 않아. 멋있는 형아야. 그리고 멋진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야.

“정말 멋있는 기관사님이네”

“맞아. 누나가 봐도 멋있지?”

에이든과 이야기하며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 보니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일까. 짧은 간격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한 소녀가 내려왔다. 에이든보다 키가 큰 걸 보니 아마 누나일 것 같았다.

“어머. 라비아. 아픈데 왜 내려왔어. 다시 올라가렴. 손님들 계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아니예요. 저희는 괜찮으니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어머. 너무 친절하셔라. 그럼 잠시 실례할게요.”

올리비아 씨는 라비아를 데리고 2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라비아와 올리비아 씨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잭 씨와 에이든과 대화를 나누었다. 에이든은 자신의 누나가 정말 좋으며 짧은 다리를 흔들며 말했다. 항상 간식을 나눠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특히 자신이 혼날 때마다 지켜준다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누나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다. 어느 순간 시무룩한 표정이 된 에이든은 누나가 많이 아파서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잭 씨는 올리비아 씨가 걱정이 많고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다. 대화를 나눌수록 잭 씨는 엄청난 딸 바보 같았다.

“라비아는 엄마를 닮아서 크면 아주 예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쁘고요”

“맞아요. 잠깐 봤는데도 정말 예쁘던걸요”

“그럼요. 라비아는 저를 닮아 아주 예쁘답니다. 그래서 걱정이예요.”

올리비아 씨가 내려오면서 말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내려왔기에 엘렌과 딜런이 가져온 케이크를 같이 먹기로 했다. 엘렌과 딜런은 잭 부부와 대화하면서 마을에 어린아이가 라비아와 에이든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옆 마을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하지만 마을에 토레가 없어서 항상 혼자 노는 에이든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걱정했다.

그 말에 아이를 좋아하는 엘렌은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올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했다. 잭 씨와 올리비아 씨는 마치 세상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허락했다. 다만 라비아는 아파서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에이튼을 잘 부탁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엘렌과 딜런은 빠르게 씻고 거실에 모였다. 드디어 비디오를 볼 수 있었다. 딜런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TV에 연결했고 엘렌이 비디오를 바로 넣었다.

‘지직- 지- 지직-’

‘딜런- 여기 봐- 멋진 포즈~’

‘아맨다. 그만 대체 뭐 하는 거야.’

‘여보. 아이는 금방 자라. 어렸을 때를 많이 남겨 놓으면 딜런이 분명 좋아할 거야.’

‘그래도. 애한테 이런 것 좀 그만 입혀’

‘왜. 멋있기만 하잖아. 딜런은 분명 멋진 경찰이 될 거야’

‘엄마. 나 이거 입기 싫어’

‘어머. 엘렌 너였니? 하하하. 전혀 몰랐네’

‘당신. 대체 왜 그래’

‘전혀 몰랐어요. 여보. 그래도 잘 어울리죠?’

‘지- 지직- 지지직-’

“딜런, 이게 끝이야?”

“응. 이게 끝이야.”

“엄마 보고 싶다. 아무것도 몰랐을 이때가 그립네”

“그러게. 그러고 보면 엄마는 항상 우리를 구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신기했어. 쌍둥이라지만 어떻게 엄마는 우릴 못 알아볼까?”

“닮은 것도 닮은 거고.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옷만 사서 입혔잖아.”

두 사람은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엘렌. 기억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운동 엄청 시켰잖아.”

“맞아. 특히 내가 너보다 운동 잘했지. 기억나?”

“내가 나보다 운동을 잘한 게 아니야. 내가 운동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보인 거지. 아직까지 그때만 생각하면 걷기도 싫어진다니까.”

“그건 나도 그래. 내가 7학년 때, 하교하는 길에 승용차가 빠르게 내려오던걸 보지 못하면서 사고 난 순간 무슨 생각 했는지 알아?”

“뭐. 나 죽겠다. 그런 거 아니야?”

“전혀. 불쌍하게도 ‘이제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였어. 진짜 그래서 그랬는지 다리를 잃고도 전혀 슬프지 않더라.”

“결에서 지켜봐 온 동생으로서 누나는 정말 해맑게 살았지.”

“그게 내 장점이잖아”

오랜 대화를 나누다 1시가 되어서야 딜런은 잠을 자러 2층으로 올라갔다. 낮잠을 잔 탓인지 잠이오지 않는 엘렌은 비디오를 다시 틀어 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을까 점점 감

겨오는 눈에 소파에 쓰러져 잠을 자려던 순간 검은 화면에 갑자기 불이 켜졌다.

“뭐지? 지금까지 이런 장면은 없었는데. 어? 저건 나잖아”

‘엘렌. 너는 정말 불쌍한 아이야. 대체 왜 여자아이로 태어난 거야.’

엄마는 자고 있는 엘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원치 않게 너를 임신하고 나는 엄청 울었다. 그 사람의 아이를 내가 가졌다니. 처음에는 너를 죽이려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그 인간이 알아채고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하게 막았어.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들은 진실을 몰라. 내가 너무 연약했어. 그래서 그를 막지 못했어. 너를 낳으면 정말 벗어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너무 닮았잖아. 그래서 너를 포기하는 대신 나를 포기하기로 한 거야.’

화면은 다시 꺼지고 눈물을 흘리는 엘렌의 얼굴이 비쳤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얼굴에서 쓰라림이 느껴졌지만 엘렌은 신경 쓰지 않고 비디오를 되감고 재생을 시켰다. 그런데 비디오에는 어떤 영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지직-’거리는 노이즈만 보였다. 대체 무엇이였을까. 순간 자신이 잠든 걸까? 방금 전 영상은 진실의 바다에 휘몰아치는 나의 무의식이며 혹은 사실일지 모르는 기억에 막을 수 없는 눈은 점점 잠겨 갔다. 당장이라도 엄마를 찾아가 모든 걸 묻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다. 어째서인지 엄마는 아빠가 죽고 나서 바로 자신과 딜런을 볼 때마다 자해를 하고 미친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어하던 엘렌과 딜런은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전처럼 돌아올 때 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혼란스러운 엘렌의 시간과 달리 오늘은 시작되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불안의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찾아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주기도 한다. 딜런은 거실에서 잠든 엘렌을 방으로 옮겨서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엘렌이 잠들기 전 이야기한 비디오 영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몇 번이고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봤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상하게 기존의 영상도 점차 흐려지며 사라졌다.

‘똑- 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딜런 에이든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에이든이 아닌 한 노파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쿠키 주게”

“네?”

“쿠키 말이야. 어제 마트에서 쿠키 주는 거 다 봤어. 나도 줘. 나도 마을 사람인데 왜 난 안 주는 거야. 너도 날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오히려 이 마을이 미친 거지. 난 아주 멀쩡하다고!”

“알겠어요. 잠시만요.”

딜런은 거실에 가서 남은 쿠키를 모두 들고 돌아서는 순간 노파가 자신의 거실에서 비디오를 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딜런은 힘을 써서 노파를 막았지만 노파는 오히려 이 비디오는 자신의 것이라며 딜런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옷 속으로 넣었다. 차마 옷 속에서 비디오를 꺼내지 못할 것 같아 포기의 한숨을 쉬며 떨어진 쿠키를 줍고 일어서자 노파는 딜런의 손에서 쿠키도 빼앗아 밖으로 도망쳤다.

잠시 뒤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다만 전보다 작은 소리였다. 문을 열자 에이든이 서 있었다.

“아까 여기서 미친 노파가 뛰어나가는 거 봤어”

“에이든. 미친 노파라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좋은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아빠랑 엄마가 그렇게 말했던 말이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러”

“음... 그래도 그 말은 안 쓰는 게 좋겠어. 에이든”

“알았어. 형이 말하는 거니까 지키려고 해 볼게”

“그래. 아! 엘렌은 아직 자고 있어서 우리끼리 놀아야 하는데 뭐 하고 놀래?”

“오늘은 못 놀아 형아. 이따가 선생님 오시거든. 그런데 내가 숙제를 다 못했어. 그러니까 도와줘”

“숙제는 혼자 해야 하는 거지만. 이 똑똑한 형이 도와주지. 고마워해”

“형이 도와주는 만큼만 고마워할게”

10시가 넘어서 에이든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직 점심 식사를 하기에는 이르고 엘렌도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새로 만드느라 늦게 청소를 시작한 2층은 커튼을 다는 것으로 이사는 완전히 끝났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방해하는 커튼을 모두 걷어 버리고 창문을 열자 옆집 잭 씨네 창문이 보였다. 넘으려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딜런은 호기심에 방에 있던 장난감 고무 총을 꺼내 창문을 향해 쏘았다. 그런데 한 발 쏘자마자 바로 창문이 열렸다.

“라비아.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만나게 되니 부담스럽네요.”

“미안. 그냥 내 방 옆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서.”

“아- 네.”

“미안”

“사과는 됐어요. 저번에 주셨던 쿠키랑 케이크 맛있게 잘 먹었어요.”

“쿠키 내가 직접 구운 건데. 더 좋을까?”

“남은 거라면 받을 게요.”

쿠키를 기다리는 라비아의 눈에는 숨기지 못한 그녀의 나이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한 행복함이 보였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지만 라비아는 그녀의 나이대와 다르게 지나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이날을 계기로 몇 번이고 딜런과 라비아는 창문을 사이로 많은 대화를 했다. 그리고 안 사실은 그녀는 아프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방 밖으로 잘 못 나가는 것이고 대신에 책을 거의 하루 종일 읽다 보니 지나치게 어른스러워진 것이다. 물론 엘렌과 딜런이 이사오기 전까지 대화할 사람이라고는 부모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선생님도 에이든만 가르치고 있고 자신은 엄마가 직접 가르쳐 준다고 했다. 라비아와 에이든도 누나와 남동생 사이였기에 엘렌과도 대화가 잘 통했다. 가끔 딜런의 헌담도 했지만 라비아가 좋아해 딜런은 알고도 말리지 않다.

이사 온 지 벌써 7일이나 지났다. 마을에는 작은 서점이 있는데 딜런은 라비아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대신 구매하러 매일같이 서점에 들렀었다. 서점에는 미아라는 직원이 운영하고 있

었다. 작은 서점이지만 최근에 출간한 책들이 모두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은 미아 씨에게 딜런이 물어본 적이 있다.

“미아 씨. 여기는 제가 살던 도시보다 신간이 많고 3일 전에 출간한 책들도 있어서 놀랍네요. 서점에 책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게 서점 사장님이 매일 책들을 직접 가져다주세요. 사장님은 ‘책은 인생이고 인생은 역사야. 역사는 어제고 오늘이고 미래야’라고 매일 같이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냥 그분은 책이 인생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책을 사랑하려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이 서점은 이것 말고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매일 책들이 섞여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아 씨는 책을 출근과 동시에 서점의 모든 책들을 정리한다. 자신이 일한 첫날부터 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래도 화가 나거나 짜증 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단 월급을 아주 많이 받기도 했고 손님도 없다 보니 지루하지 않고 좋다고 했다. 딜런은 나중에 미아 씨가 일을 그만두면 자신이 서점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딜런은 집에서 엘렌을 기다리며 저녁을 만들었다. 최근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다. 루카스씨와 데지레 씨, 그리고 귀여운 소녀 리사 가족이다. 이틀 전 엘렌은 루카스 씨 댁에서 일하게 되었다. 딜런은 아직 마을에서 그들을 본 적 없지만 엘렌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들이 얼마나 좋은 가족인지 떠들었다. 엘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했고 딜런에게 해 주는 루카스 씨네 이야기는 항상 재밌었다. 한 번은 루카스 씨가 딸 리사를 위해 토스트를 만드는데 버터가 없어서 식용유로 만들었고 결국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토스트를 10개나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데지레 씨 눈치를 보며 정말 맛있다고 3개나 먹었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환상과 같은 일상이며 꿈에 그리던 가족의 모습일 수 있다. 딜런과 엘렌은 루카스 씨 가족을 통해 더이상 없을 이제는 사라진 ‘가족’을 떠올리게 했다.

다음날, 아침부터 라비아가 딜런의 창문을 두들겼다. 전에 딜런이 항상 고무 총을 쏠 수 없으니 서로 줄을 당겨 창문을 두들길 수 있도록 창문 위에 장치를 설치했었다. 그런데 항상 6시부터 창문을 두들기는 라비아를 보며 딜런은 후회했다.

“라비아, 오늘 아침은 또 무슨 일인데”

“딜런. 오늘은 이 책을 구해다 줘”

“이건 무슨 내용의 책이야?”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무의식의 세계와 합치된 세계였다는 거야. 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야. 저자가 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아를 형성했다는 경험을 서술한 책이야.”

“이런 걸 읽다니. 진짜 네 취향은 이해가 안 돼”

“딜런. 이런 걸 읽어야지. 너는 너무 어린애 같은 책만 읽어서 걱정이 돼. 어른이 되려면 이런 책도 읽어야 한다고.”

“알았어. 애 늙은이 라비아.”

“조용히 해. 너는 나잇값을 못하는 것 같아.”

딜런은 잠이 없는 라비아 때문에 항상 미아 씨와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다. 서점에 도착한 딜런은 오늘도 섞여진 책들 사이에서 라비아가 말한 책을 찾아서 구매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점

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딜런은 벌써 단골 취급을 받았다. 오늘도 바쁜 미아에게 말하고 혼자 계산하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다. 밖으로 나와보니 경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로버츠 씨댁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딜런 로버츠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서점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점에서요?”

“네. 제목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혹시 오늘 빨간 책을 구매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제가 구매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책을 돌려주실 순 없으신가요? 물론 배상은 해 드립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유를 여쭙봐도 될까요?”

“그 책은 판매하는 책이 아닌데 어째서인지 결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도난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책은 미아 씨가 항상 지녀온 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아 씨가 걱정이 많았겠네요. 잠시만요”

딜런은 2층으로 올라가 라비아에게 설명을 했다. 라비아는 잠시 기다라고 하고 3분 뒤에 책을 돌려주었다. 딜런은 배상을 받았고 라비아에게 그 책에 대해 물어보았다. 대체 미아 씨의 책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 라비아는 독서 마니아들만 아는 책이라며 미아 씨가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서점에 들어온 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라비아가 거짓말할 아이는 아니었기에 딜런은 믿고 넘어갔다. 시간이 지나 오후 4시가 넘어가지 엘렌에게 전화가 왔다. 루카스 씨가 저녁 초대를 했으니 잘 차려 입고 오라는 것이다. 딜런은 자신이 얼마나 옷을 잘 입는지 설명을 하자 엘렌은 “네가 옷을 잘 입는 거라면 이 세상에는 옷이 필요 없을 거야.”라고 답했다. 딜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곱 거리는 머리카락은 손질되지 않아 더욱 부풀어 보였고 짙은 초록색 반팔 티에 회색의 반바지를 입고 나뭇 포인트를 준 빨간색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잘 입었는데”

“딜런. 그건 아니야. 너는 만화책 보다 패션 잡지부터 봐야 해.”

어느새 창문을 열고 자신을 보고 있었던 라비아가 딜런의 창문 안으로 잡지를 던지고 창문을 닫았다. 딜런은 책을 펼쳐 보았고 패션 잡지임을 확인한 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뭇 괜찮다고 생각한 스타일을 골라 비슷하게 입었다.

“흠- 역시 패션은 얼굴이 다 한다니까.”

딜런은 무더기로 쌓인 옷들을 뒤로하고 루카스 씨 댁으로 향했다.

집으로 들어간 지 20분도 되지 않아 딜런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엘렌은 미친게 틀림 없어. 아니 내가 미친 건가?”

딜런은 루카스 씨 댁 문을 두드렸다. 곧바로 엘렌이 문을 열어 주었고 들어서자 엘렌은 허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딜런. 인사해 여기는 루카스 씨고 이쪽은 데지레 씨야.”

“응? 엘렌?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라니. 여기 루카스 씨랑 데지레 씨지. 너도 빨리 인사해. 지금 예의 없어 보여”

“아- 안녕하세요. 딜런입니다.”

“딜런, 루카스 씨가 손 내미셨잖아 악수해야지. 죄송해요. 애가 많이 긴장했나 봐요.”

딜런은 엘렌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엘렌, 대체 뭐 하는 거야? 혹시 서프라이즈야? 나 몰래 뭐라도 준비한 거야?”

“뭘 소리야.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인데. 너 설마 데지레 씨한테 반했냐?”

“그건 또 뭘 소리야. 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내가 아니라 네가 이상해. 잔말 말고 들어와”

딜런은 이사 온 후의 일로 매일을 우울하게 보내던 엘렌이 일을 구했다고 했을 때 매우 기뻐 해 주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영상을 보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살던 누나가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매우 기뻐졌다. 그래서 엘렌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나누는 대화는 전에 나누던 대화와 같아서 행복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엘렌은 미친 것이 틀림없다.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 엘렌은 음식을 가지고 와 온갖 음식으로 넓은 식탁을 가득 채웠다.

“딜런. 널 위해서 데지레 씨와 루카스 씨가 열심히 만드신 거야. 꼭 다 먹어야 해”

“아- 응”

“바보같이 있지 말고. 참, 딜런. 네 앞에 있는 주스는 리사 거니까 리사 앞으로 옮겨 줘.”

“리사?”

“응! 리사. 저기 아주 예쁜 아기천사 말이야”

딜런은 보이지도 않는 아기를 위해 주스가 담긴 컵을 들었다. 대충 아기 의자 앞에 두었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걸 보니 그곳에 앉아 있었나 보다. 잠시 후 엘렌이 의자에 앉고 잘 먹겠다는 소리와 함께 눈치를 보며 식기를 드는 순간이었다. 분명 사람은 없는데 식기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란 딜런은 빈 의자들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다.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 딜런은 엘렌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무도 없는 테이블에 실례한다는 말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방금 전보다 더 놀랐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딜런 씨가 많이 부담이 되었나 봐요”

“죄송해요. 괜히 제가 말을 꺼내서”

“아니에요, 엘렌. 우리가 대접하고 싶었던걸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리사도 딜런 씨가 마음에 들었는지 아까부터 딜런 씨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리사, 아빠보다 딜런 씨가 좋아?”

“까르르르~”

딜런은 용기를 내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창문을 가린 커튼으로 그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누군가 창가로 다가왔다. 딜런의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다. 누구일까. 사실은 자신이 미친 건가. 엘렌이 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심지어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식기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 창가로 다가온 형체는 커튼을 힘 있게 열었다. 그리고 딜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림자가 있었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엘렌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딜런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뒤에 눈을 뜬 딜런은 자신이 집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꿈이었다. 꿈이야...

“딜런.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무슨 소리야? 왜?”

“몸이 안 좋았으면 미리 말을 하지. 무리해서까지 올 필요는 없었어.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거고”

“응? 아. 어제? 아- 아하... 어제. 응, 몸이 많이 안 좋더라고. 그래도 초대해 주신 자리인데 가야지”

“루카스 씨와 데지레 씨가 많이 미안해하셨어.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가 초대하는 거야. 어때?”

“어? 좋.. 좋지! 정말 좋은 생각이야.”

꿈이 아니라는 사실이 딜런을 괴롭혔다. 정말 그들이 자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라면 그렇지 않지만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만 보았다. 어떻게 어제의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체 그들은 무엇이었을까. 엘렌에게는 보이지만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엘렌의 눈에만 보이는 귀신이라면? 그런데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다. 그동안 엘렌이 들려준 이야기들도 너무 현실적이었다.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았다면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주급을 받았다. 대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딜런은 일하러 가는 엘렌에게 인사를 하고 머리를 식힐 겸 밖으로 나갔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새 서점에 도착했다. 구매하고 싶은 책이 없기에 지나가려는 순간 비디오를 가지고 도망간 노파를 서점 안에서 발견했다. 노파는 서점의 모든 책들을 섞어 놓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이 이상한 일들의 원흉이었던 것이다. 딜런은 노파를 쫓아 내기 위해 서점의 문을 다급히 잡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문에 달린 종이 시끄럽게 울리자 노파는 딜런을 향해 웃으며 빨간색 책을 품에 넣고 가게 뒤로 폴짝폴짝 뛰어나갔다. 딜런도 노파를 따라 가게 뒤로 달려가니 노파가 벽을 밀고 나오고 있었다. 노파는 바로 눈앞에 서 있는 딜런을 보고서는 발을 짚고 도망쳤다. 발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분명히 멍이 들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딜런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노파를 잡기 위해 쫓아가는데 어째서인지 노파가 훨씬 빨랐다. 숨이 막히고 폐가 아프게 달렸는데도 노파와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몇 분을 더 달리니 멀리서 노파가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찻잔의 기분이 든 딜런은 점차 속도를 줄이며 노파에게 다가갔다. 노파는 숨을 가다듬는 딜런의 등을 두드리며 빨간 책을 손에 쥐여 주고서 다시 도망갔다.

“헉. 헉. 대체 저 노파는 정체가 뭐야?”

딜런은 빨간 책을 돌려주기 위해 몸을 돌리고 가슴을 폈다. 자신의 손에 들린 이 책은 라비아가 설명한 내용을 생각했을 때를 떠올리니 구하기만 힘들지 소장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책은 아니었다. 물론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거나 취향이라면 소장하고 싶겠지만 노파까지 이 책을 갖고 싶어 했던 건지 생각하며 발을 땀다.

“노파는 책을 훔치고 도망갔으면서 돌려준 걸까”

딜런은 원하지 않았지만 빨간 책과 계속해서 엮였다. 천천히 걸어가며 책을 펼치자 뜬금없이 종이봉투 하나가 책 사이에 끼어 있었다. 봉투를 들어 살펴보니 분명한 라비아의 글씨체로 ‘딜런은 읽어 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라비아와 대화할 때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틀 전에는 우리들은 닮았다

고, 무척이나 똑같다고 말했었다. 엄마가 우리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며 키우는 것도. 물론 ‘쌍둥이라면 다들 그렇게 입히지 않나?’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다음 말에서 소름이 끼쳤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였어. 그날은 비가 3일 동안이나 왔었어. 엄마가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고 빗물에 미끄러져 강으로 빠졌었어. 결국 폐에 물이 찔고 더러운 물이었으니까 폐가 많이 나빠진 거야. 그 뒤로는 어떤 운동을 금지 당했어. 물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전부였어. 가만히 있는 것도 처음이야 좋지 조금만 지나도 지루하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책 읽고… 정말 지겹다.”

“많이 힘들었겠네”

“나름 버틸만했어. 아! 이건 비밀인데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오히려 에이든을 사랑해. 나는 엄마가 술에 많이 취한 날 아빠랑 사고 쳐서 나를 임신한 거였데. 그때 엄마는 너무 어렸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결혼하라고 강요해서 결혼하고 나를 낳은 거라고 했어. 엄마의 유일한 실수가 나야. 10살 때 사고로 엄마는 엄청 기뻐할 거야. 나를 방 안에만 두면 되니까.”

“아닐 거야. 전에 봤을 때 올리비아 씨는 너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시는 게 보였는걸”

“잘못 봤어. 딜런, 부모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의식하지 않아. 우리는 아직 어리고 자신들은 부모니까 우리를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대하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 올리비아 씨가 들어와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막았다. 그 후로는 창문이 열리지 않았고 라비아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에이든이 말하기로는 할아버지 덕으로 갔다고 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USB가 있었다. 딜런은 먼저 USB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오늘 엘렌이 일을 빨리 마치는 날이어서 함께 봤다. USB 안에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었다.

[오웬 씨의 집에 있는 캠코더를 확인해 봐]

“오웬 씨? 오웬 씨는 대체 왜. 난 아직도 문 앞에서 본 오웬 씨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데”

“대체 너랑 라비아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리비아와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비밀로 하자고 했기에 엘렌에게 둘 사이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라비아도 없고 라비아가 한 이야기가 자신들과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뭔가 우리 어렸을 때랑 비슷한데 뭔가 다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라비아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웬 씨의 캠코더를 확인해 봐야겠어”

“대체 어떻게?”

“아직 비디오 플레이어 돌려주지 않았잖아. 내가 시간을 끌고 있으면 내가 몰래 가져올게”

“너무 무모한데”

“오후 5시에 오웬 씨가 마트로 갈 거야 그때 내가 먼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오웬 씨가 오면 누나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주면서 시간 끌어”

“하-. 알겠어. 조심해”

엘렌의 손목시계가 오후 5시를 가리켰다. 딜런의 말대로 오웬 씨는 집 밖으로 나갔다. 딜런은 오웬 씨 집 뒷문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집 안을 핸드폰 불에 의존해 살펴보다 전에 들어가 봤던 오웬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캠코더를 찾기 위해 침대 밑으로 몸을 넣는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오웬 씨가 돌아왔다.

“잠시만요. 오웬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하하하”

“...”

“그게 저번에 빌려주신 비디오 플레이어 돌려드리려고요.”

‘옥-’ 딜런은 마음속으로 엘렌을 응원하며 침대에 부딪힌 머리를 문질렀다. 분명 비디오플레이어를 이곳에서 꺼냈으니 캠코더도 이곳에 있을 것이다. 물론 딜런은 자신의 물건도 침대 밑에 보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다행히 딜런의 생각대로 캠코더를 발견했다. 캠코더를 꺼내 방에서 나오려는데 오웬의 아내인 소피아가 발작을 일으켰다. 저번에 나시아 씨에게 들은 바로는 소피아 씨는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남편이 데리고 온 거라고 했다. 오웬 씨는 라비아를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엘렌은 그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면서 말을 걸면서 딜런이 빠져나오는 소리를 감추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웬 씨 도와드릴까요?”

“당장 나가! 엘렌. 그리고 딜런 당신도!”

오웬 씨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던 딜런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대체 오웬 씨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 다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을 보내 주었다. 딜런과 엘렌은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둘은 혹시 마음이 변해 자신들을 잡으러 올 수 있는 오웬 씨를 상상하며 모든 집 문을 걸어 잠갔다. 커튼까지 치고 거실에서 캠코더를 확인하려는데 딜런의 손에 캠코더와 얼굴이 들려 있었다. 그것도 오웬 씨의 얼굴이었다. 둘은 기겁을 하며 딜런이 집어던진 가면을 바라보았다. 오웬 씨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였다. 지금까지 얼굴과 전혀 다른 행동이며 목소리가 이해됐다. 그런데 왜 가면을 쓰고서는 소피아 씨의 곁에 있는 것인가. 저번에 미아 씨가 흘리는 목소리로 오웬 씨는 과거에는 몸이 굉장히 왜소했는데 갑자기 변했다며, 자신보다 더 나이가 어려진 것 같아 보인다고 이야기 했었다. 오웬 씨의 정체가 궁금하면서 알고 싶지 않은 딜런이 먼저 움직였다. 언제 마음이 바뀌어 자신들을 찾아올지 모르는 오웬 씨가 두려워 빠르게 캠코더를 켜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신들의 엄마 ‘아맨다’의 모습이 보였다.

“왜. 우리 엄마가 여기에 있어? 딜런, 내가 보고 있는 게 엄마 맞지?”

“어. 엄마 맞아. 맞는데 왜 이걸 오웬 씨가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 먼저 라비아는 어떻게 알고 있던 거지?”

“아맨다씨 잘 지내셨죠. 저 기억하시죠? 상담가 펠리아예요..”

“기억해요. 펠리아. 오늘 하늘이 무척이나 예쁘죠?”

“맞아요.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했던 그림을 이어서 그려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오일 파스텔로 가져왔어요”

“마음에 드네요. 우리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남편분과 아맨다 씨 가족분들이 같이 식사한 것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랬군요. 맞아요. 같이 식사를 했죠. 그 뒤로 그는 매일 같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가 올 때

마다 부모님과 가족들 심지어 친척들과 친구들도 항상 그를 반겼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세상에서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것어요. 내 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그가 근사한 남자이고 나를 무척이나 아끼며 사랑한다는 것이라고요. 결국 저는 수면제를 한 주먹을 쥐고 선 삼켰어요.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었어요. 약 먹기 전에 수도 없이 뛰어내리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항상 그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도 그 다음 날도 항상 그는 집 밖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됐는데. 그는 잠든 나를 강간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나를 살렸어요. 결국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였어요.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죽여 버릴 거야! 죽일 거라고!!!”

“어서 아맨다 씨를 붙잡아. 안정제를 투입하세요! 어서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맨다는 기절했다. 꺼진 화면으로 엘렌과 딜런의 더러운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잔뜩 일그러진 얼굴들이 비쳤다. 엘렌은 자신이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치욕스러운 과거였음에 헛구역질을 했다. 그리고 울부짖었다. 엘렌은 몇 시간을 울다 기절하듯 쓰러졌고 딜런은 그녀를 편안하게 눕혀 주었다. 엄마의 상자를 태우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갔다. 계단은 딜런의 발을 시작으로 점차 잡아먹었다. 질퍽거리는 높을 벗어나기 위해 발을 뗐지만 그럴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가라앉았다. 딜런은 엘렌이 확실히 잠들었으리라 믿고 목 놓아 울부짖었다. 숨쉬기 힘들어도 울었다. 눈물이 마르고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잠시 기절해 있다 깨어난 딜런은 울리는 머리를 짚으며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멀어진 현실 감각을 떨치며 거실 난로에 불을 붙이고 편지들을 태웠다. 사진 첩을 태우기 위해 사진들을 꺼내는데 몇몇 사진에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가 엘렌)
(가혹한 엄마여서 미안해)
(너에게서 아빠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불안해. 제발 그를 닮지 마)
(운동 가기 싫다고 멀쩡한 다리에 붕대를 감는 엘렌)
(그가 점점 엘렌에게 부성이 아니라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보여서 걱정이 돼)
(오늘은 딜런의 첫 생일)
(딜런은 누구보다 강한 아이여야 해. 엄마처럼 나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돼)
(딜런. 너의 이름은 딜런이야. 엘렌이 아니고)

딜런은 앨범을 불길 속으로 던졌다. 이건 벗어날 수 없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어선 안 됐던 것이다. 보면 안 됐던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이어야 한다. 엘렌은 태어나서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가족이다. 나를 지켜준 것도 힘들 때마다 함께해 준 부모보다 더 소중한 나의 가족이다. 그런데 엘렌이 나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마을 사람들도 분명 우리를 따로 보았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쳐있었던 것이었다. 자신들이 미쳐 알지 못했던 것일 뿐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통제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는 정말 미친 거다. 아픈 거다. 아픈 거야.

“아닌가? 사실은 이 모든 게 내가 만들어낸 허상인 건가. 라비아가 말한 책이 마치 내 이야기 같네. “

딜런은 빠르게 2층에 자고 있는 엘렌을 보기 위해 달려갔다. 만약 누나가 없다면 자신이 허상

의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지금, 무엇이랄도 확신을 가질 게 필요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기억과 사실들이 마치 누군가 억지로 집어넣은 듯한 기억인 듯 거부감이 들었다. 문 앞에서 몇 분을 방황하다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엘렌은 잠자고 있었다. 딜런은 엄마가 아주 오래전부터 미쳤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앨범 이야기는 비밀로 해야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다시 마음에 안정을 찾은 딜런에게 평화를 방해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잭 씨네 집에 불이 나고 있었다. 이 마을의 유일한 단점은 소방서가 없다는 것이다. 딜런은 엘렌을 깨우고 집 밖으로 다급히 뛰어나갔다. 그리고 마을에 불을 지른 방화범을 찾았다. 바로 소피아 씨다. 그녀가 불을 지르고 있었다.

“모두 태워버려야 해. 모두 사라져야 해. 아무도 알 수 없게 숨겨야 해”

그녀는 무거운 휘발유 통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 통이 무거웠는지 휘청거린 그녀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가 묻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 기름에 불을 붙였다. 도대체 그녀를 말리지 않은 오웬 씨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엘렌과 딜런은 가장 먼저 오웬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안에서는 오웬 씨가 아니라 그 노파가 서 있었다. “크크크. 그는 여기 없어. 대체 어디 갔을까. 반짝반짝 붉은 불과 끈적이는 피가 섞여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거야”

딜런과 엘렌은 노파를 무시하고 집 밖으로 나오자 소피아 씨가 자신들의 집에 불을 붙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소피아 씨는 연기를 오래 마셨는지 휘청거리다 옷에 불이 붙고 말았다. “오악 살려줘-. 너무 뜨거워. 살려줘. 죽기 싫어” 그리고 그녀의 모습 뒤로 온몸에 불이 붙어 살덩이가 흘러 바닥에 떨어지는 올리비아 씨는 품에 에이든을 안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딜런을 보며 말했다. “사- 살려. 에-든” 딜런은 올리비아 품에 잠든 에이든을 꺼내 깨웠다. 다행히 에이든은 기침을 하며 깨어난 순간

‘탕-‘

총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자 오웬 씨가 총을 재 장전하며 딜런과 엘렌의 집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시끄러워. 머리 울리잖아”

‘탕- 탕-‘

오웬 씨는 올리비아 씨와 소피아 씨를 향해 총을 쏘다. 그리고 엘렌과 딜런을 향해 다가왔다. 사람은 극심한 공포를 마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데 그걸 왜 지금 느끼고 있다. 딜런은 굳은 몸을 겨우 움직여 엘렌과 에이든을 보호했다. 그러나 오웬 씨의 힘이 더 강했다. 순식간에 날아가 듯이 내팽개쳤다.

‘탕-‘

‘탕- 탕-‘

순식간에 엘렌이 총을 맞아 쓰러졌고 에이든은 머리에 구멍이 난 채 피를 흘렸다. 엘렌이 고

통보다 공포에 압도당해 형용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자 딜런은 눈을 질끈 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과거를 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진실을 연건 너야 딜런. 아니 엘렌이라고 해야 할까.”

“다- 당신. 왜-왜 그.. 그런 거야. 왜 주-죽인 거야”

“그게 궁금한 게 아닐 텐데 딜런. 말해봐 딜런. 저기 죽은 애들은 신경 쓰지 마. 아님 확실하게 죽여줄까?”

“그.. 그러지마.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 흐- 흑”

“하. 그냥 내가 말해줄게. 나는 네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의 유일한 아들이야. 평생을 괴로워하며 선택한 ‘나’야. 난 나를 죽였고 나로 살았어.”

“흐- 흐흑- 음-“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해할 거야, 딜런. 나도 그랬으니까”

오웬은 딜런에게 총을 던졌다.

“죽여. 개를 죽이든 나를 죽이든. 나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다 죽는 것도 좋겠는데. 사실 전에 죽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긴 했는데 그건 몰랐었으니까. 엘렌과 평생 함께하려는 건 미련한 짓인데 너는 왜 개를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진작에 죽였는데. 굳이 돌일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아니 네가 살아 있을 필요도 없었고”

딜런은 오웬의 시선이 불타는 마을을 향해 있을 때, 총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오웬 씨에게 총을 쏘는데 총이 비어있다. 오웬 씨는 보이지 않는 웃으며 딜런의 손에서 총을 가져갔다. 그리고 엘렌에게 총을 쏘다. 분명 비어 있는 총이었는데 눈앞에 엘렌이 죽자 딜런은 이성을 잃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 두려움과 좌절감이 머릿속을 장악했다. 그리고 오웬 씨에게 달려들자 그가 총으로 딜런의 어깨를 쏘다. 큰 고통이 딜런의 이성을 돌려놓았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지금부터 1분 기다려 줄게. 잘 도망쳐봐. 혹시 모르잖아. 내가 불쌍히 생각해서 살려 줄지”

오웬 씨의 말에 딜런은 빠르게 서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서점에는 미아 씨가 있었다.

“미아 씨 도와주세요. 오웬 씨가 저를 아니 엘렌을 죽였어요.”

“그러게 왜 봐서는 안 될 걸 봤어요. “

“네? 그게 무슨 소리에요?”

“그 빨간 책 펼쳤잖아요. 그 대가는 딜런, 당신이 치러야죠.”

미아는 그 상태로 서점 밖으로 나가 문을 잠갔다. 오웬 씨가 서서히 서점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서점 앞에 있는 미아를 죽였다. 그런데 미아 씨는 죽는 순간 활짝 웃었다. 마치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듯이. 오웬 씨가 문을 부수자 딜런은 전에 노파가 빠져나왔던 뚫린 벽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마트를 향해 달렸다. 마트의 문은 다행히 열려 있었고 노아 씨와 나시아 씨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의 표정과 자신의 어깨를 걱정해 주는 모습에 순간 미아 씨가 떠올랐다. 오싹해진 딜런은 문을 향해 돌아보니 오웬 씨가 마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닫힌 문을 발로 차며 열라고 소리쳤다. 분명 방금 딜런이 들어왔기에 문은 열려 있었고 발로 차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인가.

“딜런. 저기에 대체 뭐가 있나요?. 왜 무서워 하는 거예요?”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딜런”

노아 씨가 마트 문을 여는 순간 오웬이 들어왔다. 그리고 총을 쏘는 순간

탁- 탁-

총알이 없다. 딜런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물건을 던졌고 그 사이를 뚫고 오웬은 딜런을 칼로 찔렀다. 다행히 복부로 향한 칼을 딜런이 손으로 잡았다. 살을 가르고 들어오는 금속의 차가움에 흘러나오는 피가 차갑게 식었다.

“아니. 왜 손에서 피가. 딜런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딜런 정신차려”

노아 씨는 오웬 씨 쪽으로 걸아가는데 통과했다.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다. 너무 놀란 딜런과 그런 딜런을 보고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는 오웬 씨는 칼을 거두고 딜런에게 말을 했다.

“아마 라비아가 알려 줬을 거야. 그 책 기억하지?”

“책이라면?”

“그래. 그 빨간 책. 그거 누가 썼는지 알아? 바로 나야. 내가 썼어. 정말 환상적이지.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되뇌며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야. 어디서든 영향을 받으면 모두 끌어안고 소중한 듯이 담아서 평생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존재야. 그런데 나를 봐. 나는 아주 행복하다고. 모두 소멸되었다고. 내게는 사라진 과거야. 잊혀졌다고”

“그런데 나는 당신과는 달라. 물론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 말이 맞다면 나는 내 과거가 아니라 당신을 죽이는 게 맞겠네”

딜런은 노아 씨의 허리춤에 걸려 있던 권총을 뺏어 그의 머리를 노려 쏘았다. 그런데 분명 머리에 총을 맞은 오웬 씨는 피를 흘리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오웬은 눈을 돌려 딜런을 쳐다보았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을거야. 너도 나랑 똑같아. 너도 나랑 똑같은 삶을 살 거야”

갑자기 자신의 총을 빼앗아 쏜 딜런을 보며 노아 씨의 얼굴이 굳었다. 마치 딜런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딜런. 총알을 다 써도 된단다. 응원한다. 그런데 조심해서 써줘.”

딜런은 쓰러진 오웬 씨를 바라보다 노아 씨와 나시아 씨의 말을 듣고 긴장이 풀려 기절했다. 자신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웃음 소리가 매우 예뻐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바람을 타고 나무를 흔들었다. 녹색의 물결이 빛을 따라 하늘에서 출렁였다. 아이는 자신의 눈 앞에서 손을 꿈지락거리며 장난치며 놀았다. 누군가를 부르는 어떤 남자는 자신을 향해 다가왔다.

“데지레. 전에 뽑은 그 여자아이. 굉장히 일을 잘 하더라. 역시 당신의 안목을 믿길 잘했어. 나보다 더 믿는 다니까”

“당신보다 나를 더 믿으면 어떻게. 그치 아가야”

“까르르”

“우리 아기는 역시 당신을 닮아 예쁘다니까. 그치~. 너도 커서 엄마처럼 자라라. 아빠 닮지 말고”

“으이고, 루카스. 나보다는 당신을 닮아야지”

“아니야. 딸은 엄마를 닮아야 해. 응? 당신을 닮아야 예쁘지.”

“딸은 아빠를 닮아야 예쁘다는 말도 있어.”

“우리 딸. 다른 딸은 엄마 말을 따라야 하지만 이건 아빠 말을 따라야 해”

“너희 아빠는 이상한 데서 고집이 세”

“사랑해 우리 딸”

“일어나 봐. 정신이 들어?”

나시아 씨가 깨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딜런이 기절한 사이 노아 씨와 나시아 씨가 치료했는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옛적. 응급실 간호사 시절을 떠올려 보며 해 봤지. 어때? 괜찮지?”

“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으이구.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꼭 병원으로 가봐”

딜런은 웃으며 나시아 씨네 집에서 나왔다. 기억나지 않는 꿈은 딜런에게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남기고 잊혀졌다. 그저 자신의 미래가 이유 없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시아 씨네 집은 마트 바로 뒤에 있어서 문만 열면 바로 마트로 나올 수 있었다. 딜런은 오웬 씨가 쓰러져 있던 자리로 걸어갔다. 아마 노아 씨와 나시아 씨에게는 보이지 않았으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역시. 오웬 씨의 시체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딜런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바닥을 뒤집었다. 역시 자신이 칼을 붙잡은 손과 똑같은 위치에 길게 뺨은 상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확인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 될 것이다. 딜런은 손을 뺨어 가면을 벗겼다. 그리고 확신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딜런은 마트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강한 햇살이 딜런이 세상을 보는 것을 방해하듯 눈을 뜨지 못하게 막았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길 반복하다 헛된 일인 것 같아 손으로 햇살을 가렸다. 손 그림자로 보게 된 ‘에일든’은 기절하기 전, 아니 이사 온 날 보았던 곳이 아니었다. 복잡한 도시의 모습이었다. 딜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긴 꿈을 꾸 기분이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할 일들을 말이다. 한참을 서 있다 길 건너편에 익숙한 모습의 한 사람을 발견했다. 노파다. 분명 그 노파다. 그 노파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한순간에 사라졌다. 딜런은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가로질러 노파가 서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빨간 책이 있었다. 그리고 딜

런은 책을 들어 제목을 읽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 - 딜런엘렌 로버츠”

릴레이 소설

국어국문학전공
소설창작반

바스락-

낙엽이 밟히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을 실감한다. 나무들의 옷차림새가 화려해진걸 보니 세상도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나도 이제는 평온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때도 가을이었지.

평소처럼 가방에 노트북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다. 이틀전 까지만 해도 더워 죽을 것 같았는데 벌써 서늘한 바람이 분다. 나는 훌쩍이며 편의점에 들어가 따듯한 캔 커피와 김밥을 사고 근처 공원으로 갔다. 새벽 5시, 강을 따라 걷는 사람들과 출근하는 차량들이 몇몇 보인다. 새들이 울기 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리는 다른 의미로 평온함을 준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린다. 규칙적인 소리에 맞춰 평소 듣지 못할 물 흘러가는 소리. 눈을 감고 잠시 기다리면 내 안에서 꿈처럼 피어나는 상상의 생동감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한다. 노트북을 꺼내 어제 쓰던 글을 이어 썼다. 공모전이나 출간 목적은 아니다. 하얗게 텅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갈수록 내 안에서 울렁이는 공허감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쓴 글들은 서로 연관성도 없고 개연성도 없다. 높은 건물 사이로 해가 서서히 뜨고 출근하는 차들이 많아지면서 나의 세상은 고요해져 간다. 아까 이곳으로 오기 전 구매한 커피는 이미 식어버려 차가운 손을 녹이기에는 부족했다. 가방에 짐을 챙기고 전에 봐두었던 카페로 갔다.

며칠 전 항상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보고 싶었던 날이었다. 우연히 지나치게 되었는데 우드 인테리어에 은은한 주황 불빛, 귀여운 소품들과 폭신평 보이는 작은 소파들에 가을이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척이나 포근하고 다정해 보였다. 카페 문을 여니 갓 성인이 되었을 것 같은 어린 소녀의 풋풋함을 머금은 듯한 사람이 나왔다.

“신발 벗고 들어와 주세요”

가게 앞 메뉴판이 아니었으면 카페인지 몰랐을게 분명하다. 카운터로 가니 알바생으로 보이는 소녀는 아침에는 보기 힘든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샌드위치 주세요”

“드시고 가시나요?”

“네”

“편하신데 계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까 먹은 게 있긴 하지만 오늘따라 허기가 졌다. 물론 매장에 전시된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어 보이기도 했다. 카페에 손님은 나 혼자였기에 대충 가게를 둘러보고 쿠션이 잔뜩 쌓여 있는 곳에 앉았다. 은은한 커피 향이 몽롱한 정신을 깨웠다. 나는 적다 만 글을 쓰기 위해

노트북을 펼쳤다. 알바생이 가져다 놓은 커피를 마시면서 모니터를 바라보니 부담스러운 시선이 느껴졌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앗!! 제가 너무 쳐다봤죠. 하하핳”

가끔 글을 쓰다 보면 누군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말을 걸어오곤 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야 대화가 빨리 끝날지 생각하려는 찰나, 대화의 종지부를 보기 위한 나의 짧은 고민은 도화지에 흰 물감을 덧칠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게 되었다. 소녀는 마치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의 옆에 자리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아님에도 몇 글자 적어 놓은 나의 노트북이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도 되는 듯이 고요한 밤을 비추는 조명처럼 밝은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다.

“글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작가예요?”

오늘처럼 시간을 보내는 날이면 때때로 듣던 진부한 질문이었지만 옆자리를 차지하면서까지 말을 붙인다는 것은 흔한 수를 이용해 대화를 잘라 내도 쉽사리 방해할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소녀에게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는 편이 편하겠다. 평소보다 이르지만 오늘은 그만 두어야겠다고 생각하자 다시금 소녀의 목소리가 정적을 끊었다.

“아, 죄송해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글 쓰는 데 몰두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작가는 아니지만 가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더 적는 것은 이미 포기했으니 소녀가 무어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었다. 글을 마저 봐도 된다는 말을 끝으로 선반에 한가득 장식되어 있는 작은 소품들에 시선을 돌렸다. 대개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 것만 같은 인형이나 로봇 장난감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모두 새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검정색 고양이 인형은 한쪽 눈이 뜯어져 있었고, 붉은 털실로 된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은 인형의 머리에는 리본이 한 개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모아 장식을 한 것처럼 보였다. 가지런히 장식된 누군가의 옛 추억들을 살펴보다가 기억이 특, 끊긴 것처럼 한 곳이 비어 있는 선반을 보았다.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한 인형의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다.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보여 주셔서 감사해요. 제 친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어했어요. 저와 그 아이는 서로가 유일한 친구였어요. 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았고, 함께 잠에 들었어요. 잠들기 전 누구도 모르는 비밀 이야기를 나에게만 속삭여 주는 것이 제일 기뻐요.”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작성한 글도 아니니 너무 감사해 않아도 됩니다. 친구 분과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된 이야기를 물어도 괜찮을까요?”

순간 그녀의 눈빛에 기억 속에 묻어둔 복잡한 감정들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내 말을 후회하기 시작하려던 차에 그녀가 찰나의 고민을 떨쳐내고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게 가라앉은 어조로 답했다.

“좋아요, 다른 손님도 없는데 안 될 거 없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2017년 10월 4일에 그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저는 늘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가만히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생활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노트 하나가 든 작은 가방을 메고 하염없이 앉아서 바깥풍경을 바라보는게 다였죠.

그렇게 별 다르지 않은 날이었던가요. 저는 제 삶을 변화시켜줄 소중한 친구를 만났죠. 사람이 없을 것만 같던 그곳에 그 친구가 나타나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반가워! 여기 혼자 있는거야?’

“저에게 말을 걸어오던 그 친구의 눈동자는 제가 오면서 보았던 꽃보다 아름다운 색의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어요. 시간대도 해가 저물어가면서 노을빛에 머리도 황금빛으로 비춰지던 터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그 친구와 모든 삶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친구는 글을 쓰러 갈때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던 길이 있었는데 제 기억 속 그 다리 난간에는 항상 봄, 가을이 되면 꽃이 피었어요. 흙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푸른 장미부터 분홍 코스모스까지 각양각색의 꽃이 피었죠.

다리를 건넌 후 왼쪽 길로 다시 15분 정도 걷다 보면 언덕이 나타났어요. 그 언덕으로 가는 길은 한 번도 해맨 적이 없었죠. 그 언덕은 마치 그친구만만 아는 곳인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벤치 위에 앉아서 맞은편 산 아래로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집에서 가져온 노트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요“

말랑-

하필 이런 타이밍에 손님이 왔다.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러 갔다.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머릿속은 소녀가 이야기한 언덕을 그리고 있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언덕이라.... 마치 이 카페와 분위기가 비슷하네”

카페에 새로 들어온 소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는 꽃차를 주문하였고 창가에 앉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여러장의 사진들. 멀리서 있었기에 바로 알아볼 순 없었지만 인물사진이 아닌 자연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거나 꽃 사진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세상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사진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순 없었지만 흘러나오는 분위기 탓인지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다.

준비된 꽃차가 나왔을 때 소녀가 준비한 꽃차는 푸른색과 분홍색, 그리고 여러 가지 꽃의 색이 담긴 아주 예쁜 꽃차가 나왔다. 저런 색의 꽃차 종류도 있구나 멍하니 바라보다보니 어느새 소녀는 나와 일행인 것 마냥 내 자리에 다시 와서 앉아있었다. 뭐 나도 듣던 이야기는 마저 듣고 싶었으니 오히려 좋았다.

소녀는 추억에 깊게 잠겨서 자신이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지 이야기를 하며 많이 들떠 있었다. 그 모습을 뻔히 바라보다보니 내 마음속 꿈의 안개같이 가리워진 한사람이 떠오를 듯하다.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 본래 나의 글이 아닌 나를 위해 써준 내 여동생의 글을 완성 짓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토록 그리운 여동생의 얼굴을 나는 기억할 수 없다. 만약 내 여동생이 살아있었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소녀의 미소를 간직하지 않았을까

“그 친구도 글을 쓰는 친구였는데 한 사람을 위로하는 책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글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귀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구....”

슬픔. 이별. 말하지 않아도 이 다음 이야기는 두 감정을 담은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소녀의 표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소녀는 왜 이런 아픈 이야기를 나에게 말하려는 것일까? 비록 가을이라 선선하긴 했지만 밝은 해가 비치던 바깥의 날씨도 소녀의 표정을 따라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친구의 완성된 글을 꼭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글을 보여 달라고 해도 꼭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완성되면 보여준다고 그렇게 숨기더라고요. 대신 글의 대목은 미리 써놨는데 저에게 이걸 쪽지로 남겨주고 자신의 글이 완성되면 이 조각으로 자신의 글을 완성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마지막 조각이라... 소녀가 말한 그 친구는 글을 통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마치 퍼즐과 같이 마지막 조각을 자신의 친구에게 맡겨둔 것이다. 자신이 이 그림을 완성짓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있었던 걸까? 문득 나는 들어올 때 보았던 선반의 비어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들의 모습들, 그중에 빠져있는 비어있는 한 곳. 그곳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창가의 햇빛이 유독 그곳을 집중해서 비추는 것만 같았다. 마치 주인공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주인공이라....’

나는 본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 본 것은 인형이었다. 여동생이 늘 함께하고 가지고 다니던 단팥과 같은 인형. 내 동생은 그 인형을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며 많은 곳을 여행했고 그렇게 본 세상을 글로 기록해 나에게 들려주었다. 암흑 속에서 살아가며 모든 세상을 귀를 통해 느끼고 배워가고 있었다. 그런 내게 있어 글은 내 세상의 전부이자 나와 세상을 이어주던 다리였다. 여동생이 인형만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진 날 나는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 나를 세상과 이어주던 징검다리는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남기고 미완성으로 남아있었다. 왜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 마음속의 안개가 걷히고 있는 걸까. 괜한 기대 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용기를 내어보았다.

“혹시 그 마지막 조각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안에서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소녀에게는 묘하게 향수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길에서 마주쳤다면 그냥 지나갈 행인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이 카페를 선택하고 이 소녀의 과거를 들어주고 있는 게 마치 필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그녀가 말한 조각이 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해도 궁금했다. 가슴 속에서 솟구치던 무언가가 이성을 앞질러버렸다.

그녀는 우묵한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했다.

“지금은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이걸 보여드릴게요”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카운터 옆에 자주색 다이어리가 보였다. 소녀는 자주색 다이어리에서 책갈피를 해놓은 부분을 펼쳤다. 펼친 페이지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혀 있는 종이가 있었다. 연습장이나 일반 노트를 찢어 쓴 것처럼 보이는 그 종이에겐 빼뫼빼뫼한 글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이 내용은.....”

“아, 생각보다 좀 어두운 내용이지요? 제 친구랑 친구가 위로하고 싶었던 분이랑은 다른 사정이 좀 있어요. 이건 제 친구가 저에게만 알려주면 비밀 이야기에요. 혹여나 이친구의 비밀을 잊어버릴까 제가 적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고 있었죠”

소녀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 집 부모님께서 그 친구랑 그분을 많이 방임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부모가 주는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니 그분들은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셨대요.

그분께서는 고질적으로 앓아 보일 일 없었고, 육체의 병으로 인해 마음에도 병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도 친구가 자기 오빠를 챙길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면서 엄청 열심히 보살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했냐고, 뭐 먹었냐고, 자기랑 같이 놀러 가자고. 어떻게든 오빠가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서 세상 밖으로 오빠를 막 꺼내오려고 많이 노력하셨대요. 그 덕에 오빠분은 나중엔 따로 상담도 받고 많이 나아지셔서 잘 생활하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소녀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이 나와 내 동생의 과거와 맞아떨어진다.

나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피부, 살갗, 뼈, 세포들이 순식간에 혼돈 속으로 뒤엉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손 끝이 저릿해진다.

아니, 아니다. 그저 비슷한 과거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 혼한 사정은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이 넓은 세상에 또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닌가.

그렇지만 어쩐지 그만 들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침을 삼키면서 어찌면 아까 내 안에서 들끓던 뜨거운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것도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찰나, 나는 소녀의 말을 그만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그런데, 오빠 분께서는 많이 호전 되셨는데 그 친구는 그 반대였나 봐요.

아무래도 오빠를 보살피던 그때 그분도 많이 어렸고, 오빠를 보살피던 과정에서 자신을 미처 챙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에서는 엄청 밝고 긍정적이라고 노력했는데 저를 만났을 땐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했고 밝음을 유지하려는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만.

“보통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겠죠. 하루하루 밀려가는 병원비에, 오빠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가는, 차가운 현실 속에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저 평범한 소녀이었으니까요. 그 친구는 오빠를 돌보다가 자신마저 우울과 불안에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오빠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티다가 긍정적인 방법보단 부정적인 방법만 떠오르게 됐나봐요. 저에게 오빠를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

“운명은 이리도 가혹한지, 그 친구가 사라진 날 오빠는 친구의 바램대로 눈을 뜨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끝까지 오빠가 자신이 경험한 세상 중에서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살아가길 원했어요. 마치 자신 때문에 오빠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처럼.”

동생이 사라진 날. 나는 눈을 떴고. 고아였던 내 앞으로 동생의 사망소식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는 돈을 받았다. 동생의 사망보험금. 동생의 목숨값 이었기에 나는 동생이 그토록 원했던 글을 마무리 짓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 나 대신 죽어준 동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었다.

“자신의 진심을 오빠에게 전하지 못하여서 혹여나 자기가 오빠를 버려두고 도망간거라 생각할까 라며 친구는 두려워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차마 그 마음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심란한 마음에 이런 글까지 쓰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이 진심을 전해줘야 하니까. 이 글은 어찌면 세상에 아직 남아있을 제 친구의 넋두리일 수도 있겠죠“

소녀는 이미 내가 물어보지 않은 사실까지 붙여놓고 이제야 아차 싶다는 표정을 지었다.

“근데...괜찮으세요? 안색이 갑자기, ”

”혹시 그 친구 분이 위로하고 싶다면 그분, 그분 성함도 아세요?”

나는 터질 것 같이 똥똥대는 머리를 가까스로 외면하며 물었다.

“저는 오빠의 이름을 듣진 못했지만. 그 이름을 아는 분은 이미 이곳을 떠나셨네요”

아까 들어와 꽃차를 시켰던 손님.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집이든 언덕이든 뭐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작정 뛰었다.

모든 것을 무화시키고 싶었다. 내가 우울증에 걸리기 전으로, 동생이 나를 돌봐주기 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숨이 헐떡거리도록 뛰다보니 들판이 흰히 보이는 언덕에 올라와 있었다.

주변에 이런 들판이 있었나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욱 컸다.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다 보니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들고있는 가녀린 소녀였다.

나는 소녀에게 물었다.

“누구세요..?”

“아.. 저는....”

소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아 불편하시면 말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 소중한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보살펴 줘야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오빠 안녕?”

나는 소녀의 미소를 보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소녀도 아는 것이었을까 소녀는 담담히 나를 위로해주었다. 한참 울다가 정신이 들어 소녀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힘든 티도 못 내고 나를 위해 노력해줬는데 너 덕분에 세상을 보지 못해도 세상을 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너에게 아픔을 주어서 너무 미안해..”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녀의 품에서 말을 해갔다. 지금 까지도 내 생각을 하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너무 미안했다. 그런 상황에서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오빠가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지금껏 보지 못한 세상을 마음껏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 나의 몫까지 세상을 즐겁게 살아줘. 오빠를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오빠가 웃으면 나도 덩달아 웃음이 지어졌거든. 그러니깐 앞으로 많이 웃어줘 오빠.”

나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계속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나는 미안하단 말과 고맙다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중천에 있던 해는 뉘엿뉘엿 지고있었다. 석양을 바라보는 나와 동생이 동시에 말을 했다.

“석양이 참 예쁘다..”

우리는 이 말을 끝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뿐이었다. 반가움의 웃음인지, 아쉬움의 웃음인지, 씩씩함의 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웃음을 멈추며 서로를 안아주었다. 나는 마지막 말을 건넸다.

“너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아볼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너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날게. 너에게 가지고 있는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들 항상 간직하며 살게. 어두웠던 내 세상을 밝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는 또 눈물이 나오고 말았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이 눈물은 뭘까. 기쁨의 눈물인가, 아니면 아쉬움의 눈물인가. 소녀도 말을 하려고 입을 뗐지만 소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눈이 서서히 감기면서 나는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까 그 카페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카페가 있었던 위치로 돌아왔고, 내가보았던 선반의 빈자리에는 카페에서 만난 소녀를 꼭 닮은 인형이 놓여져 있었다. 내 여동생의 단짝이 되어주던 그 인형이.

2017년 10월 4일. 내 동생의 생일이었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조금씩 모아 내 여동생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함께 선물을 사러 갈 순 없었기에 나는 동생에게 돈을 주고 원하는 선물을 사오라고 했었다. 그렇게 동생에게는 내게 말 못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내 동생의 진심을 너는 다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내게 알려주기 위해서.....”

동생이 자리를 비울 때면 동생은 이 인형에 녹음을 하고 떠났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동생이 없다면 여동생의 자리를 대신해줄 인형이 있었다.

“오빠 언제 어디서든 항상 내가 곁에 있을게 많이 사랑해.”

인형은 내게 여동생의 진심을 전해주기 위해 이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글의 마지막 조각은, 나를 사랑한다는 진심을 담은 여동생의 이 한마디였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혹은 꿈인지, 아니면 현실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이다. 며칠이 지나 나는 오늘도 집을 나설 준비를 한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정한 것은 없지만 노트와 펜을 들고서 나의 이야기를 적으러 떠난다.

단 한사람을 위해.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죽기로 했다

사회복지학전공
20212316 김수림

#1. 생일

그날은 이상할 만큼 화창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솔솔 불었다. 7월의 첫 날,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나는 죽을 것이다.

아침부터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작은 화면에 한없이 몰입한다. 내 표정은 남들이 봤을 때 전혀 죽음을 예상할 수 없게 느낄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죽었을 때 최대한 놀랄 수 있는 소식을 전할 거다.

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 학교 가는 게 즐거운 거라며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오늘 죽을 것이다.

한 번도 생일이 즐겁고 좋은 적이 없었다. 내 생일은 동시에 엄마의 기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음력 생일을 챙겨보는 것도 생각했지만 내게는 축하 받을 사람조차 없는 날이었다. 오히려 더 챙기기 싫었다. 기대할수록 실망은 커지기 마련이라 아무런 희망조차 나에게는 과분한 욕심이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단지 외로움과 적막 뿐이다.

“엄마 보고 싶다...”

열 달 동안 품을 내어 나라는 사람을 품어주셨지만 안기지도 못한 채 서로가 요람에서 무덤으로 이별을 맞이했다. 지금 내 곁에는 아빠도 없는 와중에 친구 하나 없다. 내 삶은 하염없이 불쌍함 그 자체라 두 눈을 감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무더위 가득한 2007년 7월 1일,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 뒤로 산소호흡기를 물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뻘-소리와 함께 뒤늦게 들어온 남자는 동공이 흔들리고야 말았다.

아이의 생일이자 동시의 아내의 기일이 되어버린 남자는 차마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싶어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셋이서 함께하는 미래를 소원했지만 신은 가혹하게도 들어주지 않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남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여자의 손을 잡으며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다른 건 다 필요없으니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남자를 보며 진정하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지 오래라 머리와 마음 모두 현실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 수도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염없이 울다가 신생아실에 누워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복잡 미묘한 생각을 했다.

더 이상 볼 수 없는 여자의 곁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과 네가 없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

며 턱 끝까지 차오른 분노를 삼키고 묵음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스스로를 잡아먹고 힘들게 했다. 가장 사랑했던 이가 남겨 준 마지막 유품이 바로 아기일 텐데... 나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로 떨쳐버렸다.

“너도... 힘들겠구나”

아기의 웃는 모습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말았다. 잠시 안 좋은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닐 텐데, 괜스레 미안해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건 애도 마찬가지로 텐데 싫다.

“내가... 미안해”

신생아실 앞 유리창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기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방실방실 웃고 있었고, 남자는 잠시나마 눈을 감았다.

여자를 처음 만났던 그 날이 떠오른다. 2005년, 남자는 작은 장난감 사업을 운영했지만 쉽지 않았다. 엄마를 만나기 전 장난감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이었던 작은 소년은 친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보육원에서 생활했다.

소년은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이지만 꼭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것이 큰 소원이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소년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받고 사회에 나가야만 했다.

체감상 당장 큰 돈이 생겼지만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큰 공포가 남자를 집어삼켰다. 세상이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지고 당장이라도 누가 내 돈을 훔쳐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

손톱을 물어뜯는 사이, 한 인터뷰가 떠올랐다. 자립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장면인데 시설을 나선 상당수의 자립 준비 청년들은 기대감보다 후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컸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남자가 생활했던 아동복지시설은 각자의 성격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정작 세상을 나오니 주변에 물어볼 어른조차 없어 계속 방황하다 군 입대를 자원했다.

남자는 제대 후 대학 진학은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대형 마트에서 장난감 판매 업무를 주 6일동안 하게 됐다. 노력과 달리 과정은 쉽지 않았고, 견디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거센 장마가 지속된 날 불이 꺼진 건물 앞에서 눈물이 흐르는지 비가 오는건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저...괜찮으세요?”

불 꺼진 가게에서 여자가 나왔다. 머리망을 하고 따스한 온기를 줄 것 같은 첫인상, 알고 보니 남자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었다.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서럽게 느껴지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 일이라 생각해 발걸음을 땔 수 없었던 여자는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며 물을 건넸다.

처음이었다. 정말 단순한 호의일 수 있겠지만 남자에게는 아직 세상이 살 만하며 따듯하다고 느꼈다. 덕분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우연을 가장해 몰래 가게 마감시간 맞춰 앞에 오곤 했다. 비가 와도 폭염 경보가 떠도 조금 이나마 여자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계속 그녀 생각만 나자 결국 인정해버렸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하고 말이다. 흰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어느 때나 변함없이 가게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뭐 하고 계세요?”

남자는 화들짝 놀랐다. 눈은 동그래진 채 여자의 앞에서 넘어지기까지 했다. 괜찮냐며 손을 잡아 일으켜줬지만 따스한 온기에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다.

“아...저 운동! 산책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다 떠오른 답변이다. 여자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웃음을 터트렸다. '왜 웃으시지...?'하며 고민하던 찰나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다.

“괜찮으시면 저 요 앞 정거장까지 데려다 주실래요?”

남자는 놀란 채로 끄덕거리며 여자를 데려다줬다. 여자는 '오늘 첫 눈 내린거 아세요?'라며 남자의 눈을 응시했다. 추워서 그런지 남자의 볼과 귀는 잔뜩 빨개졌고 어서 추운데 들어가시라며 툭툭 거렸다.

“내일은 가게 놀러와요! 신상이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는 여자의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다 '나이스!'하고 외쳤다. 신나서 만세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버스 백미러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오늘은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자가 보이지 않자 서둘러 그 근처를 돌아다녔다.

“까악”

여자의 비명 소리가 크게 들렸다. 자신의 단골 손님이 그전부터 좋아했다며 구애를 했다.

잠시 가게 마감을 위해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아무도 없다는 걸 눈치 챈 취객. 술에 취해 진담이 나온 것 같다. 여자는 무서운 마음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단골 손님이자 취객은 여자에게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시도했다. 소리 내면 죽어버릴 거라며 입을 틀어막고 협박을 하자 여자의 얼굴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성인 체격의 남자를 상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쓸수록 상대가 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취객의 등 뒤로 발길질이 보였다.

“뭐...뭐하는 새끼야 너”

한 대 맞은 취객은 상황 파악을 할 겨를도 없이 다짜고짜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남자는 똑같이 맞서 싸웠다.

“이 여자 애인이다 왜!!!”

남자의 목소리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울렸다. 여자는 남자의 뒤에 숨어서 작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라며 움츠러들었다.

취객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꽃뱀 주제에 누굴 홀려?'라며 따졌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취객의 멱살만을 잡을 뿐이었다.

“다음부터 내 여자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죽여버리기전에.”

남자의 눈빛은 마치 야생에 사는 호랑이 같았다. 놀란 나머지 취객은 바지에 오줌을 싸고 도망갔다. 이제야 한 시름을 놓기 시작했다.

“저...고맙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여자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그 순간 남자는 품에 안아주며 괜찮다고 토닥여줬다.

사람 소리가 가득한 편의점에 들러 물을 건넸다. 여자는 점차 눈물을 그치며 이 은혜를 어

떨게 가야야 하나며 진심으로 고마운 모습을 보였다.

“제가 먼저 빚졌는데요 뭘”

그 날 이후 둘의 사랑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함께 극장에서 3D 안경을 쓰고 스크린 영화를 관람하며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데이트도 했다.

갔던 장소에서 코끼리가 탈출하는 일화도 있어 둘은 황당했지만 오히려 회상할수록 서로를 바라보며 한없이 웃었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둘은 더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6년, 지폐의 신권이 처음으로 등장하듯 남자는 한껏 갖춘 모습으로 프러포즈를 강행했다. 여자는 바로 승낙하며 둘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밝은 교실’이 열린 것을 알고 봉사활동까지 함께 다녔다.

남자의 인품과 성실함에 반한 여자는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여자의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했다. ‘내 딸 절대 못 줘!’라는 말만 나왔다.

여자도 이 남자가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남자 역시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 진심 어린 소원이었다. 아무리 말려도 둘의 사랑은 완강했다.

“제발 허락해주세요.”

남자는 매번 여자의 부모님 가게에 가 일손을 도우며 호감을 사려 했다. 그러나 여전히 냉대했다. 전혀 허락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단풍잎 나리는 가을인 9월, 모아 놓았던 돈으로 아주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했다. 둘은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10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된 거야?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셋이 함께 할 날을 기대하고 소원했지만 결국 소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이 내 부모님이다.

잠시 감았던 눈을 뜨며 현실을 직시했다. 내 눈앞에서 바라본 출근길과 등굣길이, 늘 사람들과 자동차 경적과 복잡복잡한 소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 있다면 분명 나 일 것이다.

나로 인해 모든 것을 망쳤으니 되돌리려 한다. 그러니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죽을 것이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모두가 너나 할 거 없이 가야 할 목적지가 명확해 보인다. 아무래도 진짜 ‘친한’ 사람이 있거나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적’이 없어서 그런가 싶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학교는 별 거 아니라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라 훈수를 둔다. 그 별거 아닌 곳이 나한테는 참 지옥같다.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반대로 내 행동은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간다.

나는 내가 참 밉고 또 싫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열 일곱 살이며 이름은 김지안이다. 검고 긴 물결머리에 키는 평균 정도 되는, 정상 체형에 쌍꺼풀 있는 외모로 화장기는 없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예쁘고 착해서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할 거 같아 보인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 왜곡된 판단이다.

“이번 역은 사랑여자고등학교, 사랑여자고등학교입니다.”

버스 전광판에 안내 문구가 뜨자 하차벨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뒷문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은 내 기분과 정말 반대일 만큼 화려했다.

학교를 등교하며 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짝꿍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며 걷는다. 여자 고등학교다 보니 정문 앞에서 데려다주는 남자 아이들도 많이 보인다.

그들을 쳐다보다 시선을 다시 땅바닥으로 향한 채 걸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대게 힘들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공격하므로 증거를 잡기도, 처벌하기도 매우 어렵다.

정말 학교 가기가 싫어서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들었다. 물론 처음부터 반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첫 인상이나 은연중에 만들어 내는 타깃에 내가 속하게 된 것 같다.

나는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 과호흡이 와서 잠시 보건실에 간 적이 있다. 그때 같은 반인 이은성과 최보리가 ‘나 사실 재 불편해’나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한 걸 들었다.

내가 없는 줄 알고 한 얘기겠지...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지만 힘들었다. 물론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다.

학교라는 곳은 한 교실 안에서 지정된 아이들과 1년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과 사람들은 내게 큰 영향을 준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하지 않는가, 그 속에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고 좋아서 혼자 다니게 되는 건 그야말로 지옥이다.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 볼까 고민했지만 어디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남겨졌다는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다. 게다가 이미 형성된 무리에 들어가는 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가 나에게 ‘어떡해...’라며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만 나를 끼우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해 보였다. 왕따는 인성 문제에 사회성의 결여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왜곡된 판단이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세상과도 같아 고립되는 것 만큼 큰 고통이 없다. 그럼에도 나아질거라며 내가 다수를 이해하라고 강요한다. 아무래도 다수와 소수를 비교했을 때 후자를 변화시키는 게 편할뿐더러 탓 하기도 쉬우니까.

공리주의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기차 선로에 한 명과 다섯 명이 따로 있다고 가정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고, 우연히 지나가던 나만이 선로를 바꿀 수 있을뿐더러 그들의 목숨까지 다 내게 달려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명을 희생해 다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한 명이 내 가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통하지 않았다.

사자성어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는데 딱 내 상황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은 알면서도 모른척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다.

자신이 당하면 울고불고 난리 칠 거 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면 모른 척 하며 합리화한다. 이번 타깃은 결국 나였고 씻을 수 없는 낙인만이 새겨질 뿐이었다.

나는 오늘도 하염없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간다. 여기는 구원의 여지조차 없다.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느낄 만큼 부조리하고 비도덕적인 다수가 만든 이 공간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애들아! 휴대폰 내자”

교실에 들어가니 반장이 교탁에 서 있다. 휴대폰 부장이자 우리 반 반장 김은영. 머리는 긴 생머리에 쌍꺼풀은 없지만 무척이나 큰 눈을 가졌다. 조금은 통통한 체형과 주근깨 가득한 피부는 그녀만의 매력 일 것이다.

외모와 성격만 보면 기대고 싶은 사람이지만 나와 관계에서는 큰 거리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은영이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주축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어 약도 과다 복용했지만 결국 토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 다짐했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와 만류로 또 무산됐다. 만약 내가 죽으면 은영이 나한테 미안해하면서 몸부림치기를 바랬다.

8시 30분이 되자 수업 시간의 10분 전을 알리는 종 소리가 들린다. 은영이 휴대폰 넣는 가방을 가져와 아이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지영아 은영아~ 휴대폰 내야지”

은영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린다. 나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이 휴대폰을 늦게 내면 늘 따듯하게 불러 준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정말 통명스럽고 화내는 말투와 다름없다. 자기 댄에는 그냥 싫으니까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이건 학교폭력이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절대 내 편이 없다. 차별하는 걸 알면서도 “김지안은 싫어할 만 해.”라며 몰아갔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예의를 지켜 싫어해야 한다. 어린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김지안 폰.”

나를 포함해 우리 반 모두가 알고 있다. 나 역시도 ‘아 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느낀다. 물론 나 역시 은영을 싫어한다. 아니 절대 좋아할 수가 없다.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건 어렵다. 그래도 난 예의를 지켜서 상처 안 주도록 좋게 말할 것이다.

은영이 밉고 싫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미웠던 것은 나 자신이다. 반격할 힘도 없었고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새겼다.

한 번은 경고를 보냈지만 여전히 은영은 자신의 무례함을 모른다. 한심하기도 하고 참 불쌍했지만 학교라는 세계에서 김은영은 가장 높은 급으로 치부돼 전혀 패널티가 없다.

혹시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게 있을까 싶어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피드백을 받아봤다. 돌아오는 대답은 ‘난 모르겠는데?’라며 엮이기 싫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지고 싶어서 노력한 행동이지만 결국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화풀이의 대상이 될뿐더러 그들은 내 행동 하나하나를 욕하기 위해 계속 레이더를 키고 있었다.

더욱 불편해질 뿐 더러 매일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의 연속이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피해의식’이라고 몰아간다.

정말 내가 죽어야만 해결 될 거라 생각해서 남몰래 자살 시도를 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처럼 나의 이야기를 알게 된 애들은 “재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살면서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피해의식이 아니라 상처받은 거야’ 라고 전할 수 없는 혼잣말을 했다. 은영이 주축이지만 다른 애들도 날 싫어하고 있다.

나한테 왜 쳐다보냐며 ‘찐따’, ‘왕따’ 등 누구나 들으면 기분이 나쁜 단어로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나랑 놀지 말라고 부추기고 따돌리거나 옆자리에 앉으면 더럽고 냄새난다고 했다. 언젠가는 나를 교탁 앞에 세워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라며 마녀사냥을 했고 급식을 못 먹게 조리돌림까지 하자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은 날들이었다.

혼자라도 급식을 먹어 볼까 고민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SNS에서 혼밥 난이도 라는 글이 엄청 유행했는데 학교 급식실 혼밥은 최고 난이도였다. 장담하건데 10대 중 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 건 모두가 어려워 할 것이다.

은연중에 나를 알고 있을 뿐 더러, 혼자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었다. 급식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웃었다. ‘재 혼자 먹나봐’하며 말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만 보낼 뿐이었다.

용기 내서 급식을 받고 다른 친구의 옆 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내 옆에 앉은 애는 자리를 옮기면서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밥맛 떨어져 진짜”

그들은 내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에서는 깔깔 웃으며 동조했다. 나는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꾸역꾸역 먹다가 결국 화장실에서 토하고 말았다.

‘우웁’

그 시간이 너무 트라우마가 돼 혼자서 급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무서웠다. 학교 밖에서 먹는 건 괜찮았지만, 학교 급식실은 나를 아는 공간이자 친구 관계를 시험하는 곳 같아 그때만 생각하면 눈이 찢끔 감긴다.

급식을 먹지 않고 매일 교실에서 혼자 있었다. 나를 슬쩍 보고 가는 애들도 있었다. 조금의 틈도 주지 않기 위해 나는 열심히 표정 관리를 하고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절대 똑같이 상처 주지 않을 것이다.

매번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참을 인을 세 번 이상 꺾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자 주먹을 질끔 감았다. 그들이 너무 밉고 알미워서 제발 온전히 다 돌려받기를 바랄 뿐이었다.

드라마에서 나오듯 똑같이 때리고 복수하면 나아질까 생각했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못 책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예의와 상관관계 한다. 나는 내 인격을 지키기 위해 계속 그럴 것이다.

물론 그들도 내 앞에서는 ‘김지안’이라며 대놓고 내 이름을 언급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욕을 하거나 뒤에서 욕하는 것은 자신도 잘못된 걸 알기 때문이니까.

“모두와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 늘 단골처럼 들은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에게는 그 당연한 것조차 힘들다.

내게 있어 상담실은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기에 다시금 숨을 참고 교실로 돌아가야 해서 내 처지를 늘 좋아할 수는 없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것도 세상의 진리지만 솔직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정서적 반응을 항상 응급으로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둔다. 그렇게 진화해서 연민과 동정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함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인 사고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 노력해도 여전히 나는 한 교실에서 왕따였다.

다른 반 친구를 사귀어 보는 제안도 받았지만 여자 고등학교다 보니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속담이 사실이었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이야기는 금방 퍼지게 되자 다가가기만 해도 피하고 탄정 부리는 모습을 보며 불청객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이 공간은 정내미가 사라진 허허벌판과 다름없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상황

이 바뀔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모두가 내 잘못이라 말하니 나 역시도 다 나의 문제 같아서 자책하고 남몰래 울기만 했었다.

“꼭 이런 상황이 다 저의 잘못일까요?”

나는 선생님께 여쭙보며 ‘아니야’ 라는 답을 듣고 싶었다. 내 편이라는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것도 있었고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내게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흘러가 뭐든 잘 될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반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따돌리고 혼자 있게 했다.

‘남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거 아냐?’ 라며 내 행동을 비판하지만 객관적인 횡수로 그동안 내가 먼저 다가간 수치가 더 많다.

하지만 다가갈수록 “애들이 다 너 싫어해” 라는 말로 나를 제외한 다수를 포괄하며 지속적으로 따돌렸다.

욕한 나머지 절대 지기 싫어서 ‘애들 말고 이름으로 말해 줄래?’ 라고 하면 아무도 답변하지 않는다. 친구를 파는 것 같으나 뭐라나...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잘못이 아니야.”

상담 선생님께서는 웃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정말 내가 잘못된 일이라면 단호하게 혼을 내셨을 테니까. 지금까지 상담 선생님께서 늘 나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시니 상담 선생님을 포함해 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는 아주 사소한 서운함도 전혀 없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사와 함께 수업이 끝났다는 종소리가 울렸다. 상담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더 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잠시나마 숨통을 틔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내 안심했다.

1학년 5반. 나는 배정된 반이 있고 담임 선생님도 계셨다. 갈 곳이 분명 있지만 가고 싶지 않아서 하염없이 복도를 떠돌았다.

그나마 좋았던 것은 담임 선생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셨다. 언제나 학생들을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시고, 내게도 애정을 많이 쏟아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반 아이들은 내키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왕따 문제를 중요시 여겨 ‘따돌리면 안돼’나 ‘왕따는 범죄야’ 라는 말로 가르친다. ‘멈춰!’라는 말도 한 동안 유행하면서 세뇌하듯이 가르쳤지만 여전히 해결되는 건 없었다. 분명 가해자든 방관자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알면서도 하는 모습. 그들의 태도는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는 단어로 모든 게 다 설명된다.

“들어가기 싫다...”

물론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며 친구는 있었다. 안수연, 우리 반의 상담부장이지만 굳이 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다.

나랑 다니면서 수연에게 ‘너는 저런 찌파랑 왜 다니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도 내 앞에서, 대놓고 면전에서 말이다.

수연은 그럴 때마다 “불쌍하니까...찌파라서 놀아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수연에게 ‘보살이다.’나 ‘네가 천사다’ 라는 말을 듣자 나는 크게 상처받았다.

‘아 애는 자기 이미지를 챙기려고 날 이용하는 구나’ 친구 관계에서 가장 큰 신념인 동등함이 없었다. 수연 스스로 나와의 보이지 않는 급을 그어놓고 언제든 날 쳐내고 다른 아이들에게 불을 각오가 돼 있었다.

물론 다른 애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온전한 사실이다. 그러나 개는 나를 챙기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갑 을 관계를 만든 것이 더 화가 났다.

나는 수연에게 불편하다고,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안수연은 교실에서 울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자기를 챙겼는데...”

다들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말한다. 수연과 졸업까지 같이 다니며 형식적으로 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미 재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지가 오래다.

학교에서 대인 관계는 동등함이 아니라 전쟁이다. 선택받아야 살고 그 손가락질에 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떻게든 혼자가 되기 싫어서 비참하더라도 곳곳이 참기도 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나만 놓으면 되는 관계라면 굳이 유지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상황이 너무 이상했다. 분명 상처를 받은 건 나인데 온 세상 위로와 공감은 다 수연한테 갔다. 그 이후 안수연의 태도는 무척 달라졌다. 내 욕을 가담하는 건 당연하고 “토할 것 같아” 나 “재 굳이 왜 챙겨 신경쓰지 마 찌파잖아” 라며 나를 모욕했다.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데 재미가 들린 김은영과 친해지면서 점차 둘의 우정은 더 단단해졌다.

그럴수록 난 견딜수도, 화낼수도 없었다. 모두가 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결하고 또 노력하기엔 힘들었다. 여전히 내 앞길이 막막했다.

가장 비참했던 건 그런 대우에 내가 점차 적응해가는 것이다. 싫으면 싫다고, 상처 받았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또 다시 나를 미워하고 욕 하는 건수가 될 까봐 참았던 것도 있다. 사실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그랬던 이유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화풀이 대상이자 감정 쓰레기통 그 자체이지 친구가 아니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 소리가 들리자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가져한 미소로 칠판에 학습목표를 적으며 수업의 시작을 알리셨다.

**“애들아~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라는 문학 작품을 배워볼거야
주인공 인희부터, 은영이가 읽어볼까?”**

선생님의 부름에 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과서를 낭독한다. 또렷한 목소리로 반의 소리를 채우니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몰입해 경청했다.

본문 내용은 오늘 생일인 주인공 인희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만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난폭한 행동에 상처를 받게 된 상황이다.

“맞아 잘 읽었어. 여기서 주인공인 인희에게 동그라미 표시 해 보자.”

선생님의 부름에 맞춰 아이들의 손이 분주해진다. 필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며 나도 주인공은 동그라미로, 반동 인물은 세모 표시를 통해 사건과 상황을 더욱 쉽게 알아보기 위해 쓰는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유익하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본문을 읽고 주인공의 상황에 감정 이입 해 버렸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인공 인희의 감정 변화야. 누가 먼저 발표해볼까?”

이번에는 직접 참여를 유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손을 들어볼까 싶어 내심 고민했다. 내 뒷자리에 앉아 있던 수연이 손을 들고 발표했다. 수연은 주인공 인희가 생일이라서 들뜨고 신났는데 반동 인물 때문에 이전에 행복했던 상황이 무의미해졌다는 말이 끝나자 아이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정말 잘했어.”

선생님의 칭찬은 수연을 들뜨게 했다. 내심 뿌듯한 수연은 반 분위기를 더 후끈하게 만들었다.

“ 쌤 오늘 은영이 생일이예요!”

‘어머 정말?’이라는 말과 함께 반 아이들은 ‘맞아 맞아’ 라며 순식간에 반의 분위기를 바꿨다. 모두가 은영을 집중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에 선생님께서도 축하를 건네셨다.

“감사합니다.”

은영이는 수줍은 듯이 대답했다. 자기 생일 챙겨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나도 생일이지만 쉽게 끼어들 수가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게 반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자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가 없었다. 그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

“오늘 지안이기도 생일이이지? 축하해~”

내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선생님께서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셨다. 그러나 반 애들은 약속했다는 듯 아무도 말을 이어나가지 않았다.

싸해지는 반 분위기에 선생님 역시 당황하시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이야기 드린 것도 아닌데 은영이를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며 또 다시 몰아갔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이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잘못이고 다수와 어울리지 못하는 데 분명한 문제가 있을 거라며 함부로 말한다.

그러나 다수가 주는 위압감은 생각 이상으로 큰 힘을 지녔다. 내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고 깊어질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종소리가 울리자 화장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지나가는 미움의 눈초리와 수군거리는 말들. 별 것 아니라 생각해도 정말 많이 힘들고 내게는 여전히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화장실에 들어가 불일을 보고 나오는 데 줄 선 이들이 보였다.

“아...”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저 말의 뜻을 안다. “다른 칸 다 팬찮은데 왜 하필 애가 쓰던 자리야?” 라는 뜻. 소수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수가 만들어 낸 보이지 않는 낙인은 이길 수도, 이겨내기도 힘들다.

정작 자신이 당하면 울고불고 난리 칠 거면서 자기 일이 아니라며 열심히 괴롭히는 모습에 부디 내게 상처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랐다.

“저기 잠깐만 지나가도 될까?”

나는 정중히 말을 건넸다. 아니 어쩌면 이 보다 더 예의 바르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애썼다. 다정다감한 어투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미움 받기 싫은 마음에 부단히 노력했다.

“아..그래”

길은 서서히 비켜주었지만 내 등 뒤로 말소리가 들렸다. 수군수군 대며 보내는 눈빛과 가시돋힌 말들.

‘나 또 뭘 잘못했나?’

분명 예의 지켜서 말을 건넸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일거일투족을 문제 삼는 이들에게 속상해서 당황스럽고 또 불쾌했다.

“아 어이없네”

“그니까 왜 말걸고 지x이야”

등 뒤에서 야유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들 그들의 눈빛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이라 생각을 못 하나 보다 싶어 그들이 불쌍했다. 하지만 그 타깃이 나라는 자각은 내가 나를 더 불쌍하게 만들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공격하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너희가 지안이한테 그랬니?” 라고 물어 본다면 분명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게 뻔하다. 영악해진 학교폭력은 처벌하기 어려움이 있어 증거를 잡기도 매우 힘들어졌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상대의 아픔을 보면 자기도 이입하는 측은지심이 있기 마련이다. 부디 양심이 있다면 뉘우쳤으면...한다.

피곤하고 지친 나머지 얼른 내 자리로 돌아가 쉬고 싶었다. 정말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기에는 건달 힘이 없다. 죽을 힘을 짜내 교실 문을 열었지만 근거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다 지 싫어하는 거 모르나 ”

“눈치 진짜 없네”

늘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야유 소리를 들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대체 이 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 지 알 수 없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어서 더 답답하고 힘들었다. 고통스러운 와중에 눈물을 겨우 참으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분명 가만히 있었는데 걸어오던 은영과 부딪치고 말았다. 노려보는 표정과 찌푸리는 말투, 아... 또 다시 미움받을 게 분명했다.

“아”

역시 백발백중,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은영은 야유와 함께 나를 쳐다보았다. 당장이라도 죽여버릴 듯한 눈빛이다.

나는 분명 가만히 서 있었고, 잘못된 건 김은영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다.

“야 진짜 사과 안 하나?”

분명 은영이 먼저 쳤음에도 뻔뻔하게 나를 몰아간다. 눈이 있다면 분명 같은 반 애들도 봤을 텐데 말이다. 억울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해 입 밖으로 용기를 꺼냈다.

“네가 먼저 쳤잖아”

나는 굴하지 않고 말했다. 아니 피할 이유도 없었다. 잘못은 재네들이 했고 나는 엄연한 피해자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죄책감조차 없다.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크게 부딪혀 보기로 했다.

“진짜 더러워”

은영이 나랑 부딪힌 팔을 잡으며 말했다. 도대체 또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몰아가고 괴롭히는 걸까 싶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기에도 부족할 상황에 전혀 그럴 기미도 없어 보였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더욱 강하게 말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 행동에 모두가 날 쳐다봤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실 나조차 기대를 안했지만 그럼에도 단 한명이라도 날 바라봐주고 편 들어주길 바랬다. 나도 엄연히 같은 반 친구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말이다.

신이 있다면 나를 좀 살려줬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내게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있었다면 재네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을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이 참 야속했다.

“너 자꾸 내 이름 언급 안하면서 욕하고 찌파, 왕따 이런 단어로 왜 나를 지칭하는 거야?”

나는 죽을 각오로 덤볐다. 계속 의식적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고,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재네들은 다수에 속해있다는 근거 없는 소속감에 나를 더 밀어붙이고 쏘아붙일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의 수는 상관없이 일단 나부터 지켜야 했다.

“너 내가 한 거 들었어? 아니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과를 구해야 하는거 아냐?”

나는 너무 황당했다. 더 나아가 어이가 없었다. 은영의 행동은 나와 싸우면 모두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에 기세등등해 보였다.

어쩌면 무슨 말을 해도 재네들은 안 들어줄 게 뻔했다. 나는 발언권도 없었고 답답하고 속상한 와중에도 내 잘못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너잖아 내가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니잖아”

나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다. 정확히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나섰다. 오늘 죽더라도 꼭 할 말은 하고 죽어야 후회가 없을 거라 다짐했다.

“와 김지안 개쨌네? 기어오르네”

난데없이 갑자기 수연이 등장했다. 수연은 은영의 편을 들며 말을 이어나갔다. 재는 분명 정치질을 한다. 이는 즉 학급이라는 사회의 작은 축소판에서 다수의 여론을 가져오기 위한 행동이다.

“야 애들이 다 너 싫어하는 거 몰라?”

아현이 은영의 편을 들며 거들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분위기를 선동한 것도, 주도자도 다 김은영이다.

은영은 반 아이들을 주축 삼아 발을 빼며 간접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현의 모습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나를 몰아가기 시작했다.

“애들 말고 이름으로 말해봐”

나는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정말 재네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조별과제도

할 수 없었다.

불특정 다수라는 여론을 만든 것도 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설령 잘못이 있다 해도 서로 좋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미 내게 상처 준 이들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용서는 더욱 안 하고 싶었다.

“그걸 왜 우리한테 그러는데”

역지사지로 나오는 태도에 더 앓을 정내미도 없었다.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나는 참지 않고 말했다. 분명 같은 학급인데다, 영어에서도 한국어에서도 우리라는 단어는 나를 포함한 단어지만 재네가 말하는 우리에는 내가 없었다.

완전히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데 소외되는 것이 더 비참하고 외로웠다.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이름 말하라고 하면 못 말하는 게 말이 돼?”

나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분명 상처받아서 이해받을 만한 상황이지만 어디에도 내 편은 없었다.

“내가 니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묵묵히 대화를 듣던 애들은 역시나...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수의 편을 들었다. 윤리에서 공리주의가 있듯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 소수를 버리고 다수를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나름의 생존 방법이겠지만, 겪는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하다.

“부디 내가 아팠던 만큼 너희들도 아팠으면 좋겠어”

내 말을 듣자 같은 반 애들은 나보고 피해의식이 심하다며 왜 태어났냐고 말한다. 저러니 부모님이 안 계신 거라고 가족까지 언급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 돌아가셨고, 아빠는 빗쟁이들에 떠밀려 연락조차 어려우니까.

오늘은 분명 내 생일인데, 엄마의 기일이다. 게다가 나를 싫어하는 주동자인 임영은의 생일이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이만하면 잘 해왔다고 생각한 나는 반 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을 뒤로 한 채 중압감에 주저앉아 버렸다.

성악설은 맞는 이론 같다. 누군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강도가 높을수록 반 아이들은 서로 잘했다고 말하며 추켜세우고 박수를 쳐 주며 조롱했다.

나는 더 이상 이 학교에 머물 이유가 없고 살고 싶지 않았다. 정말 화가 나서 눈물이 먼저 나올 정도로 내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웠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사실 너무나도 살고 싶어서 책가방과 휴대폰을 챙겨 학교를 뛰쳐나갔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 울면서 운동장을 가로 질렀다. 뛰쳐 나가는 내 모습을 교실 안에서 보며 분명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여겼을 거다.

또 다시 학교에서는 울면서 뛰쳐갔다면 또 다시 내 얘기를 할 거란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나는 정말 이만하면 잘 버텼다고 느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제발 부디 누가 나 좀 구해

줬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헉...헉...”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 위에 있었다. 수없이 지나가는 차들과 다리 위를 건너가는 사람들은 각자 갈 길이 바빠 보였다. 오늘따라 한강은 햇빛을 받았는지 윤슬이 비추고 있었다.

참 역설적이게도 나 홀로 이 곳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냥 정말 내 삶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죽고 싶어 제발.”

잠깐만 버티면 이제 곧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분명 내 일은 오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수심이 보이지 않는 한강물은 무척 무서웠고 너무 두려웠다.

죽음이라는 건 내 생각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었다. 나라는 형체가 더 이상 세상에 없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헉 할 정도로 막혔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또 다시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 것 보다 죽는 게 훨씬 나을 거라 믿어서 신발을 벗고, 다리 위 난간으로 올라갔다.

“이제 다 끝이야, 수고 많았어”

내게 혼잣말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아니 살고 싶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참 서러웠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서러웠다. 내가 태어난 날이라 그런가 싶다.

신이 있다면 내 생일인 7월 1일이 전 세계에서 나만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소원을 빌어 본다. 지금 이 시간 김은영은 반 아이들에게 큰 축하를 받고 있겠지, 솔직히 참 부럽다.

정말 나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 말이다. 정말 다음 생이 있다면 사랑 많이 받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고 싶었다.

덥고 습한 여름 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원을 외치며 그렇게 나는 뛰어내렸다.

#2. Wish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물 속에 뛰어들자 나도 모르게 눈을 부릅 떴다. 하염없이 팔다리를 휘젓고 겨우 수면 위에서 숨을 쉬었다.

살려달라는 말을 겨우 내쉬다가도 입안에 물이 들어왔다. 계속 손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사람의 인기척은 어디에도 없었다. 켱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점점 힘이 풀리고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살려주세요...”

정말 죽고 싶지 않은데 몸이 내 마음대로 따라 주지 않았다. 너무나도 살고 싶은 마음에 발버둥치고 후회가 밀려왔다. 몸이 점점 가라앉으며 타는 고통을 느낀다. 어느덧 엔돌핀이 느껴지는 건지 아프지 않았다.

“켱 켱”

눈을 떠 보니 나는 하염없이 물을 뿜고 있었다. 귀와 코에서 물이 잔뜩 나오자 계속해서 물을 토해냈다.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나를 세게 치고 있었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어보았다.

“누구세요...?”

한 여자 분이 나를 정말 죽을 각오로 등을 때렸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아픈 나머지 얼얼함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뭐 하는 거야!”

나를 구해주신 여자 분은 고양이를 연상할 만한 외모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물 속에 빠진 나를 도와주신 만큼 흰 색 와이셔츠와 입고 있던 앞치마는 잔뜩 물에 젖었다. 안경을 닦다가 내게 말을 건넸다.

“정말 죽고 싶어서 그래?”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리 위를 올려다보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지 다시금 보니 아찔하고 무서웠다. 여자 분은 나를 엄청나게 노려보았고, 저승사자가 있다면 이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위압감이 강했다.

“사...살려주세요...제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 지 모르겠지만 정말 살고 싶었다. 죽음이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거였다. 아찔하고 소름이 돋아 온 몸에 닭살이 돋았다.

사실 나도 감히 바라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잡아주길 바랬다. 정말 살고 싶은 간절함에 온 몸이 울다 끝내 눈물이 터져나왔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우는 모습에 여자 분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머쓱한 지 머리를 잠시 굽다 이내 말을 꺼냈다.

“괜찮아?”

여자 분은 가쁜 숨을 쉬며 기진맥진한 말투로 말을 건넸다. 왜인지 모르게 목소리가 편안하게 느껴져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진정됐다.

은인 혼자서 몇 십 킬로그램이 나가는 나를 혼자 들어올려 건져내기까지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에 살 좀 빼야겠다며 팬시리 머쓱해졌다.

그럼에도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해 또 다시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하염없이 아이처럼 울고 말았다.

“가...감사합니다... 정말 살고싶었어요.”

여자 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게 말했다.

“살아서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만 또 울었다. 나는 정말 살고 싶었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간곡히 청했다.

그녀는 내가 진정 될 때 까지 계속 기다려줬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굳이 참고 싶지 않았다. 곁에서 기다려주고 보내주는 눈빛과 행동이 큰 위안이 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꼬르륵 소리와 함께 배꼽시계가 울렸다. 민망하고 머쓱한 모습에 눈치 챘는지 나한테 말을 걸었다.

“케이크 좋아해?”

“네 좋아해요.”

그녀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귀를 쫑긋하며 경청했다.

“내가 잘 아는 케이크집이 있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데 같이 가자.”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잘못된 거라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의심 없이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었다. 나를 구해준 은인이자 또 무슨 애기를 나한테 하고 싶을까 싶어 더 같이 있기를 원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 노래가 나왔다. 굉장히 올드하고 취향이 독특하구나 싶어 입술을 짹 내밀었다. 벨트부터 매라는 소리에 서둘러 벨트를 매고 목적으로 향했다. 얼마나 달렸는지 난생 처음 와보는 길이 잔뜩 있었다. 자동차 시트를 보니 내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옷에는 때가 좀 묻었다. 축축해 진 자동차가 죄송해서 조심스레 눈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런 눈치도 주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나른하고 졸려서 차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갓 구운 빵 냄새와 케익이 구워진 오븐을 보는 작은 아이. 그 곳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가족이 나타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덧 밤이 되었다. 처음 보는 케이크 가게는 마치 ‘마녀의 집’을 연상했다. 신비하면서도 오묘했다. 자동차 창문 너머 푹푹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갔다.

“여기야, 얼른 들어가자”

그녀는 내가 일어날 때 까지 절대 깨우지 않았다. 참 감사했다. 외관을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카페였다. 인스타 감성과는 다르게 조금 운치 있고 옛 감성이 느껴졌다. 내부에는 흔들의자가 있고, 창가 사이사이에는 골동품들이 있었다. 케이스에는 각양각색의 케이크들이 있었다. 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침이 고였다.

“위시의 베이커리...?”

케이크 가게의 이름이었다. 상호명이 참 특이하다 느껴져 작명 이유와 계기에 대해 고민했다.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위시, 내 이름이야.”

그녀는 한 쪽 입꼬리를 올리며 내게 말했다. 위시의 표정은 마치 이런 이름 처음 보냐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가게의 주인이자 사장님이다. 나는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위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 위시 혹시 케이크 먹어도 괜찮을까요?”

위시는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내가 원한다면 정말 뭐든 다 내어줄 것 같았다. 모습은 위엄 있고 마른 편은 아니었지만 사람 한 명을 끌어올릴 만큼 거대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다.

“또 또 과하게 걱정하고 있네, 자 무슨 케이크 먹을래?”

위시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방금까지 멍 때리며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던 내가 가게를 둘러보며 각양각색의 케이크를 눈에 담기 시작했다.

홀에는 종류별로 레드벨벳과 치즈, 초콜릿, 딸기 생크림, 녹차, 쿠키앤 크림, 바닐라, 우주를 연상하는 판타지스러운 케이크도 있었다. 내가 왜 이런 곳을 몰랐지 싶을 정도로 케이크들은 참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흠...뭘 먹을지 너무 고민돼요.”

“천천히 골라도 돼.”

조급해하는 내 모습을 보며 위시는 여유를 가져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머뭇거리며 고민하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걸 쉬폰 케이크라 부드럽고 저건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일 거라고 자부했다.

나는 큰 고민 끝에 제일 무난한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골랐다. 한 입 먹자마자 눈이 동그래졌다. 생크림은 구름 위에 올라온 듯 몽글몽글한 기분을 느꼈고 딸기 한 조각은 행복을 주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위시의 케이크는 어디서도 느껴 본적 없는 맛이였다. 왜 이런 곳에 인파가 없는 걸까 싶어 의문도 들었지만 오늘만큼은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생일 축하해.”

위시는 맛은 편 자리에서 턱을 괴고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보였고 나는 고맙지만 초면인지라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기 마련이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히 물었다. 위시에게 생일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언질조차 준 적이 없다.

혹여나 위시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독심술사인가 싶어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내 의도를 눈치챘는지 위시는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니 얼굴에 다 적혀있는 걸”

웃음 소리를 뒤로 하고 위시는 내게 이런 애 처음 본다고 말했다. 자기는 그냥 평범하고 제

빵 하는 사람이라 말했다. 오히려 내 표정이 다 티가 나고 못 숨기는 단순하고 쉬운 사람이라 말했다.

짓궂게 놀리는 위시가 미워서 살짝 뽀루통한 표정을 보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위시는 귀엽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고 심각한 분위기를 인지했는지 걱정되는 표정으로 내게 물었다.

“생일인데... 무슨 일 있어?”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이인가봐요.”

나는 정말 더 잃을 게 없다는 각오로 위시에게 말을 건넸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삶의 이유와 가치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안면 없는 위시가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웠지만 내 진지한 모습을 보고 위시가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시는 이전과 달리 놀라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그래도 자기는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며 쿼퀴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마음을 먼저 보듬고 얘기해달라고 했다.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고 언제든 기다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며 배려해줬다. 그 모습에 나도 위시가 좋은 사람이라 느껴져 믿고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사실...”

또 다시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안 울려고 했는데 감정은 정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심적으로 속상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하염없이 울었다.

“흑...흑...”

계속해서 몇 년만에 소리 내 울었다. 그동안은 소리 내서 우는 법을 잊을 정도로 혼자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내 모습을 본 위시는 티슈를 건네며 눈가를 닦아주었다. 그리곤 내 등을 살며시 토닥여줬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진정 될 때 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위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숨기지 않고 빠짐없이 말했다. 원래 김은영이랑 친했지만 자신이 몇 번의 실수를 해 버렸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도 받았지만 다시 친해지기는 어려워졌다.

사이가 소원해지고 안 좋아진 걸 느낀 다른 애들이 김은영의 편을 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빠짐없이 토로했다.

“많이 힘들었겠네, 편하게 말 할 사람도 믿어 줄 이도 없었겠다.”

“네...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실에는 커튼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반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하하호호 모여 있고 나는 혼자 옆드려 이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고 있다.

“김지안”

채안나가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자다 일어난 척 연기를 했다. 그러나 채안나는 눈치 챘는지 나를 흘겨보며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너 과학 부장 아니야? 쌤이 저번에 프린트 물 걸어오라 그랬는데.”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실수해서 다른 애들한테 또 욕을 먹을 뻔 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안나가 도와준 거 같아 내심 고마웠다.

“고마워 안나야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했어.”

나는 서둘러 교무실로 향했다. 선생님께서는 책상에 앉아 계셨고 나한테 유인물을 주시며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를 공지하라며 지시하셨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교무실을 나왔다. 채안나랑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말을 걸어줬다는 생각에 내심 기뻐다. 얼른 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기뻐 서둘러 교실로 향했다.

내가 있는 교실은 5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엿들었다.

“무슨 일이지?”

몇 반인지 개의치 않고 아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데 모여 이야기를 하니 호기심에 궁금해졌다.

“아 진짜 웃기지 않냐?”

“그니까.”

“진짜 아 김지안 죽어버려.”

그 말을 듣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조언에도 역설적으로 그럴 수 없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습관이 되버린 터라 다수가 주는 위압감에서 비롯된 공포심과 경계심은 나를 삼키고 말았다.

“니들 뭐야?”

나는 계단에서 나타나 용기 내 직면했다.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얼굴이 빨개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딱 내 모습이었다. 그런 상황은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말이다. 이성적인 사고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감정이 앞서 있었다.

“까아아악 들었어 재”

은영이 소리를 지르며 말을 건넸다. 함께 가담하고 내 욕을 한 게 분명한데 자기가 아닌 척 하며 주도자는 김세희라며 고자질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김세희는 안경을 쓰고 긴 생 머리에 왜소한 키였다. 나랑 특정한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자신이 중심에 서고 싶었는 지 아이들을 모아 흔히 표현하는 ‘정치질’을 했다.

“김세희.”

“뭘.”

나를 이유없이 싫어하는 만큼 더 굴하지 않고 맞섰다. 차라리 내가 잘못된 게 명확하다면

사과를 하고 용서받으면 그만이니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또 다시 나를 경멸하는 눈빛과 피하는 태도는 여전했다. 도대체 나에 대해 만들어진 기준의 시발점은 도대체 어디일까 싶다.

세희는 나를 벌레 보듯이 비웃었다. 마치 내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며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급을 또 다시 나눴고 모두가 자기 편이라는 생각에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말했다.

“애들 다 너 싫어하는 거 몰라?”

나는 황당해서 맞받아쳤다.

“그 애들 이름이 뭔데?”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정말 도망가서는 안 될 상황에 도망가버리면 나는 정말 질 것 같았다. 부디 신이 있다면 제발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아 내가 왜 말해야 하는데?”

“봐, 내가 이름 말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 정말 ‘다들’ ‘애들’이 있긴 하니?”

김세희의 태도는 말 그대로 황당했다. 내가 이름을 물어보니 자기는 친구를 팔 수 없다며 싫다는 등으로 얘기한다. 저런 화법 상 결국 증거는 당연히 없기에 잘못하면 내가 불리해지기 마련이다.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그만 좀 해.”

나는 용기내서 꺼내 본 말이지만 때로는 용기와 노력은 스스로를 무참히 짓밟고 배신한다.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뭘 잘못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게 학교폭력이라고 인식도 못하는 건가 싫어서 많이 황당했다.

“넌 가해자야”

할 말을 마치고 반에 들어왔다.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복도 내에서 ‘세희야 괜찮아?’라는 소리를 듣자 진짜 환멸이 들었다.

어이없고 답답한 기분 사이 우리 반 부반장 이유빈이 내 앞에 나타났다.

“김지안.”

유빈은 늘 나를 맨날 피했다. 물론 나 역시도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어 왜 굳이 말을 건네는 걸까 싶어 의문이 들었다.

“너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유빈의 말을 듣고 교무실로 향했다. 교무실에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의 자리가 보인다. 선생님의 부름이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싫어서 내심 걱정도 됐다. 그래도 지레짐작 하기 보다는 상대의 말을 듣고 나서 행동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 서둘러 갔다.

“선생님 부르셨어요?”

수업 준비를 하시던 선생님은 지안을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어 그래 지안아 너 세희랑 복도에서 일 있었다며?”

놀란 마음에 지안은 두 눈을 동그랗게 떠 버렸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상황이 도저히 이

해하기 어려워 선생님께 다시 여쭙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침착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셨다. 차분하게 무슨 일인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까 선생님의 눈빛은 온전히 평정심을 지닌 것 같았다.

“아 애들이 얘기해주더라 세희가 복도에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며?”

문득 옆을 바라보니 세희가 있었다. 당황스럽고 한 공간에 있기도 불편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 전혀 내키지가 않았다.

“아 쌤 저 안그랬어요, 지안이랑 저랑 짝친이에요.”

순간 나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다. 절대 세희의 화법은 단순하지 않다.

저런 애들 애들의 특징은 이거다. “나 너 싫어하는 데 문제 더 안 크게 니 선에서 잘 해”라는 뜻이다.

세희와 그녀를 중심으로 나를 둘러싼 애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미워할 것이 뻔했다. 나는 누구 위해서, 어쩌면 살기 위한 선택으로 ‘거짓말’을 했다.

“지안아 솔직하게 말해줄래?”

선생님께서 내게 물어보셨다. 정말 솔직하게 괴롭힌다고,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고 말씀드리려 했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 선생님께 얘기했다는 것 자체로 또 다시 새로운 괴롭힘의 명분이 될 게 분명했다.

“그런 적 없어요 애들이 잘못 오해 했나봐요”

선생님께서 활짝 웃으며 대답하셨다. 그러나, 나는 더욱 웃을 수가 없었다.

“그래? 그런 일 없었다니 다행이구나.”

갑자기 세희의 팔을 잡고 나와 마주 보게 했다. 무슨 상황인지 싶을 만큼 당황스러웠다. 놀란 만큼 말 조차도 편하게 나올 수 없어서 계속 어버버 거렸다.

“지안이 세희 둘이 손 잡고 악수.”

선생님께서 나와 김세희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 이상한 대안을 언급하셨다. 나는 정말 당황했지만 세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선생님은 어른이다. 그러나 엄연히 남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감정인지 전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다.

최대한 학교 내에서 큰 일 안 만들고 애들끼리 싸움이라 생각하시는 모습에 조금은 정내미가 떨어졌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상황 판단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고, 최대한 엮이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치가 떨렸다.

“자 지안아”

세희가 손을 내밀었다.

“어 그래”

나는 정말 잡기 싫었지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잡아버렸다.

“자 둘다 화해 한 거지? 얼른 교실로 돌아가”

나는 교무실 문을 닫았고, 세희와 같이 각자의 교실로 돌아가는 참이었다. 정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을 만큼 피곤하고 지쳤다. 더는 세희를 포함해 이 학교 애들과 엮이기 싫었다.

“아 진짜 더러워.”

세희는 정말 찡그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부디 내가 상처받아서 별별 떨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다. 그럴수록 내가 ‘여기서 더 동요하면 안돼 김세희는 내가 상처받기를 원할거야’라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계속 혼잣말을 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았다.

수업 종이 쳐서 그런지 모든 교실이 다 수업시간이었다. 복도는 이전과 달리 조용했고, 교실 안에서 북적거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김세희는 자기네 반으로 돌아가고, 나 역시 우리 반으로 돌아갔다.

“하 진짜 피곤해...”

교실 문을 열으려는 순간 창가 너머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지안 진짜 나대지 않냐?”

“오지랴 개쩔어.”

“아 그니까 개 스트레스받음.”

나는 손이 별벌 떨리고 무서웠다. 정말 진심으로 피하고 싶었다. 용기 내서 문을 열었고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헐 재 왔다.”

“와 뭐냐 진심? 다 들은 거 아냐?”

나는 은영의 앞으로 걸어갔다. 모든 일의 배후는 다 김은영이고, 가해자와 주도자 역시 동일하다.

꼭 정말 싸움에서 이겨서 평범한 사랑고등학교 1학년 5반 6번 김지안이라는 내 진짜 모습을 돌려받고 싶었다.

“뭐냐?”

김은영이 어이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책상 위에는 마스크라와 방금 라이터로 지진 뷰러, 수많은 각양각색의 팔레트가 있었지만 마치 와서는 안 될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다.

“너 왜 자꾸 나한테 무례해? 차라리 내가 잘못된 거 있음 비판을 해.”

나는 정말 용기 내서 말을 꺼냈다. 그러나 내 용기와 달리 김은영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너? 잘못? 하하하.”

은영의 웃음쇠에 따라 모두가 웃었다. 작게만 느껴진 교실은 거대한 교도소가 됐고 김은영은 방장이나 다름 없었다.

한 명을 주축으로 위계질서를 만들어 ‘급’을 나눈 세상에서 약자로 낙인찍힌 나는 어디에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넌 있잖아.”

은영은 나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나도 모르게 겁을 먹자 꿀꺽하며 침을 삼켰고 너무 긴장되고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오줌을 쌀 것 같았다.

“니 존재 자체가 그냥 잘못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동안 열심히 견디자고,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던 일들이 모두 무의미해졌다. 끝내 나를 벼랑 끝에 내몰았다.

“아..”

나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고 다수의 중압감을 이겨내기 힘들었다. 왕따를 당할 때 내가 능동적으로 그들과 안 어울리는 거라는 생각도 결국엔 한계였다.

매번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버텼다고 생각했지만 무너져버렸고 끝내 주저앉아 버렸다.

“네가 그래서 아빠가 없는 거고, 엄마가 죽은 거야.”

김은영의 패드립에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몇 번이나 노려봤고 공격하고 싶었다. 니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들먹이냐고, 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 오기였는지 모르지만 7교시까지 모든 수업을 버텼다. 수업이 끝나고 청소 시간이 다가오자 감정에 동요되지 않게 서둘러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청소를 했다.

칠판 닦는 것이 담당이었는데 그새 선생님께서 학급 공용 걸레를 바꾸셨다.

내가 쓰던 게 어떤 것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다. 혹여나 실수 할까봐 반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묵묵부답으로 답했다.

“나 이거 써도 돼?”

흰색 걸레를 집어 말했다. 다들 끄덕이면서 쓰라고 하니 별 의문 없이 썼다. 칠판을 닦던 도중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지안!”

김은영의 목소리였다.

“왜 무슨 일인데?”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화가 날수록 말을 최대한 삼가려 노력했다.

“너 이거 뭐야? 왜 내 걸레 써?”

김은영이 나를 정말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임영은한테 차분히 물어봤다.

“왜 무슨 일인데?”

나는 분명 반 애들한테 물어봤고, 청소 도구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전혀 들은 게 없어 당황스러웠다. 이 상황은 모두가 느낄 만큼 임영은이 무례했다.

“야 이거 나랑 주희가 교탁 닦을 때 쓰는 건데? 니가 뭔데 이걸 쓰고 지랄이야.”

김은영이 화를 내자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럼에도 내 주장은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말을 꺼냈다.

“난 얘기를 들은 게 없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쓴건데?”

당당하게 내 주장을 말했다. 나는 전혀 기 죽을 이유도 없다. 분명히 반 아이들에게 정중히 물어봤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다.

“우리가 언제?”

이은성이 대답했다. 그녀의 짝 민아영도 같이 가담했다.

“난 들은 적이 없는데 너 혼자 또 말 지어낸 거 아니야?”

나는 당황스러워 서둘러 말을 꺼냈다. 분명히 난 허락을 받았고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써도 되냐고 물어봤다.

방금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 너무나도 놀랐다. 걸레에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해하기 어려워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다.

“야 김지안 니가 또 말 지어낸 거지?”

김은영이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한 손에 걸레를 들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정말 또 다시 따돌릴듯한 어조였다.

“아니야 은영아 나 정말 안 그랬어”

“거짓말하지마 걸레년아”

은영이는 나에게 걸레를 던졌다. 걸레를 맞으니 내 눈이 정말 뒤집혔다. 반 아이들도 당황스러운 눈치였고, 내 교복에는 서서히 걸레물이 스며들었다.

뚝 뚝 떨어지는 물과 함께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황스럽고 놀라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울면서 교실을 떠났다.

은영이가 너무 밉고 싫었다. 내가 설령 반박하고 도와달라 그러면 ‘너한테 쌓인 게 많았나 봐’나 ‘네가 미운가 봐’라며 은영의 행동을 정당화 하면서 나보고만 참으라고 말한다.

내가 변해야 한다면 그래야 은영이도 너한테 안 그럴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변해야 하는 건 김은영이다.

책가방도 두고 온 채로 그렇게 나는 집까지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고 오물을 두른 옷을 벗을 힘조차 없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고 내가 아팠던 만큼 은영이 아프길 바랬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틀렸다. 현재는 먹이 사슬이다. 치열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이자 악육강식 문화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나는 힘이 약한 피식자고 다른 아이들은 포식자다. 내가 뭐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제일 먼저 공격해 주도권을 잡고 싶어한다.

괴롭힘의 강세가 심할수록 그들은 박수를 받는다. 결국 나는 환경적 영향에 움츠러 들 수 밖에 없었고, 다수를 바꿀 수 없어 결국 자책하고 자해했다.

반 아이들한테 나는 친구가 아니라 서커스일 뿐이었다. 잘 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돼고, 사육하기 위해 그들끼리 경쟁하며 때릴수록 격한 반응과 호응을 얻는 그런 유흥거리 그 자체인 숲이었다.

“네 잘못 아니야.”

다시금 정신을 차려보니 위시의 가게였다. 나는 지금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자각하기 어

려웠다. 그런 기억이 쌓이고 모여 트라우마가 생겼다.

매번 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거라고, 제발 모든 게 다 꿈이기를 바랬다. 꿈이라면 언젠가 깨어나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현실이었고, 바뀔 가능성도 없었다. 기약 없는 기다림조차 이젠 지치고 끝내 체념하고 말았다.

“많이 외로웠겠다. 개네들이 진짜 나뻐네.”

“위시... 다 제 잘못 같았어요.”

그때와 같은 교복이지만 열심히 세탁했던 그날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옷깃을 만졌다. 정말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사람이 무서웠고 두려웠다.

“다수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꼭 소수의 잘못이 아니야.”

위시가 이야기했다.

“하지만... 왜 정말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진심으로 친구가 필요해요.”

위시의 눈빛과 행동에서 진심어린 위로가 보였다. 나는 내 상황이 한없이 속상했다. 정말 견디다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말하면 김은영을 ‘무시’하고 학교 다니라고 한다.

말이 무시이지 실상은 나보고 참으라는 이야기다. 여전히 이야기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체념한 지 오래였다. 더 이상 말해도 학교에서 내 편은 없을 게 분명하니까.

“위시... 나 정말 학교 가기 싫어요.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막막하고 무서웠다. 두 번 다시 그 공간으로 갈 용기도 이미 바닥이었다. 이만하면 나 잘 버틴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은 나보고 또 노력하라고 강요하자 이제는 못 하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진정을 못 했는지 책가방을 우르르 쏟았다. 교과서와 참고서를 던지고, 커터칼로 당장 내 손목을 그으려 했다.

“김지안! 정신차려.”

위시는 내 두 손목을 붙잡으며 말렸다. 그러나 나는 아까의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말 당장이라도 뭐든 시도하고 싶었다. 내 얘기를 들어 준 위시 덕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응어리가 해소돼도 결국 잠시일 뿐이다.

내가 다시 학교라는 지옥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운명은 여전히 변함없었고 받아들이기 싫었다.

“지안아 제발!!”

위시의 힘은 이길 수 없었다. 하긴 육교에서 나를 구해준 힘만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닐거다. 위시는 커터칼을 저 멀리 던져버렸고, 내 손목을 잡은 채로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나는 또 눈물이 났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 지 셀 수 없을 만큼 울었지만 또 울었다. 정말 울어도 계속 울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내 우는 것 뿐이었다. 많이 서러웠던 만큼 호흡도 안정되지 않고 계속 복식호흡만 해댔다.

“그냥 마음껏 울어, 실컷 울어 목이 떠나가라 울어!”

내 모습을 보며 위시가 올라고 말했다. 한참을 울다 보니 나는 또 진정이 됐다.

한없이 초라해지는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문득 위시는 이런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싶어 미안하면서도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었다.

좀 괜찮아 진 내 모습을 보며 위시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줄 게 있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말 하고 케이크 쇼케이스에서 맨 구석에 있던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위시는 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걸 너 주려고 만든 생일 케이크니까 소원이 있다면 24시간동안 이뤄 질 거라며 확신에 찬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나는 위시를 보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봐도 소원을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좋은 일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현저히 적었다. 매 순간 떠올리기 싫은 기억만 가득했다. 그래도 버티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6월 3주차에 다녀온 수학여행때 제주도를 갔지만 나만 혼자라 부끄럽고 주눅들었다. 같이 다닐 사람도 없었고, 불편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나와 함께 방을 쓰려는 사람도 없었다.

그 일 부터 지속적인 야유가 늘어나자 하루에 샤워를 두 번씩 했고 ‘혹시 나 무슨 냄새나?’라며 물어 본 적도 있었지만 자기들은 모른다며 아무도 내 물음에 대꾸하지 않았다.

버스를 총 7대를 대여해 한 대에 한 반이 탑승했다. 반 아이들의 눈초리는 정말 무서웠고 공포스러웠다. 결국 나는 맨 앞자리이자 기사님의 뒷자리에 혼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마침 그때 내성발톱이 생겨 웬만한 활동을 참여 할 수 없었다. 솔직히 없는 돈만 날린 거 같아서 속상했다.

정말 만약에라도 내가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오히려 나에 대한 욕과 수많은 명분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사실 아픈 건 핑계고 같이 다닐 사람도 없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

버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재 왜 오냐’며 ‘토할 거 같아’ ‘선생님이 굳이 재를 왜 챙기는 거야?’ 라는 수많은 야유가 들렸다. 그럴 때 마다 아이들에게 들은 말은 ‘네가 미움받고 있어서 그래’라며 자신들의 따돌림을 합리화했다.

그토록 행복을 바랬던 수학여행이지만 내 소원을 이뤄주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받았다.

너무 강렬하고 아팠던 기억이라 그런지 제주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기고 말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위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신기하게도 나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손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지만 어딘가 떨고 있었다.

마음만으로는 자신이 대신 아파해주고 싶을 만큼이었다.

무슨 연유로 위시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걸까 싶어서 조금은 의문투성이였다. 우리는 분명 초면이다.

물론 위시가 내게 잘해준 것은 고맙지만 어느 정도 경계심은 가졌던 것 같다. 그런 내 표정을 눈치챈는지 위시가 입술을 다문채로 내게 말했다.

“지안아, 당장은 믿기지 않겠지만 네 삶의 주인공은 너야”

위시가 건네 준 케이크는 유명한 브랜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의 케이크였다.

“이 케이크에 촛불을 붙면 소원 하나는 꼭 이뤄질거야.”

위시의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다. 나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다.

시계를 보니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오후 11시 정각이었다. 여기서 집까지 얼마나 걸릴까, 막차는 이미 끊겼을 텐데...하며 계산하던 도중 위시가 말을 이었다.

“단, 제한이 있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어려워.”

사람의 마음은 신조차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어렵다는 말이 있다. 유명한 동화인 알x딘에서 요술램프 요정이 말한 얘기였다.

위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매우 조급해 보였다. 단도직입적인 모습에 나 역시 경각심을 느꼈다.

“내 말 명심해 줘.”

위시의 엄지와 중지가 맞닿아 낸 소리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분명 아까 전만 해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빈 집과 널부러진 이불들...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설거지 안한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들까지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방금 내가 순간이동을 한 건가 싶어 방금 겪었던 모든 일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딱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내 품에는 위시가 준 케이크가 소중히 안겨 있었다. 불현 듯 위시의 말이 떠올라 시계를 쳐다보니 오후 11시 55분이었다.

위시의 말대로 생일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초를 준비했다. 감히 바라지 않았지만 속눈썹치고 믿어보고 싶었다. 케이크를 꺼내 초를 열 일곱 개 꽂은 후 축하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아무에게도 축하받을 수 없는 생일은 말 그대로 암울했다. 물론 아빠는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주지만 곁에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참 속상했다. 나는 어쩌면 위로와 조언도 고맙지만 사랑이 필요했던 것 같다.

“7월 1일이... 전 세계에서 저만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 느끼고 싶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싶고, 남들 다 하는 생일 파티도 해 보고 싶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촛불을 붙였다.

‘후’ 소리와 함께 촛불의 불이 꺼지자 촛농이 흘렀다. 마치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같아 슬펐다. 시계를 보니 7월 2일 자정이었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에 결국 내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소원을 빌었구나 싶어 한탄스러웠다.

“부디... 그럼에도 제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내 눈을 감았다 떠 보았다. 시계를 보니 12시 자정이었고 하루 아침에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

마법 같은 일이 기적처럼 생기길 바랬지만 오히려 서러운 마음만 가득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이내 잠을 청했다.

#7월 32일

“지안아 일어나.”

알람을 분명 맞췄을 텐데 누군가 나를 깨우고 보냈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이다.

“꿈이 참 희한하네...”

다시금 잠을 청했다.

“일어나야지.”

계속되는 다그침에 잠이 덜 깬 채로 눈을 비비며 힘겹게 일어났다. 인생은 자기 싫은 밤과 더 자고 싶은 아침의 연속이라는데... 당장이라도 누우면 잘 수 있을 거 같았다.

“아빠?”

내 눈은 엄청 커졌고 입은 다물 수 없을 만큼 놀랐다. 그토록 보고 싶고 곁에 있었으면 했던 아빠가 내 눈앞에 있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스스로 뺨도 때렸다.

“애는 생일이라고 늦잠 자려 한거야?”

아빠는 내 손을 잡아 서둘러 식탁으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미역국과 깨 뿌려진 제육볶음이 있었다.

“우리 공주님~ 얼른 생일상 먹자”

아빠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은 내게 큰 감동을 불러왔다.

“잘 먹겠습니다!”

아빠의 정성이 담긴 생일상을 아주 배부르게 먹었다. 맛은편에 앉아있는 아빠는 맛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보고 싶고 그토록 바라왔던 사람 중 한명이 내 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아빠가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냈다. 딸기 생크림 케이크, 어디선가 분명 봤다는 확신이 들 만큼 낯익은 케이크였다

“어 이 케이크..”

틀림없이 위시가 준 케이크였지만 상자 속에서 나온 케이크는 촛농 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 문득 휴대폰에서 ‘위시의 베이커리’를 검색하자 아무 것도 뜨지 않았다. 블로그 리뷰도 하나 없었다.

‘대체 뭐지?’하며 의아해 하던 도중 아빠가 ‘무슨 생각해?’라며 내게 물어보았다. 아빠는 조심스레 초를 쫓은 후 동봉된 성냥으로 불을 피웠다. 하나 하나 불길이 붙는 초를 보며 내 마음이 하나씩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의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엄마 보고 싶다’는 소원을 묵음으로 말한 채 후 소리와 함께 촛불을 꺾다. 아빠가 소원은 빌었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다고 보류할거라 거짓말했다.

촛농이 흘러 케이크를 망치기 전에 서둘러 초를 빼 버렸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킨 적도 없는 텔레비전이 자동으로 켜지며 뉴스가 흘러나왔다.

“올해 7월 32일은 급격한 폭염에 주의차.”

뉴스 속보를 듣고 깜짝 놀랐다. 7월 32일은 분명 없는 날인데 보도되는 것이 이상했다. 혹시 시라도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싶어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왜 그렇게 놀라?”

아빠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는 표정이 눈에 다 들어왔다.

“말도 안 돼”

1년은 365일이고 4년 단위로 29일이 생겼다. 만약 7월 32일이 존재한다면 1년은 366일이라 2월 29일은 생길 일이 없다. 도저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생일자인 김지안 양”

놀란 나머지 ‘푸흠’ 소리와 함께 마시던 물을 뱉어 버렸다. 살다 살다 뉴스에서 갑자기 내 얘기가 나오자 정말 당황스럽고 부담됐다. 혹시 나를 상대로 전국민이 단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학교에 기자님이 오셔서 인터뷰 해 볼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셨다. 그때는 잠깐이나마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은 욕심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소식이 보도되니 놀라웠다. 그 와중에 아빠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전 세계에서 너만 생일인 기분이 어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스스로 뺨을 때렸는데 정말 아팠다. 이건 절대 꿈이 아니었다. 믿기지 않았고 꿈과 현실이 분간되지 않았다. 불현듯 생일이 같은 김은영의 근황이 궁금해 SNS 에 접속했다.

은영의 페이스북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축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고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다. 호기심에 정보를 눌러보자 ‘7월 32일 생일’이라고 나왔다.

나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서둘러 달력을 보았다.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이고 32일 월요일이 기재 된 달력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 사이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지안 씨! 저는 보이보이즈 시현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 단 한명뿐인 생일 축하

드려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공식 마크가 있는 인별그램 계정으로 연락이 오자 정말 믿기지 않아 휴대폰을 떨어트렸다.

시현은 내 암울한 학창 시절에 유일한 힘이 되어 준 존재다. 그는 나보다 3살 많고 노래를 정말 잘한다.

솔로 활동으로 발매한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넌 혼자가 아니야”라는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았다.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왕따를 당한 아픈 과거를 회상하며 직접 쓴 자작곡이라 밝혔다. 음악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결식아동에게 기부한 바 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팬들도 많이 생겨 사인회와 팬 미팅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내 최애가 나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줬어...나는 성덕이야!”

나는 너무 신이 나서 아파트가 들썩일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처음으로 ‘태어나길 잘했다.’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소리에 놀란 아빠가 양치를 하다 달려왔다. ‘딸 무슨 일이야?’라며 묻는 아빠는 내 걱정이 돼서 그랬나 보다. 입가에는 아직 닦지 못한 치약 자국이 팬시리 웃겨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직접 연락해서 생일 축하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빠에게 덕후와 성덕의 뜻을 설명했다. 아빠는 내 모습을 보며 흐뭇하면서도 마냥 어딘가 씩씩해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아빠...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없어.”

말과 달리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아빠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면서도 걱정이 됐다. 문득 시계를 보니 학교 갈 시간이 됐다. 오늘도 또 괴롭힘 당하는 건 아닐까 싶어 겁이 났다.

“우리 딸 걱정 말고 학교 잘 다녀와.”

아빠의 진심어린 말에 든든했지만 솔직히 말해 갑자기 아빠가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하나 걱정됐다.

그럼에도 미리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며 나를 다독였고 집에 돌아오면 반겨 줄 사람이 있다는 게 내심 좋았다. 더 욕심 부려서 엄마도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아빠는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해서 나를 가졌다. 태교하는 동안 셋이서 함께 할 미래가 크나큰 소원이었다. 내가 태어난 날 엄마는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적어도 기억하는 것이 내가 5살 때 아빠가 나를 안고 친척집을 많이 돌아다녔다. 늘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혼자 일용직 일을 하면서 힘겹게 나를 키웠다.

가장 크게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다. 아빠는 처음부터 큰 거금을 얻자 더 큰 욕심이 생겨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말았다.

1년 후, 수많은 빗을 지게 돼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빗쟁이들이 찾아오기 일쑤였다. 아빠 어디갔냐고 묻는 아저씨들이 무서웠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어린 애가 무슨 잘못이냐...’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외할머니가 집을 팔았다.

그 중 천 만원은 내 명의 통장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버렸다. 억지로 내 손을 끌고 보육시설로 보냈다.

“우리 애 어릴때랑 똑같이 생겼네”

울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외할머니는 냉정히 거절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거라며 화를 내셨다. 돌아오지 않을 딸을 그리워 하시며 다시는 보지 말라며 어린 내게 통보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다른 지역 시설로 이사를 갔지만 소문은 너무나도 발이 빨라서 전학 간 중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생겼다. 단순히 루머로 생각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추측은 크게 불어나 힘든 학교 생활의 시발점이 됐다.

중학교 2학년이 되자 혼자 내 명의로 체크카드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원금을 받았고, 학부모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아빠에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다.

돈을 받으면서도 쉽게 쓸 수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성장하면서 동복과 춘추복, 하복을 사야 하는데 수십만원의 비용은 늘 내 손을 떨게 했다.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어려웠고 공부라도 잘했으면 덜 무시 당했을 텐데 정말 소질이 없었다. 매번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다독였다.

하루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과 달리 현실은 참담하고 어려웠다. 잠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내 정신차렸다.

“딸! 우리 학교 다녀 오면 맛있는 거 먹을까?”

내 반응을 보고 아빠는 온갖 음식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떡볶이?’ ‘피자?’ 등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려는 모습을 보며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 한 건이 측은해졌다.

자신이 힘들어도 오늘만큼은 나를 우선순위로 대해주는 모습에 고마웠다. 서둘러 아빠의 배웅을 뒤로 하고 오늘은 시작이 매우 좋다고 느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오늘만큼은 감히 24시간이 함부로 행복하기를 바랐다.

“평동 13층입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 아침부터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서는 층수가 많았다.

저 멀리서 급하게 나오시는 아주머니도 보이시고, 엘리베이터 너머로 목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엇듣고 그랬다. 문이 열리자 안면 있는 15층 아주머니를 뵈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머 지안이구나~ 생일 축하해.”

“어?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바쁜 출근길에 급히 나오신 옆집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어머~지안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 내게 늘 차분하고 똑똑해서 뭐든 잘 할거 같다며 칭찬을 해주셨다. 전혀 아니었지만...그럼에도 칭찬은 언제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았다.

생일 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효과가 24시간 동안 있는 건지 기쁘면서도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어? 어떻게 아셨어요?”

“애는~ 버스랑 지하철에 아주 소문이 났던데? 생일 너무 축하한다.”

아주머니의 축하 덕분인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사람들도 나를 힐끔 힐끔 쳐다봤다. 아무렴 그럴 것이 뉴스에 보도되고 내 사진이 대중교통에 실렸는데 관심을 안 갖는 게 이상했다. 그래도 자기 생일을 축하해 주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이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었다.

정적인 침묵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깨기 위해 말을 건네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었다. 암묵적으로 조용해 진 틈 사이로 내 휴대폰에 ‘카톡’ 소리가 울렸다.

“어머 뭐야? 뭘 이런 걸 다..”

소꿉친구 현서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다. ‘지안아 생일축하해’ 라는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보내줬다. 옛날에 연락하다 안 한지가 오래 돼서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으로 간절히 받아 본 기프티콘이라 너무 소중했다.

답장으로 ‘기프티콘 받아보고 싶었는데 챙겨줘서 고마워.’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동안 스토리를 통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남몰래 바래 온 적이 있었다. 정성 가득한 답장을 남기고 SNS의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지금 이 순간을 올려보았다.

SNS의 파급력이 큰 탓일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 대화 나눠 본 적도 없고 친구만 맺었던 사람들도 “생일축하드려요!”라는 개별 메시지가 왔다.

7월 1일 생일인 사람 처음 본다고, 어떻게 유일한 상황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천년 동안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내 다음연도 생일자 중에서도 생일이 같은 사람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사람이 된 거 같아 무척이나 행복했다. 그동안 생일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고 차라리 안 왔으면 하는 바람도 컸지만 역설적으로 또 기대하게 됐다. 그럼에도 잠시나마 내게 마음을 써 주신 단 몇 초 몇 분의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고맙다.

스토리 조회 기능을 통해 누가 내 소식을 봤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오늘 내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모두가 축하해 주는 건 아니었다.

나는 친하지 않아도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내 생일때는 아니었다. 물론 무언가를 건넬 때 바라지 말고 감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 켠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너무 과했나”

거창한 선물이나 장문의 편지가 아니라 단 한줄의 정성어린 편지라도 바랬다. 내가 너무 과

한 걸 바랬나 싶다가도 나름 말도 하고 친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 같아 미운 감정이 들었다.

“헐!!! 버스.”

학교를 가기 위해 타야 하는 버스가 눈 앞에 보였다. 서둘러 버스를 타야 된다는 생각에 이전 감정들은 무의미해졌다. 오늘따라 버스가 이상해 보여 뻘뻘 쳐다봤는데 외부 전광판에 ‘0701 김지안 생일축하해’ 라고 적혀있었다.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그럼에도 생일만큼은 우울하거나 기분나쁘고 싶지 않았다.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큰 생일 축하하는 처음 받아본다. 늘 유명한 연예인들만 떠올랐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을 줄 알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버스에 타면서 ‘학생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자 서둘러 앉을 자리를 찾았다. 학생 얼른 앉으라는 기사님의 호통에 서둘러 자리를 찾다가 어떤 아저씨께서 말을 거셨다.

“학생 여기 앉아!”

아저씨의 목소리가 강렬했던 탓일까 나 역시도 그 쪽으로 향했다. 푸근한 인상을 가지신 아저씨는 마치 동요 곰 세 마리의 아빠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기셨을까 싶을 만큼 다정하셨다. 서둘러 자리에 앉으니 아저씨께서 말씀을 건네셨다.

“학생 오늘 생일이니?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놀란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이쯤이면 익숙해 질 법도 한데 전혀 아니었다. 버스와 지하철 전광판까지 도배가 돼 있는데 이 정도 스케일이라면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혹시 나와 다수를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하는 건 아닐까 의심했다. 어릴 때 가장 여운남던 영화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다. 물론 축하받아서 좋지만 부담되는 복잡 미묘한 감정은 여전했다.

“혹시 어떻게 아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안면 없는 사람의 축하에 궁금함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어떤 연유로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상대방에게 다정히 축하를 건넬 줄 안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확신했다.

“앉은 자리가 생일석이니까.”

그 말씀에 나는 황급히 뒤를 돌았다. 진짜 케이크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 내 이름이 적힌 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어제 생일인 사람들은 다 앉을 수 있다.

요즘들어 저출산 문제와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노약자석과 임산부석은 아무리 바빠도 비워져 있다. 혹여나 역차별로 느낄까 싶어 생일석을 만들었다는 정부 지침 뉴스를 전해 듣고 복지사업이 발전하는 것 같았다.

‘이번 정류장은 사랑고등학교, 사랑고등학교입니다’ 라는 안내 음성이 들리자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다. 다정하게 말을 건네주신 아저씨를 포함해 몇몇 시민분들이 축하를 건네 주셨다.

내리자마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냥 스쳐 갈 법한 인연인데 너나 할 거 없이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했다. 왜냐하면 갑작스레 공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건 사랑에 비례해 미움도 많이 받기 마련인 건 필연의 법칙이다.

“야 비켜.”

갑자기 내 어깨를 치고 깔깔 웃는 무리들이 보인다. 김은영의 친구 은성과 수연이었다. 그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아 더러워’ 라는 말로 또 다시 교묘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내 눈앞에는 학교 외관이 보였다. 어쩌면 내가 진짜 마주해야 할 현실이 다가왔다.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걱정하는 일의 90%는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아니었다. 여전히 학교 생활은 걱정하면 꼭 현실화 됐다. 물론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지만 서둘러 마음을 가다듬고 학교로 향했다.

횡단보도 앞에 서니 등교하던 학우들의 목소리와 시선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 눈치 보면서 바닥을 쳐다봤다. 온 신경이 그들에게 향하게 되자 마음 강하게 먹자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전히 견뎌야 하는 시간은 변함없어서 계속 바닥을 쳐다봤다. ‘야 재 오늘 생일이래’나 ‘왜 태어난거야?’ 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다. 분명 내 얘기인 것이 틀림없었다.

울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으며 간절히 바랬다. 나는 그동안 365일 중 단 하루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다. 눈물이 고인 상태로 초록불이 켜진 걸 보고 서둘러 건너기 시작했다.

“야 위험해!”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넘어져 있었고, 무릎이 까지고 말았다. 내 등 뒤로 화물차가 재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잘못하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다.

교복을 보니 우리 학교 학생이었다. 그 애도 놀랐는지 ‘너 교통사고 날 뻔했어.’ 라고 말하며 나를 걱정해줬다.

은연중에 시선이 그 애에게 향했다. 명찰을 보니 이름은 강소원, 자연 갈색머리에 줄 이어폰과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예쁜 친구라면 내가 분명 학교에서 기억할 텐데... 싶다가도 취향이 독특한 친구라 생각했다. 순간 정신을 차리니 나를 둘러싼 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괜히 나 때문에 구해준 소원이 구설수에 오를까봐 걱정이 됐다.

“고마워”

소원의 손을 뿌리치고 서둘러 교실로 달려갔다. 내 모습을 보며 남들은 예민하고 피해의식이 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수업 중에 볼펜을 떨어트리거나 잠깐 말만 걸어도 ‘틈이 보인다’는 말로 계속 나에게 대한 험담을 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가려 하면 ‘재랑 어울리지 마’라며 불특정 다수의 따돌림이 계속됐다. 결국 나는 근거도 없고 통제 못하는 따돌림에 이내 체념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신경이 곤두서고 눈치를 보게 됐다. 조금이라도 내 얘기 하지는 않을까 무서우

면서도 꼭 나 때문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도 먼저 내 탓을 하는 선제시 방어가 습관이 됐다.

이런 내 모습에 지쳐 더 견딜 힘도 없었다. 결국 내가 죽어야만 모든 상황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야 쌤 너무 아파요”

“엄살은..그래도 괜찮아?”

“진짜 아파요”

나는 아파서 온 신경이 무릎의 상처로 향했다.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는데 참 겁도 많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죽음이나 싶다.

소독 후 연고를 바른 후에 밴드를 붙이자 보건 선생님은 이제 새 살 돋을 일만 남았다고 말하셨다. 어쩌면 모두가 과정을 알고 있지만 결과만을 빠르게 바라고 있는 사회다.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료하는 방법은 분명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는 방법은 알 수 없었다. 역설적인 세상에 나도 모르게 씩씩한 웃음을 지었다.

보건 선생님이 사용하신 기구를 치우시는 사이 예비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단순히 평범해 보이는 종소리일지 몰라도 내게는 지옥행 열차를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지안이 오늘 생일이니?”

보건 선생님께서 달력을 보시다가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네’라는 대답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며 생일 선물이라고 주셨다. 열어 보니 마들렌 몇 개가 예쁘게 포장 돼 있었다. 비록 작은 선물이라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축하를 가득 안고 수업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교실을 향했다. 비록 전쟁이라는 걸 알지만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나아갔다.

드르륵- 문 여는 소리와 함께 고요하고 적막한 공기가 숨을 조여 왔다. 중립적인 시각에서는 내가 별 거 아닌 일에 혼자 의미부여한다며 같이 있으면 피곤한 성격이라 말한다.

그러나 꺾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진짜 비난해야 할 불특정 다수에겐 여전히 관심이 없다.

“지안아”

담임 선생님의 부름에 이따금 정신을 차렸다.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멍을 때리냐는 선생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운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공격하고 얹잡아서 다수를 선동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싶어했다. 그들에게 나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한 아이를 혈뜰고 괴롭히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못된 이들이다. 물론 선생님께서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해주셨으면 개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다르다.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겨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꺼냈다.

“제가 오늘 생일이라, 잠시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 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왕 욕 먹을 거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다. 물론 ‘앵?오늘 김지안 생일이야?’ 라는 말과 함께 수군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존재했다.

“지안아 생일인데 선물 많이 받았어?”

아현이 물어봤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은영이 거들며 깔깔 웃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선동한 탓인지 반 아이들 모두가 웃기 시작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단순한 축하라 생각해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나쁠 수 밖에 없다.

아현의 진짜 의도를 해석하면 ‘넌 우리 반 왕따라 친구도 없어서 생일 축하 받을 사람도 없겠다.’라는 뜻이다. 분명 내가 상처받기를 원하겠지만 가해자 아현의 의도를 변질시키고 싶었다.

“애들아 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다. 내 자리는 교실 맨 뒷자리라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너무 잘 들렸다. 재 진짜 눈치 없고 애들 다 싫어한다며 찌파 주제에라는 말까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내 의사와는 다르게 이 교실에서 ‘재’와 ‘찌파’를 말고 있다.

나는 분명 ‘김지안’이라는 이름이 있다. 법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지만 야와 재,개,아~,찌파 등으로 누구나 들으면 기분 나쁠 단어로 나를 부른다.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위기와 미워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 삼을수록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묘한 따돌림을 한없이 견디는 방법이 최선이었다.

“자 오늘은 우리 학급 공동 추진 계획이었던 생일 롤링페이퍼를 해 볼 거야.”

창체 시간,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반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생일인 사람 밖에 없잖아.”와 “아 설마 저런 찌파한테 써야 하는 거야?”라며 교실은 또 다시 술렁이며 내가 들으란 듯 시끄러워졌다.

그 모습을 본 담임 선생님도 분명 내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쉽게 개입하지 않으셨다. ‘자 조용.’이라는 말과 함께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활동을 추진하셨다.

“지안이를 위해 정성 담은 편지를 써야 해 앞에서부터 차례로 적어보자.”

나는 이 상황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이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내 자리가 맨 뒤다 보니 은근슬쩍 뒤를 돌아 훑어보는 아이들부터 한 숨 쉬는 표정도 곳곳에서 보였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내가 생일이라서 해달라고 한 건 아니다. 새 학기때 학급 교칙을 정했고 당일 생일자에게 롤링페이퍼 쓰기가 결론이 났다.

물론 나는 이전 생일자 아이들에게 정성을 담아 적었다. 그때는 열심히 써도 가식이라고 무안주고 욕먹었지만 결국 잠잠해졌던 일화다.

막상 내가 주인공이 되니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사람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심 설레고 기대했다.

“여기.”

학급 인원은 나를 포함한 26명이라 나를 기대했다. 그러나 ‘생일축하해’ 나 ‘안녕’이라는 간단한 대답만이 돌아와 솔직히 실망했다. 물론 그게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의 하나 없는 글은 오히려 공허함만 줄 뿐이었다.

카톡을 보낼때도 ‘ㅇ’같은 대답은 상대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 조금의 정성이면 참 좋을 텐데...라며 한숨만 쉴 뿐이었다.

물론 내게 진심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애썼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마음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만큼 상처 받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어디에도 해소할 수 없는 마음이라서 ‘나는 친하지 않아도 정성스럽게 적었는데...’라며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나만의 푸념이지만 위로 받을 수도 없었다.

“하 진짜 짜증나”

“우리가 그걸 왜 해야 하는데?”

롤링페이퍼 활동이 끝나고 짜증이 가득한 반 아이들의 말투는 들을수록 거북해졌다. 사실 제일 싫증났던 단어는 아무래도 ‘우리’였다.

‘우리’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나를 포함한 단어다. 영어에서도 We는 나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으면 They’(그들)로 규정한다.

우리 반이라는 말 속에는 늘 내가 없다. 체육 대회를 위해 반 별 티셔츠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거나 스승의 날을 위해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살 때 나에게는 어떤 언질도 없었다.

“저기...미안하지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나를 빼고 매번 통보하는 소식은 늘 당황스러움을 여기했다. 다달이 생활비가 빠듯해 부득이하게 돈을 안 내고 싶다고 말하면 눈치가 없다고 몰아갔다.

어떻게든 떠밀려서 돈을 내야 했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분명한 건 재네들은 날 싫어한다.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말라고말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등교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정규 수업 시간 동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건디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번 필요할때만 나를 찾고 억지로 끼우자 우리라는 단어에 환멸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같이 엮이고 싶지 않다.

한 때 아현이 자기가 다니던 무리랑 싸워서 “어쩔 수 없지 내가 봐주는 거야”라며 나랑 같이 짝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아현과 무리는 화해를 했고 관계가 호전되자마자 바로 나를 버렸다.

가끔 아현에게 나를 지칭하며 “야 너 친구잖아 챙겨.”라는 말을 한다. 그들이 말하는 친구는 세상 어떤 비속어보다 더 듣기 싫은 어투로 쓰였다. 그럴수록 내가 뭘 잘못했냐며 자기성찰을 하고 잘 풀기 위해 다가갔지만 늘 다른말만 하기 일쑤였다.

나는 어디에도 낄 수 없었고, 이 반의 구성원이 아니라 불청객으로 취급당했다. 학교라는

공간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다.

“아 근데 또 이상한 거 하잖아”

“그게 뭔데?”

“위문편지쓰기 그거 왜 하는 거야?”

아현과 은영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방금까지 내 욕을 일삼던 이들이 갑자기 화제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나는 가십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저들이 말하는 위문편지쓰기 활동은 우리 학교가 특정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 오랫동안 해 오던 활동이다.

군인분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적은 편지인 만큼 가끔 뿌듯하고 고맙다며 과자 선물을 답례로 보내주셨다. 나는 위문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 장문은 아니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적었다.

물론 모두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한 때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진 적이 있다. 진범은 김승현, 승현은 특히 나를 괴롭히기를 좋아할 만큼 무례를 일삼는다. 특히 승현이 군인분들께 적은 편지에는 온갖 조롱과 비속어가 담겨 있었다.

편지를 받으신 군인분께서는 당연히 화가 날 만 하셨고, SNS에 크게 논란이 됐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일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아이들 사이에서 승현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승현의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더 크게 반감을 살 뿐이었다.

아직도 승현은 자기 잘못을 모른다. 나만 그런거 아니라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자 입은 열고 귀는 닫는 모습에 많은 이들의 반감을 샀다. 담임 선생님께서 필적조회를 하겠다는 말씀에도 굴하지 않을 정도로 철면피라는 사자성어가 잘 어울렸다.

“김지안.”

승현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눈은 아래로 흘겨보며 팔짱 낀 태도는 절대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이기엔커녕 무시하는 느낌을 줬다. 자기 친구들을 데릭 와서 푹푹 뭉친 후 무리를 만들어 공격했다.

승현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징은 절대 고유명사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나 ‘애들’ 등 어떻게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체를 들먹이며 이야기 한다. 동시에 자신에게 올 피해를 대비해 이름 언급은 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의 비겁한 행동이지만 늘 겪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나만 외톨이다. 다수와 길고 긴 싸움이라고 느껴져 끝내 체념하고 말았다. 분명 동갑이고 같은 여자인데, 그들의 비언어적인 폭력은 큰 위압감과 거대한 압박감을 줬다.

“나한테 할 말 있어?”

나는 굴하지 않고 맞서 얘기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분명 제3자가 봐도 갑자기 시비를 건 것은 김승현이다. 그녀는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태도에 더욱 어이없게 느껴진다.

그 모습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처럼 겁에 질려 다수에 속한 이들은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할 수 없었겠다 싶어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당

할까 봐 긴장을 놓지 못하는 행동은 아킬레스건처럼 분명한 약점일 것이다.

“김승현 그만 좀 해.”

나는 더 이상 모두에게 착해야 한다는 강박과 승현 열기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다. 애초에 승현이 나를 존중했다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왕따를 당할 때 너도 반격하고 싸우라며 조언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솔직히 쉽지 않다. 오히려 내가 솔직하게 싸웠다가 더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화를 냈는데 만만하게 보인다면 모든 상처는 다 피해자인 내가 고스란히 안고가기 때문이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도 분명한 이유와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 ‘네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니냐’며 ‘자기주장을 제대로 좀 해’라고 매번 소수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물론 다수의 가해자들과 불특정 다수가 정말 많이 밉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겪을 때 마다가장 미운 건 내 자신이었다.

내가 반박하자 김승현은 ‘와 기어오르네.’라며 ‘찐따 주제에’라는 말을 했다. 김승현이 얼마나 무례한 애냐면, 내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찐따년 엄마로 살 바에는 나가둬야지.’라며 폭언을 일삼았다.

김승현과 이아현, 김은영, 이유빈 등 나와 이미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은 증명된 만큼 이미 서로의 사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명확히 구분됐다.

“이게 진짜.”

승현이 손을 들어 내게 손찌검을 하려 했다. 모두가 당황한 눈치였고, 나 역시 움찔거리며 방어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승현의 손목을 낚아챘다. ‘넌 뭐야?’라는 말과 함께 모든 타깃은 그녀에게 향했다.

“나? 강소원.”

소원의 힘은 승현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 승현은 아프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그 모습을 보니 팬시리 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애가 싫어도 부모님은 왜 들먹여.”

소원의 등장은 ‘우리 학교에 저런 애가 있었어?’라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어수선한 분위기 사이로 소원은 내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너...자리 여기야?”

“오늘부터 여기 앉으려고.”

나는 소원을 보자마자 특이한 아이라 생각했다. 게다가 승현을 제지한 탓인지 반 아이들의 관심사는 소원에게 향했다. 나도 모르게 멍 때리면서 그녀를 뵈히 쳐다봤다.

“할 말 있어?”

낮이 익는다 했더니 아침에 도와줬던 그 친구였다.

“용기 내서 도와줘서 고마워.”

“뭘...당연한 거지.”

소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늘 다른 애들이 기피하던 내 옆자리를 기꺼이 앉아주고, 남들이 뭐라하든 용기 내서 내 편을 들어준 것이 정말 고마웠다.

그동안 나를 싫어하는 애들만 생각하다 소원처럼 내게 다가와줘서 내심 기쁜 마음에 눈물이 났다. 창체 시간이 끝나고 4교시 사회 수업이 시작됐지만 옆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것이 큰 안정감을 줬다.

오늘따라 교실에 느껴지는 에어컨 온도 역시 정말 시원했고, 수업 중에 교과서를 넘기는 손촉감도 친구가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큰 힘이 됐다.

수업이 끝나자 승현 무리가 지들이 미안했다며 소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그러나 소원은 내 손을 잡으며 ‘내 친구랑 먹을건데?’ 라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보자 승현은 ‘와하하’ 라며 ‘아 진짜?’ ‘애들아!’ 라며 시선을 내 쪽으로 이끌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 아이들은 승현의 장단에 맞춰 깔깔 웃기 시작했다.

비언어적인 공격은 다시 시작됐다. 동시에 소원에게 잠깐 할 말 있다며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다.

“지안아, 금방 올게 잠깐 기다려줄래?”

“어...어 그래.”

소원의 정중한 물음은 내게 신뢰를 줬지만, 한편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겨우 사귀 친구인데 ‘나랑 친하게 지내지 마.’ 라며 이간질하는 건 아닌가 싶다가, 또 다시 버려질까봐 계속 무서웠다.

“하고 싶은 말이 뭐길래 화장실까지 불러?”

“아...그 김지안 괜찮아? 개 왕따잖아.”

승현은 소원에게 지안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내가 작년에 개랑 같은 학교였는데 완전 찼따였다고 학교 애들이 다 개를 싫어했으니 너도 엮이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지안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소원은 승현을 쏘아붙였다. 정말 지안이 잘못된 게 있다면 좋게 충고해도 되는 일인데 왜 지안을 따돌리고 자신이 우위를 선점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다.

“아니...그 김지안이”

“지안이라도 왕따 당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

소원의 촌철살인에 승현은 어쩔 줄 모른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솔직히 말해 김승현은 아무 이유 없이 지안을 싫어한 것 같다. 그녀가 원하는 건 지안의 고립이자 모두가 지안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거 알아?”

소원의 말에 승현은 틴트를 바르다 멈칫했다. 어딘가 모르게 덜덜 떨고 있었다.

“지안이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는 걸 너도 알고 있어”

이에 묻은 틴트를 거울에 바르며 이내 주먹으로 내리쳤다. 승현의 그러한 태도는 사실 스스로를 제일 값싸고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정곡에 찔린 것이다.

“진짜 한심해, 니들 그렇게 살지 마.”

소원은 승현을 쏘아붙이고, 화장실을 나왔다. 교실로 가는 길 모두가 소원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안아! 밥 먹으러 가자..”

소원이 낀 팔짱을 따라 급식실로 향했다. 그토록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급식은 그동안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마주 앉아있는 소원 덕분에 지금은 크게 행복하기만 했다.

오늘 생일이라 운이따라 준 건지 급식에는 미역국이 나왔다. 한 술 뜨면서도 벅찬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소원은 내 모습을 보며 ‘오늘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원이 있어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대했다. 소원을 보며 ‘저런 애가 있었어?’라거나 ‘찐따랑 왜 노는 거야?’라는 소리가 들렸다.

공격을 일삼는 이들에게 반격하고 싶었지만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무서워 차마 화를 내지 못했다. 이내 몸이 벌벌 떨렸다. 속상한 마음에 수저를 든 양손이 부들거리기만 했다.

자기 일 아니라며 나를 괴롭히고 감정 쓰레기통 삼는 이들이 밉고 싫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공황이 올 것 같은 순간 소원이 내 손을 잡았다.

“지안아, 나갈까?”

소원의 한 마디에 눈물이 핑 고였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정말 잘 맞는 친구가 있기를 바랬고, 늘 그림의 떡이라 생각했던 급식도 먹었다. 내 감정을 눈치챈 소원이 주변 시선을 개의치 않고 말을 건넸다.

나는 솔직히 우는 모습을 학교 안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괜히 또 타깃으로 잡고 욕하는 명분을 주게 될까봐 걱정했다. 학생에게 학교는 세상과도 같은 공간이라 고립된다는 건 정말 큰 고통이었다.

“우리 학교 땡땡이 칠래?”

소원은 내 팔을 잡고 학교를 나왔다. ‘세상이 얼마나 크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라며 보는 사람이 더 못 있겠다며 나가서 떡볶이나 먹자고 했다.

소원의 제안이 마냥 싫지만은 않았다. 나도 서둘러 짐을 챙겨 서둘러 학교를 나왔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여름의 장마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지만 겁내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근처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고 시내에 나가 떡볶이를 먹었다. 다음으로 어디를 갈까 물어보니 소원은 캔모아에 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언제적 얘기냐며 놀렸고, 너는 싸이월드 시대일거라 말했더니 소원은 맛장구치며 맞다고 대답했다.

나는 소원의 엉뚱한 모습에 황당하고 웃겨서 캔모아는 없지만 근처 우유빙수 전문점을 가자고 했다. 소원은 요즘 빙수집 좋아졌다며 자기때는 팔빙수밖에 안 먹어봤다는 말에 참 특이하고 웃긴 친구라고 생각했다.

더 대화하고 싶어서 뭘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니 피자가 좋다고 했다. 자기 엄마가 빵 장사

를 해서 어려서부터 빵을 많이 먹고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말에 나는 꿈빛파티시엘 하라며 소원이를 놀렸다.

빙수를 다 먹고 노래방으로 향했다. 나는 최근에 유명한 다음 단계라는 노래를 부르며 디곤 자 춤을 추니 소원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안다며 기억 자 춤을 쳤다.

저 춤은 옛날에 가수 박정남씨의 안무이다. 소원이를 보며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독특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너 진짜 옛날 사람같애.”

소원은 내 장난에 웃으며 ‘어린 게 까불고 있어.’라며 나를 꼬집었다. 한바탕 노래를 부르고 피자를 먹으러 피자집에 갔다.

한 직원분이 ‘지안 씨 아니에요?’라며 ‘오늘 생일이신 분!’이라고 동네방네 소리를 쳤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따스한 시선으로 내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놀라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내심 감사했다.

“울~ 김지안 계탔네.”

소원은 나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 배불러.”

피자를 다 먹고 배가 불러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느 덧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소원은 많이 먹었으니 운동 하자며 나를 보냈고, 저 멀리 남산타워를 보며 야경 보는 것을 제안했다.

야경을 보러 남산을 오르는 길, 진심으로 힘들었다. 땀이 줄줄 났지만 소원은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는지 전혀 힘들어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산을 오르고 싶다며 나보고 왜이렇게 느리냐며 보챈다. 나는 계속 ‘천천히 가자...’며 소원을 말렸다.

둘의 끝나지 않는 씨름은 정상에 도착해서야 끝났고, 밤에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무척이나 예뻐다. 잠시 야경을 바라보느라 멍 때리던 소원은 잠시 내게 생일 선물을 건넸다..

“위시 리스트?”

소원이 준 선물은 맨 앞에 ‘Wish list’라고 적혀 있는 다이어리였다. 불현 듯 잊고 있던 위시를 떠올리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

“왜 그래?”

소원은 내 표정을 보며 물었다. 혹시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건지 싶어 조용히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손을 휘저으며 전혀 아니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나는 사실 생일날 죽으려 했어.”

소원에게는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엄마의 기일이라 축하받기도 어려웠고, 엄마 모습이 기억이 안 나서 더욱 속상하며, 그동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누군가에게 마음 열기도 무서울 만큼 세상이 야속하고 미웠다고 전했다.

“죽으려고 육교에서 뛰어내리려는데, 위시라는 사람이 구해줬어.”

내가 죽어야만 나를 괴롭힌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죄책감 가질 것 같았다. 반 아이들이 지

금 당장 가책을 느껴 사과를 하더라도 받아주기 싫었다.

‘미안해’라는 이 한마디로 지금까지 있던 일을 없던 걸로 한다면 차라리 사과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매번 학교를 떠올리는 것도, 만나는 것도 내키지 않을 정도로 싫어 차라리 계속 피해자로 있으려 했다. 그러나 계속 잠자코 있을수록 집단 괴롭힘은 더 심해져갔다.

내 자살 시도는 절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늘 가해자들을 감싸기 위해 ‘우리 애 그럴 애 아니에요!’ 라지만 계속 미화하며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건 나였다.

“그럴 애 아닐거야...” ‘내가 예민한거야.’

매번 나를 자책했지만 근거 없는 내 측은 늘 정답이었다. 가해자들의 태도는 나를 겨냥하고 있었다. 괴롭힘은 끝날 줄 모르는 현재 진행형이었다.

평소에도 자살시도를 고민하다 위시가 구해줘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문제는 여전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해진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결말은 새드 엔딩이었다.

만약 반 아이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친해지기는 겁난다. 막막하고 힘든 문제였지만 소원에게 털어놓으니 한 시름 가벼워졌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이해해, 강해질 필요도, 용서할 필요도 없어.”

소원은 내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 말을 건넸다. 그녀의 모든 시선은 다 내게 향해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진심이었다.

“너희 엄마는 내가 죽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소원의 말을 듣자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 세계에서 나만 생일이어도 여전히 생일 우울증 때문에 더 공허하고 외로웠다.

“생일 우울증은 왜 계속 그대로일까.”

한없이 푸념하다 문득 소원의 눈치를 살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지칠 법도 했을 텐데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나를 달랬다.

“더 듣고 싶어서 그런데,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동안 생일 우울증을 겪어 왔다. 이는 생일이 다가오면 극심하게 외로워지는 것이다. 먼저 정말 친한 친구가 없었다. 아무에게도 축하받지 못하고 홀로 있으면 우울감이 크게 느껴 온다. 생일만큼은 다른 날보다 더 크게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오늘 전 세계에서 나만 생일이어도 말뿐인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으면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감이 느껴와 회의감마저 들었다.

어떤 생일을 보냈는지 SNS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우울감에 큰 몫을 차지했고, 나와 생일이 같은 김은영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니 최악의 기분을 느끼게 됐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모습이 한없이 기뻐 보이고 부러웠다. 나도 사랑받고 싶고, 축하받고 싶었는데 내 욕심이 과했던 걸까 싶어서 속상하고 눈물이 났다.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울었다. 그냥 하염없이 또 울면서 쌓아왔던 속상함과 서운함을 다 털어놓았다.

“이제 좀 괜찮아?”

“응...무거운 이야기였는데 들어줘서 고마워.”

실컷 울었더니 눈 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한없이 아름다웠다. 옆에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얘기를 들어주니 더없이 고마웠다.

“내가 생일 때 우울한 이유는 스스로를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소원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과 만감이 교차했다. 그 순간 아빠에게 전화가 왔다. 노느라 신경쓰지 못했던 휴대폰의 알림을 확인한 후에야 오늘 아침에 아빠와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당황스럽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사이 소원이 내 등을 토닥였다.

“얼른 가봐.”

내 모습을 보고 눈치 챈 소원이 먼저 말을 건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야기를 들어 준 적도 없고 처음 본 사이인데 받기만 하는 거 같아 정말 미안했다.

남산을 내려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중 내가 타야할 버스가 왔다. 소원은 나를 배웅해주며 손인사를 건넸다.

“소원아 조심해서 가!”

“그래 지안이 너도 조심히 가고”

소원이는 내 등을 토닥이며 얼른 집으로 보냈다.

“너를 진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너 뿐이야”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 시계를 보니 아직 내 생일은 3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여전히 존재하는 생일 석에 앉아 창가 너머의 야경을 감상했다.

늦게 퇴근하는 터라 피곤할 법 한데도 나를 슬쩍 보며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주시는 시민들과 창가 너머 버스에 생일 축하 전광판이 걸린 내 사진을 보며 오늘 하루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우리 딸 왔어?”

집에 도착하자 아빠의 목소리가 나를 반겼다.

“아빠! 뭐야 치킨 시켰어?”

식탁에는 방금 배달 온 치킨이 놓여 있었다. 어서 먹자는 아빠의 말에 서둘러 치킨을 먹었다. 아빠는 다리를 싫어한다며 내 그릇에 두 개를 놓는 모습을 보며 나눠 먹자며 아빠 그릇에 다시금 건넸다.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아빠의 질문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 떡볶이와 빙수를 먹고 남산 타워에 가서 야경을 보고 온 일. 너무 재미있고 신나서 들뜬 모습을 주체할 수 없어 계속 말했다.

치킨을 다 먹고 잠이 오자 서둘러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기도 하고, 오늘 하루는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

#3 주인공

긴 잠 실컷 자고 난 후 세상이 크게 맑아 보였다. 휴대폰을 보니 오늘은 7월 1일 그대로였다. 페이스북에 들어가니 김은영의 생일이자 내 생일이었다.

오늘 내가 유일하게 생일자라는 내용도 보도되지 않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같은 날 생일인 연예인들이 보였다.

어제 있던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도저히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 틀림없는 건 24시간 동안 내 소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시간을 보니 서둘러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됐다.

“아빠...?”

집에서 사람의 인기척을 절대 느낄 수 없었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또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아빠의 편지와 옆에는 세 달치 생활비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다.

아침부터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신 차리자며 애써 나를 다독였지만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었다.

분명 어제 소원이 이뤄졌지만, 나는 또 다시 무언가를 바라고 시작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데 왜 내게는 손해만 생기는 것일까 세상이 참 미웠다. 한 번 하루를 보내봤기에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내가 공감받고 이해받을 시간 없이 서둘러 학교로 향해야 했다. 하염없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도중에도 눈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감이 서지 않았다. 왜 계속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걸까 싶어 하염없이 세상이 미웠다.

학교에 도착했지만, 소원은 없었다. 칠판에는 은영의 생일만이 적혀 있었고, 나는 계속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거 같아 계속 교실 바닥만 쳐다봤다.

“지안이?”

뒤를 돌아보니 소원이 있었다. 자기가 늦잠 자서 학교를 좀 늦게 왔다 말하며 내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 괜히 친구 걱정시키기 싫어서 한없이 마음을 감췄다.

소원이는 내 모습을 보며 걱정하는 눈치였다. 그 사이 은영이 소원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분명 또 나와 소원이 사이를 이간질 할게 뻔하겠지만 나는 지금 도저히 맞서 싸울 기력이 없었다.

“소원아, 나랑 같이 매점갈래?”

은영은 팔짱을 끼며 소원에게 다가왔다. 소원은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은영을 살폈다. 옆에 수연과 승현을 끼고 쪽수 무리로 온 걸 보니 자기 편으로 데려가고 싶어 보였다.

“아니 괜찮아.”

소원의 태도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반 아이들은 늘 자기 일이 아니라며 나를 배척하고 따

돌렸지만 소원만큼은 달랐다.

잠시 동안 교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수업 종이 치자 적막 같던 침묵이 깨지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자 다른 아이들도 서둘러 자리로 향했다.

이번 시간은 국어 마인드맵 활동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작품을 토대로 각 인물의 정서를 파악한다.

수행평가라는 말에 나는 또 나 혼자 하겠구나 싶어 기대조차 버렸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소원이 자기랑 둘이 같이 하자며 내게 말을 건넸고, 처음으로 조별 과제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지안이 너는 글을 잘 쓰니까 내가 그림 그려도 돼?”

“그래! 물어봐줘서 고마워.”

소원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그런지 손재주가 무척 좋았다. 그림 실력이 엄청 훌륭했고, 채색도 다채롭게 하는 모습을 보며 수행평가 만점을 자부했다.

친구와 함께 하는 조별과제는 더없이 행복했다. 나와 소원을 보며 야유를 부리는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신경 쓰기 싫다고 느낄 만큼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지안아 너 오늘 생일이야?”

소원의 질문에 ‘응 맞아.’ 라고 답변을 남겼다. 소원은 자기도 7월 1일이 자기 인생에서 엄청 기억에 남는 날이라고 말했다.

“너도 생일이야?”

소원은 대답하지 않고 뜸 들이며 미소를 지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더 궁금해 하면 실례일 거 같아 호기심을 멈췄다.

국어 시간이 끝나고 다음 수업은 체육이었다. 사물함에 넣어 놔던 체육복을 꺼내 교실 커튼 뒤에서 갈아입으려 했지만 그새 김은영이 내 어깨를 쳤다.

“아.”

내 목소리에 김은영은 뒤를 돌아 나를 쳐다봤다.

“아, 미안ㄸ”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태도와 함께 은영의 태도는 그야말로 무례했다.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고 있던 차에 은영이 말을 건넸다.

“너 오늘 생일이냐?”

“응, 왜?”

“왜 태어났어?”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은영의 말에 반 아이들은 모두 나와 은영을 쳐다봤다. 그녀의 비웃음을 시작으로 하나 둘 씩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에 가담했다.

나도 화가 나서 ‘너야말로 왜 태어났어?’ 라며 반격하고 싶었지만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참았다. 은영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굳이 내 손으로 피를 보고 싶지 않았다. 분명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더 크게 돌려받을거라 믿었다.

은영이 나를 싫어하게 된 계기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학급에서 자기 혼자 생일 주인공이

아닌 점에서부터 나를 찢어뜯듯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내가 그녀의 발을 밟았기 때문이다.

당시 은영은 새로 산 비싼 신발 ‘조머’를 신고 학교에 왔다. 그 제품은 고가이자 한정판이라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기 더없이 좋았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은영의 신발을 밟아버렸다. 자기는 새로 산 한정판 신발인데 내 신발은 브랜드 없는 보세에 더럽다는 이유로 반감을 사기 시작했다.

발을 밟은 건 내 잘못이고 불찰이니까 사과를 건네고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은영과 나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었다. 그 계기로 몇몇 아이들은 나 사실 김지안 불편하다는 식으로 나에게 대해 험담을 했다.

그동안 나에게 대해 좋게 생각한 일들도 다 안 좋게 재조명되자 진심으로 억울했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내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도 받았다. 분명 은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진짜 의도는 내가 자기에겐 모든 걸 맞춰주길 바란 것 같다.

“지안아 괜찮아?”

소원이 다가와 내게 물었다.

“안 괜찮아...”

나는 은영을 죽일 각오로 노려봤다. 은영은 내 모습을 보며 ‘기어오르네’라며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업신여겼다. 소원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가자, 상대할 가치도 없어.”

소원의 어깨동무에 잠시 기대어 교실 밖으로 나갔다. 분명 내가 없는 곳에서 또 나에게 대해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올 것이 뻔했다. 그럼에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모르는 게 약이었다.

“언제부터 그런거야?”

소원이 단독직입적으로 내게 물었다.

“6월 1일부터 계속...그랬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빠짐없이 말했다. 이후로 6월이 너무 싫어졌고 또 징크스가 됐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 같아 조금이라도 일이 잘 흘러가지 않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책부터 일삼았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고 학교 가는 것이 큰 용기가 됐다. 모든 반감은 은영으로부터 시작되고, 같은 반 애들이 조머 값 500만원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괜히 돈 얘기를 먼저 꺼내면 계산적인 애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럽게 청구 비용을 언급하긴 했지만 은영은 ‘됐어!’라며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게 엄마 사망보험금이 남아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걸로 내가 책임을 지게 되면 자신에게 만만치 않게 적이 생겨날 게 분명했다. 은영도 사람인지라 다수의 여론이 분명 무서웠을 것이다.

사자성어에서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세 명의 사람의 말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만약 은영이에게 ‘지안이가 모르고 그런거 잦아.’라며 ‘맞아 맞아’라고 다수가 내 편을 들어줬다면 오히려 은영 스스로가 ‘내가 너무 심했나...’라며 나를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은 없어도, 좋아할 사람은 많을거야.”

“야!”

소원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데?”

나는 화가 나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지안아...”

소원이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솔직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느 날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날까봐 무서웠다.

나는 자살시도를 여러번 강행했지만 사람의 목숨이 끈질겨서 한순간에 죽지 않았다. 단시간에 죽는 것을 ‘즉사’라고 하지만 솔직히 고통을 겪으면 몸이 자동으로 방어기제를 필요로 하는 만큼 살고 싶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아도 직접 도와줄 어른이 곁에 없다. 애들 싸움이라며 단순히 판단해버리니 길고 긴 외로움 속에서 내가 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았다.

7월 1일, 내 생일은 여전히 뱀피우스의 띠처럼 무한한 고통의 굴레였다. 특히 다른 날 보다 더 큰 아픔을 체감하기 마련이었다.

어제는 분명 전 세계에서 나만 생일이었다. 그러나 24시간이 지나니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돌아왔다. 물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게 맞기에 나 역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죽긴 왜 죽어...니 삶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이잖아.”

소원이가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줘서 무척 고마웠다. 메말라가면 비를 내려 주고, 빛이 필요하면 햇살이 되어 주는 그러한 사람.

“근데 너무 아프잖아, 그게 어떻게 영향이 안 와?”

소원의 투박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은 충분히 고마웠지만 나아지지 않는 내 상황이 안타깝기만 했다. ‘나를 사랑하자.’ ‘Love myself’라는 말이 참 어여쁘지만 실천은 쉽지 않았다. 결국 남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은영은 나보고 엄마가 없다며 내가 별로라는 낙인이 찍혀 아빠가 도망간거라 말했다. ‘이러니까 네가 왕따를 당한 거야.’라며 내 과거까지 언급했다.

꼭 은영이 아니라도 불특정 다수가 나에 대한 헛소문을 만든다. 내가 남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려 노력해도 계속해서 잡초가 자란다. 더 크게 자라기 전 싹을 잘라내고 싶은데 기약 없는 괴롭힘이 너무나도 지친다.

“지안아...”

소원이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다들 내 이름만 들으면 피하고, 내 존재는 이 학교에서 어떤 비속어보다도 심한 말이었다. ‘지안이 친구’라거나 ‘응 너

김지안'등 내가 없을 때 나를 조롱하는 수많은 말들이다.

현실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 봤는지 물어봤다. 나는 솔직히 그걸 아무리 해도 학교폭력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문항에서 '우리 반에서 혼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간다'는 내용은 모두가 '예'를 표시한다. 솔직히 '아니오'라고 할 사람도 없을 테지만 실제로 그들은 혼자인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용기 내서 주관식 서술형에다 반 애들에 대한 내용을 익명으로 적었지만 내가 없는 사이 교장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 지안이를 왜 괴롭히는 거냐?'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교장 선생님의 마음과 의도는 이해하나 제일 먼저 들었던 감정은 '왜 그러셨지...'라며 화가 났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이들 싸움이라고 생각해 어른들이 개입하면 끝날 거라 생각하신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크나큰 오산이자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김지안이 선생님께 끈질겼어?'라며 나를 점점 더 피하고, 나에 대한 평판은 남들이 강제로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반 분위기는 나로 인해 싸해졌다고 몰아가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기 일쑤였다.

117 번호의 학교폭력 신고도....전혀 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 당사자와 상대방이 1:1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다면 이는 합법이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간주돼 역으로 내가 고소당할 수 있다.

학교폭력위원회도 다수가 지어낸 말은 군중을 사로잡기 아주 쉽다. 솔직히 한명과 다수를 놓고 본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민주주의 다수결에 근거해 쉽게 다수의 편을 들기 마련이다. '모두가 이상한데 나 혼자 안 이상하면 내가 이상한 건가봐.' 싶어 나는 또 다시 서럽게 울었다.

암묵적으로 '친해지기 싫은 아이'가 생기면 그 사람은 타깃이 된다. 사람은 축이라는 게 있어서 분위기와 부정적인 느낌을 쉽게 간주한다.

반면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인맥이 많거나 언변 실력이 훌륭한 이들이다.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중간 계층의 비율이 많고 주도자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괴롭히는 방법은 매우 비폭력적이다. 당사자 이름 언급 없이 타깃을 포함하거나 SNS저격을 안하고 단순히 다가가지 않는 괴롭힘은 쉽게 학교폭력이라 간주하지 않는다.

흔히 '보이지 않는 급'을 나눠 잘나가는 애와 못나가는 애를 나눈다. 그 사이로 잘나가는 애와 잘 지내면서 자신과 친한 사람이 있는 무리와 공부 잘하고 꾸미지 않지만 수수한 매력으로 교실에 필요한 사람 등 각자의 역할이 존재한다.

교실 내에서 급은 보이지 않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친구라는 가짜 명분을 갖다대 수단적으로 대우한다. 한 번은 내가 조퇴 때문에 일찍 밥을 먹는 걸 양해받았는데 뒤에 있던 김승현이 '저 김지안 친구예요!'라고 나를 팔았다.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눈빛이 변하며 '존나웃겨'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무리와 깔깔대며 여전히 친구로 생각하기는커녕, 나를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대한다.

그럴수록 당사자는 상처를 받아서 아프고 괴로운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입 속 담으며 잘 지내는 모습이 화가 나고 속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잖아.”

소원이 강경한 어조로 말하며 나를 안아줬다. 따스하고 몽글몽글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 사이 지나가던 반 애들이 ‘야 봤어?’라며 비웃음을 짓는다. 싸한 느낌이 들자 무의식적으로 소원의 품에서 벗어났다.

절대로 소원이가 싫거나 호의가 당연해서가 아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기 때문이지만 전할 수 없는 진심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할 뿐이다.

“너만큼은 나 때문에 피해 보지 않았으면 해.”

눈물을 흘리며 소원의 곁을 벗어났다.

#4 나의 소원

“야 강소원 되게 웃기지 않냐?”

교실에 들어오자 내 뒤에서 소원을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들어와도 딱히 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자기들만의 새로운 타깃을 잡은 듯 했다.

당연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또 다시 욕을 먹는 상황이 될 까봐 정말 무서웠다. ‘소원이는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줬는데...’라는 생각에 주먹만 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개 여자 좋아하는 거 같더라?”

틀림없이 은영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깜짝 발언에 관심 없어 하던 애들도 하나 둘 씩 가십 거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누구야 누구야?’라는 말과 함께 은영은 슬그머니 ‘재’라며 고개와 눈빛을 통해 나를 지칭했다. 뒤에서 ‘아~’라며 들리는 말에 또 다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사이, 소원이 교실에 들어왔다.

“뭐야? 분위기 왜이래.”

소원의 말에 반 분위기는 더 냉대해지고 무언의 압박을 준 듯 싸해졌다. 소원이라도 그것을 느꼈는지 자리에 와서 ‘지안아 무슨 일 있어?’라며 내게 물었다. 그러나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은영은 자기 잘못은 모른 채 ‘재 예전에 겹돌았잖아, 중학교 때도 찌따였대’라며 또 다시 길고 긴 따돌림을 알렸다.

“야.”

나는 책상을 치며 은영에게 다가갔다. 솔직히 무섭고 두려웠지만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과 나를 차별하는 모습에 더 이상 당하고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거 아니거든?”

“뭐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 봤는데.”

은영은 내 모습에 당황한 눈치였지만 다시 웃으며 화를 내도 나는 더 만만하게만 보인다면 한번 찌따는 영원한 찌따라는 말과 함께 반 분위기를 주도했다.

계속된 비폭력적 따돌림은 무언의 압박이자 한없이 숨이 막혀왔다. 그냥 단순히 친구 사귀어서 잘 지내고 싶다는 소원이 있던 것 뿐인데, 그조차 내게는 허용되지 않는 거 같아 한없이 미웠다.

“누가 동성을 좋아하든 니가 욕할 거리는 아닌 거 같은데?”

나는 무서운 마음에 온 몸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다. 긴장하고 흥분이 될수록 계속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소원이, 나 도와준 고마운 친구야 너 같은 가해자가 따돌릴 때 유일하게 다가와준 친구라고.”

내가 화내고 소리지르는 모습에 반 아이들 모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때 김지영이 나한테 다가와 애들한테 짜증내지 말고 좋게 말하라고 했다.

그동안 내가 혼자 화풀이 대상이 될 때는 편도 안 들다가, 화내는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말리는 모습이 정말 미웠다.

“내가 따돌림 당할 때 넌 뭐했는데?”

“뭐?”

“너도 똑같아 김지영”

나는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도저히 내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 급기야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다.

“방관자 주제에.”

이은성은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내 말투를 따라 하고 최보리는 반 아이들은 분위기에 선동해 깔깔 웃는다.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사물함을 주먹으로 치고 밖으로 나왔다.

내가 나오면 또 닷 나에 대한 욕을 할 게 분명하다. 이런 내 모습과 추측은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의식에 피곤하게 산다며 나를 비난한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나는 충분히 버틸만큼 버텼다. 이만하면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매점 뒤에 계단을 내려가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거라는 생각에 참아왔던 눈물이 모두 터져버렸다.

솔직히 은영에게 화를 내서 무척이나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교실에 돌아가면 나에 대한 여론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다가올 후폭풍이 참 무섭다.

왜 학교폭력을 당하면 정작 반성해야 할 가해자는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 것일까 싶어 세상이 미웠다. 피해자는 길고 긴 시간을 홀로 힘들어 하고 심지어 트라우마까지 생긴다.

보이지도 아물지도 않은 길고 긴 상처를 홀로 안고 살아가는 그 자체도 용기인데 또 다시 상처 받을까봐 무서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피했다.

그럴 때 마다 극복해야 한다며 강요하고, 관계를 무서워 하면 다 내 잘못이라 몰아갔다.

계속되는 악순환에 스스로가 지칠뿐더러 나도 나를 미워하게 됐다.

“그냥 죽자 한 번 행복했으면 됐지 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던 찰나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괜찮아?”

소원이 머리 한 쪽을 넘기며 내게 다가왔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놀라서 소원에게 물었다. 그러나 소원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다독여 줄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소원이는 내게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해줬다.

“개네들, 생각이 진짜 짧은 거 같아. 찌파라는 말 유래도 모르면서.”

소원은 한심하다는 듯 이야기를 건넸다.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6·25 전쟁을 모를 리 없으며, 당시 일본은 지뢰를 밟고 다리를 잃은 군인들을 명칭하다는 뜻의 '침바(ちんぱ)'에서 유래된 '다리병신'을 의미하는 비속어라 말해줬다.

뜻을 알면 정말 많이 꺼려할텐데, 지금 저렇게 깔깔 웃으며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타인의 숭고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라며 말하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착잡해졌다.

“나도 여고를 나왔거든? 그때 동성을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어.”

소원은 어쩔사리 말을 꺼냈다. 그동안 나는 내 얘기를 묵묵히 들어 준 것 만으로도 고마웠고 이전에 다녔던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 싶어 조용히 경청했다.

“나한테 용기 내서 말했었는데 었들었던 애가 있었나봐 그 이후로 찌따.왕따라며 친구를 몰아갔어.”

문득 눈을 감고 그때를 회상해본다. 하하호호 뛰어다니며 안경 쓴 여자 선생님이 ‘니들 뛰지마!’ 라고 말했던 날들.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말이다.

그때는 또 두발규정이 있어서 선도부 언니들이 자 가져와서 막 자르고 그랬는데, 웃기면서도 참 씁쓸하다.

내 단짝 친구 송미, 나를 학교 뒤편으로 불러서 ‘너만 알고 있어’라며 같은 반에 예쁘장하다고 소문 난 연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연희는 단발머리지만 눈이 엄청 크고 예뻐서 다른 남자 고등학교 오빠들도 우리 학교에 와서 구경할 정도였다. 마침 그때 정부가 처음으로 수행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의 학습수행 과정으로 확대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한 연희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지만 내 단짝 친구 송미는 ‘친구’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감정과 마음으로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1000년 단위 해와 지금이 마지막 마감 시기라 생각해 과연 다음 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 뉴스에서는 온갖 예측과 상상을 내놓았다.

가장 큰 문제는 Y2K 종말론이 펼쳐졌다. 세상이 말할 거라 떠들썩했고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생필품을 막무가내로 사들였다.

송미는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희에게 고백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누군가 먼저 었 들었는지 연희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송미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다. ‘내가 들었는데~’라고 하며 반 아이가 막말하는 걸 들었고, 자기 이야기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 나를 소환했다.

“강소원 너 그때 들었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남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떠벌리던 애는 친하지도 않은 나까지 언급을 했다. 그때는 당황한 나머지 ‘그런 애기 들은 적 없다.’며 거짓말로 무마했다. 연희는 이상한 소문에 휩싸여 학교는 말 그대로 부모님 항의까지 왔다.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 유망주이자 나름 학교의 자랑인 애라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선생님들은 단지 친구끼리의 일이라며 송미의 편을 들었지만 경멸과 비난은 모두 송미의 것이 됐다. 결국 아이들의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Y2K 두려움을 겪던 사람들과 끝내 동반 자살을 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

소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얘기를 들으면서 참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에 감히 내가 조연과 공감을 할 수 없었다.

“내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야.”

소원의 훌쩍임에 이제는 내가 다독여주고 싶었다. 컵도 물이 가득 차면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흐르기 마련이다.

분명 소원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이 분명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투성이었지만 단지 묵묵히 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다.

그동안 소원이 왜 친구 한명 없는 나한테 다가온 걸까 의아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팬시리 미안하고 고마웠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명분의 비속어가 존재하는 것 같다. 단지 동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동성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좀 더 친근한 친구에게 ‘너 레즈냐? 아님 게이냐?’라는 말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개인을 포함해 더 나아가 사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재는 오른손잡이의 비율이 많지만 소수의 왼손잡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둘 다 사용 가능한 양손잡이도 존재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현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조차 기준은 불분명하다. 더 세부적으로 판단한다면 완벽한 정상은 없을 것이다. 산의 정상도 높기와 기울기, 해발고도가 달라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처럼 신이 존재한다면 모두의 소원을 들어 주길, 감히 바랬다.

#5 내일

눈물자국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다. 눈 인지 코 인지 출처 분명의 슬픔들은 온 몸이 울어서 생겼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아직도 이유 모를 미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더 이상 다수를 상대 하기도 지친 나머지 교실로 향했다.

문을 열려는 그 순간, 은영과 소원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김지안이 너 갖고 노는 거야, 잘 생각해.”

“그러는 넌 지안이가 니 화풀이 대상이냐?”

은영은 기가 차다는 듯 소원을 비웃었다. 자기 무리로 올 수 있는 기회라며 찌파랑 어울리며 급 낮아지는 거 한 순간이라며 소원이를 조롱했다.

“적당히 좀 해.”

소원이는 정색하는 표정으로 은영에게 말했다.

“이야~나도 강소원처럼 이런 친구 있으면 참 좋을텐데.”

은영은 적당히를 모를 만큼 계속해서 소원을 비꼬았다. 소원이는 기가 차다는 듯 팔짱을 끼며 강경하게 말했다.

“그런 사람을 바라지 말고 니가 먼저 되든가.”

소원은 머리를 배배 꼬며 구부정한 태도로 대화를 나눴다.

“아~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구나 가르쳐줄까?”

소원이는 우습다는 듯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비웃었다.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에 은영은 기가 죽었는 지 얼굴이 빨개졌다.

그동안 다른 애들이 기세등등한 대우를 하며 지내줬더니 몰랐던 모양이다. 자존심이 생명인 은영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니가 김지안 엄마냐?”

반 아이들은 말리기는커녕 유흥거리마냥 구경하기 바빴다. 사실 1대 다수로 모두가 은영의 편을 들며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나 김지안 엄마다 왜!”

소원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를 문힐 만큼 컸다. 같은 반 아이들은 소원이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려 조회수를 올리려는 이기심을 갖고 있었다.

‘야 여기 싸운다!’라며 옆 반에도 소문이 나 수많은 인파가 반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소원이가 동물원의 동물처럼 누군가의 구경거리나 가십거리가 되려 하는 걸 말리고 싶었다.

그건 내가 당했으니까, 내 일이니까 도와준 너는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문을 박차고 소원에게 향했다.

“그만해.”

나는 소원에게 화를 냈다. 처음 보는 나의 냉정한 모습에 소원이는 많이 당황한 눈치였다.

“지안아...”

소원이는 놀라서 말도 얼버무렸다. 물론 나도 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무척 고맙고 미안한데 너까지 이런 일 당하는 게 싫으니까, 모든 비난은 내가 나서서 받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만해 제발 다 그만하라고!”

하나뿐인 내 편에게 돌을 던졌다. 그동안 친구가 생기길 바랬던 내 소원이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고 비극만이 언제나 내 편이었다.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자기 편 들어준 애한테 저러냐...’라며 모든 화살을 다 내게 돌아왔다.

이런 상황의 주도자는 모두 은영이었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은영을 바라보며 따졌다.

“내가 실수로 네 발을 밟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분명 나는 여러번 사과하고 괜찮다는 답변까지 들었다. 혹시라도 괜히 계산적으로 느껴질까봐 많이 조심스러워 배려하려 했지만 오히려 독이 됐다.

신발의 원래 가격인 500만원도 갚아 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은영에게 말했지만 결국 날 괴롭히는 명분으로 삼아버린 이기적인 가해자다.

“내가 복수는 안 하겠지만 김은영 너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화가 끝까지 차오르던 찰나, 쉬는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7교시 종이 울렸다.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 약속했다는 듯 상황이 종료됐다.

수업이 시작되자 소원이는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창문만 바라봤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먼저 말 걸기가 조심스러워 한없이 교과서를 읽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의 작품에서 주인공 인희가 가족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모습을 배운다. ‘엄마 연수 사랑해’ 그리고 ‘엄마 얼굴은 잊어도 니가 뱃속에서 태어난 건 잊지마’라는 대사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마치 내 얘기 같아서 물입이 쉽게 됐다. 주먹을 꽉 쥐며 계속 감정에 동요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길게 느껴진 50분의 수업 시간이 끝나고 다들 가방 정리를 하며 종례 준비를 마쳤다. 하교 시간에 소원에게 용기 내 말을 걸었다.

“소원아.”

왜?라는 답변이 올 정도로 소원이는 많이 당황하고 상처받은 표정이었다. 나도 당장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관계에 독이 될 거 같아 카카오톡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번호를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이었다.

“나 휴대폰 없어.”

순간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 했다. 딱 들었던 생각은 ‘내가 싫어서 돌려말하나?’ 였지만 믿기지 않아 어안이 병병한 사이 소원이가 ‘먼저 가볼게 내일 보자’라며 자리를 나섰다.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싶어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 계속 막막하기만 했다. 도착하자마자 아무도 없는 빈 집에서 마음까지 공허해지기 싫었다. 서둘러 컵에 얼음을 가득 채워 시원한 물을 마셨다.

컵을 치우다 우연히 사진 한 장이 발에 밟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 아빠와 엄마

가 임신한 모습으로 있었다.

사진 속 문구에는 ‘우리 세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기.’라고 적힌 건 우리 셋의 흔적이 세상에
서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구나 싶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다고,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울고 싶은데,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상황
이 야속해서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엄마 왜 나만 두고 갔어?”

여러 번 가족에게 버림 받고 여전히 내 편은 없는 암울한 세상이 밉다. 학교 끝나고 비 오
면 부모님이 데리러 와 주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참관 수업 때 마다 우리 엄마라며 자랑하는
모습에 애써 씩씩함을 감출 수 없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생리가 터져서 놀라고 무서워 시설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쁘다
며 거절당했다. 계속 피가 흐르는 상태로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데 다행히 시설에서 친해진 언
니가 엄마처럼 나를 도와줬다.

며칠 뒤 언니는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을 갔다.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떠나가는게
무서웠고 여전히 시설 내에서는 위계질서가 가득했다.

엄마가 있었다면, 같이 떡볶이도 먹고 빙수도 먹으며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다고 다 말할
수 있을 텐데. 서울 야경이 그렇게 이쁘다며 손 잡고 함께 구경 가고 그랬을 텐데 여전히 내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 처음으로 친구 사귀었는데 싸웠어”

엄마랑 대화를 나눠보거나 함께 추억을 쌓아 본 적은 없다. 그럼에도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 라며 사진을 꼭 쥐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젠 행복하게 해달라며 기도했다. 연내
문제는 온전히 내 일이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7월 2일, 야속하게도 아침이 밝아 왔다. 오늘은 꼭 소원이에게 먼저 사과해야지 라는 생각
에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했다.

주변 풍경은 어떤지,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 외부적인 요소는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
었다. 무조건 학교로 향했다. 그동안은 내게 없는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무엇
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온전히 나만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이뤄졌고,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소원도 이뤄
졌다. 내 생일은 결코 의미없는 날이 아니었다.

“강소원!”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소원을 찾았다. 출석부와 사물함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놀란 마음에
김은영을 붙잡기까지 했다.

“야...김은영 너 강소원 알지?”

은영이는 어이없다는 듯 나를 흘겨봤다.

“뭐래 아침부터 꿈꿨냐?”

“너 어제 강소원이랑 둘이 싸웠잖아.”

물론 내가 갑자기 친하지도 않은데 붙잡아서 당황할 수는 있다. 백 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내 태도를 보니 더 어이없다는 듯 김은영은 나를 밀쳤다.

나는 ‘아야’라는 말과 함께 어안이 병병했다. 은영은 어제 강소원이랑 분명 싸웠고 그랬는데 오히려 반 아이들은 나를 별난 사람으로 몰아갔다.

은영은 이참에 잘 됐다며 내 팔을 강제로 잡아 교탁 앞에 세워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거 다 말하자며 다수와 나를 상대로 편 가르기와 마녀사냥을 주도했다.

처음에는 반 아이들도 ‘이렇게 해도 돼?’라며 주저하다 하나 둘 씩 불어가는 불만들에 점차 선동당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기를 쳐다봤다거나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는 말 같지 않은 명분들.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해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려 했는데 산만하다는 등 ‘맞아 맞아’라며 여기 저기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교탁 앞에 서서 마녀사냥을 당하자 더 이상 이겨낼 힘을 못 느꼈다.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이 컸고 이내 과호흡까지 와서 숨 쉬기 어려웠다.

최대한 참아보려 주먹을 쥐고 가슴을 쳤지만 빈혈기가 있었는지 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나중에 들어보니 반 아이들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연기한다고 몰아가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선생님이 목격해 119 병원으로 실려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링겔을 꽂고 병원에 누워 있었다. 간호사가 와서 ‘김지안 환자분 의식 돌아왔어요!’라고 내 담당 의사에게 일렸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에 눈물이 흐르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이제는 잘 버텼다는 생각에 자살하고 했다.

‘띠리리링’소리와 함께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다. 휴대폰을 찾으려 손을 뻗었을 때 집힌 것은 소원이가 줬던 Wish list였다. 펼쳐보니 내지는 모두 백지였지만 맨 앞장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적힌 곳은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지번 주소였다. 의외다 싶은 와중에 검색해보니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쉴새 없이 들어 얼른 이 주소로 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둘러 링겔을 빼고 병실 밖을 나섰다.

조급한 마음과 달리 손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자 병원 안에 있던 편의점에서 급하게 밴드를 사 붙였다. 세상이 편리해 진 덕분에 모바일 수납을 마치고 늦은 밤 택시를 잡아 그 주소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이 건물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며 기시감이 들었다. 혼란스러운 나머지 머리가 하얘지던 찰나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내게 말을 건네셨다.

“학생 뭐 찾아?”

내가 땀을 흘리며 찾는 모습이 눈에 크게 밝히셨는지 할머니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 괜히 저 때문에 죄송하다며 가셔도 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괜찮다며 말씀을 이어 나가셨다.

“학생 손에서 피 나는데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냐?”

할머니께서 한 손으로 내 손목을 붙잡으셨다. 또 다른 한 손으로 내 이마를 갖다대며 열 기운이 있다며 걱정해주셨다.

더운 여름날에 몸까지 안 좋았는지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학생 학생!’ 부르다 점차 시민들이 몰려왔고, 눈을 떠보니 새로운 곳이었다.

“여긴 어디지...?”

오래된 골동품과 옛날 내음이 가득한 공간. 꽃이 가득히 수놓인 이불 속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는 갖가지 상비약이 있었다.

“좀 괜찮아?”

아까 뵈었던 할머니였다. 물과 흰 죽을 가져와주시면서 내 상태를 살펴보셨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질 때까지 여기 쉬었다 가도 된다면 나를 다독여주셨다. 아까 뭘 그렇게 크게 찾는지 물어봐주시면서 자신도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고 말씀해주셨다. 감사한 마음에 신세 한 번만 더 지겠다며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셨다.

“여기 그 뭐였더라...우...위시이 베이케리?”

“위시의 베이케리요?거기 어디 있어요?”

나는 말 그대로 소름이 돌아 온 몸에 닭살이 돋았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투성이라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할머니께 정중히 사장님을 아시는지 여쭙보고 싶었다.

“할머니, 그 빵집 사장님 잘 아시나요?”

말 없이 끄덕이시며 어딘지 모르게 슬퍼보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셨다. 잠시 찻잔을 내려놓으신 채 생각에 잠기시다 이내 말을 꺼내셨다.

“그럼, 착하고 성실한 처자였는데”

눈가가 축축해지신 채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아주셨다. 따듯한 온기는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주었다.

“괜찮으시면 더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께서는 이 건물의 주인이셨다. 세 글자로 말하자면 ‘건물주’다. 빵집 사장님은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고. 월세를 내는 것도 늦은 적 한 번 없이 오래 일했는데 딸을 출산하다 사망했다. 그 딸이 잘 컸다면 지금 딱 학생 나이겠다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다.

“혹시 그 사장님 성함 아시나요?”

“기억하고말고, 나이를 먹어도 생생히 알지”

문득 침을 꿀꺽 삼켰다.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믿지 못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름이 강소원이었나?”

나는 그 말을 듣고 동공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내 말을 잊지 못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하염없이 눈물만 났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위시와 소원은 동일인물. 게다가 우리 엄마다.

“안 그래도 잘못 온 우편이 있는데, 반송하려다가 학생 줄게”

할머니께서 내게 ‘필요할 거 같아서’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우편에는 강소원이라는 이름 세 글자와 향이 안치된 곳의 분향사 주소가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와중에 할머니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손에 돈을 쥐어주시며 이 돈으로 차비도 하고 밥 값하면서 굶지 말라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학생도 늦었으니 얼른 가봐, 엄마 기다리시겠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실이고 내가 겪은 상황이 맞다면 제일 먼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늦은 밤, 분향사에서 안치된 이름을 찾던 도중, 자음 순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둘러 달려가보니 ‘강소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함을 찾았다.

함 옆 옆에는 1999년 17살 ‘송미와 함께’라는 문구와 내 옆에 똑같은 모습으로 있던 소원의 모습이 있었다.

2003년부터 선정된 제과제빵에서 안경을 쓰고 빵을 굽는 모습 그리고 환, 소원, 지안 우리 가족 사랑해라는 글을 보며 내 짝이었던 소원과 위시가 같은 사람이자, 엄마였다는 걸 깨닫게 됐다.

“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니 너무나도 부르고 싶었던 그 말 ‘엄마’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가슴 벅찬 일이었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내 편을 들어주고 도와준 사람이 엄마였다는 것

위시는 그때 소원에서 ‘죽은 사람은 못 살린다.’고 했지만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주신 사랑은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었다는 걸

“엄마...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요.”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려다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엄마에게 죄송했고, 만약 내가 커가는 모습을 봤다면 나보다 더 마음 아프셨을거라 생각하니 더 마음이 쓰였다. 여전히 분향사에는 답장이 오지 않는 메아리만이 적막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지안아.”

뒤를 돌아보니 소원이 있었다.

“소원아...”

눈을 비비니 그때 육교에서 나를 구해준 위시가 보였다. 안경을 벗으니 사진 속에서 봤던 엄마의 모습 그대로였다.

“엄마...”

누군가의 친구이자, 애인, 아내이자 나의 엄마인 소원은 나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잘 우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라며 괜히 자책하는 모습에 아니라며 부정했다.

“엄마가, 곁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해.”

소원은 사실 나를 낳아준 엄마였다. 도대체 어떤 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모르겠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아니예요 엄마, 혹시 제 짝이었던 소원이가 맞나요?”

엄마는 내 머리를 만지며 ‘우리 딸 힘든 와중에도 잘 커졌구나’라며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태교하면서 우리 딸이랑 빙수도 먹고 남산 타워도 가고 싶었는데 덕분에 엄마 소원도 성취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제가 다 죄송하고 잘못했어요.”

“아니야 우리 지안이 잘못된 거 없어.”

엄마는 내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했다. 우리 딸 처음 걸음마 하는 거 보고 자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싶었고. 유치원 운동회 때 ‘아빠 나는 왜 엄마가 없어?’라며 말했을 때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다는 것

중학생 때 첫 생리 시작했을 때 엄마가 곁에 없었음에도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침착하게 잘 이행해줘서 너무 대견하게 느껴졌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왕따 당할때는 김은영이 알미워서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었다는 말.

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어떻게 나를 살리게 됐는지 궁금해 물어봤다.

엄마 말로는 내가 죽으려던 찰나에 잡아 줄 수가 없어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신이 소원을 들어주신 건지 가능했다는 말.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해 주고 싶었는데, 그럴수록 목이 참 메여왔다고 내게 이해를 구했다. 내 돌잔치 때 꼭 생일 케이크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돌고 돌아서 이제야 해줘서 정말 미안했다는 이야기.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제 소원이 이뤄졌어요.”

그때 그 케이크는 엄마가 나를 태교하면서 하나 하나 사랑으로 구워낸 것이었다. 감히 어떤 브랜드에서도 볼 수 없던 모성애로 만들어진 작품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했다.

“엄마, 케이크 정말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아니야, 지안아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어느 덧 시간이 흘러 11시 59분을 알렸다. 이제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분명 내년에는 엄마의 기일이자 내 생일이 다가올테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이다.

**“지안아, 비록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여기에 없지만
우리 딸,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줘.”**

엄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시는 엄마를 직접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나도 애써 엄마를 잡으려고 소리 내 울었다.

“그게 엄마 소원이니까. 알겠지?”

나는 엄마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서둘러 소리쳤다. 엄마 걱정하는 일 만들지 않을테니 꼭 천국 가시라는 말은 온 눈물이 외치고 있었다.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생에도 꼭 제 엄마 해주세요.”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정말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내 존재는 곧 엄마의 존재가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는 걸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목숨 바쳐 지켜준 엄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하자 12시를 알리는 시계가 울렸다.

종소리와 함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안아도 꼭 엄마 딸로 와줘”

말이 끝나자마자 하얀 연기가 보이며 내 눈 앞에 있던 엄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향 앞에서 하염없이 소리 내 울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다 보니 어느 덧 지쳤다. 목도 마르고 쓰러진 와중에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안아!”

게슴츠레 눈을 떠서 겨우 확인해보니 아빠였다.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정말 잘 못했다며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아빠는 어제 자살하려 했다. 모아 놓은 돈을 다 내게 주겠다는 유서와 함께 목을 매달았다. 타는 듯한 고통이 자신을 삼키려던 그때 꿈에 엄마가 나왔다.

“우리 딸 외롭게 하지 말고 잘 부탁해, 여보”

엄마의 슬픈 모습에 놀란 아빠는 정신차려 보니 바닥에 있었다. 손 바닥의 감각은 여전했다. 꿈이 아니었던 것이다.

불현 듯 엄마가 있는 곳이 떠올라 급하게 향했더니 내가 쓰러져 있었다.

아빠의 목은 퐁퐁 동여맨 자국이 있었다. 나는 애써 정신을 차리며 아빠의 목을 어루만졌다.

아빠 역시 혼자 컸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신만 생각해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앞으로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눈물로 지냈던 밤이 지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문득 집에 오자 엄마의 함 속에 내 증명사진을 넣은 기억이 떠오른다.

덕분에 우리 가족 세 명이 함께 있게 돼 엄마의 소원도 이뤄졌다.

아빠에게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며 그동안 김은영과 얽여 있던 일들을 모두 말했다. 그 애들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리겠다는 걸 담임 선생님이 말리셨다. 교장 선생님께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른들의 개입은 학교폭력을 더 악화시키기 마련이었다.

내가 학교를 나오지 않은 날 반 아이들은 ‘김지안 자퇴하는 거 아니야?’라고 또 다시 새로운 가십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원래 나는 자퇴 생각이 아예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해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 커녕 더욱 영악하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졌다. 아빠도 기가 찬 나머지 집으로 돌아와 내게 물어보셨다.

“아빠는 우리 지안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모습은 더욱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정말 강경하게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다. 충분히 견딘 것 같으니 자퇴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자퇴는 당장 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달동안 학업중단숙려제를 쓰고 기한 이후에 복학을 할 것인지와 자퇴 중에 결정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도 없다고 느껴 나의 또 다른 소원은 ‘자퇴’로 결정났다. 내 인생이 망했다며 조롱하는 애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선생님께서는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개의치 않았다.

걱정과 달리 자퇴는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줬다. 학교 대신 꿈드림 센터를 다니며 검정고시 공부를 했다. 하고 싶었던 노래도 마음껏 불렀다.

문득 그때를 회상한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 죽거나 떠나야만 해결되는 상황이라는 게 참 야속하다.

부디,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끝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성인이 됐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오히려 자퇴를 하고 나니 내 걱정과 달리 별 거 아닌 일들의 연속이었다. 학교 밖에서 얻는 만족감은 훨씬 컸다.

유튜브에다 여러 가수 분들의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리다 우연히 한 소속사에 캐스팅돼 20살에 솔로로 데뷔했다. 프로듀서 분들의 여러 레퍼런스 곡들이 많았지만 첫 번째 데뷔 앨범은 ‘Wish’로 결정했다.

내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 꿈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엄마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또 축하도 인기와 비례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고 또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을 이뤄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사를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 적었다.

감히 바라지도 못했고 상상도 안 했지만 내 예상 외로 신인부터 엄청난 인기를 받았다. 여러 방송 섭외도 들어오고 내 이름 ‘지안’이 뉴스 헤드라인에 있다면 조회수가 크게 올랐다.

내가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글이 올라왔지만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 경찰서를 찾았고 작성자가 김은영이라는 걸 깨달았다.

김은영은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피해의식이라 몰아갔으면서 이제는 자기가 모든 피해를 다 받았다는 듯이 말을 꾸며냈다. 은영의 부모님은 내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부탁했고,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

두 번째 곡 ‘List’가 대박을 치자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다. 기꺼이 응했고 나를 존중해주시는 기자님 덕분에 대화 자체가 즐거웠다.

“학교폭력 인식이 높아진 만큼 가수 지안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나는 기자님의 눈을 마주치며 정성껏 답변을 했다.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기억입니다.”

기자님은 메모를 하시다 다시금 내게 물어보셨다.

“조심스럽게 여쭙보면, 지안씨도 학교폭력을 당하신 적 있나요?”

나는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일들을 간추렸다. 내 인터뷰는 말 그대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해외 예능쇼까지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 내 이름 ‘김지안’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다. 내가 사용한 제품은 하루 만에 판매가 완료되기 마련이라 입고를 기다려야 했다.

선배들 중에서도 나를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국민들도 내 노래를 빠짐없이 들 어주기 시작했다. 감정을 울리는 사람은 있어도 감동을 주는 사람은 적다며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됐다.

워낙 인터넷 플랫폼이 잘 되어 있던 터라 내 이야기는 10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줬다. 내 인터뷰 내용을 보며 ‘맞아 학교폭력은 나쁘지’ 라며 지지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화창한 오후의 어느 날, 한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야 김지안 인터뷰 봤어?” “말 진짜 잘하더라.”

내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언니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김지안이었다. 이제는 유명인이 된 나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커졌다.

특히 나의 메시지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도 빨리 알려지는 만큼, 언행의 신중함을 또 다시금 느꼈다.

하하호호 웃는 아이들 사이, 어울리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다.

“제 이름은 나 지안입니다. 저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또 다시 파리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또 다른 어딘가에 존재할 가해자들.

관심 가지며 점차 해소해야 하는 문제는 신경도 쓰지 못한 채 여전히 누군가는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융합소프트웨어학과

M23522 강인혁

정이재가 죽었다.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에 부고를 받았다. 정이재라는 이름은 멀어서 잡히지 않았다. 나는 정이재 옆에 쓰인 동문이라는 단어 덕분에 가까스로 기억해 낼 수 있었다. 나는 입가를 손으로 쓸었다. 정이재가 죽었구나. 정이재가 죽었어. 아니, 그럴 만하다. 정이재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집에 도착했으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문자 메시지가 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네, 부고 문자를 받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아, 경향이 없어서 제가 두서없이 보냈네요. 이재 누나 되는 사람입니다.

정이재는 누나가 있었다. 장례식장인지 주변이 소란했고 목소리가 지쳐있었다.

—이재 휴대폰을 보고 가족이나 가까워 보이는 지인들께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애가 가진 연락처가 많지 않아서. 혹시 이재와 연락하고 지내신 분이신가요?

십이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이재는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다. 정이재에게 나는 가까운 사람이었나. 아니면 지우기는 것이 귀찮거나 까먹은 것은 아닌가.

—연락하고 지낸 건 아니지만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기숙사도 같이 살았고.

—아, 그러셨구나. 혹시나 번호를 바꾼 분이 계실까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정이재의 누나는 지나가듯이 말했다. 정이재의 누나는 나에게 정이재가 남긴 말이 있는지, 정이재와 만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러하므로 나는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 나는 정이재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았다.

—교통사고였어요. 대학생 때부터 집에 연락을 안 하고 지냈지만 멀쩡히 잘 사는 애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나마 통화를 하고 지내서 바쁘니까 그러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찾는 사람이 있는지 정이재의 누나 쪽에서 전화를 끊었다. 나는 통화가 끊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죽은 사람의 누나의 연락처가 찍혀있었다. 사람이 죽어도 세상은 돌아갔다.

정이재는 대학생 시절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다. 정이재는 나보다 한 살 어리다는 이유로 고집스럽게 말을 놓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누가 보더라도 평범했다. 키는 평균쯤이었고 밖에서 어깨를 펴고 앞을 보며 걸었고 말할 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지 않고 또렷했다. 그런 정이재는 불면증을 가지고 있었다. 정이재는 서랍에 영양제를 항상 구비해 놓았다.. 무슨 비타민이냐고 물었더니,

—비타민이 아니고 L-트립토판이요. 잠이 잘 안 와서.

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흰색 캡슐을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과 함께 삼켰다. 정이재는 잘 때 몸을 자주 뒤척거렸다. 그 알약이 정이재의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줬는지는 알 수 없다.

기숙사는 학생들의 음주를 금지했고 발각되면 강제로 퇴사시켰는데, 호실에 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지 않았다. 가득 찬 분리수거 통에 찌그러진 맥주 캔이 쌓여있어도 그 또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나는 맥주 여섯 캔을 사서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들어와 치킨을 안주로 정이재와 방 안에서 마셨다. 버젓이 금기를 저지르자고 말해도 정이재는 별다른 반응 없이 자기는 탄산이 강하지 않은 걸로 사다 달라고 말했다. 선을 넘지 않는 유연한 악의. 나는 그런 정이재의 무던함을 좋아했다. 두 캔을 넘어서자 정이재는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자기 할 거 다 한다는 사실이 참 짜증 나고 가증스럽고 그래요. 나는 특하면 슬프고 쉽게 비참해지는데 세상은 정말 돌아간다는 게. 내가 아픈 게 내 탓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케어해줘야 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잖아.

—뭐야. 너 취했어?

—아냐. 저 멀쩡해요. 안 취했어.

캔에 맺힌 물방울을 손으로 닦으면서 정이재는 중얼거렸다. 내가 아는 정이재는 술이 췌다. 함께 간 개강총회에서 정이재는 남이 주는 소주를 넘죽넘죽 받아먹었고 두 발로 걸어서 기숙사에 돌아왔다. 먼저 뺏아서 점호 시간 전에 돌아오지 못할 뻔한 쪽은 나였다. 그런 정이재가

맥주 두 캔에 횡설수설했다. 배달시킨 치킨은 반 이상을 내가 먹었다. 정이재는 읊듯이 말했다.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친구처럼 막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려도 버려지지 않아. 그런 관계예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줘서 참 힘든데 그 사람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나는 그날의 상황이란 심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기억이 없대요. 나는 그런 게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말하니까 울면서 미안하대요. 웃긴 거는 기억이 없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텅 비어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 사람은 다 괜찮아진 줄 알아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 혼자 힘들어서 그냥 나한테 다 풀면서 살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냥 좀 이해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난리 칠 사안이나고 하더라고요. 무슨 마음인지 다 들통났어. 사실 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에 미안해야 했던 거야. 이거보다 더 허무한 게 있을까. 기대한 내가 순진해 빠진 거지.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다고. 정말 징그러운 세상이야. 정말로.

정이재는 침대에 걸터앉아서 맥주 캔을 매만졌다. 징그러운 세상이다. 이십 대의 정이재는 세상이 징그러운 모양이었다. 정이재의 세상은 젊음이 만끽할 수 있는 새로움이 가득한 이상향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정이재에게 달아나라고 했다. 버릴 수 없으면 네가 도망쳐라. 내 말에 정이재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가만히 숨을 쉬던 정이재는 남은 맥주 캔을 따서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리고 침대에 돌아누웠다. 반반씩 돈을 낸 치킨 한 마리는 결국 나 혼자서 다 먹었다.

나는 정이재의 마음을 이해해보려고 했다. 나는 새끼 때부터 쇠사슬로 발을 묶어서 기른 코끼리를 생각했다. 정이재는 코끼리였다. 평생 동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지금은 마음을 먹어도 몇 분 뒤면 허무함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경지. 정이재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벌게진 얼굴로 복도의 CCTV에 들키지 않게 캔은 찌그러뜨려 봉지에 싸서 버리고 치킨 박스는 접은 뒤 바깥의 분리수거함에 넣었다.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니 정이재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쪼르륵. 가만히 듣고 있으니 세면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샤워기 수도꼭지 소리 같기도 했다. 쪼르륵. 쪼르륵.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으나 정이재는 나오지 않았다. 이따금씩 두루마리 휴지를 끄는 소리가 났다. 쪼르륵. 드르륵. 탁. 많이 참은 모양이다. 이따금씩 코도 풀었다. 정이재는 내가 잠들 때까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이재와는 일 년을 같이 살고 다음 해에 각자 다른 관으로 배정받았다. 학기 초에 가끔 문자를 하다가 한 달이 지나자 그것도 끊겼다. 졸업을 하고 휴대폰을 바꾸니 연락처도 사라졌다. 졸업식 때 정이재는 생각나지 않았다. 일 년을 부대끼며 살았어도 얼굴을 안 보면 남이었다.

정이재가 말한 징그러움 속에는 세상의 불가항력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가. 징그러운 세

상이다. 떨어내려고 해도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 모기 따위의 그것.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불면증에 좋다는 영양제를 주문해 먹는 정이재는 자신이 행복하길 바랐으나 마침내 정이재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도 세상은 있었다. 정이재는 십이 년 전부터 체념하는 법을 깨우쳤다. 정이재는 진작에 알았다. 알면서도 정이재는 살았지만 갑자기 닥쳐온 죽음에 휩쓸려서 죽었다. 정이재의 죽음은 타살이었다. 징그러운 세상 속에서 살던 정이재는 세상 때문에 죽었다. 정이재의 누나는 정이재가 잘 살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안다. 정이재는 겨우 살았다. 그런 정이재는 눈먼 채로 달려드는 자동차 불빛을 보면서 생애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 정이재는 우울했으나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그랬다.

나는 최근 통화 기록에서 정이재의 누나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지웠다. 정이재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데 장례식장에서 정이재의 사진을 보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이십 대의 정이재는 삼십 대의 나와, 산다는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도망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간신히 사는 것. 십이 년 전 정이재는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정이재. 맥주 두 캔에 못 이기는 척 개인사를 토로해 버리던 젊은 날의 쓸쓸함 같은 이름.

정이재가 죽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부고 문자를 받았다.

우주라는 꽃밭의 아이

융합신소재공학전공

20206639 정충민

1 고독한 비행

내가 어릴 적 아버지가 텔레비전으로 보시던 영화가 떠올랐다.

하얀 우주복을 입은 남자주인공은 여자주인공을 살리기 위해 서로의 우주선을 분리시킨다. 남자 주인공의 착잡한 표정과 여자 주인공의 놀란 표정이 교차한다. 남자 주인공이 빛을 집어삼키는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고 과거를 마주하는 극적인 연출이 이어진다. 그 영화에는 야구장과 옥수수밭, NASA의 연구소도 등장했었다. 왜 그들이 떠나야 했는지 알 수 없었고, 안다고 한들 공감할 수 없으리라 여겼다.

나는 지구가 아닌 우주선에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검고 칙칙 같은 우주 말이다. 별이 점점이 박히고, 아름다운 성운이 가끔 눈에 띄기도 했다.

계획된 항로대로 우주선이 나아간다면 정확히 이틀하고 세 시간 뒤에 물이 존재하는 외계의 행성에 착륙할 것이었다. 과거에 닐 암스트롱이 그랬듯 내가 그 행성에 첫 번째 인류의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아무에게도 기쁨을 공유하지 못할 터였다. 우주선 안에는 나 말고 다른 인간이 없었기에 늘 외로웠다. 몸에 힘을 빼고 아무 장애물 없이 통로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우주선의 머리 쪽에는 통제실이 있었다. 사방에 특수 제작된 유리창이 달려있었으므로 나를 에워싼 우주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듯 우주선에서 미지의 행성을 응시한다. 푸른색의 점으로 보이는 것이 지구처럼 바다가 태반인 듯했다. 냉동상태에서 깨어나고 처음 행성을 목도했을 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이란 그럴 때 쓰는 단어일 테다.

통제실의 스피커로 익숙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E-브라운 행성까지 2일 1시간 남았습니다.”

우주선을 통제하고 있는 인공지능인 ‘허블’이었다. 항공의 모든 것에는 우주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을 기념으로 붙이게 되어있었다. 허블은 허블-르메트르 법칙을 논문에 실어 발표했고, 행성에 붙은 브라운은 로켓 공학의 아버지에게서 따왔다. 브라운 행성의 위성인 베테는 수소 핵융합을 정립한 ‘한스 베테’로부터 가져왔다.

<E-브라운 행성에서 인류가 풍족히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할 것.>

회의실 속 연구소장님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기억나지만 그는 분명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령을 직접 읽어준 것이 그였기 때문이다. ‘우라노스’호의 승조원은 혼자였으므로 벅찬 격려가 나에게 쏟아졌다. 태어나서 두 번째로 느끼는 커다란 축복이었다. 내가 지구로 살아서 돌아간다면(지구가 정상적으로 남아있다면)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다.

탐사 기간은 왕복으로 계산하여 총 107년이 소요된다. 지구(특히 미국)의 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말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일지에 남김으로써 여백을 사용하고 싶진 않았다. 모든 신경이 잠든 냉동상태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메일로 수신됐었

었다. 예정된 일이었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다. 지구에서 광속으로 비행한 지 벌써 30년은 족히 지났을 것이다. 그 말인즉 메시지도 30년의 시간을 거쳐 수신된다. 앞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올 확률은 낮은 것이다.

함께 연구에 임했던 동료들도 비슷한 시기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게 전부였다.

한국 출신 천체물리학자인 한 씨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고, 관제센터에서 근무 중이었을 바이올렛은 매일 같이 우주선의 경로를 살피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을 남겼다. 수학자인 프랭크는 자신이 새로이 발견한 공식을 다루는 긴 글을 풀어냈다. 다른 메시지도 하나같이 자신의 상태를 알려왔다. 내가 떠날 때 차량의 공무니를 쫓아올 정도로 나를 따랐던 반려견인 로보의 죽음에 가슴이 크게 동요하기도 했다. 여동생의 출산에 기쁘기도 했다. 아직 지구는 살아 숨 쉰다. 그곳엔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랐다.

브라운 행성으로부터 대략 1억 7천만 킬로미터쯤 떨어진 S-르메트르(편의상 태양이라고 칭하겠다)는 열렬한 용광로에 가까운 항성이었다. 태양계의 태양보다 더 커다랗고 눈부시게 밝았다.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항성이 우주 이곳저곳에 있으며 그들을 수용하는 은하가 또 다시 사방에 퍼져있다. 인간이 떠안기에 우주는 너무나도 막대하고 하염없이 영원하다. 그러나 지구에 살다 보면 이를 망각하고 소우주에서 나오질 못할 때가 있다. 너무나도 슬프고 화가 나고 기운이 없다면 고개 들어 하늘을 보라고 조언하라. 우주는 늘 당신을 관대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이 맡은 바 살아가는 것이다. 방대한 우주 속에서 고대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 틀려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미래가 정답을 바로 고쳐줄 것이니 당신의 몫은 그저 생각하는 것뿐이다. 우주에게 우린 어린 아이다.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무엇이든 받아준다. 가끔은 엄하게 통제한다.

한동안 태양을 눈에 담으며 미리 녹음한 클래식 음악을 청취했다. 피아노, 바이올린 소리가 하나같이 아름다웠고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무르게 만드는 무언의 언어다. 선율이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창문에 기대어 머나먼 우주에서 반짝이는 점을 확인했다. 그것은 중성자별이었고, 흑자는 '우주의 등대'라고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중성자별의 반짝이는 일정한 주기를 기준삼아 위치를 측정하고 항해해 나아가는 바였다. 여가시간에는 지구에서 직접 챙겨온 찢 베른의『지구에서 달까지』를 낭독하곤 했다.

2 새로운 세계

희망찬 눈빛으로 쉴 틈 없이 두리번거렸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진작가처럼 모든 것을 눈과 이미지 데이터에 담으려 애썼다. 헬멧에 탑재된 허블이 어서 전진하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수상한 숲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 대기 중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는 안전 수치였고, 다양한 형태로 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잎의 위는 초록색이지만 아래는 보라색이라던가, 나뭇가지보다 나뭇잎이 크다던가, 기이하고 신비한 세계였다.

착륙 이후 탐사를 진행하고자 우주복을 입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압력 통제실 안에서 기다렸었다. 선내와 행성의 기압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필수적인 절차였다.

레이저로 미리 행성을 스캔 한 허블의 안내를 따라 효율적이고 안전한 길목을 걸었다. 선내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더라면 3킬로미터도 힘들었을 것이다. 체감 상 지구보다 브라운 행성의 중력이 2분의 1배 정도 더 강했다. 나무의 크기가 지구보다 작은 것은 중력의 영향일

것이였다.

우주복에는 무게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도 있었으므로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을 놀릴 수 있었다. 한 개의 산을 넘어 비탈을 내려가는데 널따란 평원 너머 문득 윤슬이 반짝였다. 어서 무엇인지 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멧돼지와 사슴을 닮은 짐승의 시선이 나를 따라 움직였다. 그들에게 캔스레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를 만나지 못했다.

이는 굉장히 극단적인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인류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거나 어딘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의 인류를 이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원주민이 없는 것이 좋을 터다. 역사는 늘 시사한다. 원주민과 침략자의 대립에는 피가 마른 적이 없다.

시간이 흘러 하마터면 헬멧을 벗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눈앞에 바다같이 드넓은 호수가 나타난 것이다. 속삭이는 잔잔한 바람에 물결이 간지럽다며 너울거리고, 맑디맑은 물속에는 조그맣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잔뜩 새겨진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 태양이 지면 하늘의 별들이 일제히 호수에 들어갔고 야밤에 눈을 뜬 새들이 합창했다. 꼬꼬리와 나이팅게일처럼 노래를 부를 줄 알았다. 낮보다 밤의 풍경이 멋진 행성이였다.

밤에는 곧 하늘이 바다였다.

브라운 행성의 바다는 지구의 해양보다 파도가 거칠었다. 잠수하기에 안전하지 못했고 폭풍우가 부는 날에는 몸집이 커다란 괴물이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졌다. 검은 그림자로만 녀석을 보았기에 정확히 어떤 동물이라고 명칭 하기 어려웠다. 너무나도 커다라서 심장이 덜컥 떨어질 만큼 두려움을 자아냈다. 한 쌍의 지느러미와 넓게 벌어진 꼬리가 명확했었다. 『모비딕』의 겁 많은 선원들이 처음 하얀 고래를 보았을 때 느낀 공포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들이 지나고, 우주선에 내장된 차량에 탑승해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 보았다.

중간에 야영을 하면서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길이 7200킬로미터의 높다란 바위 산맥을 마주했다. 북아메리카의 로키산맥, 한반도의 태백산맥,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보다 더 길고 넓었다. 허블은 이를 막장산맥이라고 칭할 것을 제안했다. 막장에 해당하는 산맥이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막장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의 산맥이라고 기록했다.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연상하며 지은 것이다.

지구의 연구소에 있던 시절에는 주로 재료공학자로서 근무했었다. 재료와 강도와 활용 등을 연구하는 공학자 말이다. 희망산맥의 동굴에서 탄소섬유처럼 가볍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광석을 발견하여 일부를 채집했다. 황금처럼 귀금속에 해당하는 것처럼 쉽사리 볼 수 없었다. 대신 화산이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화강암과 현무암이 흔히 있었고, 석회암과 규산염 등도 널리 분포했다. 이들은 지구의 가족으로서 나를 여러 곳에서 반기는 듯했다. 연구와 소풍을 적당히 누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정해진 여섯 달이 지났다. 지령에 대한 응답을 미리 입력했다.

아직 지구까지 갈 시간이 많았다. 브라운 행성의 시간이 지구의 시간보다 느려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다. 과거에 후회해선 안 된다. 지구에서 굳힌 다짐을 이루고자 원해서 온 것이니까. 하늘의 베테와 르메트르가 한 번씩 번갈아 뜨고 지니 우주선은 대기권을 뚫고 올랐다.

브라운의 바다에서 본 의문의 괴물처럼 힘차고 비밀스럽게!

3 달에서 머나먼 우주까지

달처럼 공허한 심정으로 인생이 빙글빙글 도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사회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지구이며 자신은 얼어붙은 달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한때 그랬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동안 외딴 시골의 천문대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천체망원경을 점검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때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새로운 세계를 느낄 수 있었다. 혼자 남아 공부를 하곤 했었고, 에드윈 허블이나 조셀린 벨 버넬처럼 우주의 원리를 최초로 깨닫고 싶었다. 좀처럼 새로운 발견은 할 수 없었고, 홀로 작성한 논문을 읽어주는 이도 없이 허구한 세월이 흘렀다.

봄이 찾아온 여느 해, 춘계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연이 닿았다. 그녀의 이름은 바이올렛, 나와 같이 물리학을 전공한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과학자였다. 당일 내가 발표한 <블랙홀을 이용한 시간 여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흥미를 느꼈다며 말을 건넸었다.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아끼는 분야였었다. 나는 반대로 그녀가 발표한 논문에 대해 물었다.

“달의 남극에 정말 생명체가 살고 있나요? 아직 한국에선 달에 대해 진전이 없어요.”

“NASA도 크게 진전은 없지만 언젠간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대학원에 있을 때 우주에 인류 외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확률을 구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교수님과 동기들은 모두 비웃었지만요.”

“설마 당신이 그 대학원생이라고요? 저는 그 논문에 아주 큰 관심이 있거든요. 제 남편인 존이 인용하기도 했어요. 그는 달에 반드시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남자죠. 혹시 이번 겨울에 NASA에 와보실 생각 없으세요? 장담은 못 하지만 연구소장님과 면담을 하게끔 이어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당연히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 오는 겨울에 텍사스 휴스턴에 발자국을 찍을 수 있었다.

바이올렛과 같은 연구실을 쓰면서 유쾌한 나날을 보냈다. 새로운 공학자와 과학자를 만나 논의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었다. 나는 재료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등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 서른네 살이 되던 생일날, 바이올렛은 내 사무실 책상을 왕치고 외쳤다.

“네가 관찰한 새로운 지구가 이번 유인 탐사 계획에 선정됐어! 상부에서 가설로 내세운 생명체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어. 이건 기적이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 여기고 그럴 리 없다고 응했다. 그녀는 그것을 짐작이라도 한 듯 나에게 서류봉투를 던졌다. 여러 행성 중 유일하게 도장이 찍힌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두 눈을 땔 수 없었고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천문대에서 그 자리까지 오는데 들인 모든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가 눈물이 맺혔다.

며칠이 지나 브라운 행성이 선정되도록 강하게 주장을 펼친 이들의 명단을 열람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바이올렛 부부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새겨져 있었다.

당장 그녀와 남편에게 찾아가 말했다.

“왜 당신들은 더 가능성이 높다는 행성에 투표하지 않고 제가 제안한 행성에 동의한 겁니까? 심지어 두 사람이 제안한 행성도 후보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행성에 투표했어요. 누구나 이기적인 거잖아요.”

바이올렛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측하는 것 같았다. 귀엽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대신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래, 한순간 이기적일 순 있지. 누구나 그런 때가 있는 법이야. 하지만 우린 과학자이고 동료야. 확실하면서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애정 하지. 네가 몰래 이 행성을 후보에 올린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았니? 그랬다면 우린 전적으로 널 믿고 그 행성에 대해 떠들어댔을 거야.”

타지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다. 그 순간, 뼈에 다짐 하나가 각인되었다.

내가 직접 우주로 나가 증명하리라고.

우주비행사 프로젝트에 멋모르고 참가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비행기에서 무중력을 체험할 때 친구 하나가 공중에 구토를 하는 바람에 옷이 젖었고, 바하마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가 전갈에 물려 이 주 동안 훈련에서 열외 된 적도 있었다.

우주선에 오르기 전 연구소장과 자주 대면했다. 그는 나의 능력을 몰라보았다며 이제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자주 말했다. 나는 첨단 기술과 함께하는 단 한 명뿐인 우주비행사로 뽑힐 수 있었다. 이제 난 차가운 달이 아니었다. 광활한 우주로 떠나는 한 명의 열정적인 인간이었다.

이것은 내가 지구를 떠나며 했던 말이다.

어릴 적부터 우주를 꿈꾸었고, 이제라도 이루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우주로 나아가 새로운 희망을 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기롭게 돌아오는 날, 반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니까요. 모두가 꿈꾸는 한 운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 지금 제 눈앞에 시커먼 우주가 보여요! 아, 이것이 우주로구나!

비평 부문

[최우수상]

조개껍데기로 살아갈 용기

국어국문학전공
20221062 우지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이누도 잇신 감독이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개봉된 이후 지금까지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오히려 소설 원작보다 더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필자는 원작보다 영화가 더 큰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궁금해졌고, 영화의 제목처럼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모두 알게 되었다. 먼저, 영화로 제작된 내용이 원작 소설보다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결말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말로 막을 내린다. 시간이 흘러도 이 영화를 잊지 못하는 독자들은 담담한 어조로 풀어내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영화는 언덕에서 달려 내려오는 유모차 안에 타 있던 조제와 언덕으로 오르고 있던 츠네오가 부딪히면서 전개가 시작된다. 이때, 조제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여성이고, 츠네오는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남성이다. 그리고 조제의 곁에는 늘 그녀를 보호하며,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다. 조제의 할머니는 조제와 외출할 때면 그녀를 유모차 안에 숨겨 동행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조제가 타고 있던 유모차와 츠네오가 부딪히는 순간에도 조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노출될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할머니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조제를 숨기고 싶어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츠네오는 조제를 유별난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극복하고 둘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다.

조제가 바라보는 세상의 크기

조제는 그동안 할머니가 이끄는 유모차에만 의존해서 세상밖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조제에게 허용된 세상은 폭이 좁았다. 할머니는 장애가 있는 조제를 숨겨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조제를 데리고 나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조제를 볼 수 없도록 담요들로 칭칭 가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제가 볼 수 있는 세상도 제한되었다. 조제는 지금까지 눈을 뜨고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츠네오는 조제의 할머니와는 달리 장애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조제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있는 힘껏 밀며 함께 달렸다. 비로소 사진처럼 멈춰있던 프레임은 츠네오가 달리는 속도와 동시에 영상으로 움직인다. 이는 영화 속에서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짧게 멈춰서 보여주는 기법을 통해 조제가 그동안 바라보던 세상이 정적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현재는 츠네오를 만남으로서 구름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여주며 그녀의 세상이 유동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츠네오로 인하여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그녀는 더는 세상이 정적으로 멈춰있지 않음을 느낀다.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제야 움직이게 된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조제는 구름마저 신기하게 느끼고는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제에게 츠네오란 자신의 세상을 넓혀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츠네오의 등장으로 조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크기가 넓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며 필자는 조제의 마음의 창과 같은 프레임이 움직이는 순간 몽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2. 방향의 연출

우리는 살아갈 때 보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방향이라고 한다. 그리고 역방향을 향해 가게 되면, 어딘가 불편하고, 잘못된 듯한 느낌을 받고는 한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러한 방향에 따른 심리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대부분 장면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흐르는 정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츠네오가 조제를 태운 유모차를 있는 힘껏 밀며 달려가는 장면과 둘이 함께 바다를 보러 여행을 가는 장면에서만 다른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역방향이 제시된 장면이 담아내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일까.

츠네오가 조제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함께 달릴 때, 우리는 함께 그들을 얹매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유모차가 넘어지지 않는 불안감이 조성된다. 우리의 걱정처럼 유모차는 넘어지게 되고, 츠네오는 언덕에서 구르고 만다. 이 모습들마저도 다소 가벼운 일화로 생각되지만, 다음에 이 장면은 그들의 관계에 복선이 된다. 두 번째 장면으로 츠네오와 조제가 바다로 떠날 때도 방향은 역방향으로 제시된다. 역방향이 의미하는 것은 둘이 항상 현실적인 요소들을 거슬러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징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둘은 위태로운 만남을 이어간다.

그리고 결말 부분인 조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에서는 다시 정방향으로 돌아오고 만다. 그들은 모든 요소를 거스른 채 사랑했지만, 다시 각자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제와 츠네오는 각자로 존재함으로써 더는 불안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3. 장애인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영화는 사랑과 이별을 말하기도 하지만, 작품의 가장 큰 모티브는 장애일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렇듯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 조제의 장애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먼저, 그녀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느꼈을 보편적인 시선을 제공해주는 첫 번째 인물은 그녀의 할머니이다. 그녀의 할머니는 밖을 나갈 때면 늘 커다란 유모차 속에 조제를 넣고, 동네 사람들이 조제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다 우연히 조제의 유모차와 츠네오가 부딪히면서 조제가 세상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도 할머니는 츠네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낯뜨겁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조제와 츠네오의 사이가 부쩍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도 할머니는 조제에게 분개하며,

강력하게 경고한다.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망가진 몸이야! 망가진 몸에는 망가진 몸으로서의 분수가 있는 거야!”라고 말이다. 이 말에 담겨있는 할머니의 속내는 조제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보통의 삶을 누리길 원했다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의 할머니는 그동안 조제가 받아온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를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할머니의 행동은 오히려 조제의 자립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나이가 점차 들어가고, 언젠가 조제의 곁을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조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 그녀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 자연스레 세상과의 접촉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할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조제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녀의 삶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그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본인의 삶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더 이상 그녀의 세계를 옥죄이다 못해, 세상과 단절시키는 행동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삶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물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또한, 할머니의 행동은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으로부터 조제를 지키고자 한 행동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향해 할머니와 같은 시선을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은 카나에이다. 그녀는 츠네오와 연인이 될 뻔했던 인물로서 조제의 장애를 더욱 강조시키는 인물이다. 그녀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여대생이다.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그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신과 연애했 것으로 생각했던 츠네오가 조제와 사귀게 되자, 그녀는 조제를 찾아가 뺨을 때리며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 주제에 내 남자친구를 빼앗다니, 뭐하자는 거야?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라고 말이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그녀 역시 자신의 상황에 장애인이 개입되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즉, 그녀도 장애인을 향한 차별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을 향한 폭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조제를 향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그녀의 불편한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동네 사람들부터 그녀의 장애를 못 본 척 애써 시선을 거두려 노력하는 호텔 종업원까지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 어느 쪽도 조제를 장애인이라는 수식 없이 바라봐주는 인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그녀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애써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닌 그녀가 원래 태어난 그 자체로 바라봐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을 대놓고 행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닌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사실도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너무나 선명하고 아프게 느껴진다.

조제의 장애에 관해 차별적인 시선을 갖지 않는 첫 번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츠네오일 것이다. 그는 조제를 바라보면서 조제의 장애가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두 각자 하나씩의 결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츠네오가 바라보는 조제는 외출할 때만 제약이 있을 뿐, 집 안에서는 자신만의 요령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츠네오는 조제의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도움을 줄 뿐이다. 츠네오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재료들로 조제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든다. 그것들은 조제가 이동하는 것에 도움을 줄 지팡이와 조제가 ‘롤러스케이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츠네오는 조제의 불편함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게 된다.

4. 영화의 모티프

- 유모차와 휠체어의 의미

이 영화에는 다양한 모티프가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유모차와 휠체어는 조제의 삶을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조제가 츠네오를 만나기 전과 후로 삶이 바뀐 것처럼 말이다. 먼저, 유모차는 조제와 츠네오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유모차와 츠네오가 충돌하게 되면서 영화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조제는 늘 유모차 속에 담겨 다니면서도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다. 유모차 속에 들어있는 정체를 알기 위해서 유모차를 억지로 들춰보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던 그녀이지만, 그녀 역시 세상 밖이 궁금했던 인물이다. 할머니가 아무리 그녀를 숨기려고 해도 그녀는 항상 구름이 움직이는 하늘을 궁금해했다. 그런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면서도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수단이 바로 유모차이다.

휠체어 또한, 유모차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세상과 가까워지게 해주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그러나 휠체어는 조제에게 유모차와 다른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휠체어는 스스로 움직여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누군가가 밀어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모차와는 차이가 있다. 휠체어는 유모차보다 자립성을 요구하는 보조도구로써 존재한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조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힘이 나게 한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할머니는 조제를 유모차에 태울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태워줬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들게 한다. 할머니가 조제를 유모차 속에 태워서 다녔던 날들이 조제를 더욱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5.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의미

우리가 지금까지 ‘조제’로 알았던 여주인공의 이름은 사실 ‘쿠미코’이다. ‘조제’라는 이름은 ‘쿠미코’ 본인이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다. 그녀는 할머니가 집으로 가져다주는 소설을 읽고, 그러다 우연히 한 프랑스 소설을 접하게 된다. 프랑스 소설 속에서는 히로인을 조제라고 부르고는 하였다. 이것을 본 ‘쿠미코’는 오늘부터 본인도 ‘조제’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조제’로 불리며 살기를 결심하면서 바라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포부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에 따라 개인의 인격을 부여받는다. 조제 역시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단언하고, 이로써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투영되어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쿠미코’로 살아온 지금까지는 장애인으로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아온 삶이었다면, ‘조제’가 된 지금부터는 삶의 주체를 자신으로 설정하고, 이전보다 능동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녀는 ‘조제’로 이름을 바꾸고 난 순간부터는 무언가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을 느낀다. 앞으로의 삶이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는 그녀의 소망과 함께 말이다. 그리고 일어난 좋은 일은 츠네오라는 존재의 등장인 것이다. 그녀는 츠네오에게 자신을 ‘조제’라고 칭하며, 소설 속 히로인과 같은 인격을 부여받는 느낌을 받는다. 즉, 그녀는 ‘쿠미코’에서 ‘조제’가 된 후 츠네오에게 있어서 히로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조제가 꿈꿔왔던 소원 중 다른 하나는 바로 호랑이를 보는 것이다. 그녀는 츠네오의 곁에서 그가 아니었다면 평생 볼 수 없었을지 모를 호랑이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제일 무서운 것을 보고 싶었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그런 사람이 생기면 호랑이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만약 생기지 않는다면 평생 진짜 호랑이는 볼 수 없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라고 말이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혼자서라면 볼 수 없었던 호랑이를 츠네오라는 존재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조제는 이제 그토록 바라던 소원 중 하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제가 호랑이를 보고 싶어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보는 것을 소망했던 것일까. 조제가 ‘호랑이’만을 보기 원했던 이유는 바로 ‘호랑이’가 그녀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조제가 ‘무서운 것’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존재였고, 조제에게 호랑이란 장애인으로서 받아온 차별과 폭력들을 의미한다. 즉, 그녀가 오로지 감당해야 했던 차별적인 시선들도 포함된다. 이것들은 그녀의 삶이 츠네오를 만나고 난 후, 이전보다 주체적으로 바뀌었어도 계속 존재했다. 또한, 츠네오의 도움 덕분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계속 두려워해 온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조제는 츠네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일 무서운 것을 보고 싶었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무서워도 기댈 수 있으니까”라고 말이다. 조제는 츠네오와 함께 함으로써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차별적인 시선에 대항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츠네오와 함께라면, 세상의 시선 따위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제는 더는 자신을 향한 온갖 차별적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에 해당하는 의미는 조제가 직접 언급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제와 츠네오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조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죽은 것이 되었다고 말이다. 죽은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제는 츠네오와 자신이 물고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조제가 말하는 ‘죽은 것’과 ‘물고기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조제와 츠네오는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츠네오는 차마 자신의 집안에 조제를 소개하기 주저

한다. 그들은 동거하며 사실혼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만이 그들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어떠한 사회적인 통념과 문화적인 요소에 관여하지 않은 채 말이다. 즉, ‘물고기들’이라는 것은 ‘물고기들’이 되어야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깊은 해저 속에 서만 평온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물고기들’과 자신들을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제에게 ‘죽음’은 ‘행복’과 직결된다. ‘죽음’과 ‘행복’을 같은 선상에 두고 바라보는 것이 보통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녀는 행복을 느낄 때,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완전무결한 행복은 죽음 그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조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언젠가 네가 사라지고 나면 난 길 잃은 조개껍데기처럼 혼자 깊은 해저에서 데굴데굴 굴러다니겠지. 그것도 그런대로 괜찮아.”라고 말하는 조제를 보며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녀가 ‘물고기들’이 아닌 ‘조개껍데기’여도 일상을 담담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말이다. 그녀가 츠네오와 이별을 하더라도 독립적이고 완전한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다.

즉,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나, 두려운 세상과 나의 세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제는 츠네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다. 츠네오는 단순히 그녀를 조제라고 부르는 것이어도 조제에게 이름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봐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러면서 조제는 츠네오에게 한 가지를 더 바라고 있다. 함께 호랑이를 보러 가자고 말이다. 즉, 함께 하며 뛰어넘어야 하는 여러 장애물을 같이 넘어달라는 의미이다. 조제는 그들에게 앞으로 온갖 차별과 현실이 매섭게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하고 사랑하자고 말하고 있다.

6. 서로에 의해 변화되는 캐릭터

먼저, 츠네오의 일생을 지켜보면, 그에게 이성이란 밥을 먹는 행위와 같은 의미였다. 작품 속에서 츠네오는 음식을 먹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식은 스파게티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먹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에게 이성은 그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같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음식뿐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성들도 크게 마다한 적이 없었다.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여성들과 만남을 즐겼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에도 큰 슬픔을 느끼지 않던 츠네오였다. 그랬던 그에게 조제라는 존재가 생겼고, 그에게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츠네오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을 갖지 않았기 때 문일 수도 있지만, 그는 조제가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조제와 헤어지고 난 후,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 했지만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만다. 그에게 조제는 주변 여자 중에서 가장 강하고,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여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츠네오는 조제와 헤어지더라도 그녀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지금껏 그래왔듯 헤어지고도 친구로 남는 연인이 있었지만, 조제와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조제를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제 역시 츠네오로 인하여 그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츠네오가 만들어준 도구

들 덕분에 집 밖을 나가보기도 하고, 그녀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호랑이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츠네오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조제는 츠네오가 없어도 혼자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자립하게 되었다. 그녀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호텔에서 츠네오에게 말했듯이 츠네오와의 이별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헤어짐이 있으면 새로운 만남이 있는 삶을 당연히 반복해온 츠네오와는 달리 조제에게는 츠네오의 존재가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제는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츠네오에게 의지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제에게 츠네오가 없는 삶은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제는 이별한 후, 둘의 이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행동한다. 조제는 츠네오와 만나게 된 순간부터 그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을 것이다. 조제는 츠네오의 도움 덕분에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다시는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다짐해왔을 것이다.

7. 원작과는 다른 결말

원작 소설에서는 조제와 츠네오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결말로 그렸다. 그러나 영화로 제작된 결말은 결국, 조제와 츠네오가 이별을 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원작 소설보다 영화의 결말이 여운을 더욱 길게 남겨준다고 생각했다. 조제와 츠네오의 이별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각자 결말을 알면서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조제와 츠네오에게는 두 사람의 이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둘은 끝내 이별했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독자들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현실의 사랑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갈 리는 없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덤덤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우리를 눈물짓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별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제와 츠네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초반까지는 조제의 장애가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다.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츠네오는 조제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내가 조제의 몫까지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츠네오는 점차 지쳐 갔다. 조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았기에 그것이 그를 숨 막히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츠네오의 남동생은 츠네오에게 이런 말을 건넨다. “형, 지쳤어?”라고 말이다. 이 물음을 듣는 동시에 필자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그동안 모른 척해왔지만,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츠네오가 초반에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일찍 지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구라도 츠네오의 상황이 되어 본다면 그와 같게 행동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그를 보며 조제는 오래전부터 그가 도망칠 순간을 기약해두고 있었을 것이다. 츠네오는 순간의 감정으로 미래의 모습을 자신했다. 마치 시간이 흘러도 사랑이, 자신의 마음이 변할 리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와 달리 조제는 오래전부터 이별을 준비했을 수밖에 없었다. 조제는 장애인으로 살아오며 오래전부터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보통의 삶을 사는 것을 바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왔을 테니까 말이다. 조제는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 처음부터 혼자였으니까.”라고

말한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조제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츠네오를 사랑했고, 끝내 이별한 것이다.

츠네오는 둘의 이별이 본인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담백한 이별이었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지만, 사실은 단 하나, 본인이 도망친 탓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츠네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것이며, 그가 회피한 것들을 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님께 제사에 불참한다고 알리고, 조제를 끌어안던 츠네오의 마음을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이별이 존재하고, 이렇게 담백한 이별도 존재할 것이다.

8.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을 소재로 한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장애인의 성이나 사랑을 주제로 삼는 것을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람들의 내면에 장애인은 ‘무성애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내재하여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차별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제와 츠네오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을 무성애자로 바라보는 편견 하나를 지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차별은 조제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모든 차별은 장애인으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조제는 그녀의 할머니나 동네 사람으로부터 고통받는다. 그들은 모두 그녀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자 그녀의 주변 인물들이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사실이다. 사람들은 장애인의 스트레스가 자신의 장애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전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장애인에 대한 두 번째 편견까지 해소한 셈이다.

필자는 조제와 츠네오의 사랑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어떤 작품을 봐도 주인공들의 서사를 이토록 응원하지는 않았다. 영화가 시작된 초반부터 조제와 츠네오의 만남에는 여러 방해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그러나 조제와 츠네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랑을 이어 갔다. 필자는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모두 뒤로 하고 사랑하는 둘을 보며, 둘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영화의 결말은 그러지 못했다. 둘에게도 이별은 찾아 왔고, 조제와 츠네오는 오히려 필자보다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둘의 이별이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결말이라서 모두의 마음을 울리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이별을 겪게 되어도 묵묵히 살아내고, 계속되는 일상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아픔은 뒤로한 채, 또 다가오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의 삶 아니던가.

또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착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결말이라 좋았다. 사랑은 정말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사랑이 변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며 받은 상처도 시간 앞에서 잊혀 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간 앞에서 속절없이 흐르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거대한 시간 속에서 함께 발자취를 남기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기에 앞

으로 나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조제를 통해서 배웠듯이 말이다.

조제는 츠네오를 만나고 난 후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조제는 츠네오 덕분에 홀로서기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츠네오 역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니 조제와의 만남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츠네오와 이별한 후, 조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록 그녀의 뒷모습이지만, 필자는 그녀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의 날들을 잘 살아낼 것이라는 단호함을 말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더는 이 영화를 보고 마음이 아픈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또한, 영화의 결말에서 보여주는 조제의 뒷모습이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우리는 조제이기도 하고, 츠네오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우리 모두 조제처럼 결함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며, 불안정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슬픈 여운이 가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다시 찾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일 본 영화만의 관조적인 연출을 하며, 억지로 신파를 주입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필자는 이 영화를 다시 볼 때마다 조제와 츠네오에게 동화될 정도의 몰입을 한다. 그리고 또다시 영화의 결말을 맞이한 후 어딘가 모르게 씁쓸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도 이 영화를 다시 보는 이유를 묻는다면, ‘추억’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추억을 떠올릴 때면, 아팠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즐거웠던 기억들도 떠올린다. 그러므로 그 기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더불어 그 기억들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것이 힘들어도 추억을 다시 재회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 영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제와 츠네오는 함께 ‘호랑이’를 보는 건 이뤘지만, ‘물고기’는 끝내 보지 못 했다. 그러나 함께 ‘호랑이’를 본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세상을 넓혀준 사람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둘은 어느 곳에 있든 서로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끝내 ‘물고기’를 볼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끝내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삶을 탓하지 말기를 기도한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부 핑계가 된다고 해도 말이다. 그것이 핑계가 맞더라도 우리는 계속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 또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일 것이다.

[우수상]

용기에는 책임과 풍자가 뒤따른다
<돈 룩 업> 비평문

국어국문학전공
20191093 정원화

I. 서론

<돈 룩 업>(2021)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디비아스키 혜성을 발견한 두 천문학자가 사고를 막기 위해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을 풍자를 통해 묘사한 블랙코미디 영화이다. <돈 룩 업>의 감독 ‘아담 맥케이’는 사회, 환경, 정치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사회를 향한 그의 관심과 주목은 곧 그의 작품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빅쇼트>, 기업가이자 제46대 미국 부통령 딉 체니의 생애를 그린 블랙코미디 전기영화 <바이스>가 그의 주요 작품이다. 위의 작품을 비롯하여, <돈 룩 업> 역시도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아담 맥케이의 시선이 담겨있다.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수도 있는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상황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혜성을 목격한 민디 교수와 천문학자들은 백악관을 찾아간다. 그러나 대통령 올린과 비서실장인 올린의 아들은 혜성의 소식에는 무관심하다. 당장 눈앞에 놓인 자신의 지지율, 자신을 둘러싼 인사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 혜성의 지구 접근 소식을 다룬 뉴스가 이후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는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더 가져갈지, 지지율을 어떻게 높일지만 생각한다. 이처럼, 한 국가의 대통령인 올린과 그의 주변 인물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눈앞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상으로 영화 속에서 표현된다.

언론으로 등장하는 뉴스 프로그램 ‘더 데일리 립’의 진행자들은 정확한 사실의 전달,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지 않고 자극적인 유머에만 관심이 있다. SNS를 통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대중들은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되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사실을 감추려 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한 사회를 이루는 다수의 대중은 그저 자극만을 찾아다니며 사실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영화 속에서 그려진다.

이처럼, <돈 룩 업>은 자신들의 이익과 현실에만 집중한 채 정작 중요한 문제는 놓치고 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주로 정치인들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코미디 형태로 묘사하는 데 주력한다. 당대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와 그 주변 인물들을 유사하게 등장시켜 직접적인 묘사를 그린 것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돈 룩 업>은 자신의 이익만을 찾아 나서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풍자를 통해 묘사함과 동시에,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 및 정보 불균형 등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 잡은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개봉 시기가 코로나 19 사태와 겹치며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가상의 영화 속 ‘혜성’이라는 재난이 현실의 공간 속 ‘코로나 19’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정부는 코로나 19를 대비하기보단 은폐하고 숨

겼으며, 언론들과 SNS 역시 잘못된 소식,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왜곡된 소식만을 편집해 노출했다. 영화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였으며, 이를 꼬집고, 동시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너무 과한 묘사를 사용하였고, 사실과는 거리가 먼 묘사를 거듭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II. 본론

1. 지나친 풍자 사용

코미디 영화는 어떤 영화 장르보다 대중적이며, 높은 관중 수를 기록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코미디는 현실을 비틀기 위해 슬랩스틱, 패러디, 개그, 농담 등의 표현 요소를 활용한다.⁹⁾ 이 중 <돈 룩 업>에서는 ‘풍자’를 이용해 웃음을 유발한다. 정치인과 사업가를 풍자의 대상으로 두어 그들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하게 묘사한다. 영화는 주인공인 민디 교수와 오글소프 박사의 관점에서만 묘사된다. 그들은 현재 디비아스키 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과 사업가, 언론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영화에서는 ‘풍자’를 선택했다. 민디 교수는 행성의 지구 충돌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향했지만, 대통령의 긴급회의로 인해 약속이 미루어진다. 이때 대통령의 회의 주제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사생활 문제였다. 어쩌면 국가를 넘어 지구라는 행성의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회의를 선택한 대통령을 영화는 풍자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회의를 마치고 민디 교수의 주장을 듣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은 행성의 지구 충돌 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과한 표현 방식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올린 대통령은 우유부단하며, 쾌락에 집중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올린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도 계속해서 무리한 판단을 시도한다. 실패 확률이 높음에도 로봇을 활용해 행성을 파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극적인 연출을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과할 정도의 풍자가 영화의 흐름 속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설명한다.

결국, 지나친 풍자의 사용으로 인해 화면 밖의 관객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더 나아가, 주인공이 가진 ‘절대적 선’의 이미지는 점차 희미해지게 된다. 영화 초반부의 민디 박사는 지구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의 성격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쾌락이나 이익에 조금씩 흔들리며 결국 주인공까지 풍자를 통해 묘사되기에 이른다. 영화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풍자하는 지경에 도달하고, 일부에게만 적용해야 할 문제의식의 초점을 모두에게 적용하였다. 결국, 영화를 통해 쏘아 올리려 했던 화살은 방향을 잃은 채 목적 없는 비행을 이어가게 되었다.

대통령 외에도 영화에 등장하는 ‘더 데일리 립’이라는 뉴스 역시 지나치게 가볍게 느껴진

9) 백해린. (2023). 영화 극한직업의 코미디 표현양식과 아이러니 기법 활용 . 시민인문학, 45, 71-92.

다. 혜성의 충돌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하고자 자료를 준비하며, 민디 교수의 인터뷰를 위해 방송국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주인공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미디어 트레이닝'을 강요하며 조롱하고 그들을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소재로만 여긴다. 민디 교수에게서 방송적 재미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뉴스는 그를 자극하고 가르쳐 미디어 속 과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게끔 유도한다. '더 데일리 립'의 진행자는 민디 교수와 오글소프 박사에게 사적인 농담만을 건넨 뿐, 정작 혜성의 지구 충돌 소식은 전달하지도 않는다.

이에 생방송 중 오글소프 박사는 화를 낸다. 대중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당하는 오글소프 박사를 동정하지도, 지지하지도, 그에게 공감하지도 않는다. 이 장면을 언론과 대중들은 편집하고, 공유하며, 그를 조롱하는 모습이 영화에는 등장한다. 역시 너무 지나친 풍자라고 느껴졌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풍자는 오히려 의미와 힘을 잃게 된다. 과한 영화적 설정으로 오히려 주인공들의 주장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게 느껴졌다.

2. 일방적인 정치 혐오 조장

영화에서 정치인은 공공의 적으로 묘사한다. 대놓고 비난의 화살을 정치인에게 날릴 수밖에 없는, 잘못은 모두 정치인에게 있는 영화 구성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상황 속 모든 잘못이 정치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정치인은 권력의 유지와 지지율을 위해, 사업가는 기업의 성장과 돈을 위해, 언론은 시청률, 연예인은 관심, 네티즌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실을 뒤로한 채,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저 비난만을 내뿜는다.

이 사태의 원인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 누구도 이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영화에서는 대통령 올린을 악의 선두에 세워두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탓을 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 원인을 정치인에게서 찾는다. 이는 영화의 일방적인 정치 혐오 조장으로 비쳐게 된다.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건 일종의 자연재해이다. 인간의 활동 범위 밖, 인간의 권한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자연재해이다. 그런데도 영화는 마치 정치인, 대통령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에필로그에서는 감독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대통령, 정치인과 일부 권력층들이 다른 행성으로 탈출을 한다. 그들은 옷 한 벌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상태로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다. 도착한 직후 그들은 외계인들에게 변을 당하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감독이 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영화는 감독의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예술이지만, <돈 룩 업>에 등장하는 정치인의 표현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빌려 일어나는 지나친 정치 혐오 조장으로 보인다.

올린 대통령은 성별만 여성일 뿐, 많은 부분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닮아있다. 지구 환경문제에는 무관심하며, 무지하고, 기업들의 이익과 발전에만 주목한다는 점이 닮았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드러낸 영화로 미국 내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다. 비록 대다수의 관점은 올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돈 룩 업>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간 미국을 이끌었던 많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3. 대중에 대한 무관심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적 고위층 인물들에 대한 풍자’이고, ‘자신의 의견을 온전히 피력하지 못하는 하층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층민을 대표하는 인물은 힘이 없는 민디 교수, 오글소프 박사와 그들의 주변 지인들이다. 그러나, 정작 모든 하층민들은 영화 속에서 아무런 정보나 지식 없이 끌려다닐 뿐, 영화에서는 대중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하다. 상류층 인물에 대한 풍자는 끊임없이 나열하였지만, 정작 그들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하층민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민디 교수의 일행들은 일반 대중이라고 할 수 없다. 정보의 불균형은 대통령, 기업가들이 아닌 민디 교수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그저 해당 사실을 미디어를 통해서만 전달하고자 한다. 식당에서 다른 박사들과 혜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그 내용을 들은 다른 시민이 민디 박사를 추궁하는 장면이 나온다.

민디 박사는 내용을 알리지 않으려 숨기지만 결국 들리게 되고, 대중들은 이에 크게 분노한다. 민디 교수의 일행도 결론적으로 대중에게 내용을 전부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방법을 생각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화에서는 미국의 상황이 주로 비치며 다른 국가들은 소외된다. 한국, 러시아, 중국 등이 짧게 등장하지만, 영화에서의 표현처럼 오로지 미국만이 이 문제를 지배하려고 한다. 영화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해 주목을 하지 못해 주제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

영화 <윈드 리버>에서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인디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을 영화에 등장시켜 인디언 가족의 고난을 직접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원주민들을 배척하는 모습이 나온다. <윈드 리버>는 극명한 대비를 통해 인디언의 삶을 묘사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돈 룩 업>에서는 다양한 인물들과 주제를 전달하는 과정 속, 본질적인 주제인 ‘일반 대중들’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민디 교수나 오글소프 박사 역시 지식과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상류층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결국 영화에서 수많은 ‘보통의’ 대중들은 배제되었다.

4. 해답 없는 결말

블랙코미디의 구조는 ‘해피엔딩’을 구조적 관습으로 사용하는 코미디와는 다르다. 블랙코미디는 인과 관계와는 무관한 제3의 결론으로 도달하거나, 비극으로 종결되거나, 혹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영화는 결국 모두를 비판한다. 주인공의 불행은 어떤 과실이 아닌, 세상의 부조리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주인공의 비극적 종말은 전 인류의 불행으로 판명된다.¹⁰⁾ <돈 룩 업>에서도 이 블랙코미디의 성질은 그대로 나타난다. 결론으로 도달할수록 지구 종말에 가까워지고, 주인공 민디 박사의 불행은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으로 설명된다. 선으로 보이던 민디 박사도 결국 점점 대중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권력들의 꼬드김에 넘어가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간다.

대통령과 사업가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영화는 비판한다. 일반 대중들도

10) 김성훈. (2021). 봉준호 감독 영화에 나타난 블랙코미디 요소와 창의성 연구 - 영화<기생충>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243-256.

비판의 대상이 된다. 뚜렷한 생각과 판단 없이 SNS 속 세상에 간혀 끊임없이 선동당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비판적으로 묘사된다. 속도감 있고, 산만하게 비판과 풍자만을 이어온 영화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웃지 못한 채 영화의 끝을 마주한다. 결말은 종말이었으며,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간 일부 상류층은 더욱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영화에서는 해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실의 어렵고 복잡한 경제 문제와 국가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 그리고 평범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때 빛났던 감독 아담 맥케이의 재기발랄한 연출력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풍자극에서 다소 방향 잃은 나침반처럼 휘청거린다.¹¹⁾

해답은 온전히 관객의 몫이 된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 속에서 영화는 몇 가지 제안을 건넨다. 환경에 대한 주인의 의식과 비판적 태도를 갖추고 SNS의 지나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합당하다고 단언하기는 불분명하다. 모든 영화가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해답으로 나아가는 힌트를 조금은 구할 수 있다.

지구의 마지막, 운석의 충돌 장면의 묘사는 비단 인간만을 조명하지 않는다. 지구에 있는 곰, 사슴, 별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을 비춘다. 동물들은 평온하기도, 때로는 어딘가로 도망치기도 한다. 고대 문명에 사는 인디언 부족의 모습도 비춘다. 그들은 운석이 떨어지며 불타는 숲을 향해 춤을 추며 일종의 의식을 한다. 도시의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디론가 달리기만 한다. 신생아의 모습을 보여 재앙의 순간에도 일어나는 새 생명의 태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주인공 민디 교수의 가족과 일행은 탁자에 앉아 와인을 곁들인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다. 식탁이 흔들리며 공포감에 휩싸인 순간에도 서로를 바라보며 애써 태연한 척하며 최후를 맞이한다.

영화는 결국 마지막 장면을 통해 메시지를 응축시킨다. 재앙이 닥칠 땐 도망칠 수 없으며,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다소 끔찍한 결론을 짓는다. 앞서 언급한 ‘해답이 없는 영화’라는 말은 위와 같은 <돈 룩 업>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저마다의 환경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던 동물, 부자, 인디언,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고 있던 민디 박사는 피할 수 없는 재앙 아래 똑같은 최후를 맞이한다. 다소 허무한 해답을 건네는 영화의 마지막은 영화의 허구성과는 거리가 있는, 그렇기에 가장 현실적인 결말일지 모른다.

비슷한 주제를 가진 영화 <그린랜드>에서는 조금 다른 결말을 제시했다. 2020년 <돈 룩 업>과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그린랜드>는 액션 재난 영화로서 혜성 충돌을 48시간 앞둔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한다. <돈 룩 업>과 달리 혜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 지구멸망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특정 지역, 나라에만 위험이 닥친 상황 속, 사람들은 병커에 들어가기 위해 다툰다. 그 과정에서 인간들의 본성, 질투를 영화에서는 표현했다.

그들은 무사히 다른 병커에 들어갈 수 있었고, 결국 생존하게 된다. <돈 룩 업>과는 다른 마무리를 선택했다. 이 점이 해답을 주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린랜드>에서는 인간들의 다툼을 보여주며 가족의 소중함, 사람들의 화합과 인내가 필요함을 영화의 중심 주제로 전달하며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돈 룩 업>은 다르다. 가족 간의 소중함을 주제로 하기도, 사람들 간의 화합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가족들은 마지막, 멸망의 순간에 다다라야 화해를 나눈다. 그마저도 민디 박사의 인간적인 사과와 화해보다는 재앙을 앞둔 순

11) 김지미. (2022). 영화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풍자 : <돈 룩 업>. 황해문화., 285-293.

간에서의 연민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든다. 사람들 간의 화합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

영화 전반적으로 계층 간의 불화와 불신을 묘사했으며, 최종 장면에서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희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분투한다. 이렇듯 두 작품은 비슷한 주제를 다루지만, 마지막 장면을 통해 제시한 해답의 성격을 통해 두 영화를 구분할 수 있다. 상호 간의 비교를 통해 <돈 룩 업>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관객들의 앞에 펼쳐놓기만 할 뿐,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어질러놓은 상태로 떠나갔다는 생각이 깊게 들었다.

5. 영상 음악의 활용

<돈 룩 업>의 영화 음악은 평가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다. 코미디 영화로 분류되지만, 뮤지컬 영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영화 중반부 민디 교수를 중심으로 한 ‘룩 업’파와 정치인,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돈 룩 업’파가 나뉜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일종의 유세를 펼친다.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는 의미의 선동을 펼치는데, ‘룩 업’파는 유명 연예인의 힘을 이용한다. 그들은 자신의 세력 확대를 위해 일종의 자선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아리아나 그란데’와 ‘키드 커디’가 직접 출연해 ‘Just Look Up’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뮤지컬 영화의 형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인다. 배우와 가수들의 콘서트 장면을 영화 일부로 구성해 현실감 있는 영화 장면을 구성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면의 등장은 영화의 주제의식 및 방향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돈 룩 업>에서는 영화가 가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영화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지금껏 민디 교수가 호소해오던 사회 문제가 관객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의 경우에는 로맨스와 뮤지컬을 접목했다. 두 주인공의 사랑을 그려내면서 자연스럽게 뮤지컬 요소를 첨가해 노래를 관객에게 이해시켰다. 이를 통해 주인공들의 깊은 사랑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Just Look Up’ 음악의 콘서트 장면 삽입은 <돈 룩 업> 속 어떤 효과도 주지 못한다. 영화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룩 업’파는 노래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영화 내부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음악의 삽입은 영화 외부의 관객들에게 어떠한 울림을 주거나 영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결국, 콘서트 장면의 삽입은 영화에 어우러지지 못했으며, 그 자체로 별도의 장면으로 보았을 때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는 장면이 되고 말았다.

III. 결론

2021년의 문제작, 영화 <돈 룩 업>은 모두를 향해 충구를 겨누었다. 정치인과 기업가부터 시작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도 잘못을 묻고 반성하며 변화하기를 촉구한다. 혜성의 지구 충돌이라는 주제를 통해 환경문제와 사회 문제를 꼬집었다.

현실적인 인물들의 반응은 많은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블랙코미디 장르의 본 영화는 ‘풍자’라는 기법을 활용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거나, 공식적이며 중대한 업무를 비전문가인 자신의 아들에게 맡기는 형태의 모습으로 묘사했다. 성공한 사업가를 묘사할 때도 어딘가 어색하고 말을 어눌하게 묘사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기까지 한다. 비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

을 비롯하여,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주인공 역시도 풍자의 대상이 되어 비난을 받게 된다. 결국, 영화 속 모든 대중도 전부 풍자의 대상이 된다. 지나친 풍자의 사용은 결국 비판을 뛰어넘어 ‘조롱’의 모습으로까지 비친다. 특정 대상, 특정 집단, 특정 사건을 향한 감독의 비판은 비판의 선을 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비판의 주장은 제 힘을 잃고 말았다. 정치인에 대한 날 선 비판만을 영화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그 속에서 정치인은 아무런 가치조차 지니지 못하는, 대중의 반대편에 놓인 ‘절대적 악’의 의미로 존재한다. 영화에서는 정치인을 주인공과 반대되는 절대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일종의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느껴졌다.

앞서도 언급했듯, 영화 속 대중들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진 못한다. 환경 오염의 주범이며, 판단력을 상실한 채 선동을 당하거나 혹은 하는 사람들로 묘사한다. 더불어, 영화에서는 대중들의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지 못하였다. 정보를 얻지 못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거나 의견조차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영화에서 배제되었다. 혜성을 피하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상황 속 영화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지 의문이 남는다. 대중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워버린 영화는 우리에게 그저 그들의 모습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던져놓은 채 멀어지고 말았다.

영화는 수없이 등장하는 집단들에 대한 날이 선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아무런 해답은 제공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하고, 미디어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하며, 대중들은 서로를 선동하거나 당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만을 공유해야 한다는 우화적인 결론만이 남는다. 결국, 펼쳐놓은 상황과 메시지를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영화는 마무리되었다는 인상을 진하게 남긴다. 강한 어조로 비판만을 남발하다 힘없이 마무리되어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영화의 다양한 구성요소 역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피로를 남긴다. 예시로 ‘아리아나 그란데’와 ‘키드 커디’의 ‘Just Look Up’이라는 노래의 콘서트 장면을 넣었는데, 이는 영화의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영화의 흐름이 끊길뿐더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답을 제공하는 중심적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

영화 <돈 룩 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 저마다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또 지구 종말을 맞이했을 때, 혹은 맞이할 순간까지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도 남긴다.

영화 종반부, 아무런 일이 해결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할 처지에 처한 민디 박사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

“어떨 땐 할 말을 제대로 전해야 하고, 듣기도 해야 해요. 혜성이 존재하는 걸 아는 이유는 우리가 봤기 때문이에요. 에베레스트산만 한 혜성이 지구로 날아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그런 최소한의 합의도 못 하고 쳐 앉았으면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기는 해요? 어디가 망가진 거죠? 어떻게 고치죠?”

감독이 대중, 정치인, 사업가 등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압축시킨 문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십억의 인간들은 결국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기 바쁘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최선이라 믿는다. 나의 문제와 타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속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영화는 여전히 풀어내

지 못한, 어쩌면 영원히 풀어내지 못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홀연히 멀어지고 말았다.

[우수상]

American Dream, American Nightmare
'Flower Killing Moon'

인문학부
20231036 박선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4년 만에 영화를 개봉했다. 이 감독이 눈에 보이면 바로 생각나는 거의 고정된 설정이 생각난다. 디카프리오, 갱스터, 아메리칸 드림 등 마틴 감독의 영화 배경과 연출을 담당하는 주된 요소들이다. 좋으나 나쁜 모순 덩어리들을 잘 꼬집고 보듬는 느낌을 기대했다. <플라워 킬링 문>. 또한 너무나 반갑게도 감독의 페르소나인 로버트 드 니로와 디카프리오가 한 개의 포스터에서 등장하니 작품성의 기대치를 올렸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진다. 목표가 없지만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목표가 생성된다란 삶의 교훈과도 같은 것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려는, 이루려는 것을 두고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이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나 또한 상영관의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면, 생각하는 충족감을 바라며, 이상적으로 화면을 바라보게 된다. 근데 과연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감상 그 자체로 자신의 '이상'을 채우는가? 영화가 끝나면 본인은 소위 말하는 회로를 돌린다. 내용이 나의 머리를 안정시키면 돌릴 필요가 없어진다. 허나 충족시키지 못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난 스스로 날 만족시켜야 한다. 영화를 이끌고 담당하는 감독을 비난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난이지 비판도 아닌 소용없는 짓이다. 고로 나를 포함한 사람들은 '해석'을 시작한다.

해석이라는 것은 무조건 제쳐야 할 관문은 아니다. 관객들 중 대다수는 영화의 이미지와 감독의 화려한 복귀, 부활 등 여러 면에서 자신들을 위로할 것이다. 허나 자신이 복잡함을 느낀다면 해석을 강행한다. <플라워 킬링 문>은 미국의 실제 지역과 인물을 소재로 두고 제작된 실화 바탕의 영화다. 고로 나의 해석엔 배경지식이 필요했다. 허나 모든 실화 바탕의 영화나 다큐 영화들은 배경지식을 알고 보면 좋은 영화가 있고, 모르고 보면 더 좋은 영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알고 보면 뻔하다는 얘기다. 연출이 그것의 공백을 채우고 관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마틴 감독은 연출과 선곡을 넘어 깨달음을 준다.

<플라워 킬링 문> 시놉시스를 보면 '20세기 초 석유로 갑작스럽게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 오세이지 부족 원주민들에게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 서술되어 있다. 문장 하나가 나에게 시련을 준다. 19~20세기 미국인들의 염원,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원주민, 석유. 여러 소재가 나에게 흥미와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 알 사람은 이번에도 마틴 감독이 작가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갱스 오브 뉴욕>과같이 미국인들 간의 괴리감이 영화를 두르는가? <좋은 친구들>과같이 갱스터 느낌이 드는 폭력적이고 사실적인 영화인가? 이 의문들은 부정적 견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 보내는 시선을 어떻게 표현해냈는지에 대한 궁금증일 뿐이다.

19세기 초 미국 오클라호마주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오세이지족’이 거주했다. 그곳엔 갑자기 석유가 솟아 나왔다. 사람들은 그 검은 액체를 맞으며 기뻐했고, 벼락부자가 된다. 그 결과 전국의 투자자, 사업가, 채무가 등 백인, 흑인 세력이 돈을 만지려 오세이지족에 다가간다. <플라워 킬링 문>은 이러한 환경에 처했던 부족과 그것에 뱀과 같이 접근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장인물들을 대조하고 부각시킨다.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어니스트 버크하트’, 로버트 드 니로가 연기한 ‘윌리엄 킹 헤일’은 그 당시 이득을 취하려 벌인 행각을 사실적으로, 치졸하게 표현한다.

이 둘은 이 영화의 뼈대가 된 ‘오세이지족 연쇄살인 사건’의 주동세력이며, 백인 세력의 중심이며, 위기와 절정이다. 앞에 서술한 ‘알고 보면 뻔하다’란 말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배경지식이 전무한 관객들은 어니스트와 윌리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습한 관객과 달랐을 거다. 이들이 단순한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따랐을 것이며, 자본주의의 평범한 결과이며, 당시 백인들의 폭력에 알맞다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답이다. 허나 마틴 감독은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를 표현하는 감독이 아니다. 원주민과 다르게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몰상식한 면을 보여주는 백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만의 미국을 느끼기 위해, ‘이상’을 가지기 위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선택했다. 마틴 감독은 이전 작품들과 같이 한 소재의 어두운 면을 꼬집는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살인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다. 오세이지족의 어쩔 수 없는 후견인 등용, 백인에게 승인받는 행위가 그 이유다. 죽이면, 상속이 되고, 돈을 만질 수 있었던 윌리엄과 어니스트다. 이러한 부조리는, 마치 세상이 보여주는 부조리와 모순 같다. 아닌 척하며 꽃들을 짓밟는 현대 사회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역설적인 면모가 형상화되는 듯하다. 이때가 마틴 감독의 신념과 영화에 담은 속뜻을 알게 된 시점이다.

영화 관객들이 ‘이상’을 채우듯이, 20세기 미국인들도 이상을 꿈꿨다. 거대한 번영과 행복을 가지고 올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인들을 매료했다.



New York - Welcome to the land of freedom - An Ocean stemaer passing the Statue of Liberty

허나 아메리칸 드림은 욕심 많은 자들에겐 의미가 변질된다. 단결과 만인이 행복이 아닌, 그저 이용 수단이다. 미국은 신분, 인종, 권력 등 여러 격차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판치던 사회

라 표현해도 무방했다. 이는 아메리칸 드림이 없는 자에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있는 자에겐 끼쳤다는 말에 신뢰를 준다.

<플라워 킬링 문>에도 미국의 꿈을 꾸며 오일머니를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묘사된다. 그 꿈을 위해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취한다. 그중 하나였던 어니스트는 내적 갈등을 수많은 하게 된다. 지폐와 석유로 이루어진 꿈인가, 사랑인가. 둘 다 어니스트에겐 달콤했다. 윌리엄, 자신의 삼촌과 자행한 살인들은 자신을 견고히 했고, 다른 사람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 허나 자신의 아내는 돈벌이로 바라보지 않았다. 허나 그런 생각은 논리에 성립하지 않았다. 오세이지족은 이미 자신의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마틴 감독은 묵직하고 복잡한 아메리칸 드림을 표현하였지만, 동시에 묵직한 미국의 악몽,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를 그려내었다. 미국인엔 오세이지족도 포함됐고, 그들도 행복함을 분명 누렸었다. 허나 영화는 그 행복함을 길게 관객들에게 보여주진 않는다. 세계에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인종 박해와 개인,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을 날리고 꼬집는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오세이지족이 받은 절망적인 일과같이 각국에선 여전히 배려와 고려가 선행되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난다. 작중에선 어니스트와 윌리엄의 시점이 아메리칸 드림의 잘못된 이상향을 표현한다면, 오세이지족 원주민들의 시점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의 사실주의적인 면모를 바라본다. 마틴 감독이 이 시점을 교차하고 복잡하게 된 어니스트와 아내의 관계, 이성을 표현하며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내적 심리를 폭발하게 만들어준다.

‘악몽’은 현실에 형상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어니스트가 후반에 자신의 사촌이 벌인 행각을 폭로하는 것은 백인의 주체적인 입장의 허점과 폭력에 대한 반성으로 하여금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아내 완 달리 백인의 이득과 자금을 위해 수없이 죽어나간 원주민들에 대한 서술과 주체적 묘사는 나오지 않는다. 스크린에 보이는 결말의 대상은 어니스트를 포함한 백인이지 원주민이 아니었다.



Naver Tv연예 - 임수연 - 인터뷰 수록 이미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는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허나 원주민들이 겪은 아픔과 그 실상은 관객들에게 각인된다. 영화의 마지막엔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윌리엄과 어니스트의 행보와 북을 치며 원형으로 춤을 추는 원주민들이 그려진다. 시각적으론 두 가지가 보이지만, 청각적으론 백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은 현실로 이루어지려는 듯 하

나,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는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 하여금 추상적인 느낌만 전달하는 것 같아 보인다.

최종적으로 마틴 스코세이지는 이렇게 대립된 영화 속 소재와 사회를 빗대어 미국을 넘어 현대 사회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러 지구적 문제를 마주쳐도 미국 사회는 현재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며 나름대로 노력한다. 하지만 그 속엔 여러 가지 의미의 '원주민'들이 존재한다. 어니스트의 흥망성쇠와 같이 그 원주민들을 자각한 사람들은 흥하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 마틴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그려내는 찌질하고 각박한 미국인들이 20세기가 아니어도 현대 사회에서 꽤 보인다. <플라워 킬링 문>의 긴 러닝타임이 가진 영화의 특색은 일반적인 영화의 특징이 다가갈 수 없는 듯하다.

마지막에 본인이 생각하게 된 또다른 생각은 인간의 본성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초기를 보면 미국인들은 철학, 도덕적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를 꿈꿨다고 한다. 인간은 긍정적인 꿈을 꿀 때, 여러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재를 자동으로 생각해내게 된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신대륙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 허나 <플라워 킬링 문>은 그 기대가 모두 돈에서 흘러나온 것이란 의미를 보낸다. 작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묘사가 많이 되는 것은 어니스트의 사고와 고민이다. 그가 생각한 꿈은 자신, 곧 미국 백인의 인간성에 침해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으로서 이 지역으로 발을 들인 것에 대해 크나큰 행복과 이성을 안겨줄 것이었는가?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이 세계는 꿈을 꾸게 해주지만, 악몽도 준다. 꽃이 짓밟혀 죽듯이, 피해를 받는 쪽은 떠오르지 못하고, 이성적인 생각이 막히게 되어 자신이 꿈은 추상적인 대상으로만 해석된다. 마틴 스코세이지는 디카프리오와 로버트의 명연기를 통해 세상에 질문을 던진다. 현대 사회는 무슨 꿈을 꾸는지를 말이다.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꿈'인가? 찻찻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악몽인가? 그 대답을 생각해 보라.



Cnstar Blog - Cnstar - Movie scene image

[장려상]

영화 <조커>에 대한 논란과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인문학부
20231108 홍예원

2019년, 토드 필립스를 감독으로 한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영화 <조커>가 개봉되었다. 개봉 전부터 큰 화제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걸 뚫고 개봉하여 한국 기준 누적 관객수 527만 명에 이르는 대흥행을 거두었다. 또한, 76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영국/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음악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다양한 시상식에서 상을 거둔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 무슨 논란이 있기 때문일까,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 살펴보고 나의 느낀 점, 그리고 논란을 중심으로 서평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조커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 많이 존재한다. 트럼프라는 카드 게임에서 쓰이는 조커(joker), 빅나티라는 가수의 joker라는 곡 등등 우리의 생활 중에 많이 보였었다. 또한, 예능 신서유기 속 캐릭터 등 매체의 곳곳에서 조커가 보이는 것을 통해 조커라는 캐릭터 자체가 뭔가 독특하고 희귀한 존재인데, 친근감이 있어서 영화로 개봉한다고 했을 때 흥미가 생겼었다. 하지만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 조커가 나온 영화나 조커 자체의 시리즈가 꽤 많은 양이라 처음부터 봐야 한다는 막막함에 보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영화감상과 비평'이라는 수업 시간에 수업 과정 중 하나로 그 영화를 틀어줘서 보게 되었다. 그게 이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작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영화 <조커>의 줄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주인공인 아서는 고담시에서 고군분투하는 광대이다. 그는 광대이면서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뜬금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웃음이 나는 병을 가지고 있어 시에서 지원해주는 무료상담을 받는다. 상담을 통해 의사에게 많은 양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지만, 이후에 시의 지원이 부족하여 상담이 끊기게 되어 이때부터 범죄를 시작하게 된다. 아서의 꿈은 유명한 코미디언으로 꿈을 이루고자 광대로써 살아가고 있지만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고 동네 학생들한테까지도 폭행을 당할 만큼 많은 무시를 당한다. 이를 알게 된 직장 동료는 아서에게 총을 건네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생기면 총을 사용하라고 권유를 한다. 아서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총을 소지하면 안 되었지만, 총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광대 분장을 하여 아동병원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러 갔는데, 도중에 총이 떨어져 아동병원 내 총기 소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날 밤, 지하철에서 술 취한 남자 3명이 여성에게 희롱을 하는데, 아서는 그 상황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웃음을 터뜨려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 그러다 아서가 총으로 남자 3명을 살인하게 되는데, 당시의 시기는 1980년대이기에 살인자는 광대 분장을 한 사람으로만 밝혀졌다. 당시 언론들은 지하철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시장 출마 후보자인 토마스 웨인이라는 인물이 뉴스에 나와 살해당한 남자 3명은 금융권 직원, 즉 부유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대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접한 시민들은 이에 분노하여 다같이 광대 가면을 쓰고 토마스 웨인을 향한 시위를 하게 된다. 한편, 아서는 노모와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토마스 웨인의 가정부로 일하였었으며, 그가 좋은 사람이기에 도와줄 거라는 믿음으

로 항상 웨인에게 편지를 보내왔었다. 편지의 내용엔 아서는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 아서는 그를 찾아가지만 토마스 웨인은 아서의 어머니가 광대 망상으로 인한 정신병원 이력을 가진 환자임을 말하며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그에게 아서는 입양 아라는 말을 듣게 되어, 아서는 병원에 찾아가 입원내용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웨인이 말한 사실이 맞고, 심지어는 어머니에게는 입양한 아이를 방관한 아동학대죄가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서는 이 사실을 알고,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살해하게 된다. 이후, 아서는 클럽에서 토크쇼를 하다가 영상이 화제가 되어 인기 쇼에 초대받아 출연하려는 날에 예전 직장 동료들이 와서 경찰이 아서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중 한 명이 아서에게 총을 건네준 인물인데, 아서는 그를 죽인다. 인기 쇼에 참석하기 위해 분장을 한 아서는 형사들을 만나고, 아서는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웨인에게 시위하는 광대 가면을 쓴 사람들의 인파에 들어가 아서는 쇼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서는 개그를 하다 자기가 지하철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하며, 토크쇼의 사람이 자기를 조롱했다고 이야기하며 그를 죽인다. 그는 결국 경찰에 잡혀 이송되는데 광대 가면을 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한다. 그리고 그 순간 광대 가면을 쓴 사람이 구급차를 운전해 경찰차를 들이박고 아서를 구해낸다. 또한, 광대 가면을 쓴 사람이 토마스 웨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며 영화는 끝을 향해 달려간다.

줄거리를 매우 길게 적었지만, 그 이유는 <조커>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다양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줄거리와 그리고 앞으로 적게 될 <조커>의 논란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지 물어보고자 적게 되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의 많은 찬사와 지지를 받던 조커가 이런 내용인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할로윈 시즌에 가장 인기 있는 분장 중 하나가 조커일 정도로 되게 색다르고 신기한 분장이기에 영화 속 캐릭터도 정의로운 악동인 줄 알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윤리적으로 옳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당시 고치기 힘든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광대라는 이유로 큰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조커(아서)의 삶을 통해 1980년대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에서도 가난하다고 온갖 편견과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있어서는 매우 큰 가치가 있고, 되게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줄거리를 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듯이, 영화 <조커>를 두고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논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빌런(악당)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인 조커(아서)는 당시 많은 사회적 차별과 무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보여주며, 조커가 살인을 하는 게 옳다는 쪽으로 추대하기에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둘째로, 총으로 살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폭행 장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장면이 인물의 심리 묘사와 폭력 묘사가 극사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히어로 영화의 분위기와 전개 방식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한다. 셋째로는 이렇게 암울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15세 관람가라는 것이 아직 성장이 다 되지 않는 청소년기에 사람들이 보면 그저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안 좋은 영향들을 동경시하게 되는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가 개봉되기 7년 전인 2012년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기 위해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오로라 센추리 16극장에 4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는데, 영화 상영 시작 후 얼마되지 않아 연막탄이 터지고 무차별 총기난사가 시작되어 이로 인해 12명이 생명을 잃고 70명이 부상 당하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영화 개봉 전부터 또다시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영을 막아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컸었다. 하지만 상영 후 영화계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꽤 많은 인기를

언어 점차 나아지는 듯 했으나, 상영 2년 뒤인 2021년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 지하철에서 조커 분장을 한 남성이 70대 남성을 칼로 찔러 죽이고 열차에 불을 질러 12명의 승객이 유독가스를 마셔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얼마 전인 11월 1일에 다시 재개봉하였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개봉할 정도로 흥행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부터는 흥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주인공의 강렬한 연기에 있다. 조커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명찬사를 받을 정도로, 조커의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감정들을 잘 그려냈다.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는 병을 가진 특수한 사람을 연기하면서도 어머니를 죽이기 전에 진심으로 대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인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온갖 감정들을 모두 느끼게 해주었다. 충격과 공포감, 그리고 동정심과 애정 등등 너무나 많은 감정을 말이다. 둘째로는 히어로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여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히어로물을 떠올리면, 날아다니고 막강의 힘을 가지며 변신하는 등 신비로운 초능력을 가져서 인간을 구원해주지만, <조커>에서는 오히려 아서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아서의 모습에 이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줄거리를 바탕으로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 아서를 폭행하는 남자 3명이나, 아서를 무시하는 동네 아이들과 직장동료, 아서가 당하는 아동학대를 가만히 방조한 어머니 등 이러한 인물들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아서에게 몰입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흥행과 논란이 엄청나게 크게 존재한 만큼 <조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영화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각자의 생각이기에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조커와는 많이 달랐기에 유독 선정성이나 폭력성, 주제 등이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다. 특히 초반에는 그 사회 속에서 억눌려서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자기만의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게 멋있기도 했다. 나는 되게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 실제로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상처도 잘 받는 편이라서 조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의견대로 행동하고 그 속에서 웃으며 행복을 느끼는 조커의 모습이 소름이 끼치면서도 되게 경이로웠다. 나도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강렬한 마인드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명장면으로 뽑는 계단을 웃으면서 내려오는 조커의 그 장면은 나도 매혹될 정도로 정말 낮놓고 인상깊게 본 장면이었다. 그동안 차별을 받고,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아옴과 동시에 살인을 하고 광대 가면을 쓴 자들을 보며 웃는 그 조커의 모습들이 모두 담겨져 나와 소름이 돋았다. 조커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당시의 이 사회가 조커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어서 더 인상깊었다. 이러한 주제를 담은 게 바로 이 영화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또한, 내가 인상 깊게 본 영화에 대한 생각을 칭찬하거나 비판하는 등 나의 생각들을 적는 이 기회가 나에게 있어도 성장의 발걸음이 되어주었다. 나의 이 글이 영화 <조커>를 볼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주는데 쓰인다고 생각하며 글을 작성하게 되니까 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막막함이 많은 내게 즐거움과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선사해주었다. 평소에도 드라마나 영화, 독서를 하면 이렇게 내 생각을 적는 것이 나에게 남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는지 정리하여 볼 수 있기에 여름방학 동안에 해보자는 다짐을 갖고 시도했었는데, 막상 쉽지는 않았었다. 실제로 여름방학 때는 단순히 작품을 시청하기만 하고 하나도 실현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공모전을 기회로 삼아 나의 게으름을 무찌르고 이렇게 비평을 작성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 비록 분량도 많이 적고 비평글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의 흐름도 많이 어색하고 서툴지만 이런 경험이 앞으로의 내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기에는 후회는 없고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한 시간이었다.

시나리오 부문

[장려상]

초단편영화 <그물>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20192561 이고은

S#1. INT. CLC 1층 테이블.

친구들과 미령이 공강 시간에 모여 떠들고 있다. 한 명은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그냥 서로 웃고 떠든다.

원희: 아 맞다, 나 이번에 공모전 나간 거 입상했다?

지혜: 와 진짜?

소원: 완전 축하해! 그거 경쟁률 세지 않았어?

주영: 맞아 맞아. 그걸로 포폴 쓰면 되겠다, 그치.

친구들이 축하를 한마디씩 한다. 그때 미령의 시선이 클로즈업된다. 곧이어 미령도 말을 꺼낸다.

미령: 잘했네~ 너 다른 걸로 먹고 살기 힘들 텐데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축하해!

원희: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어…… 고마워.

조금은 어수선해진 분위기. 다른 주제로 다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하다 지혜와 소원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지혜: 우리 곧 수업이라서 이제 가 볼게.

저마다 인사를 하고 다들 자리를 떠난다.

S#2. EXT. 학교 안 길거리 (강의실 쪽)

지혜와 소원이 수업이 끝난 듯 길을 걷고 있다. 지혜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주위 눈치를 보다 소원에게 말을 건다.

지혜: 야, 있잖아…… 미령이 개, 아까 원희한테 왜 그렇게 말했대?

소원: 내 말이. 개 열등감 좀 심해 보이지 않냐?

지혜: 어, 좀. 아니, 많이?

말을 마치자마자 둘은 눈이 마주치고 킥킥 웃으며 마저 걷는다.

S#3. EXT. 학교 안 길거리 (기숙사 쪽)

미령이 전화를 하며 걷고 있다.

미령: 아 그럼~ 나 엄청 잘 지내지. 응, 응. 다섯 명이서 같이 다니거든? 그런데 솔직히 몇 명은 찼다 같아서 가끔 놀기 좀 그럴 때 있다. 나는 애네 아니어도 되긴 해. 아, 맞다. 그리고 너 지현이 개 인스타 봤어? 개 완전……

: 화면, 소리 Fade out

S#4. INT. CLC 1층 소파

원희: 그만 좀 해!

cut to가 되기 전 원희의 호통이 먼저 등장한다. 화면 나타나며, 친구들이 웃고 떠들고 있다가 원희가 소리 지르는 통에 놀라 한순간 조용해진다. 다들 원희를 쳐다본다. 원희는 분에 찬 표정이다.

원희: 야, 조미령. 너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알아?

미령: 내가 뭐?

원희: 너 저번에도 내가 입상했을 때 싸가지없이 말하고, 방금도 소원이한테 그랬잖아.

미령: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원희: 하…… 모르는 척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기가 차네. 됐다. 나 집에 갈게.

원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S#5. INT. 미령의 집

미령이 집에 들어오며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다. 아까의 일로 화가 난 듯한 표정.

미령: 아니, 내가 뭐 잘못 했냐구. 틀린 말한 것도 없는데! 진짜 짜증 나 죽겠어. 아니,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소리 Fade out:

S#6. INT. 브레덴코 안

원희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윽고 미령이 들어와 앉는다.

미령: 할 말이 뭔데?

원희가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입을 떼다.

원희: 아니, 그때 소리 지른 거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고…… 원래 같이 다니던 사이였으니까 얘기해서 풀어 보려고 불렀어.

미령의 표정이 좋지 않다. 원희, 말을 잇는다.

원희: 너가 다른 때는 괜찮은데, 가끔씩 말을 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만 좀 자제

해 줬으면 좋겠어.

미령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 입을 떼는다.

미령: 그런데 솔직히 다 맞는 말 아니야?

원희가 황당한 표정을 짓는다.

원희: 뭐?

미령: 아니, 솔직히. 나만 쓰레기 만드는 것 같잖아.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너희를 위한 조연도 칭찬도 다 해 줬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너희가 나 싫어서 꼬아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원희: 하……

원희가 어이가 없는 듯 실소를 터트린다. 미령 앞의 차게 식어버린 커피가 보인다.

원희: 설마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네. 미령아, 정신 좀 차려.

미령: 뭐?

원희: 너 그거 열등감이야.

한 사람씩 컵이 오고가다 둘의 모습이 화면에 잡힌다. 둘 다 좋지 않은 표정. 그러다 원희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원희: 네가 남들보다 못한 거 너도 알고 있지? 제일 잘 아는 그 마음이 싫어서 남들 깎아내리면서 다니는 거잖아.

미령: (격양된 말투로) 야, 내가 언제!

원희: 진짜 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하는 건데, 열등감 좀 버리고 네 화법을 되돌아 봐. 이렇게 하면 고통받는 건 너 하나밖에 없어.

원희가 말을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나간다. 헛웃음을 치며 기분 나빠하는 미령의 모습.

S#7. EXT. 미령의 집으로 가는 길

미령이 생각이 많은 듯한 표정으로 길을 걷는다. 그러다 멈춰서서 아까의 일을 곱씹는다.

미령: 하,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본인 걸음을 막는 찌그러진 캔을 차 버리며 다시 걷는 미령.

S#8. INT. 미령의 방, 침대 앞

불을 꺼 놓아 노트북 불빛만이 미령을 비춘다. 무언가를 시청하는 듯한 미령. 꾸벅꾸벅 조는 가 싶더니, 이내 잠이 든다.

S#9. INT. 현관문

열린 미령의 집 현관문이 곧바로 닫히며 철컹 소리를 낸다. 미령이 나간 듯하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도 들린다.

S#10. EXT. 학교 야외

미령과 주위 사람들에게 그물이 씌워져 있다. 그러나 다들 자연스럽게 활동한다. 간혹 그물의 개수가 다르고 없는 사람도 존재한다. 각각 자신만의 그물을 쓴 사람들이 여러 컷으로 보여진다.

S#11. EXT. 교내, CLC 앞

미령에게도 그물이 씌워져 있다. 미령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배경음악으로 ‘비발디 - 사계 中 겨울 1악장’이 시작된다.

S#12. EXT. 교내, 브레덴코 야외석

미령: (상대방을 바라보며) 뭐야? 너 코 했어? 강남 여자 다 됐네~

미령에게 그물이 씌워진다.

S#13. EXT. CLC 1층 흡연구역

미령이 전화를 받고 있다. 화가 난 듯하다.

미령: 야, 솔직히 니가 내 친구들 다 뺏어가는 거잖아.

미령에게 그물이 한 겹 더 씌워진다.

S#14. EXT. 교내 벤치.

미령이 앉아 있다. 누군가와 얘기하는 듯한 구도지만 상대방은 보이지 않고 미령만 화면에 잡힌다.

미령: 어중간하게 인서울하는 것보다 그냥 집 앞으로 가는 게 더 개꿀 아니야? 입결도 비슷하던데 뭐.

미령에게 그물이 한 겹 더 씌워진다.

미령에게 계속해서 그물이 쌓이며 컷이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배경음악이 점점 더 고조된다.

S#15. EXT. 교내 한적한 곳

미령이 결국 그물에 당겨져 뒤로 넘어가며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S#16. 인서트 컷

미령이 보던 노트북 화면이 잡힌다.

화면 속에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채 살려달라는 듯 퍼덕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공모전 심사평

2023년 문예창작공모전 시 부문 작품의 수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들은 성찰적 사고를 통해 감동과 생각의 여백을 제공하며, 참신하고 독창적인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심사에서는 감상적인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된 작품들에 대해 감점이 이루어졌다. 작품은 단순한 감상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고와 함께 다양한 시각과 이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어의 활용과 신선한 감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 다채로운 표현을 보여주며,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사했다.

- 시 부문 심사위원 김명준

이번 2023년 문예창작공모전 소설 부문은 주제의식, 발상, 플롯 구성, 문장력 등에서 각각의 강점을 가진 다양한 소설들이 응모되었다. 여러 소설들 중, 앞서 언급한 소설 평가의 요소들의 강점을 고루 갖춘 작품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소설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언어를 통해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꾸준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부동의 원동자」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이 엿보이는, 술술 읽히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문장 구사력, 그리고 서두와 전개 부분에 점진적으로 사건을 배치하여 독자들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구성상 솜씨가 돋보이는 소설이었다. 가령 ‘연고 없는 시체’ 사건은 서두에 간단히 언급되는데, 이 부분이 다시 뒤에 가서 천태금이라는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자세히 사연이 풀이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사건의 전모에 독자들이 차근차근 접근하도록 한 치밀한 구성 솜씨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개별 인물들의 개성에 녹아 있는 사연과 배경을 치밀하게 설정한 부분도 돋보였으며, ‘부동(不動)의 원동자(原動子)’라는 제목에 담겨 있는, 부정의와 모순이 판치는, 신(神)이 숨어버린 듯한 세상에 대한 체념적 인식이 구체적 사건을 통해 잘 형상화된 점이 인상 깊었다. 단, 결말 부분이 다소 갑작스럽게 끝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것이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보인다.

첫 번째 우수작 「서정사(抒情思)」는 크게 보아서는 이상(李箱) 「날개」의 구성과 문체를 노련하게 패러디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지도의 암실」 등 이상의 다른 시와 소설들이 패스티쉬(pastiche)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이상 독자들에게는 마치 김연수 작가의 『꽃빠이 이상』처럼 국문학적 지식을 퍼즐처럼 조합하며 읽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기도 했다. 허무주의적, 우울 증적 주체의 내면이 다채로운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이었으나, 이상 소설의 패러디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제의식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 이 점이 더 보완되면 좋을 듯하다. 패러디 자체가 기존 작품의 인용을 통한 새로운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이 점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우수작 「감정선(感情線)」은 사람의 감정을 눈빛에서 나오는 선을 통해 인식한다는 설정이 창의적이고 참신했으며, 아린의 희생이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플롯 구성의 긴장감에 부여하려 한 시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아린이라는 인물이 신의 은유로만 단선적으로 처

리되어 있어, 그 또한 고유한 전사를 가진 개성적 인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희생’의 개연성이 다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장려상 수상작 「미스 리(Miss Lee)」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상처받은 여성 주인공의 내면이 잘 짐작되도록 하는 사건과 상황 설정이 인상적이었다. 자신을 ‘미스 리’라 부르던 아버지가 사실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음을 알았던 어린 주인공의 충격과 상처가 편지 형식 속에서 잘 드러났다. 그러나 결혼식에조차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던 아버지가 다리를 다쳤다면 연락하고, 유년 시절 사진을 보낸다는 설정이 다소 잘 이해되지 않았다. 딸이 아버지에게 거리를 두는 만큼, 아버지도 쉽게 딸에게 연락을 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부분적 상황의 개연성이 납득되도록 상황을 추가 설정해 보면, 다양한 삶의 순간과 편린을 드러내는 단편소설로서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장려상 수상작 「색채」는 분신이자 대극점에 놓인 두 인물, 현준과 은하의 시점이 교차되는 구성을 통해 둘을 둘러싼 사건과 감정의 결을 독자가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도록 한 점이 인상적인 소설이었다. 문장 표현이 유려하다는 점도 강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플롯 구성을 통해 이야기하려는 주제 의식이 단순하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 점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소설이 될 것이다.

「작은 선인장 베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애절한 마음을 그리고자 한 시도가 돋보였다. 그러나 주제의식이 다소 모호하고, 주된 사건의 플롯에 더하여 고양이나 선인장이 어떤 연결지점을 갖는지가 다소 분명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누군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소설 속 편지 형식의 활용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사건 전개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적 설정이 흥미로웠다. 단, 소설 속 장면이 보다 풍부하게 연상되도록 하는 배경과 인물 외양 묘사 등이 보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으면 좀 더 짜임새 있는 구성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중간부부터 결말부로 갈수록, 사건 진행의 양상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릴레이 소설은 슬픔을 주된 정조로 하면서도,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잔잔하고 따뜻한 시선이 깔려 있어 인상적이었다. 단,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어 개연성을 떨어뜨리는 점이 보완되면 좋을 것이다.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죽기로 했다」는 한 영혼을 파괴하는 왕따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인물의 내면 심리가 상세히 묘사된 점이 좋은 작품이었다. 다수의 말과 행동이 권력화되어 개인을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이 좋았다. 단,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배치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건을 과감하게 생략하여 이야기 전달 효과를 노리는 등, 플롯 구성이 좀 더 치밀하게 되었더라면 소설 장르의 미학을 더 잘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개성과 성격에 대해 작가가 고르게 이해하고 그들을 균형감 있게 묘사하는 것이 좋은데, 다소 1인칭 주인공의 관점에 작가가 과하게 치우쳐 있다는 인상도 주었다.

「거울」은 간결한 역행적 구성을 통해 정이재라는 인물의 페이스스가 질게 전달되는 점이 좋은 소설이었다. 그러나 20대의 정이재의 아픔과, 교통사고로 죽은 설정을 세상 때문에 맞은 죽음으로 의미화하는 부분에서 다소 비약이 있는 감도 주었다. 「우주라는 꽃밭의 아이」는 묘사와 문장 모두 안정되어 있는 소설이었다. 단, 홀로 외롭게 연구하던 인물이 마음이 통하는 다른 인물을 만나 지구를 떠날 것을 결심한다는 설정이 다소 단선적인 감을 주었다. 이 인물의 어떤 면모를 독자들에게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은지가 좀 더 뚜렷하게 설정되고, 이에 맞도록 시간성과 사건을 보다 치밀하게 구성해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내 최애 대신 아이돌 대타 뵙니다」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몸이 바뀐다는 대중적 로맨스 플

롯의 구성을 차용한 웹소설 형식의 글이다. 미완으로 끝나 평가하기 어렵지만, 인물 대사에 비속어가 많다는 점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소설 부문 심사위원 서은혜

<비평>

최우수 : 우지수, <조개껍데기로 살아갈 용기>

<조개껍데기로 살아갈 용기>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라는 영화를 대상으로 섬세한 비평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장애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조제’와 그런 조제를 사랑하던 ‘츠네오’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에 이르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 인상적이다. 영화에 연출된 ‘정방향’과 ‘역방향’, ‘유모차’와 ‘휠체어’, ‘호랑이’와 ‘물고기’ 등에 대한 분석은 주인공들의 심리와 상황을 보여주는 데 매우 탁월하다. 특히 ‘조개껍데기’에 대한 비유는 홀로 남겨진 조제가 자신의 장애를 끌어안고 곳곳하게 살아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에 제시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집중 분석하고, 소설 원작과 대비되는 영화의 결말을 차분히 분석하며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점 역시 주목된다.

우수 : 박선호, <American Dream, American Nightmare>

<American Dream, American Nightmare>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Flower Killing Moon>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틴 감독의 전작(前作)과 <Flower Killing Moon>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배우들의 호연에 주목함으로써 감독과 배우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거주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됨에 따라 미국 원주민인 ‘오세이지족’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역사가 어떻게 영화화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인간의 본성’ 문제와 연결하여 분석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감독이 영화를 통해 현대의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부분은 다시금 영화에 집중하게 하며, 우리 사회의 일면을 되돌아보게 한다.

우수 : 정원화, <용기에는 책임과 풍자가 뒤따른다>

<용기에는 책임과 풍자가 뒤따른다>는 영화 <돈 룩 업>을 대상으로 한 비평문이다. 두 천문학자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의 존재를 알리며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제시하며 다양한 인물군상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영화에서 주로 ‘풍자’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적시하였으며, 과도한 풍자가 오히려 영화의 몰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작품의 내용에 대한 분석 외에도 ‘영상 음악의 활용’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데 적절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영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장려 : 홍예원, <영화 <조커>에 대한 논란과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영화 <조커>에 대한 비평 분석 작업을 수행하며, 작품의 내용과 당시에 제기되었던 논란들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영화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했던 이유로 각각

‘배우들의 열연’ 및 ‘인간적인 주인공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조커라는 인물 유형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고, 우리의 자세를 반성케 하는 부분 역시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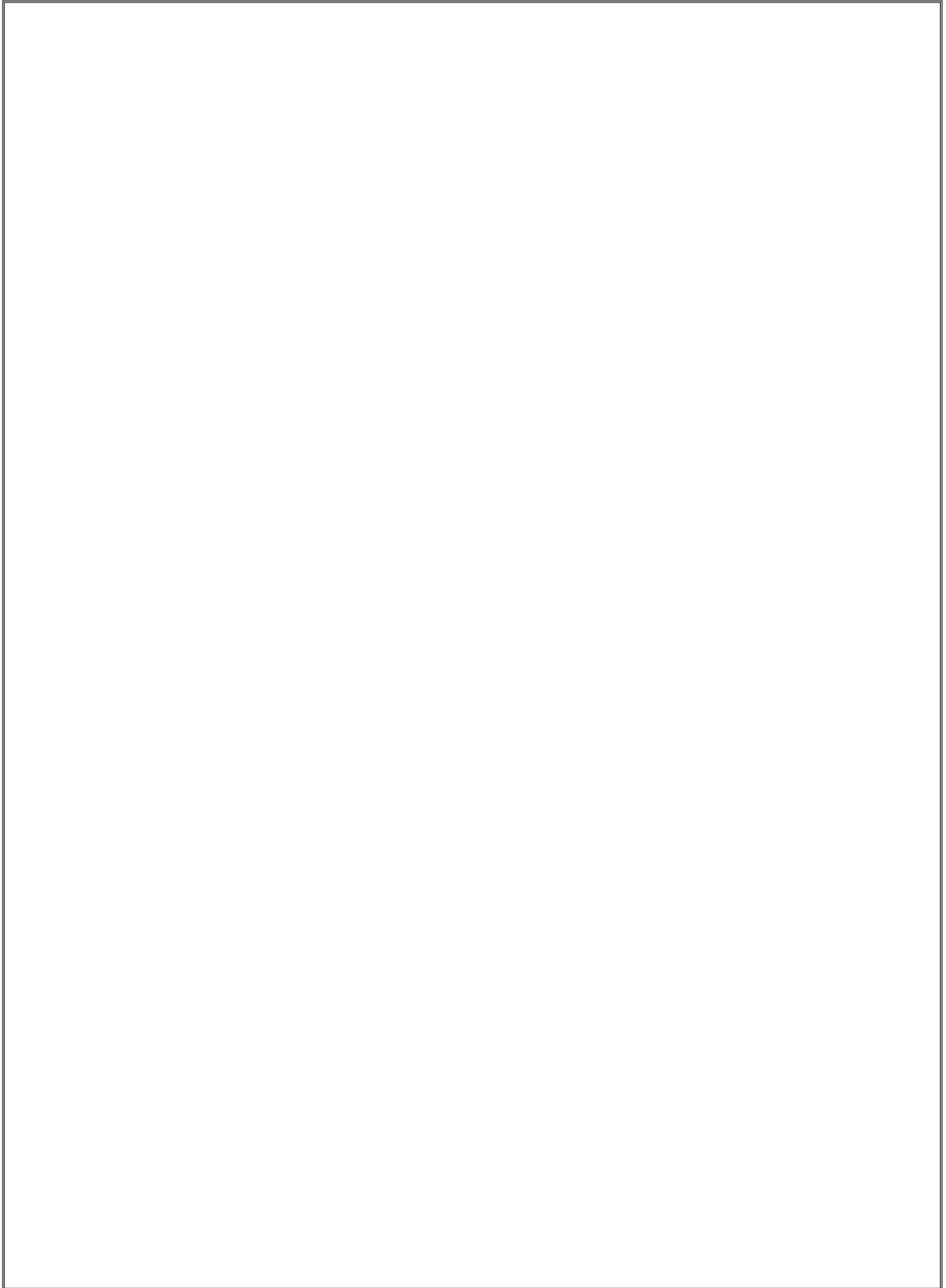
- 비평 부문 심사위원 유인선

장려 : 이고은, <초단편 영화 <그물>>

<초단편 영화 <그물>>은 ‘미령’이라는 인물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고립되어 가는지를 보여 준다. 미령은 친구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들의 노력을 폄하하며 다른 친구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령이 한 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그녀에게 덧씌워지는 ‘그물’은 인간관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그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러한 고립 역시 그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 시나리오 부문 심사위원 유인선

메모장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taking notes. It occupies the majority of the page area below the header and above the footer.